

1966年 8月 25日 印刷
1966年 8月 31日 發行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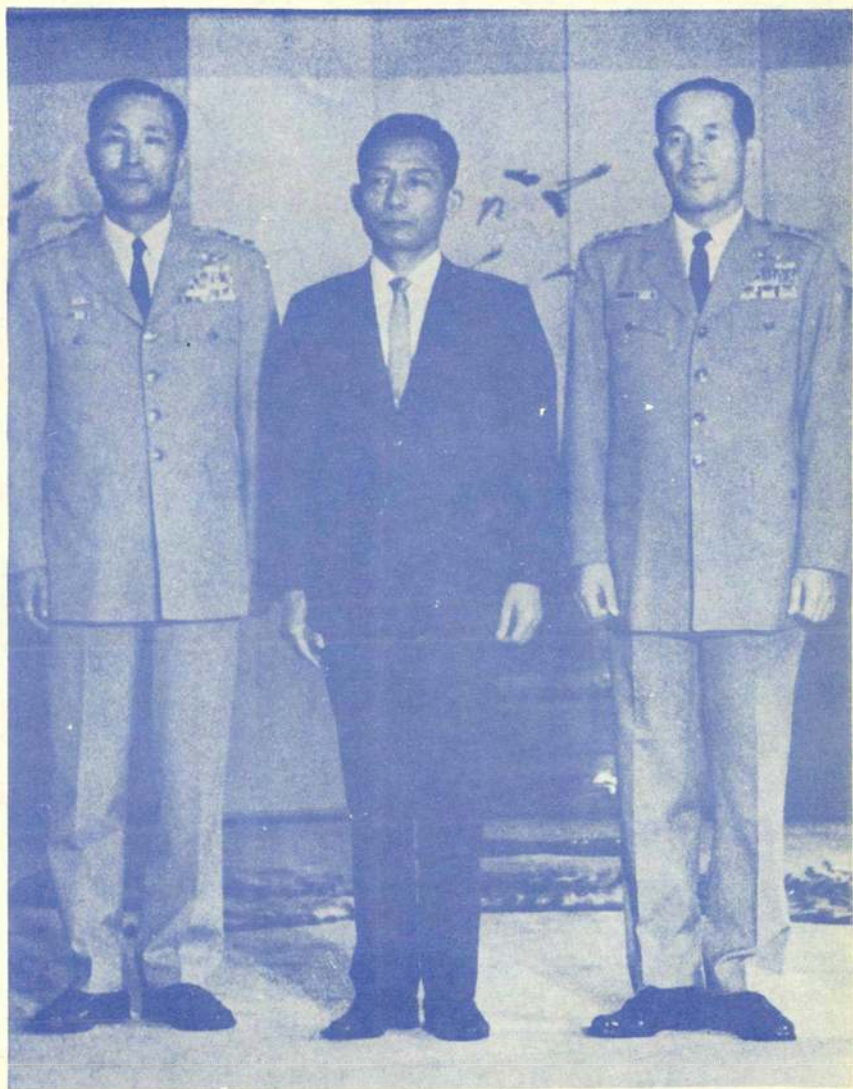
4

第 96 號



966

第9代 參謀總長 張志良中將就任



新・舊 空軍參謀總長 離就任式이 8月 1日 空本廣場에서 金國防部長官을 비롯하여 國會 閣國防委員長, 韓美高位將星, 內外貴賓과 本部 全將兵이 參席한 가운데 舉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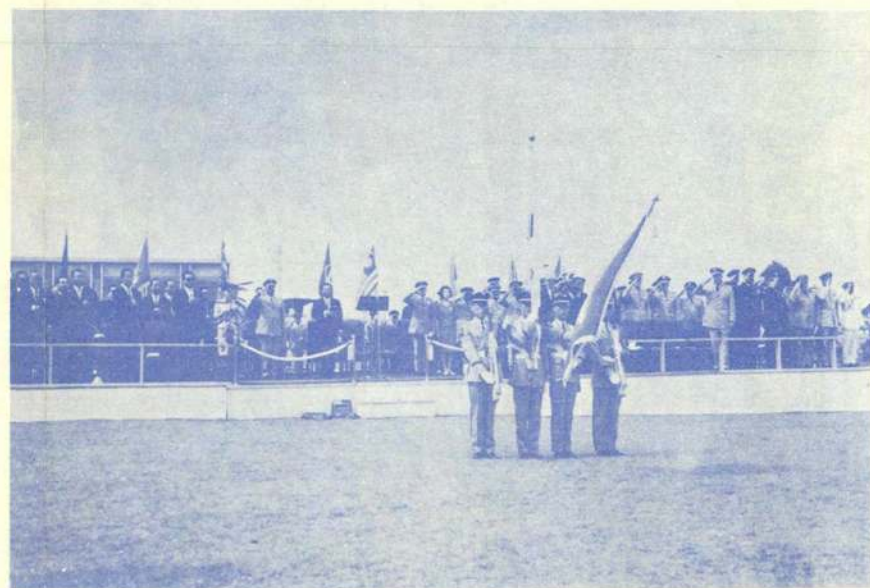
사진 : 朴大統領 閣下께 申告를 마치고 記念撮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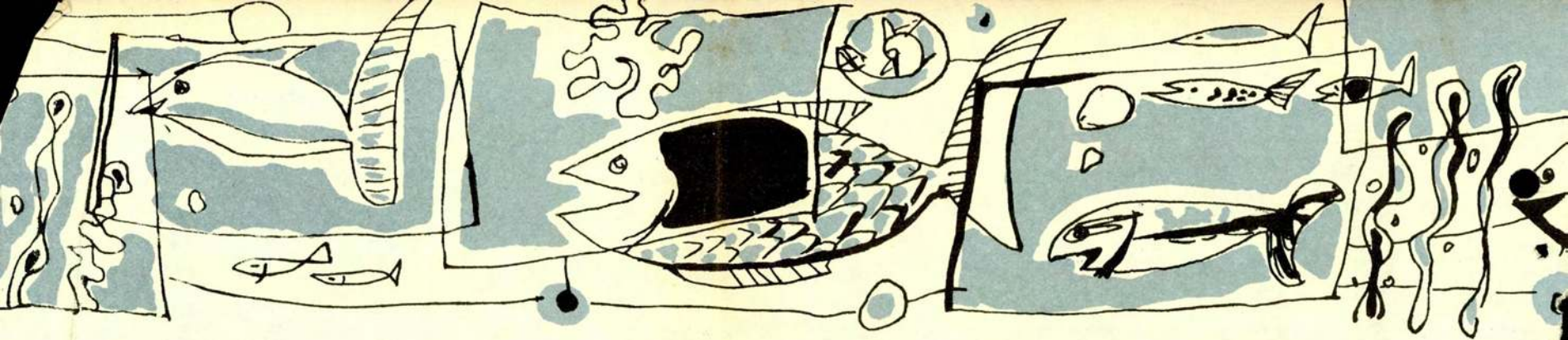
朴元錫將軍(右)으로부터 張志良總長(左)이 空軍旗
를 移讓받고 있다.



張志良 參謀總長이 就任辭를 하고 있다.



이날의 式場光景: 國旗에 對한 敬禮



조금과 그리스도인... 생의方向轉換...戰場에 된 點...正義에 立脚한 軍人...삶과 죽음...그분은 갓어도...

송 종철 (二七)
김 신도 (二九)
이 영렬 (三三)
김 두식 (三四)
한 학수 (四四)
최 영자 (四四)

特輯 韓國戰爭의 現代史的 意義

韓國戰爭의 現代史的 意義...李炯錫 (二六)

韓國戰爭 概觀...洪準杓 (三一)

韓國戰爭中의 空中作戰...崔在翼 (三七)

351 高地 爆擊作戰
平壤 大爆擊作戰

死線의 自然 / 故金英煥將軍 遺稿
勝湖里鐵橋 爆擊作戰 / 故俞致坤將軍 遺稿
恥辱의 그날 6.25
詛呪의 惡夢
國防部政訓涉外局長 金炳律 (五三)
朝鮮日報社會長 方一榮 (五五)

對談·韓國倫理의 基調確立 (記錄) 白 杓 (二〇)

姜元龍博士·高範瑞教授 / 司會 / 李連洙 准將

基督教과 共產主義의 理論的 對決...金在俊 (五九)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宗教...金蒙恩 (六三)

美空軍大學 CSC 教育을 말한다 (序說) 金 淳 慶 (五六)

美空軍大學 CSC 教育을 말한다 (序說)

將	兵	교	너
上士階級章	보람을 느낄 때	沈 洙 明 (一五)	
軍人과 우산	俸給난	김 영 대 (一七)	
매물은 階級章		申 世 浩 (一六)	
		박 태 호 (一八)	

孫子兵法으로 본

韓國戰爭 ①...李鍾學 (二二)

韓戰에의 脫出 / 액초더스 / ⑤

連	戰
身元調査制度의 改善方向 ②	榮光에의 脫出 / 액초더스 / ⑤
조련의 스파이 ④	文 赫 (譯) (三九)
世界作家의 巡禮 ⑤ (토스도에 프스키篇)	車 孟 震 (六八)

復讐의 一發...曹圭化 (譯) (三三)

어떤 選擇...崔姬淑 (三三)



◇ 死闘 끝에 愛機 安着

1 戰飛 李春達大尉의 壯舉! —
 1 戰飛團 16 飛行大隊 所屬 教官 操縱士 李春達大尉은 6 月 23 日 T-33 飛行訓練中 不意의 事故로 因한 空中爆發 直前에서 死闘 끝에 愛機를 滑空으로 基地에 安着시켰다.



巨大한 輸送機, C-54 새로 導入

空軍戰力 增強計劃의 일환으로 7 月 8 日 大型輸送機 C-54 (스카йма스터) 2 대가 1 次로 새로이 導入되었다.



◇ 朴大統領閣下·揮毫下賜

——第 111 飛行大隊에——

朴正熙大統領 閣下는 6 月 6 日 第 11 戰飛團 111 飛行大隊에 樹立한 3 萬時間 無事故飛行을 祝賀하고 「機人同體」라는 親筆의 揮毫를 同大隊將兵에게 下賜하였다.

공군

<제 96 호>



1966년 4호

<非賣品：無斷轉載禁>

發 行 處：	空軍本部政訓監室
發 行 兼 編 輯 人：	空軍大領 白 晶 鉉
印 刷 處：	空 軍 教 材 廠
印 刷 人：	空軍大領 朴 性 鎮

就任辭

參謀總長 空軍中將 張 志 良



國防長官님, 「유엔」軍司令官, 歷代參謀總長님, 內外貴賓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空軍將兵 여러분!

오늘 多忙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식전에 왕립하여 주심을 본인은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空軍이 창설 이래 급일에 이르기까지 歷代總長을 비롯한 선배 동지 여러분들의 心血을 경주한 값진 貢獻은 실로 無에서 有를 창조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時速 100 「마일」의 空軍으로부터 6만 「피이트」高空을 1,000 「마일」의 超音速으로 작전하는 現代空軍으로 비약 발전하여 온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장병 여러분은 再認識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 空軍의 歷史的인 時點에서 불

때 오늘 離任하시는 朴元錫將軍님께서 그 동안 명석한 判斷力과 강한 實踐力으로 新銳機 導入을 비롯하여 防空網의 대폭적인 보강과 臨戰態勢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등 그 다대한 공적은 空軍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본인이 空軍 參謀總長으로 취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重責完遂에 보다 무거운 사명감을 통감하는 바이며 한편 스스로 그 능력에 대하여 念慮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上司先輩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힘입어 장병 여러분과 더불어 본인이 온갖 情熱과 忠誠을 오로지 공군발전을 위하여 바칠 작오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 은거래는 一致團結하여 大統領閣下의 領導下에 祖國近代化의 길을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軍은 이 민족적인 課業을 이룩함에 있어서 항상 그 선봉적인 役割을 하여야 함을 자각하고 그 隊列에서 일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또는 國外로는 自由陣營의 安全保障과 共同防衛의 崇高

한 정신으로 역사상 처음 있는 越南派兵이 실현되었고, 현재 자유우방과 더불어 滅共戰線에서 혁혁한 戰果를 올림으로써 우리 국군의 위용을 온 세계에 과시해서 자유 아시아의 반공지도 국가로서 國威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空軍의 활동 공역은 멀리 東南亞로 확대 신장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空軍의 임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것이며 앞으로 그 責任은 더욱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이 벅찬 任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空軍은 앞으로 계속 증강, 현대화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增強과 現代化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들의 전도에는 人的·物的 여러가지 분야에 걸쳐 허다한 難關에 봉착할 것을 예측하는 바입니다. 이들 難關의 극복은 오직 大統領閣下께서 下賜하신 「機人同體」의 旗幟 아래 우리 전장병들은 철석같이 團結하여 술선수범하는 정신으로 충성을 발휘함으로써 말은바 責任完遂에 最善을 다하고 한편 空軍作戰의 특성을 명백히 인식하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戰術運用을 기함에 있는 것입니다.

장병 여러분! 현대전은 科學戰임에 고도의 知識과 技術을 요구하고 또한 유기적인 조직훈련과 사전준비, 신속한 反擊 또는 선제 기동을 함으로써 전승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현대 항공전에 있어서는 人的·物的 요소의 확보, 우수한 武器體制, 견고한 기지시설의 완비, 주도면밀한 事前計劃 등이 유기적으로 조직되고 훈련되어 何時라도 出動可能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勝利의 關鍵은 常備態勢와 신속한 反動能力으로서 發射直前의 전투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편 敵도 우리에 못지 않게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해 철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우리 空軍을 진정한 人間關係의 調和를 토대로 이룩하고 부분적인 과학적 관리를 한데 뭉쳐 통합적인 노력의 집중으로 강력한 戰鬪常備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장병 여러분의 적극적인 參與와 자발적인 努力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오늘과 같은 空軍으로 발전하기까지 한결같이 聲援하여 주신 國民 여러분 그리고 陸軍, 海軍, 海兵隊의 협조와 美空軍의 헌신적인 지원에 거듭 심심한 感謝를 드리며 앞으로 끊임없는 指導와 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榮光된 자리에서 空軍建設에 礎石이 된 선배 동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離任하시는 朴將軍의 앞날에 더 많은 榮光과 幸福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離任辭

空軍中將 朴元錫



國防長官님, 內外貴賓 여러분! 公私間에 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枉臨해 주셔서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하며 기쁨을 禁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大統領閣下, 上司 여러분의 끊임없는 指導鞭撻과 全將兵의 성실한 任務遂行과 顧問團의 友好的인 協助을 받아서 重責을 大過없이 완수하고 명예롭게 豫編하게 되어 충심으로 여러분에게 感謝드립니다.

오늘 本人의 後任으로 指揮權을 이양받는 張將軍은 탁월한 軍事識見으로 空軍創設以來 軍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尊敬받는 將軍입니다. 張將軍의 훌륭한 領導力은 空軍의 앞날에 革新的 發展이 있을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親愛하는 將兵 여러분!

本人은 2년 전 參謀總長職에 취임할 당시에 「우리는 現在 知識의 鬭爭과 意志의 鬭爭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달플 때는 敵도 우리 못지 않게 고달프다」고 했읍니다. 解放以後 아작도 國民의 宿願인 南北統一을 이루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달픈 歷史를 겪어왔읍니다만 우리는 統一을 이룩하고 眞正한 平和와 永遠한 繁榮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온갖 智慧와 굳건한 意志로써 前進를 해야 하겠읍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國防이란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最優先의인 國家目標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국가가 東南아시아에 있어서 共產侵略을 沮止하고 自由를 지키기 위해서 歷史上 처음으로 越南派兵을 해서 國威를 세계에 떨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敵을 눈 앞

에 두고 祖國의 近代化에 總力量을 기울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며 國威를 宣揚해야 하는 國軍의 使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대한 것입니다. 이런 點을 잘 알고 있는 將兵 여러분은 앞으로 보다 强하고 훌륭한 軍育成에 全力을 기울일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本人은 다른 자도에서 軍의 存在價值를 國民教育의 道場이라고 말해왔습니다. 精神的、身體的、道義的으로 其他 모든 생활면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신장한 국민으로서의 養成을 배양해서 앞날의 우리 國家建設에 役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 볼 때 本人은 종종 將兵 여러분을 보고 「멋」 있는 男兒들이라 생각하면서 혼자서 흐뭇하게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生死與否의 순간을 다루는 惡條件下의 飛行訓練에서 人命과 財産을 구제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기쁨을 서로 나누어 왔는데 드디어는 一個 戰團大隊가 世界歷史에 드는 5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3萬時間이란 無事故記錄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서 全軍이 훌륭한 無事故記錄을 수립하고 있으며 一線 整備士의 창의적인 노력은 많은 工具와 기계를 考案 製作해서 많은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能率을 향상시켰으며 各種 精密機械의 廠 再生能力이 착착 凱歌를 올리고, 게다가 通信部隊의 僻地 근무에 있어서도 24시간 默默히 하늘을 지키는 將兵 여러분의 모습, 上部의 意圖가 全軍에 철저하게 전달되고 教育訓練、軍紀振作、福祉向上 또는 物資管理改善等等 광범위하고도 무거운 責任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各級指揮官 參謀들의 정성어린 努力等 이루 말할 수 없는 智慧스러운 躍動等은 보다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空軍의 將來를 기약할 것으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空軍은 本人의 人生의 故鄉입니다. 많은 추억을 담고 여러분과 작별합니다.

將兵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보다 더 空軍을 자랑하고 空軍의 名譽를 빛내주기 바라며 여러분의 健闘와 軍의 永遠한 發展을 빌며 이만 離任辭를 맺겠습니다.

우리 憲法이 걸어온 길

— 政府樹立에서 第3共和國까지 —

朴 一 慶

△慶熙大 教授▽

1. 大韓民國 憲法の制定

解放後 3년의 混亂期를 겪은 다음, UN 監視下에 시행된 1948년 5월 10일의 總選舉의 결과 198명의 國會議員이 選出되고 第1代國會는 5월 31일에 처음으로 開會하였다. 國會는 開會當日 憲法起草委員 30人和 專門委員 10人을 選出할 것을 決議하고, 이에 따라 6월 3일에 憲法起草委員이 選出되고 이들이 다시 專門委員을 위촉하였다. 그리하여, 6월 3일부터 同 22일까지前後 16회에 걸쳐 起草委員 및 專門委員 連席下에 會議를 개최하여 世稱 俞鎮午氏 草案을 中心으로 憲

法草案을 신중히 討議 決定하고, 6월 23日에는 憲法草案을 國會 本會議에 上程하였다. 國會 本會議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활발한 討議가 전개되고 한때는 憲法の 조속한 通過가 어렵게 보였지만, 國內外의 事情으로 보아 8월 15日까지는 政府樹立을 內外에 宣布하지 않으면 안 될 情勢이었으므로, 6월 29일부터는 急速度로 審議를 進行하여 드디어 7월 12日 待望의 大韓民國憲法은 國會를 완전히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 憲法은 7월 17日 당시의 國會議長 李承晚博士의 署名을 받고 公布・施行되게 되었으며, 이 憲法에 의거하여 政府가 樹立되고 同年 8월 15日 大韓民國政府의 樹立이 內外에 널리 宣布되었다.

2、第1次改憲

制憲國會인 第1代 國會의 任期(2年)가 거의 끝나려
던 1950年 2月 內閣責任制의 채택을 主要骨子로 하
는 改憲案이 徐相日議員을 비롯한 韓民黨系 國會議員들
에 의해서 제출되었으나, 同改憲案은 同年 3月 14日
表決 結果 出席議員 179명 중 可 79、否 93、棄權 6、
無效 1로 당시 憲法改正에 필요한 在籍議員 3分の 2
以上的 贊成을 얻지 못하여 否決되고 말았다.

1951年 「1·4」後退로 國會와 政府가 모두 釜山
에 피난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第2代 國會의 黨派
別 構成으로 보아 종전의 憲法과 같이 大統領을 國會로
하여금 選舉하게 하여서는 당시의 大統領 李承晚博士가
再選될 可望은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政府는 1951
年 11月 大統領 直選制와 兩院制의 채택을 主要骨子로
한 改憲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國會는 翌年 1月 18
日에 이 改憲案을 可 19、否 143、棄權 1이라는 壓
倒의 多數로서 否決하는 한편, 同年 4月 郭尙勳議員을
비롯한 國會議員 123명의 署名으로 또다시 內閣責
任制를 主要骨子로 하는 改憲案을 제출하였다. 이에 對
抗하여 政府는 同年 5月 이미 否決된 政府側 第1次 改

憲案을 若干 修正한 第2次 改憲案을 제출하였다. 그 후
政局은 國會側과 政府側이 各已 제출한 兩改憲案을 中心
으로 큰 政治波動을 겪었는데 약 50日間 계속된 政治
的 混亂은 당시의 國務總理 張澤相氏를 中心으로 마련된
世稱「拔萃改憲案」이 同年 7月 4日 夜間國會에서 통과
됨으로써 一段落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波動을 겪고 이
루어진 第1次 改憲은 一面에서 大統領 直選制와 兩院制
를 채택하여 政府의 主張을 貫徹시키는 대신, 他面에서
는 國會의 體面을 살리기 위해서 內閣責任制의 要素를 加
味한 것이지만, 그 根本的意義는 大統領 直選制를 채택함
으로써 李承晚博士의 再執政을 可能케 하는 점에 있었다.

3、第2次改憲

第2代 國會의 任期滿了를 不過 4個月 앞둔 1954
年 1月 政府는 우리나라 經濟體制의 重點을 보다 더 自
由 經濟體制로 옮긴다는 趣旨下에 당시의 憲法 第6章의
 이른바 「經濟條項」의 大幅의 修正을 主要骨子로 하는 改
憲案을 제출하였다가 同年 3月 그의 撤回을 요청하고 國
會는 3月 15日 이를 承認하게 되어 同改憲案은 廢棄
되고 말았다. 第3代 國會議員 總選舉에서 改憲을 公約
의 하나로 標榜한 自由黨은 第3代 國會에 들어와서 19

54年 8月 李起鵬議員의 135명의 署名으로 李承晚博士에 대한 重任制限의 撤廢를 비롯하여 國民投票制의 채택、國務總理制 및 國務院連帶責任制의 廢止、自由經濟體制에의 移行 등을 主要骨子로 하는 大幅의 改憲案을 제출하였다. 同年 11月 27日 이 改憲案에 대한 國會의 表決 結果는 在籍議員 203명중 可 135、否 60、棄權 7、缺席 1이었다. 이에 대하여 表決 當일인 27日에는 否決이라고 一旦 宣布되었지만、2日 후인 29日의 國會 本會議에서 自由黨所屬 議員들은 世稱「四捨五入」의 怪論을 根據로 同 改憲案의 通過를 주장하고 野黨議員의 總退場裡에 自由黨議員만으로써 그 通過를 確認하였다. 「四捨五入改憲」으로 惡名이 높은 이 第2次 改憲은 1954年 11月 29日자로 大統領이 이를 公布함으로써 事實上 施行되게 되었지만、그 根本意義는 李博士 및 自由黨의 永久執權을 可能케 하려는 데 있었다.

4、第3次 改憲

第2次 改憲으로부터 5年餘의 歲月이 경과한 1960년 建國 후 12年에 걸친 李政權의 獨裁的인 非民主政治가 同年 3月 15日에 施行된 大(副)統領 選舉에서

絶頂에 이르자、이를 糾彈하는 示威가 京鄕 各地에서 蜂起하였거니와 특히 同年 4月 19日 및 4月 26日의 서울에서의 兩大義舉는 4月 26日 李承晚大統領의 下野聲明을 가져왔고、이에 呼應하여 國會(民議院)는 이날 「過渡內閣下에서 完結한 內閣責任制 改憲을 斷行하고 改憲通過 후 民議院을 解散하고 總選舉를 즉시 施行한다」는 時局收拾決議를 함에 이르렀다.

이 決議에 따라 구성된 內閣責任制改憲委員會는 먼저 世稱 民主黨案과 自由黨革新派案을 종합하여 改憲要綱을 作成한 후 公聽會를 거쳐 이를 條文化하고 다시 院內各派代表와 政府・法院側의 連席會議에 回附하여 最終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作成된 改憲案은 國民의 基本權의 強化、內閣責任制의 採擇、憲法裁判所의 設置、大法院長과 大法官選舉制의 채택、中央選舉委員會의 憲法機關化、警察의 中立、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制의 채택 등을 主要骨子로 하는 本文 52項目、附則 15項目에 달하는 廣範圍한 것이었으며、鄭憲柱議員의 174명의 署名으로 同年 5月 11日에 제출되었다. 同年 6月 10日 國會本會議에 上程된 이 改憲案은 6月 15日 在籍議員 218名중 贊、208、否 3、缺席 7의 壓倒的 多數로서 國會를 통과하고 同日자로 公布됨으로써 第3次 改憲이 이루어졌다.

5. 第4次改憲

第3次改憲에 의한新國會가 구성되고新政府가樹立된 후의政局은 이른바 反民主行爲者의處罰을 위한特別法을制定할 것이냐라는問題를 둘러싸고 소란한바있었는데, 이들 反民主行爲者에 대한 1960年 10月 7日의 서울地方法院判決이寬容하였던 것을 계기로해서政局은 더욱 소란하여져서 끝내 11月 4日 義舉負傷者들의民議院議事堂亂入事件이發生하였고, 이에 反民主行爲者 處罰을 위한特別立法의 根據가 될 改憲을要求하는世論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民議院 尹亨南議員의 117명은 同年 10月 第3次改憲에 새로이 3個項目의 附則을追加하는形式의改憲案을 제출하였다. 그 후 이改憲案은 同年 11月 23日 民議院에서 表決한 결과 在籍議員 233명 중 贊 191, 否 1, 無效 6, 棄權 2, 缺席 33으로可決되고, 同月 28日 參議院에서 表決한 결과 在籍議員 58명 중 贊 44, 否 3, 無效 2, 棄權 3, 缺席 6으로可決되었다. 이改憲은 11月 29日에 大統領에 의하여公布됨으로써 여기에 第4次改憲이 이루어졌는바, 그要旨은 첫째, 3·15不正選舉에 관련된者와 4·19義舉를

強壓하가 위하여殺傷기타 不正行爲를한者를處罰한特別法을制定할수 있는 根據, 둘째, 4·26 以前의 反民主行爲者의 公民權을制限한 特別法과 4·19 以前의 不正蓄財者에 대한處理를 위하여特別法을制定할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바, 이러한 遡及立法은自由民主國家의 常例에는 없는 일이다.

6. 第5次改憲

(1) 5·16革命

第3次改憲 후 執權하게된 民主黨政府는 內閣責任制의長點은具現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制度의 가장弱點인黨派의分裂·鬭爭으로因한弱體政府、政治人의不正腐敗라는 폐단을 나타냈다. 이러한政界의不安定위에雪上加霜格으로一部國民의無自覺한放縱과容共親共勢力의亂舞는社會秩序는 물론國家基本秩序도위태롭게하였다.

여기에, 共產侵略으로부터祖國을救出하고舊惡과腐敗를一掃하며飢餓와民生苦를덜어祖國을참다운民主共和國으로再建하기위한다는趣旨下에, 1961年 5月 16日의軍事革命이이루어졌다. 그후同年 6月

6일에 制定・施行된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革命期間 동안의 最高統治機關으로서 國家再建最高會議을 두고 自由民主國家의 正常時에는 그 예가 없는 強力한 權力集中主義를 채택하였으며, 憲法에 규정된 國民의 基本的權利로 革命課業遂行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보장하는 등 憲法의 一部效力을 停止하게 되었다.

(2) 憲法의 全面的改正——現行憲法

1963年 여름 頃에 民政을 移讓할 것을 前提로 第3共和國의 基盤을 마련하기 위한 憲法改正이 1962年 봄부터 널리 論議되게 되었다. 國家再建最高會議은 1962年 7月 憲法審議委員會를 조직하여 改憲草案을 마련하는 한편 主要 諸都市에서 公聽會를 여는 등 널리 輿論을 듣고 多角度的의 檢討를 거친 끝에, 1962年 11月 國家再建最高會議 朴正熙議長의 23명의 最高委員의 署名으로 改憲案을 제출하였다. 이 改憲案은 종래의 憲法의 全面的改正案인데, 그 主要骨子는 4·19義舉와 5·16革命의 理念의 前文에의 挿入、基本權의 強化와 調整、現代의政黨制度에의 指向、國會單院制의 채택、大統領中心制의 채택、司法權獨立의 強化와 民主化、法院에의 法律審査權의 賦與、國民投票에의 한 憲法改正등을 內容으로 하고 있었다. 그 후 이 改憲案은 1962

年 12月 6日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在籍議員 25명 중 出席委員 22명、贊成 22票로 可決되고 12月 17日의 國民投票의 결과 總有權者 1,241萬2,798명 중 投票者 1,058萬5,998、贊成 833萬9,333、反對 200萬8,801、無效 23萬7,894로 有權者 過半數投票과 投票者 過半數라는 議決定足數를 훨씬 넘는 贊成을 얻어 確定、政府는 同年 12月 26日 이를 公布하여 여기에 第5次 改憲이 이루어졌다.

그 후 革命主體勢力의 民政參加與否 및 民政移讓時期 내지 軍政延長 등의 問題로 國內政局은 重大한 波瀾을 겪었으나, 1963年 10月 15日의 大統領選舉、同年 11月 26日의 國會議員選舉를 거쳐 同年 12月 17日에 드디어 國會가 集會됨으로써 第5次 改正憲法은 效力을 發生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곧 現行 大韓民國 憲法인 것이다.

끝으로 現行憲法은 形式的으로는 종전의 憲法을 改正하는 改憲의 形式을 취하였으나 종전의 憲法이 규정하는 憲法改正의 節次(舊憲法 第98條)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實質의 으로는 國民投票에 의한 새로운 憲法의 制定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第5次 改憲의 形式을 취한 것은 大韓民國의 永續性、同一性에 대한 懷疑의 餘地를 없게 하려는 데 그 理由가 있었다.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法概念

— 韓國人の 法意識과 그 實例 —

李 恒 寧

△辯護士△

1

一般的으로 法이라고 하면 強制性을 띠면 社會規範이라
고 생각되고 있다. 卽、法은 社會規範이라는 點에서 自然
法則과 區別되고 強制性이란 點에서 道德과 區別된다. 自
然法則은 「물을 100 度가 되도록 끓이면 水蒸氣가 되고
零度가 되도록 식히면 얼음이 된다」라는 式으로 연제어
디거나 例外없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自然法則은 原
인만 있으면 結果는 저절로 생기는 것으로 아무런 人爲
의 措置가 必要치 않다. 그런데 社會規範은 社會生活
의 必要上 一定한 原因을 만들어 놓고 그 原因이 發生하
였을 때에 一定한 結果를 人爲的으로 期待하는 것이다.

가령 「남의 子孫이 된 사람은 그 父母에게 孝道를 하여
야 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남의 子孫이 된다」는
것은 原因이고 「孝道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結果이다. 自
然法則에 있어서는 「물을 100 度가 되도록 끓인다」는 原
인만 있으면 「그 물이 水蒸氣가 된다」는 結果는 저절로
일어난다. 그런데 남의 子孫되는 사람 中에는 孝道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孝道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卽、
結果는 一定하지 않다. 그러나 社會生活을 하여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子孫이 父母에게 孝道를 하여야만 社會生
活이圓滿히 되기 때문에 社會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子孫
이 된 사람에게는 그 父母에 대한 孝道를 하여야 한다고
强要한다. 「물을 100 度가 되도록 끓이면 水蒸氣가 된
다」는 것은 저절로 (存在)하는 自然法則인데 「남의 子孫

이 된 사람은 그 父母에게 孝道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저절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當爲)의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만들어 낸 社會規範이다. 社會規範中에는 宗教規範도 있고 道德規範도 있고 法律規範도 있는데, 그것이 社會規範이라는 點에는 모두 共通의이다. 앞에서 말한 「남의 子孫이 된 사람은 그 父母에게 孝道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道德規範으로서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刑法第 329條에 「他人의 財物을 절취한 者는 6年 以下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라는 것은 法律規範이다.

다음으로 法은 強制性이라는 點에서 法과 區別된다고 하였는데 「남의 子孫이 된 사람은 그 父母에게 孝道를 하여야 한다」는 道德規範과 「他人의 財物을 절취한 者는 6年 以下の 懲役 또는 5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는 法律規範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世上에는 不孝者가 많다. 그러나 不孝者라고 하여 덜어놓고 懲役을 보내지는 않는다. 不孝者에게는 良心上의 制裁는 있을지언정 國家가 強權을 發動하여 矯導所에 가두려는 일은 없다. 그 不孝의 度가 甚하여 父母를 虐待한다든지 또는 父母를 내어쫓는 따위의 일을 하면 刑法第 273條의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虐待한 者는 5年 以下の 懲役에 處한다」는 條文이나 또는 刑

法第 271條의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遺棄한 者는 10年 以下の 懲役에 處한다」는 條文에 걸려서 國家가 가만히 있지 않고 強權을 發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本人이 良心의 苛責을 느끼든지 또는 社會의 非難을 받게 되면 그친다. 即、道德規範에게 原則的으로 國家의 強制가 없지만 法律規範에는 原則的으로 國家의 強制가 따른다. 같은 社會規範이면서도 道德과 法은 그 強制性의 有無에 따라서 區別된다.

一般的으로 法은 強制性을 띤 社會規範이라고 하는 것은 社會規範이라는 點에서 自然法則과 區別되고 強制性이라는 點에서 道德과 區別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法의 概念에 대한 一般的인 생각이다.

2

그런데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法의 概念에 비해서 一般的인 생각과 多少 다른 點이 있다. 即、法은 社會規範이니까 自然法則과 區別된다고 생각하는 一般的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 社會에서는 社會規範도 法도 自然法則과 같이 저절로 存在한다는 생각이 있고 또 法과 道德의 區別는 國家의 強制性의 有無에 있다고 하는 一般的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 社會에서는 法에 있어서는 強制性이 그다지 重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社會에 있어서

의 이와같은 思考方式은 自然法則과 社會規範의 區別을 模糊하게 하고 또 法과 道德의 區別을 抹消시키는 結果가 되는데 이와같은 생각은 何必 우리나라의 固有한 思考方式이 아니라 大體로 東洋에서 古來로부터 내려오는 思考方式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는 법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벼락을 맞는 법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봄 다음에 여름이 오는 법이다」의 「法」은 自然法則을 말하는 것이요, 「나쁜 짓을 하면 벼락을 맞는 법이다」의 「法」은 社會規範을 말한다. 나쁜 고 좋은 것은 社會生活의 必要上 人爲的으로 設定한 것이요, 벼락이 치는 것은 사람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自然히 發生하는 法則이다. 벼락은 벼락을 칠만한 原因이 있으면 自動的으로 치는 것이요, 그것을 願하는 사람의 意思와는 아무 關係가 없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벼락이 내리기를 願하지만 벼락이 내리는 것은 社會規範이 아니라, 自然法則이다. 이와같이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社會規範과 自然法則을 混同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法概念의 特色의 하나이다.

西洋 사람들은 「사람은 孝道를 하야 한다」는 規範意識을 가지고 孝道를 하는 것을 價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社會에서는 그러한 規範意識과는 關係없이 저절

로 孝道를 하는 것을 더욱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의 子孫이니까 孝道를 해야 한다고 規範意識을 가지고 孝道를 하는 것보다 그러한 생각도 없이 저절로 孝道를 하는 것이 진짜 孝道라고 생각한다. 法에 있어서도 「이런 짓을 하면 아니된다」는 法條文이 있으니까 그 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法條文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良心에 비추어 法을 지키는 것이 진짜로 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即, 우리나라에서는 規範이 法則과 融和되어 있다.

다음에 西洋에서는 道德을 어기면 良心의 苛責을 받음에 그치나 法을 어기면 國家의 強制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그 法을 어기면 國家의 強制를 받고 안 받는 것보다도 良心의 苛責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그 法이 진짜로 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진다. 가령 日帝時代에 우리 韓國民族이 獨立運動을 하는 것은 法으로 禁止되어 있었다. 그런데 民族의 良心에 불타는 獨立志士들은 監獄에 가는 것을 覺悟하고 獨立運動을 하였다. 그들은 道德에 어긋나는 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即, 眞正한 法은 道德과 一致되어야만 하고 道德에 어긋나는 것은 法으로서의 價値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人間의 尊嚴性은 良心을 두려워 하는데 있고 決코 強制를 두려워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良心

의 命令이 法條文의 命令보다 더 優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法에 대한 생각이다.

3

自然法則과 社會規範을 峻別하는 것은 所謂「二元論」이라고 하여 西洋에서는 特히「칸트」가 나온 뒤에 많이 發達된 思想이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所謂 實存主義哲學이 發達하여 自然法則과 社會規範을 嚴格히 따지는 것보다 그것을 綜合的으로 생각하는 것이 流行한다. 이것을 哲學的으로서는 存在論이라고 한다.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法概念은 一種의 存在論的 思考方式이다.

또 道德과 法을 嚴密하게 區別하는 것도 法實證主義라고 하여 西洋의 近代의 思考方式이 있었는 데 요즘에서는 西洋에서도 道德과 法을 接近시키는 思考方式이 流行한다. 지금까지는 道德은 어디까지나 道德이요 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法이라고 한다면 法條文으로 制定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요즘에 와서는 法에는 法條文으로 制定된 것도 있고 法條文으로 制定되지 않더라도 道德과 같이 自然히 存在하는 法도 있다고 하고 制定된 法은 實定法이라 하고 自然히 存在하는 法은 自然法이라고 하여 自然法도 훌륭한 法이라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이와 같은 思想을 自然法思想이라고 한다. 우리 社

會에 있어서의 法概念은 一種의 自然法思想이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法概念은 自然法則과 社會規範을 綜合的으로 생각하고 道德과 法을 結合시켜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偶然히 西洋의 새로운 法律思想과 一致되는 것이다.

(海)

(外)

(토)

(픽)

盜癖의 大公 制폭, 適用法으로 골치

불란서 경찰당국은 절도의 비릇이 있는 개 한마리를 체포, 조사한 결과 「스키」장 부근에서 많은 장물을 눈속에 파묻어 둔 것을 발견했다. 시 당국자는 이 개를 잡아 놓고 「그렇다고 이 개를 재판소에 끌고 갈 수는 없고……」라고 머리를 가우뚱—

(모르진 (佛) || UPI)

蘇서 恐怖計量器

공로계량기가 우주상으로 발사되는 우주인들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타스」通信이 보도.

이 계기는 누구에게나 2 곱하기 2를 해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두려움까지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모스크바 || 로이타)

소련社會에서의 法概念

李 尤 貞
球 卡 載 抄 譯

소련에서는 法을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가? 獨裁國家인 소련 에도 우리가 이해하는 內容의 法概念이 存在하는가? 法이 있다면 그 存在理由는 어디 있는가? 소련社會의 變遷에 따라 그 法概念은 어떻게 變해 왔는가? 소련의 解氷이 곧 法概念의 變모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解答으로 오스트레일리아 國立大學校의 特別 研究員인 카멘카教授의 論文을 紹介한다.

「法이란 政治의 手段이며 바로 政略이다」라고 레닌은 말했다. 소련 法理論의 바탕을 檢討해 보면 이 같은 概念이 철두철미 소련의 全 法構造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 法의 배후에는 無產大衆의 獨

裁를 強化키 위한 무자비한 意圖가 숨어 있다. 法, 財産, 契約, 私犯 및 刑罰의 모든 面에 있어 이 같은 法概念은 反革命의 抗拒를 粉碎하고, 資本主義의 生活風 習으로부터 勞動者들을 解放하여 共產主義社會原則이 通用될 수 있는 社會建設이라는 三重의 課題를 達成키 위한 것이다. — 헤론드 J. 라스키의 「소련法과正義」에서.

칼 마르크스는 法에 對해 否定的인 態度를 갖고 있었다. 「合法性」, 추상적인 「正義」 및 「權利」란 아무런 價値가 없는 것으로 기껏해야 奴役한 自由主義者들을 相對하는 데 利用되는 「뇌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에게 法이란 彈壓과 階級支配의 道具로서 階級支配의 基本原則과 支配

階級의 特殊權益을 保障키 위한 制裁手段이었다. 法은 個人을 그의 社會的環境과 社會生活로부터 抽象한데 根據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資本主義市場이 人間의 產物、勞力 나아가서는 人間 自身까지도 商品化하는 것처럼 法은 人間을 自己 以外의 어떤 것에 隸屬시키고 人間을 社會生活의 主體가 아니라 客體化한다는 것이다. 그가 볼 때 法이란 人間이 相對方을 犧牲시키므로 生存케 되는 敵對的인 階級으로 分裂된 社會에 發生하고 維持되는 것이었다. 私有財産이 剝奪되고, 그 대신 社會의 生産組織이 이루어지고, 眞實한 社會의 權益이 確立되며, 人間이 歷史의 客體가 아니라 主體가 될 때 強權의 必要性은 사라지고 法과 國家도 소멸된다는 것이다. 「權利와 義務는 有產階級社會

에만屬하는 矛盾의 補充의인 兩面이다」라고 그는 「獨逸의 이데올로기」에서 말한 바 있다. 7年後 「뉴우요르크 트리뷴」의 論說에서 그는 「刑罰은 社會의 存續條件의 侵害에 對한 社會自體의 自己防衛에 不過하다. 死刑執行人外에 다른 防衛手段을 갖지 못한 社會는 얼마나 不幸한 社會인가?」라고 말한바 있다.

革命前 러시아의 歷史와 社會의 條件을 볼 때 마르크스의 法에 對한 攻駁에 그럴 듯한 一面이 있다. 東슬라브族 歷史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는 「緊迫한 事態」—몽고族, 스웨덴族 및 리노비안騎士들의 侵略: 中央集權化한 모스크바公國의 出現: 土地와 農民 및 貴族와 農奴制度—는 必然의으로 國家를 權威의인 國家가 되게 했으며 法은 십사리 一連의 命令이 되게 하였다. 農民과 마찬가지로 大部分의 知識人에게 있어 法은 笞刑을 意味했다. 그것은 國家가 知識人을, 領主가 農民을, 男便이 婦人을 抑壓하는 手段이었다. 法이 形式的으로 權利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權威主義的 社會에서는 無用之物에 不過한 것이었다.

共產主義 法律家들은 소련이 成文法을 土臺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大衆의 直接의인 創意的의 結果로 登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정부의 訓令들은 傳統的인 意味의 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로마法의 死體」가 아니라 正義에 對한 우리의 革命的良心이 民事關係에 適用되어야 한다고 1922년에 케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訓令中 여러가지 點이 履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리 문제 가 안 된다. 訓令이 해야 할 일은 大衆에게 實際的인 措置를 취하는 方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는 訓令을 모든 環境 아래에서 實踐되어야 할 絕對的인 規則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訓令이란 「權力的 이름으로發表된 黨의 計劃이었으며 行政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黨의 宣傳을 위한 手段」이었다.

法院은 法에 依해 재판하는 것보다 「良心」에 의해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特別 革命裁判所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15條……法院은 良心에 의해서 그 自身의 確信을 根據로 裁判한다.

18條……罪人에게 刑罰을 課함에 있어 法院은 어떠한 現存法律에 拘束을 받지 않고 現存法律을 恣意로 利用할 權限이 부여되어 있다.

法律相이었던 푸르스키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有產階級の 判事는 成文法을 解釋함으로써 그것은 다만 補充할 수 있을 뿐이었다. 無產階級の 人民裁判所는 이보다 광범한 권한을 갖고 있다. 基本的인 機能에 있어—刑事事件—人民裁判所는 絕對的으로 自由롭고 모든 法意識을 超越해서 存在하는 것이다.

1927년 당시의 소련 최고재판소장이었던 스푸리키는 「共產主義란 社會主義 法的 勝利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法에 對한 社會主義의 勝利를 意味하며 經濟的利益에 따른 階級이 泯滅되면 法은 完全히 소멸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

다. 이것은 分明히 불세비크가 政權을 잡은 후 法에 對한 公式의 態度였던 것 같다.

1921~28년에 新經濟政策 「NEP」이 實施됨에 따라 國家의 許可에 따라 貨幣와 個人商業、企業 및 富農이 다시 出現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에 適應키 위한 詳細한 立法措置가 취해졌다.

그러나 新經濟改革이란 臨時의 部分의 이며 엄격히 統制된 資本主義市場의 復活에 不過했다. 따라서 이에 必要한 法은 恒久的인 社會主義法이 아니라 후에 資本主義에 對한 讓步가 취회될 경우 사라지게 될 資本主義型에 맞추기 위한 一時的인 立法措置였던 것이다.

1928년 新經濟政策이 포기되고 第1次 5個年計劃이 實施되자 有産階級의 法은 소멸되고 그 대신 社會主義의 計劃이 登場케 되었다. 모스크바大學長이었던 파슈카니스는 1930년 「소련과 法的革命」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有産階級의—資本主義社會에 있어 法的 上部構造는 資本主義의 企業가들이 所有

하고 있는 經濟力의 전고한 移動體系를 反映하기 때문에 最大의 固定性—最大의 安定性—을 갖게 되나 共產主義社會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法이 最大의 融通性을 갖기를 要求한다. 우리에게 있어 法은 政策과 關聯해 볼 때 從屬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체계적인 無産大衆의 政策은 갖고 있으나 無産階級의 法律制度를 가진 必要性은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가진 파슈카니스의 著書는 黨이 法 위에 存在하며 黨이 바로 法이라는 불세비크의 立場을 強化해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恣意的인 逮捕、行政的處罰 및 秘密裁判等을 可能케 했다. 그것은 「社會主義建設」을 法보다 優位에 놓음으로써 당시 검찰차장이었던 안드레이 비린스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소련法庭에서의 辯護는 深遠한 原則 위에서 있어야 한다. 辯論의 原則은 社會主義建設의 原則과 同一하다. 辯護士는 被告를 辯護키 위한 證據를 提示함에 있어、

法廷과 檢察 및 國家가 共通의 으로 支持하는 原則과 社會主義建設 및 無産階級의 獨裁를 推進中인 國家의 權益을 옹호하는 位置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完全히 無制限의 政治的 支配를 建設하는 것과 소련人의 日常生活에서 새로이 登場된 安定과 規則性에 對한 慾求와의 사이에는 緊張感이 造成되고 있었다. 소련法廷에서는 점차 商業의 紛糾를 다루게 되고 公權의 濫用이나 官吏의 不實實로 인한 紛糾를 處理케 되었는데 종종 被告들이 下級黨官吏에게 勝訴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소련法官들이 特別社會的으로 危險視되는 不法行爲를 有罪判決함에 있어 熱誠을 表示해야 할 壓力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些少한 事件에 있어서는 점차 形式的인 合法性이 強調되었다. 그 후 1936년에 이것은 갑자기 重要한 政治問題化했다. 스탈린은 社會 再建設의 時期는 終了되었으며 소련邦은 새로운 憲法(스탈린憲法)과 「社會主義者의 合法性」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가진 社會主義時代로 들

어가고 있다고 宣言했다. 法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反對로 「社會主義」에서 法은 最高形態로 發展되는 것이다.」따라서 빠슈카니스 등은 反革命的인 요 反逆者로 破壞者란 비난을 받고 기소되었다. 이들의 同僚였던 비린스키는 「結婚이나 家族關係를 다스리는 法들도 「社會主義計劃」이란 觀點에서 規制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裁判官들은 獨立的이며 法에만 從屬한다.」라고 規定한 憲法 112條를 引用하고 있다.

1936年以後 스탈린獨裁政治期間에 發展된 「참다운 社會主義法」形態는 有產階級的이고 內容은 社會主義의 인—理論은 그리 重要한 것이 못된다. 비린스키는 階級的인 法律觀을 固守하고 있다. 그는 主張하기를 法이란 支配階級的의 權益과 支配階級에 有利한 共同生活의 遵則을 代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社會에서는 支配階級 自體가 人民과 모든 소련市民의 「참다운 權益을 代表해 주는 까닭에 有產階級社會의 法과 社會主義社會의 法과는 다른 것이다.

그 당시 「社會主義者의 合法性」이란 비

린스키나 스탈린에게 있어 政治權力이 原則的으로나 實際적으로나 法的拘束을 받는 法治國家를 創設하는 것을 意味하지 않았다. 「社會主義者의 合法性」을 표방한 스탈린의 支配期間을 통해서 秘密警察은 法院이나 檢察의 介入없이 特別法에 依據犯罪을 搜查하고 處刑하고 流刑에 處한 權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스탈린主義의 法理論에는 꼭 모순적인 면이 介在해 있다. 일단 有產階級的의 制度라고 비난했던 法이 스탈린에 依하여 다시 黨獨裁道具로 變形된 것이다. 法的機能은 日常的인 社會生活에 있어 어느 程度의 規則性과 豫言可能性을 確保하는데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國家의 命令을, 法이 됨으로써 法이란 말이 주는 公平性과 非人格性을 갖도록 하는데 있었다. 스탈린이 소련 法的의 創造的役割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는 法이 소련國民 가운데 존경심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주고 소련 내의 政治權力이 갖는 恣意性和 分派的 要因을 숨겨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스탈린의 死亡、集團指導制의 登場 및

스탈린格下運動等 여러가지 解水事態와 호루시초프 自身の 失脚까지도 1936年 스탈린의 命令에 依하여 비린스키가 主導한 法革命에 비유될 소련法理論에 根本的인 變革을 가져오는 듯했다. 「社會主義者의 合法性」은 스탈린이 창안한 口號였다. 스탈린과 같이 그의 後繼者들도 法과 國家는 眞情한 共產主義下에서는 소멸할 것이라고 主張해 왔다. 스탈린은 戒嚴의 辨證法에 따라 國家와 法이 소멸되려면 그들이 最高의 發展段階에 到達해야 된다고 主張했다. 即, 우선 보다 強化된 후에야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死後 共產黨은 共產主義時代가 가까와지고 있으며 法과 國家의 소멸이 기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을 說明하면서 黨指導者들은 애초에 期待되었던 內容을 교묘히 바꾸었다. 소멸된 것은 強權 그 自體가 아니라, 形式的인 國家와 強權을 行使하는 司法機構이다. 이 司法機構는 法廷役割을 하는 市民會議과 人民의 監督機構로서 役割을 하는 委員會로 점차 代置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權力機構가 存在하게 되면 「社會主義者의 合法性」은 強

化된다고 소련政權은主張하고 있다. 이것은辨證法에 依해 認定된 矛盾이라는 것이다. 스탈린 死後의 두드러진 特徵은 스탈린 原則과의 絶縁이나 全面的인 制度上的 變化가 아니라, 恐怖가 약간 완화되고 이에 따라 過去 2, 30年 동안에 소련社會에 形成된 多元의 緊張과 矛盾의 見解의 部分的인 門戶開放이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漸増하는 專門化와 向上된 産業社會의 要求와, 다른 한편에서는 決定的인 政治的 統制力과 모든 分野에 있어 궁극적으로 絶對的인 權威를 維持하려는 黨의 要求間에 存在하는 不可避한 緊張과 關係가 있다.

이러한 環境下에서 스탈린 이후의 法理論을 體系化하려는 소련法律家들의 努力은 理論的으로 統一性이 없고 소련社會內 競爭하는 壓力間의 相對的인 勢力의 表現에 不過했다. 理論的으로 始終一貫性을 指向하는 마르크스主義는 이제 산산 조각이 나고, 소련法理論과 實際間의 緊張을 볼 때 마르크스의 色體는 이미 그 特徵이 되지 못하고 있다. 根本的으로 이러한 緊張은 行政權의, 나아가서는 共產黨自體의

權力濫用에 對하여 法的保護를 위한 非 마르크스적—「西方的」이라고도 할 수 있는—要求와 이 要求에 대처하려는 黨의 試圖을 反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소련의 法律觀은 과거와 完全히 斷切되지 못했다고 結論을 내릴 수 있겠다. 하아바드大學校의 敎授는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만약 우리가 소련法の 意圖를 觀察해 본다면 그것이 政治權力에 對한 批判을 立法이나 司法府가 調査하거나 統制할 수 없는 非公式的의 秘密裁判으로 해결하고, 思想을 포함한 經濟 및 社會生活의 全分野를 規制하려고 한다는 點에서 全體主義的인 法으로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一黨의 法이며 計劃經濟의 法이다. 또 그것은 그 機能이 소련市民을 訓練, 指導, 教育시키 集團化된 社會秩序의 犧牲的인 構成員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法이다.

소련黨指導層이 認定하는 法理論은 이것에야 西方世界의 少年法院의 실린취지

와 類似하다. 즉, 소련市民의 義務는 青年이 된 것이 되고 열심히 일하고 年長者에 順從하고 이웃과 同居同樂하는 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예나 이제나 變함이 없다.

以上과 같이 소련의 狀況이 複雜한 것은 社會主義者의 合法性이 것은 分明히 西方世界의 影響을 反映하는 것이다)과 볼셰비크의 強壓的인 温情主義와의 緊張이 어느 程度 소련社會의 모든 水準에 그리고 確實히 共產黨自體에까지 派及되어 있다는 事實에 基因된다. 現在로서 소련指導者들은 이 緊張에 대해 兩面作戰을 쓰고 있으며 볼셰비크의 温情主義에 적어도 好意를 보이지 않는 한 言論의 希望마저 막달당하는 批評家들도 같은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實際的인 結果는 스탈린 시대에 비해 불경우 훨씬 向上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法理論이나 마르크스적 世界觀에 대한 折衷的인 辯護가 法과 社會內의 法役割을 理解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共同隨筆

(兵)(營)(生)(活)

除隊者를 보내는 마음

손 형 남

△하사·10전비단▽

무더운 여름을 재촉할 6월이 지나면
서내 마음 아니 우리들의 마음에 서운
함이 있다. 매월 除隊者가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란 없지 않지만, 오늘은 더 그
러하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內
務班에 제대자가 유달리 많이 있으니
말이다.

내 자신이 내무반장으로 오랜 동안을
그들과 함께 情은 生活을 하면서 잊을
수 없는 苦樂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會者定離는 어쩔 수 없는 우리 人間事
를 이어가는 하나의 어쩔 수 없는 鐵則이 되

있거늘 우리 또한 人間이기에 이에 順
應해야 된다면 그대도 소산없는 反抗을
해 보는 것이 조그마한 나의 위로가 될
런지?

人間마다 常情이란 뒤에 지나 다 있지
만 더우기 이 생활에서 서로가 헤어질
때의 서운함이란 결코 상정에만 그칠 수
는 없는가 보다. 서운함을 잊지 못한다
면 많은 서신연락이 있으면만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

아마 그것은 來日의 보람됨을 찾기
위해 오늘의 바쁜 생활에 쫓기고 있다
는 의미로서 영원한 소식이 되버린 것
이다. 나는 그들을 생각한다.

후리후리한 키에 점잖고 말이 적은
河병장과 우리들이 「KBS」라고 별명
을 붙여준 정중한 키의 金병장을, 나는
그들에게 단체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기
합도 주고 또 때로는 「배터」도 가하고
했지 만 이는 결코 個人의 감정에서
가 아니라, 다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構成
된 이 생활을 軍人으로서 자활적인 행
동을 要求하면서 근기를 지켜 줌의

의 있는 오늘을 보내자는 우리의 마음
이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쓰라림에도 반성과 함께 단결을 굳게 하
고 화목을 이룩하는 것이다.

푸른 꿈을 안고 영원히 가버린 그들
에게 우리는 보라매의 생활에서 얻은
그 뚜렷한 활기를 가져고 사회에 진출
하여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빌어 본다.

전방有感

윤 영 화

△하사·11전비단▽

어렸을 때의 일이다.

어느 마을이고 軍人家族이 없는 마을
이 없었지만 불행(?)스럽게도 우리 집
안에는 軍人이 없었다. 해당될 만한 사
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이
웃집에 사는 나의 年長되는 사람이
어 入隊를 했다. 얼마만인가 있다가 그
가 휴가를 왔다. 온 마을이 환영했고
나도 어린 마음이었지만 부러움 비슷한

마음으로 그집까지 뛰어갔다. 그때 그가 두루히 싸가지고 온 가방 속에서 마당에 가득히 모여든 우리 꼬마들에게 贈物로 한 응를씩 나누어 주던 전빵, 어쩌면 생전 처음 맛보았던 그들의 전빵이 그렇게 잡질나게 맛이 있었던지 모르겠다.

세월이 흘러 내가 軍人이 되었고 휴가로 마을을 드나들기 幾十番은 되리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數個月쯤 他地에 있다가 故郷 마을에 돌아 오구름에 이를 때면 내 손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든간에 두툼한 가방이 손에 무거웁게 들려져 있었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모두 환영하는 빛이었다. 모두가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軍人모습 그대로의 軍人인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스러운 것은 내가 방속엔 내가 어찌서 보았던 이웃집 군인 아저씨의 가방속과는 아주 판판이라는 것이다. 나를 따라 우리집 마당에 가득히 들어선 꼬마들에게는 환영에 답할 전빵이 없다. 아마도, 전빵만을 알

고 있는 꼬마가 있다면 그 서운함이란 말할 수 없었으리라.

軍隊生活이 길어질에 따라 나의 휴가回數도 거듭되었다. 휴가가 거듭되어도 나의 가방속엔 전빵이 없었고 그렇다고 어떤 贈物도 들어 있지 않았다. 마을 꼬마들은 선물을 기대했을지라도 나의 가방속은 빈번히 꼬마들에게 실망만 주어왔다. 이제 마을 꼬마들이 나의 가방속에 기대마저 갖지 않게끔 되었고 내가 마을 어구에 들어서도 반겨주는 것은 할지라도 따라들지는 않았다. 첫 휴가 때는 마을 꼬마들 전부가 모여 들었지만 이제 는 거의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나의 軍隊生活과 休暇回數는 比例關係요, 休暇回數와 꼬마數와는 反比例關係인 셈이다. 어쩌면 꼬마시절의 내가 가졌던 軍人아저씨의 가방속과 전빵에 대한 「이미지」와 오늘날의 꼬마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는지도 모른다. 더우기 나에게 그토록 맛있던 전빵 맛을 꼬마들에게는 相續 못 하는 군인아저씨임에야.

어렸을 때 氣分으로는 어쩌다 먼곳 아저씨라도 찾아오셔서 菓子라도 안겨 주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란 없다. 이런 아저씨가 毎日이라도 찾아왔으면... :.. 싶다.

어느새 내가 아저씨요 兄님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左右間 이제 는 菓子를 받아 먹기는 글렀고 동생이나 조카들에게 菓子封이라도 사들고 다녀야 할身分이 되었다. 모처럼 만나는 동생이나 조카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親戚에라도 찾아가게 되는 날에는 꼬마數부터 헤아려 봐야 한다.

휴가를 떠나기 전날에는 의례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때 생각은 동생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애 찾아가는 집이요 보니 잊어든들 도 제산(?)에 넣어야 하지 않겠나? ^::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대, 작은대, 叔父님, 叔母님, ...: 그리고 동생, 조카...: V 열 손가락이 세 번을 오무렷다 퍼도 모자란다. 이렇게라도 차근차근히 계산하여 체면이 깎이지

얇을 만큼만 엮음을 내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산된 額數와 호주머니 事情과는 그야말로 天壤之差 같기만 하다. 할 수 없이 한쪽을 단념하려고 생각하던 어느쪽이나 手下쪽이나가 문제다. 어느쪽도 뱀 수가 없다. 뱀수 없이 체면을 짊어기로 작정하는 도리 밖에 없다.

幾十番 다녀온 휴가기록에서 그때마다 나의 結論은 늘 동일했다.

이제는 동생들도 나에게서는 菓子도 눈깔사탕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기 때분에 내가 휴가간다는 것이 동생들에게는 하등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우리 마을 꼬마들이 나의 가방 속에 無關心하고 내 동생들이 亦是 내 休暇에서 기쁨을 바라지 않는 免疫性(?)이 어찌면 오늘날의 나에게 轉禍爲福이란 말 같이 잘 된 일 같기도 하다.

이것은 참으로 拙丈夫다운 結論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內形容이 내일의 內形容으로까지 되지는 않으려 하는 마음에 사회망을 가져본다. — 마을 꼬마들

에게 전방울, 동생 조카들에게 菓子를, 한아름씩 안겨줄 내일을 만들겠다고...

떠나는 J兄에게

승 한 석

△하사·107기저병원△

한 人間이 情을 고 간 자국에는 슬한 사연들이 새겨지기 마련인가 보다.

이유를 알기 전에 實踐해야 했고, 꿈을 키우기 전에 울어야 했던 初年兵時節, 흐르는 물따라 간다면 잠깐 쉬어가는 종이배의 삼개성상이 어찌면 이렇게 도 많은 추억들을 안겨 줄까요.

조국의 하늘에 바친다는 崇高한 理念 아래 우리는 勇敢히 충을 메었고 命令대로 움직였고 때로는 기합도 받아야 했던 지난 날의 追憶들이 정작 時間이 지난 뒤에야 아쉬워지는군요.

尊敬하는 J형! 어느 누가 또 어떤 價値와 無價値를 判斷하기 전에 우린 서로 정를여 사귀어야 했으며 同期生이다. 先輩, 後輩라 부르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해야 했던 그때가 歲月이 흐른 뒤條件없는 友情이 얼마나 뜻깊었던가를 알 수 있군요.

여수같이 비내리는 여름밤에도 MB C의 고요한 리듬은 우리를 잠결로引人導해 주었고 눈보라치는 겨울밤에는 滑走路 위에 소복히 덮인 白雪을 먼 異城 땅에서 느끼는 이수처럼 생각하며, 싸늘한 병사의 마음을 오일 스토브 아래서 녹였던 갖가지 일들이 이젠 영영 離別이라 생각하니 感慨無量하시겠쥬.

저런 사회 물결에 노를 저을 J형! 우리 先輩들이 거쳐갔고 또 J형이 그리고 몇 개월 후면 우리도 떠나야만 하는 곳! 들장미가 피었고 모란이 그리고 이 아카시아 녹음 질어가는 6月の 고개 넘어 세번째 노래하는 마음엔 一友情과 진실을 알고난 저음에야 軍隊生活의 보람을 찾은 것 같구려.

존경하는 J형! 저금 우렁찬 爆音과 함께 視野의 게트기는 구름 속으로 날아버렸고 당신과 땀땀한 정 석별하기 아쉬워서 눈시울에 눈물고이고 祝杯의

잠 부딪칠 때 사랑하는 J형과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軍隊生活이 너무나 빨리 흐른 것을 새삼 느끼는군요. 부디 가시는 길에 祝福과 榮光이 그리고 成功있기를 빌면서!

잠 자리의 思索

최 의 식

〈중사 · 기술교육단〉

만파—다, 만파—다, 만파—다……
「地上에서 永遠이로」(From here to eternity) — 「웅고매리 · 크리프」가 부는 Horn의 淒切한 리듬이 들리는 밤 10時—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하면 천우 프랭크시나트라의 永遠으로 떠나는 哀悼의 歎息소리다. 斷腸의 音律이 구슬프게 퍼진다. 이윽고 그의 두 눈에서 두 줄의 눈물이 흐르는 모습이 생생하다.

적요한 大地에 울려 퍼지는 취침나팔, 후유—

술한 병사들의 안식처를 찾은 숨소리가 들린다. 이제苦되고 피로했던 다리를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다.

번거로움과 錯雜, 煩惱와 지루함이 뒤섞인 하루가 흘렀나보다. 현대문명의 副産物인 대낮의 騒音 속에서 숨가쁘게 東奔西走하며 숨막히는 競争의 소용돌이 속에서 淘汰되지 않고 이처럼 便한 잠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多幸한 일일까? 우주를 征服할 수 있는 우리가 「매카니즘」과 「오토메이션」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루마니아의 「게오르규」는 25時를 썼고 폴랜드의 「푸라스코」는 제 8 曜日을 썼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第5季節을 등장시키지 않을 수 없다. — 第5季節을 죽음의 계절이라고 — 이제 宇宙文明의 노래는 한 마디의 反抗도 없이 無氣力한 자세로 허공만 쳐다볼 뿐이다.

아직은 자라지 못했으나 6月 태양의 햇살이 이글뻗던 하루 — 都市의 音響과 赤裸裸한 자연을 잉태한 鋪道가 첫여름의 밤에 찾아온 미풍 속에 속삭이듯 말

콤한 대사를 뇌까리는 순간이다. 조개껍질 같은 작은 내 귀를 조아리면 희미하나마 그의 대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방금 「웅고매리」의 Horn의 리듬이 끝났다. 무엇인가 아쉬워 흐느끼는 듯하 소여하는 목매인 餘韻을 남기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같은 音律이 되풀이된다. 나는 살며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그의 모습을 애써 머릿속에서 속한 방해가 따른다. 꾸르릉 꾸르릉 옆에서 피곤히 잠든 동료의 코고는 소리다. 몹시도 귀찮은 소리다. 아니 나의 조용한 思索의 湖水에 돌을 던지는 잔인한 행위다. 나는 本能的으로 손을 돌려 그의 이불자락을 잠으려다 슬그머니 손을 떼다. 나의 조용한 思索를 방해한 그가 몹시도 미운진 하지만 그의 단점을妨害하기란 더욱 안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눈을 뜨면 창녀머로 웃는 달이나를 위로한다. 이곳 푸른 계곡의 大産室 — 全空軍要員을 잉태하였고 또 분만시켰던 장한 어머니 — 나를 낳았고 나의 술한 先輩와 後輩를 낳은 어머니,

모두모두 무리부터 섹씩하게 자라 조국의 간성이 되라고 천주에게 비는 애뜻한 모정을 느낀다. 이따금씩 訓練하는 兵士들의 구루발소리가 밤의 매아리되어 들리는 것만 같다. 하나, 둘, 하나, 둘, 구령하는 신 복소리가 진통을 겪는 祖國을 구출하려는 안간힘을 쓰는 소리다. 지금 이 시간 모든 兵士들이 일제히 침대에 들었다. 그리고 「몽고매리」의 Horn의 음들을 들을 제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된 하루를 참아야 했던 병사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鄉愁에 몸부림을 칠 것인가, 먼 어린時節의 追憶을 더듬고 있을까, 아니면 사탕하는 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지야. 來日이 있기에 또 太陽이 밝아 오기에 오늘의 고뇌와 不幸도 저버릴 수 있는 그들, 달콤한 希望이 있기에 절망의 오해를 이길 수 있는 그들, 「절망은 없다」는 신념이 있기에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들, 그들만이 느끼는 밤 10시 지금이 바로 그時刻이다. 兵士

들의 안식처인 內務班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 아늑하다. 아니 저 피안의 안식처라 부르는 천당보다 더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지금 창들으로 시원한 첫 여름의 微風이 침대 주위로 맴돈다. 다시 조용히 눈을 감으면 먼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실마리처럼 풀려 끝이 없다. 때때로 망상도 空想도 한다. 妄想과 공상은 실현성이 없으나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훨훨 飛躍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그보다도 刻薄한 俗世에서 헤어날 수 없는 현실을 잠시나마 도피하여 마음대로 생각해보는 가운데 황홀한 자기 만족의 도취에 잠입할 수 있으므로 더욱 좋다. 다시 본연의 진실로 돌아가면 하루의 生活이 너무도 利己主義적이었고 懶怠했으며 남을 해치는言行을 저질렀던가를 스스로 물어보고자 할 뿐이다.

인간이 모체에서 떨어져면서 呱呱之聲을 올린다. 「시저프의 신화」처럼 산 위로 바위를 굴러올리는 勞役이 주어진다.

첫걸음에서인저 모를 일이다.

인간은 본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하는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니 부귀, 명예, 탐욕만도 우리가 追求해야 할 것이 못된다. 인간답게 생을 누리다가 생이 끝나는 날 기꺼이 저 彼岸의 안식처로 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몽고매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나팔소리도 그쳤다. 애써 내 靈魂을 불러 그의 모습을 더듬으려 하지만 이미 정신이 몽롱해지고 모디어진 瞬間이 오고 말았다. 깊은 밤으로 자꾸만 돌입하는 이 시간 창 밖으로 보일 듯 말 듯한 별들이 즐고 있는 이 밤 나는 이제 地上에서 끝나라로 旅行을 한다.

絶 叫

김 종 원

△하사·제305경보대대V

萬物이 고요히 잠든 밤!
새벽 4시 50분!。 疲困과 졸음이 한

거번에 사정없이 밀려 온다.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졸음을 밀어내 본다. 그러나 졸음은 사정없이 눈을 가린다. 밖으로 뛰어나가 시원한 새벽공기를 마음껏 들이 마신다. 정신이 조금 맑아진다. 눈 내리는 밤이나 비 내리는 밤을 우리는 한결같이 굳은 信念으로 이렇게 물러오는 졸음과 싸워야만 한다.

졸지 말아야지. 森羅萬象이 말없이 잠든 길은 이 밤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나? 남보기에 너무도 처량하게—아니다. 우리는 결코 처량하지 않다!

포근히 잠든 내 祖國의 고요한 山野와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내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위해 우린 졸음을 참아야만 한다.

졸지 말아야지. 우리는 처량하지 않다. 고독하지도 않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다. 하늘을 지키는 3千萬의 不寐番이라고. 3千萬의 不寐番! 그렇다. 우리는 여기서 기쁨과 慰安과 自負心을 찾자. 우리들은 夢境의 눈. Range

mark만 조절하면 넓고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하늘의 料理師, 저미줄을 친 듯한 Scope 상에 걸리는 붉은 파리에를 용서없이 모조리 잡아내고야 마는 毒을 품은 검은 왕거미의 사나이다.

『캄캄한 暗室에 들어앉아서 Scope를 내려다 보는 젊은 늑이 처량해, 처량해....』오늘의 외출기분에 일근히 醉한 K일병의 노래가락소리가 자꾸만 귀에 거슬러진다. 처량하다고? 아니다. 우리는 처량하지도 고독하지도 않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神聖한 의무를 걸머진 자랑스러운 사나이. 우리들은 하늘을 요리하는 사나이다. 검은 왕거미의 사나이다.

1年 3백65일을 두고 1分1秒도 쉬지 않고 북녘 하늘을 注視한 우리들의 눈엔 毒氣가 서린다. 敵愾心이 가슴속에서 沸騰한다.

우리는 의친다. 북한파괴들의 시시한 파괴메 한 마디도 우리들의 눈앞에 일선 못한다고.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찬 파아란 우리들의 하늘에 한 발자국도 들어놓지 못한다고.

면 동녘에서 새벽이 밝아온다.

『지난 밤도 勤務中 異常無.』

悠然히 솟아오르는 太陽을 向해 絶叫하자.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3千萬의 불

침번!

처량하지 않다.

고독하지도 않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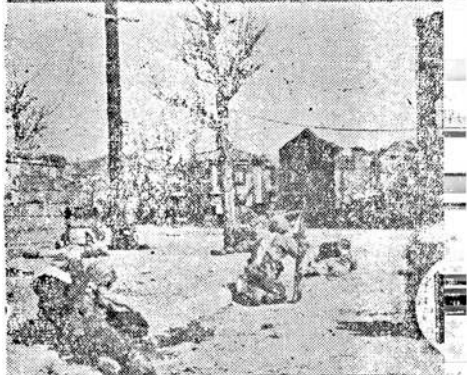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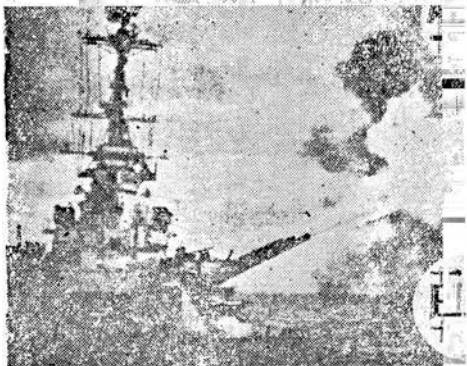
(로프)

內臟 살살이 撮影

天然色 「필름」이브

「필름」은 대학의 실험외과에서는 페·식도·후두 등 기관의 臟과 간은 질화를 살살이 보여주는 종전 연색영화「필름」과「텔레비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필름은 11로이타 V



◆.....滿3年1個月2日6時間에 걸쳐 우리의 疆土와 생명을 激浪 속에 몰아 넣.....◆

◆.....엇던 韓國戰爭은 自由와 共産이 첫 角逐을 벌이던 모텔·케이스이기도 하다. 우.....◆

◆.....리에게 술한 敎訓을 전해준 生活의 시련이었다. 砲聲이 그친지 於焉 16年, 民族.....◆

◆.....의 神話 속에 浮문혀 버려서는 안 될 그의 血痕을 여기에 다시 되새겨본다.◆

韓國戰爭의 現代史的 意義

李 炯 錫

△前國防部政訓局長・軍事評論家△

1945년에 美·소 兩軍의 韓半島分割占領으로 말미암아 夫婦의 寢室 안에 鋼鐵壁을 쌓게 되고 家庭의

보금자리에 電流 鐵條網을 치게 된지 五年만에 不法侵略을 敢行하였던 共産徒黨들은 오늘날 와서는 우리 쪽

이 먼저 저의들 쪽을 攻擊하였다는 것으로 文書化하여 自由世界에까지 傳聞스럽게 宣傳流布하고 있다. 심지어는 軍事停戰委 本會議席上에서까지 이런 말을 하였는데 昨年 6月 24日에 正式으로 이런 妄言을 하였던 北傀代表 朴重國에게 面대하여 당시 UN軍代表였던 「야보로」少將은 무안을 주어 이르기를 『金成柱(金日成의 本名)야 말로 가장 偉大한 거짓말 常習者로다』 하였다.

金日成이라는 남의 이름까지 盜用하고 있는 그들의 根性은 마늘도독으로부터 소도독으로 進化하였을 뿐만 아니라 竊盜에서 強盜로 變態하여졌고 마침내는 白晝路上으로까지 昇格하기에 이른 것이니 어찌 神人이 共怒하지 않겠는가?

그네들의 惡質根性으로 因하여 일어나게 된 韓國戰爭은 1百62週間이라는 적지 않은 交戰期間을 通하여 太極旗의 깃발 아래 쓰러진 軍警勇士가 무려 14萬을 헤아리며, 無辜의 生靈이 南北韓을 통털어서 100萬以上이나 犧牲되었고 集團安保를 위하여 海外 멀리서 이땅에 달려온 우리의 UN軍도 커다란 人命被害를 받게 되었다.

記錄에 의하면 美軍의 戰歿이 5萬5千이요, 戰傷은 10萬3千餘라고 하였다. 이러한 大量殺傷은 오로지

金成柱라는 兇漢과 그의 一味徒黨들에 依하여서 敢行된 空前絶後の 慘劇이 아닐 수 없는데, 더구나 不幸하게도 北韓地域에 살고 있던 탓으로 그들의 祭壇에 희생된 數 많은 人民軍의 壯丁과 戰禍裏에 목숨 잃은 우리 同族들을 생각할 때 다만 눈물이 앞을 가리울 마음이다.

우리들은 이같이 北韓땅에서 煉獄의 辛苦에 시달려가는 同胞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同族相殘을 슬퍼하지만 金成柱魁首와 그 徒黨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털끝만치도 悲劇이 될 수 없고 오직 南韓의 永久征服을 위한 必然의 手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萬代獨裁를 위한 必要不可缺한 方法이라고 뇌까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 白衣同胞가 전대로 同族도 아니고 外에 물들인 赤色奴婢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父母兄弟가 절단코 肉親도 아니고 착취의 커다란 대상인 「동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며, 개논에는 무엇만 보인다면 그들의 눈에는 中·소수典만이 보인다. 이 戰爭은 共產徒黨들의 이와 같은 正體가 白日下에 가장 正確切實하게 또 가장 明快無比하게 드러난 것이니 이것이 이 戰爭의 現代歷史的意義의 第一이 되는

것이다。共產黨이란 이름 아래는 北傀와 中共、소련이라는 區分이 있을 수 없고 우리의 敵이 共產黨일진대 鴨水風에 太極旗 휘날리고 豆滿江水에 UN 탱크를 쫓던 우리 國軍과 UN 軍을 不時에 奇襲하여 온 中共오랑캐나 戰車와 大砲、그리고 飛行機로 음흉하게 戰爭을 도와준 소련과 그 衛星國家群이 곧 우리의 當面의 敵이었던 것이고 이와 反對로 集團安全保障을 위해 人的、物的 많은 도움을 준 參戰 14 國의 自由民이야말로 우리의 同胞가 아닐 수 없었으며、最後通牒이나 宣戰布告없이 내나라에 내일같이 이 戰爭터에 달려온 UN 勇士들이야말로 우리 自國軍의 같은 戰友가 아닐 수 없었으니 이러한 二大陣營의 힘과 힘、피와 피、運命과 運命의 對決이야말로 現代史上 가장 顯著한 意義를 갖게 되는 것이다。釜山郊外에 조용하게 자리잡고 있는 UN 軍墓地에 줄지어 늘어진 參戰國旗 아래 數많은 白色十字標 앞에 고요히 머피 숙일 때 진정 이 나라는 自由守護의 先鋒이요、이 戰爭은 民主愛護의 象徵이었다는 것을 아니 느끼는 者있으랴。여러 나라의 여러 家庭에서 태어났던 그대 勇士들이 이제 서로 같은 理想과 目標 밑에 같이 배개를 맞대고 永遠히 잠들고 있나니 集團安保의 理念具現이야말로 이 戰爭의 現代歷史的 意義의 第二가 되는 것이다。바다와 하늘과 땅 위에서 神

의 怒號가 요란하였던 이 戰爭도 벌써 열여섯 月을 맞이하게 되고 期約없는 休戰이 이루어진지도 이미 열세 月이 되었다。筆者가 陸軍 第27師團에서 새로운 師團編成의 테스트를 任務맡고 그 테스트 結果에 따라서 砲兵編制問題가 일어나게 되어 당시 韓美高位將星들이 모여서 師團砲兵의 一部를 軍團砲兵으로 轉換하는 意見이 韓美間에서 對立되었을 때 憤怒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筆者가 『38線은 누가 만들었던 것이냐』라고 말한 나머지 美軍將星들의 不快를 샅던 일이 記憶되는데、그들이 不快하진 안 하진 38線은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렇시까지 儼然히 남아 있었던 것인데、그 위에 우리가 願치 않던 休戰은 기어코 成立되고 말았으며 有史以來 珍無類의 休戰線 155 마일이 38線을 대신하여 出現하게 된 것이다。

西紀前の 「푸에니」戰爭은 세 차례에 걸친 戰爭과 戰爭 사이에 長期休戰 같은 狀態가 있었다 치더라도 近代史上 이같이 無期限 休戰이란 일찌기 찾아볼 수 없었으니 休戰이란 元來 講和條約 締結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進行시키기 위한 前提條件으로서로 合意 아래 잠깐 그 자리에서 쉬는 것인 바 이제 名目만은 休戰이지만 서로 武裝을 풀지 않고 도리어 強化에 狂奔하고 있대서야 이것이 어찌 眞正한 休戰이라 할 수 있겠는

가。筆者의 見解로서는 이는 「對陣」이라 함이 마땅한 것인데、名稱 如何를 막론하고 兇賊의 무리들이 血眼이 되어 우리 눈 앞에 銃부리를 거누고 있으며、新型 邀擊機에 엔진을 걸고 非常待機하고 있는 터인즉 진실로 우리는 火藥庫 안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 格으로 자칫하면 언제라도 爆發한 危機를 열세 돌이나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忘戰은 우리의 自殺을 뜻하고 健忘症은 自己 一身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被害를 남기게 되는데、掌中之玉이라도 잃어버린지 十餘年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따가운 물이라도 목구멍을 넘어가면 泰然하게 되는 것이人之常情이라 하거늘 우리가 이러한 期約없는 休戰에 慢性이 되기 쉽고 이미 그러한 現象을 서울장안 兒女子들의 치마바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이 점이 적 이 근심되지 않을 수 없다。

同族의 가슴에 銃彈을 퍼붓고 山河를 피로 물들게 하였던 이 戰爭을 한 토막의 옛이야기로 생각하는 群像들이 休戰線 南쪽 30킬로地帶에 數100萬名이나 우물거린대야 어디 마음놓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世界地圖를 본다면 休戰線과 首都서울 사이에는 毛髮한 오라기의 틈이 있을 뿐인데、여기가 歡樂의 饗宴場이 되고 화려한 舞踏會의 中心舞臺가 되며 歐美 各

國의 最新流行의 直輸入地가 된대야야 어찌 참아 눈뜨고 볼 수 있겠는가 말이다。世紀의 珍奇性을 간직하고 있지경 같은 休戰線에서 단꿈만 꾸고 있는 이 時局이야말로 이 戰爭에서의 아름답지 못한 副產物의 하나이요、國民의 士氣面으로 볼 때에 차라리 接戰時期보다도 더욱 危機를 內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이 休戰은 締結당시에는 休戰後 3個月內에 政治會談으로 韓國問題를 解決한다는 條件이 붙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政治會談이라는 잔교대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休戰意圖가 南韓의 併合에 있고 完全征服의 前夜로 생각하는 것을 暴露하고 있는바 이러한 珍奇한 休戰이 現代史의 意義의 第三이 될 것이다。

國土兩斷以來 우리가 끝까지 固守하여 내려오는 統一의 原則은 「UN監視下에 人口比例로 南北間에 總選舉를 實施하는가 또는 이미 以南에서 그러한 選舉로 合法政府가 수립되었으매 以北에도 그러한 措置가 取해짐으로써 南北이 再統合할 수 있다」는 우리의 가장 正當한 主張임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이 正論으로서는 敗北할 것을 짐작하고 또 宿望인 永久獨占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사사모사로 반대만 하였고 가진 농간만 부려오고 있는 것이다。앞서 말한 夫婦의 寢房에서 鐵壁을 허물어버리고 草家三間 앞마당에 싸고 있는 鐵

條網을 적어 버리려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要求이고 權
 利인 동시에 義務이며 우리가 永世토록 저버릴 수 없
 는 간절한 所望이니 우리는 차라리 分斷된 祖國의 紳
 士淑女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統一된 韓半島의 自由스
 러운 가난뱅이로 살기를 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우리의 熱願은 오직 統一口號로서만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實力을 養成
 하고 사치와 虛飾을 버리고 우리의 自力更生의 力量을
 集結培養하는 동시에 우리 周邊에 있는 모든 民主自由
 勢力이 우리를 誠心껏 돕도록 內政外交를 推進 強化하
 고 經濟再建에 邁進하여야 할 것이다. 이 戰爭에서 우
 리는 完全統一의 寸秒前에서 無期分斷의 구렁텅이 속
 에 다시금 뛰어들게 되었던 바 이러한 統一欲求가 現
 代史의 意義의 第四가 될 것이다. 筆者는 마지막으로 敢
 히 美國政策의 모순性を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
 戰爭의 主導權을 쥐고 있는 美國이 1951年 4月에
 UN軍總司令官「 맥」將軍을 파면한 以來로는 始終一貫
 하여 姑息的인 戰爭指導方針을 고집한 결과 戰線이 膠
 着狀態에 빠지고 軍의 士氣가 低下되었고 이어서 名譽
 를 지 못한 損失만 많고 아무런 所得이 없는 休戰까지
 맺게 되었으니 이 당시의 美國行政責任者의 肖像은 크
 레mlin宮과 紫禁城 안에 길이 걸어둬야 마땅할 것인데,

오늘날의 越南事態도 韓國戰爭 處理가 徹底하지 못하
 였던 一環으로 誘發된 것으로 보는 바이다. 돈있는 집
 의 귀엽둥이로 자라난 人間은 世波에 어둡고 惡의 本
 質을 看破하지 못하는 얼빠진 好人이 되기 쉬우니 「웨
 인 모스」라는 美上院議員은 韓國政府가 「페이퍼 거
 번먼트」라고 하였다. 이러한 群像들은 金日成과 毛澤
 東으로부터 特別表彰狀을 받아 마땅한 人間들인데,
 韓國戰爭初頭に 힘의 空白期가 北傀의 南走를 도왔으
 며 그뒤에 이것을 挽回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犧牲
 을 강요당하였던가를 돌이켜 볼 때 힘의 空白期에 거
 두어 들인 利益이라는 것은 反擊期의 損失에 비해 도
 저히 採算이 맞을 리 없고, 共產黨과의 宥和와 그들과
 의 共存이란 感傷詩人의 想念은 될 수 있고 人氣戰術을
 노리는 政治學教授의 卓上論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필
 경 어리석은 政客의 一場春夢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戰爭을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 이것
 이 現代史의 意義의 第五라 할 것이다.

◇ ::

韓國戰爭概觀

洪 準 杓

1. 序 論

<特輯·韓國戰爭>

1950년 6월 25일, 韓國戰爭의 발발은 여러가지의 미에서 우리에게 많은悲劇과苦痛을 가져다 주었고 또한美國을 비롯한自由世界에 대하여 2次世界大戰 이후平隱속의暗闘만을 계속해오던自由對共產의對決을表面化시킨 커다란 첫試鍊을 던져 주었다. 어머니의 품안에서 6.25를 맞았던 現10代, 20代의 젊은이들에게는 韓國戰爭의 처참상이란 한낱神話속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韓國戰爭은 神話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하듯 그대로 지나쳐 버려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심각한 자극과 교훈을 준 우리의 이

야기인 것이다.
여기에 韓國戰爭의眞面目을 概觀해 보려는 所以가 있다.

勿論이데올로기上的의虛點이 있기 때문에 共產主義를排擊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共產의非人道的인惡辣과殘虐을 너무나도痛切히 체험했기 때문에觀念以前에生活로서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다. 共產은 바로 우리의生活基盤自體를 위협하고 있는 폭발물이므로 反共態勢의完비라는 것은不問可知重大之事라 아니할 수 없다. 요즈음 冷戰의震源地、熱戰의火藥庫인越南의事態가 地球를 붉은물로浸透하려는 또 하나의 획책일진대 이러한 共產의 힘에 대항하여 東南亞의共同防衛를 위해서 國軍을 越南戰線에 보내고 있는 우리로서는 韓國戰爭의眞面目을 개관한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韓國戰爭이 발발하게 된 國際的인 배경은 어떠한가? 北韓은 1950년 6월 25일 南侵을 하기 위해서 그 戰爭準備를 어떻게 하여 왔는가?

한국전쟁 3년 동안 가장 치열했고 중요했던 작전은? 1953년 7월 27일 休戰이 성립된 경위는?

그리고 그 戰果는?

이러한 여러가지 角度에서 韓國戰爭을 살펴 보고자 한다.

2、戰爭前夜

第2次世界大戰의 終幕은 또 하나의 새로운 勢力配分이라는 문제거리를 남겨 놓았다. 美·소兩國은 소위 發砲하지 않는 戰爭, 즉 冷戰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칠 줄 모르는 關心과 神經을 쏟아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교활한 소聯은 상투적인 전술로서 자유세계의 모든 神經을 伯林問題에 고착시켜 놓고 그 야욕의 銳鋒을 極東即 한국침략에 도리어 北韓을 跳梁의 土臺로 삼아 왔다. 더구나 소聯의 야욕을 북돋은 것은 美國의 1949년, 1950년을 전후하여 極東防衛線에서 韓國을 포기하려는 경향을 농후하게 나타낸 것이었다.

北韓의 韓國戰爭을 도발하기 위한 전쟁준비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北韓은 49년 3월,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朝소軍事秘密協定과 49년 10월, 「하르빈」에서 체결한 中소秘密協定에 의해서 주로 소聯으로부터 軍裝備援助를 받고 東北義勇軍을 받아들여 1만 17세부터 40세까지 男女를 총 동원 軍事훈련을 실시, 6월까지 한국 침략을 위한 人民軍 組織편성을 완료하였다.

즉 總軍勢力

保衛省軍隊

198,380名

陸軍

10個師團(戰車1個團포함)

164,380名

空軍

1個師團

148,680名

海軍

2,000名

內務省軍隊(內務署軍隊와 政治保衛部、

38線警備 3個旅團、朝滿

國境警備隊、鐵道警備旅團

포함)

34,000名

主要裝備

T-34戰車

242臺

航空機

211臺

警備艇

30隻

이에 대하여 우리는 1945년 國防司令部를 설치, 1946년 南朝鮮國防警備隊(統衛部)를 창설 등의 과도적인 과정을 거쳐 1950년 6월에 우리의 軍事力은北韓에 비하여 미약하였다.

즉 總軍事力

72,797名

陸軍 8個師團、1個獨立聯隊

64,697名

空軍

1,100名

海軍 및 海兵隊

7,000名

主要裝備

訓練機

20臺

小型舟艇

若干

이러한 상황에서 北韓傀儡軍 總參謀長 姜健은 1950년 6월 10일 에하各師團長 및 旅團長을 비상

소집, 비밀회의를 열고 6월 23일까지 南侵에 필요한兵力배치와 전투준비를 완료, 「祖國解放戰爭」위대한

愛國戰爭이라는 명목하에 開城、薊津地區에 步兵 4個師團、議政府地區에 步兵 2個師團과 戰車 2個師團、泰

川地區에 步兵 2個師團、自隱里地區에 步兵 1個師團

注文津과 江陵地區에 步兵 2個師團의 兵力을 투입, 一

舉南侵을 개시하였다. 北韓은 3월 16일까지 南韓全

部를 무려 점령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3、熾烈한 重要作戰

北韓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 正規人民軍外에 江陵、三陟、蔚山等 東海岸一帶에 유격부대、西部戰線에 4千名の 政治工作員을投入하여 계속南下를 계속하였으나, 8월 15일까지 釜山을 점령한다고 했는데 8월 9일이 되어도 大邱와 馬山도 점령 못했다.

한편 國聯安全保障理事會는 6월 27일, 긴급회의를 소집,北韓의 侵略을 막고 大韓民國에 대한 援助決議案을 채택하였다. 또한 7월 7일 UN安保理事會의 決議로 UN軍司令官으로 「맥아더」元帥를 임명하여 UN軍의 기치 아래 自由友邦 15개국이 참전, 洛東江방어선을 확보하면서 韓國軍增編에 노력하였다.

한편 戰勢를 역전시킨 작전으로서, 「맥아더」司令官은 美合同參謀本部議長、陸軍參謀總長、海軍總長들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仁川 上陸作戰을 강력히 추진, 美第10軍團、한국 제17연대와 한국해병 2개대대、영국해병대의 兵力과 함께, 7개국 261척의 함선을 투입하여 9월 15일 동상륙작전을 성공시켰다.

9월 30일, 友軍의 총병력은 다음과 같다.

總地上軍戰鬪兵力

美陸軍(5개사단)

103,601名

美海兵隊

21,525名

韓國軍

101,573名

英國軍

1,704名

比律賓

1,369名

各種支援部隊

美軍各種支援部隊

28,507名

韓國軍各種支援部隊

91,052名

美極東空軍

36,627名

美極東海軍

59,438名

其他 UN 軍

330名

韓國軍과 UN 軍은 이와같은 보강된 軍事力을 가지고

仁川上陸과 동시에 洛東江방어선에서 일제히 무제한공

격을 실시, 적이 81일에 걸쳐 南下해온 전투지역을

15일에 걸쳐 적을 휩쓸고 9월 30일에 38선 일대에 진

출하였다. 다시 1950년 10월 1일을 기하여 한국

군과 UN 軍은 中北上진격, 10월 26일에 鴨綠江邊에

이르렀다. 이때 中共은 10월 25일을 기하여 中 30개사

단, 30만명의 兵力(彭德懷, 朱德, 林彪等이 지휘)을

한국전에投入, 北韓軍과 다시 協力南下하기 시작하

였다. 당시 敵軍의 兵力은 444,406명, 我軍의 兵

力은 약 25萬으로서 東部戰線은 韓國軍, 西部戰線은 美

軍이 擔當하여 38線을 中心으로 치열한 激戰이 계속되

었다.

한국전쟁 中 我軍이 수행한 중요작전 中 特히 仁川上

陸作戰、元山上陸作戰、서울奪還作戰、各島嶼上陸作戰、

敵海岸線封鎖作戰等은 관목할 만한 것이다.

4、暫定的인 妥協—休戰

1951년 6월 24일 UN 소聯代表 「말리크」의 제

안으로 2년 1개월의 세계유례없는 長期 休戰會談을

거쳐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休戰協定이

調印되었다.

休戰當時 彼我的 軍事力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敵 軍

人民軍 21個師團

約 40萬名

中共軍 20個軍

約 85萬名

我 軍

韓國軍 18個師團

約 65萬名

UN 軍 8個師團

5、戰後狀況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國際情勢에 따라 이루어진 暫定的인 妥協、休戰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의

미에 있어서의 跳躍을 하게 되었다.

韓國戰爭이 남기고 간 傷痕은 막대하였다. 즉,

虐殺 128,936名

拉致 84,532名

拷問負傷 229,625名

致死 144,663名

行方不明 303,212名

總計 990,968名

그리고 戰爭中 생명을 절고 共產社會를 탈출 南下避難해온 北韓同胞가 60萬名에 達하였다.

上記한 바와 같이 共產의 魔手が 저질러 놓은 막대한 피해와 共產社會를 증오하여 南下해온 상당한 수의 피난민은 바로 共產의 非人道的인 惡辣과 殘虐을 응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戰爭의 잿더미 속에서 砲聲이 멎은지 16년 동안 우리는 安逸만을 圖謀하지 않았다. 우리는 戰爭의 상처를 하나의 敎訓으로 하여 祖國近代化의 發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4·19, 5·16의 兩革命을 通하여 民主主義의 諸體制을 닦아 놓았고 安定과 發展의 의욕을 북돋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금년에 끝나는 1次 5個年經濟開發計

劃(62년~66년)으로서 基幹産業을 구축하였고 明年부터 실시되는 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으로서 豐饒한 社會에 대한 展望을 내어다 보고 있다.

그리고 教育, 文化, 社會의 諸側面에서도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長足の 발전을 보았다.

이와 병행해서 韓國軍의 軍事力도 世界랭킹 第4位라는 莫強의 힘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英國戰略研究所 1965~66年版 世界軍事力分析報에 보면 다음과 같다.

總說

人口 28,000,000名

軍制 徵兵

總軍事力 604,000名

國防費 23·8億원(\$ 183,000,000)

陸軍

總兵力 540,000名

外 10,000名(美軍部隊配屬)

第1軍 18個師團

50個獨立砲兵大隊

7個戰車大隊

第2軍 10個師團

海軍

總兵力 17,000名

海兵隊 27,000名

驅逐艦 1, 트리케이 및 護送艦 16、

驅潛艦 6、掃海艦 11、魚雷艇 2、

上陸用舟艇 20、其他艦艇 20

空軍

總兵力 20,000名

F-5 戰鬪機大隊 1, F-86D 全天候邀擊機大

隊 3, F-86F 戰鬪邀擊機大隊、

RF-86F 偵察機大隊 1, C-46, C-47

수송기 19、其他航空機 90

이러한 막강한 軍事力으로 우리 國軍은 155마일休戰線 任務를 大部分 맡고 있다.

또한 우리는 東南아시아의 共同安全保障을 위하여 越南에 1차로 醫務中隊 파견, 2차로 비둘기부대 파견, 3차로 비둘기부대의 증파, 4차로 猛虎·靑龍의 戰鬪部隊 파견, 5차로 1個師團, 1個聯隊의 戰鬪部隊増派를 하고 있다.

6. 結 論

韓國戰爭은 여러가지의 面에서 우리에게 敎訓과 자극을 주었다.

첫째로 觀念으로서가 아니라, 現實로서 어느 國家보다도 反共의식이 철저히 주지된 것이다.

둘째로 共產主義와 民主主義에는 결코 妥協이란 있을 수 없고 勝共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實力을 길러야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전쟁은 어쩌할 수 없는 悲劇이었지만 祖國近代化를 촉진시킨 커다란 刺戟劑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째로 世界莫強의 우리 國軍은 反共에 앞장선 世界唯一無二의 軍隊이며, 對民支援을 하는 軍隊 그리고 祖國近代化에 기여하는 軍隊라는 傳統을 세운 것이다.

越南戰線에서 한 美國兵士가 말했듯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韓國軍』의 一員으로서 국가 발전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의 心身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1, 「戰史」第24輯, 第32輯 (陸軍本部刊)
- 2, 「6·25의 옛더미에서 오늘날의 富強을」 (公報部刊)
- 3, 「實錄韓國戰爭」 (페렌바크著)
- 4, 「아시아의 共產主義問題 세미나르 資料」 (文藝苑)

韓國戰爭中の空中作戰

崔 在 翼

1、序 論

韓國은 「포스담」宣言(1945年)과 「알타」會議(1945年)에서 약속된 바에 의하여 1945년에 해방되었으나 美軍과 소聯軍이 38度線을 경계선으로 각각南韓 및北韓으로 진주하였다. 美軍이 진주한南韓은農業地域임에 반하여 소聯軍이 진주한北韓은工業地域으로서 대부분의 滑走路와 航空施設은北韓에 있었다.

美國과 소聯은南韓 및北韓에서 각각軍政을 실시하면서 韓國의 統一을 위해서 「모스크바」三相會議(美·英·소)를 수차 개최하여 시도하였으나 소聯의 戰略의 인방대로 流産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國際聯合은 1948年總會의 決議로써 國際聯合監視下의 自由로운 선거를 하도록 하였으나 소聯이 UN選舉監視委員團의北韓出入을 거부함으로써南韓에서만의 自由選舉(1948年5월)로 1948年8月15일에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고,北韓은 같은 해에 그들대로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를 건립하였다.

다음해 美軍은 철수하고 서울에 少數의 軍事顧問團(MAG)과 大使館을 남겨 놓았다.

그러나 1949年 소聯이 核實驗을 하게 됨으로써北韓은 소聯으로부터 武器, 탱크, 항공기 등 諸般軍事

授助를 받아 人民軍을 조직 강화하여 南韓侵略準備에 血眼이 되어 있었다.

北韓이 한국전쟁을 도발하게 된 要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軍事戰略의 인 것으로서는 1949년 소聯이 核實驗을 하여 核保有列強으로 등장함에 따라 美國이 韓國에서의 全體的인 전쟁을 수행할 도를 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커다란 誤算에서였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3년 1개월 동안 여러가지 國際情勢의 인 제약을 받아 한국반도 內에서의 局地的인 空中作戰이 수행되었으나 여기에서 美國을 위시한 自由世界가 배운 航空戰에 있어서의 敎訓은 적지 않았다.

韓國戰爭에서의 航空戰은 비록 局地的인 것이고 領空의 範圍가 협소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最大의 航空戰이었고 제트戰鬪機의 새로운 戰鬪作戰이 행해졌다는 의미에서 世界航空思想 하나의 劃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전쟁中 航空力、空中作戰、戰果、敎訓等を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戰爭中的 航空力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은 3개월 內에 南韓을 占據하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일제히 南侵을 시작하였다. 南侵當時 北韓의 戰力은 소聯으로부터 軍事援助를 받아 步兵 10個師團、戰車 1個師團、航空 1個師團、海軍 1個師團 總 13個師團이었다.

北韓空軍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소聯製 舊式航空機 150臺로서 機種은 대개 YAK-7과 YAK-11 및 IL-10이었다. 北韓은 上記의 空軍力으로 戰爭初에 한국영공에 기선을 제하였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大韓民國의 空軍은 汝矣島基地에 1個飛行團의 조직을 가지고 輕飛行機 L-4, L-5, 12臺와 建國機 T-6, 10臺(國民의 誠金으로 獻納)計 22臺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北韓共產主義者들과 소聯顧問官들은 美國을 비롯한 自由友邦諸國의 參戰을 예상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간섭이 있다고 해도 그 前에 그들의 軍事目的을 達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두 가지 커다란 오류를 범했는데 그것은 UN이 參戰의 決定만 내리면 8時間 內에 南韓에 출동할 수 있는 美極東空軍(FEAF)과 美極東軍司令部(FEC)의 空軍力이 嚴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戰爭이 발발하자 즉시 한국을 돕기 위하여 UN軍司令部가 조직되었는데, 地上軍은 美國、英國、캐나다, 터키, 그리스, 룩셈부르크, 이디오피아, 프랑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콜롬비아, 타이, 뉴우지일랜드, 네덜란드 등 諸國의 地上軍으로 통합 조직되었고, 空軍은 美極東空軍과 美海軍·海兵隊空軍力 그리고 한국, 英國, 오스트레일리아, 南阿, 그리스, 타이 등 제국의 空軍力으로 통합 조직되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태리, 인도 등 諸國은 醫務部隊를 보내왔다.

戰初 美極東空軍의 航空力을 보면 日本, 오키나와, 괌, 필리핀 등 諸基地에 주둔하고 있는 5個戰團飛行團, 2個戰爆飛行團, 1個輸送隊, 各級補給隊로 구성되어 있었고 各種航空機 1,172臺를 보유하고 있었다. 1個中戰爆飛行團과 8個戰團飛行大隊가 한국방위를 담당하고 있었고, 10個戰團飛行大隊가 日本, 오키나와, 필리핀의 防衛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美國內에서 空軍力增強計劃이 수립되고 그 후 10日內에 2個戰爆大隊가 F E A F에 증강되었으며, 또한 30日內에 F-51 145臺를 적재한 海軍航空母艦「복서」號가 F E A F에 보강되었다.

3. 戰爭中的 空中作戰

韓國戰爭中的 空中作戰은 韓國戰爭이 그 發展過程에 있어서 3個의 局面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그 性格上의

뉴앙스를 나타내고 있다. 韓國戰爭의 3個局面은 다음과 같다.

- 第1局面、北韓人民軍의 侵入 (1950年 11月 26日)
- 第2局面、中共軍의 侵入 (1950年 11月 10日)
- 第3局面、停戰準備의 消耗戰 (1951年 7月 26日)

韓國戰爭의 各局面에 상응한 空中作戰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第1局面〉 1950. 6. 25 ~ 1950. 11. 26
 1950年 6月 25日 南侵을 시작한 北韓人民軍은 美第24、25師團과 韓國陸軍의 저지에도不拘하고 釜山—大邱防衛線의 최후 보루를 남겨 놓았다. 이當時 空中作戰은 38線 附近 몇 개 목표물의 폭격과 軍需品 空輸作戰에 지나지 아니 했다. 그러나 美本土의 航空力增強을 받아 매우 활기를 띠기 시작한 美極東空軍은 積極적인 공중작전을 수행하였다. 即 4個美步兵師團、7個韓國步兵師團、1個英國步兵師團의 UN地上軍이 釜山—大邱방위선으로부터 8月中旬에 一路北進을 개시하고, 9月 15日、美第1海兵師團、第7步兵師團의 仁川上陸作戰과 10月 20日 美〇軍團의 元山上陸作戰을 성공함으로써 總北進을 하여 鴨綠江까지 이르렀다. 이當時 空中作戰은 F-51、F-80戰團機에 의한 制空權確保

및 B-26, B-29 爆撃機에 의한 敵主補給路(MSR)의 遮斷作戰과 地上軍의 北進을 돕는 近接支援作戰 그리고 C-119, C-47, C-54 輸送機에 의해서 大邱에서 鴨綠江까지 이르는 各種 軍需品의 空輸作戰 등으로 北 韓人民軍의 敗退에 決定的인 타격을 주었다(第1局面, 空中作戰).

第1局面 空中作戰의 戰果는 다음과 같다.

兵力殺傷	39,000	탱크 破壞	452
橋梁 破壞	75	牛馬車 "	6,000
車輛 "	1,300	機關車 "	260

△第2局面▽1950, 11, 26~1951, 7, 10

1950年 11月 26日, 2個砲兵師團을 包含한 9個 步兵師團、兵力 250,000의 中共軍이 鴨綠江을 넘 어 韓國戰에 介入함으로써 韓國戰爭은 새로운 局面에 突入했다. 이때 UN軍兵力은 美軍 130,000, 한국 軍 127,000 기타 10,000, 計 267,000 이었는데 中共軍의 人海戰術等 강력한 공격으로 UN地 上軍은 平澤—原州線의 主抵抗線까지 후퇴하였다. 中共 軍의 완강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美極東空軍은 3個 中戰爆飛行團, 2個 輕戰爆飛行團, 3個 戰鬪飛行大隊, 4個 輸送戰隊 各級 補給隊로 확대되었고, B-26, B-29 폭격기는 日本 「오키나와」 基地에서, 그리고 F-51, F-80 전투기는 서울, 부산基地에서 出擊, 광

범위한 遮斷作戰, 近接支援作戰, 輸送作戰, 防空作戰을 수행하였다(第2局面 空中作戰).

이 當時 空中作戰의 戰果는 다음과 같다.

兵力殺傷	117,000	要塞 破壞	1,315
탱크 破壞	296	補給廠 "	80,000
牛馬車 "	13,000	車輛 "	2,600
機關車 "	250		

△第3局面▽1951, 7, 10~1953, 7, 26,

1951年 7月 10日, 소聯의 UN代表 「마리크」로 부터 韓國戰爭에 대한 休戰提議가 나오면서 부터 美소 兩國間에 停戰의 무드가 조성되어 감에 따라 韓國戰爭은 새로운 局面에 突入하였다. 即 我軍과 敵軍, 雙方은 武力이나 기타 軍事行爲로서는 韓國의 統一을 기대할 수 없고 兩側은 어떠한 政治的인 妥結으로써 各者 자기에게 유리한 妥協點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UN軍의 軍事戰略도 變更됨에 따라 空中作戰도 敵의 全面的인 공격능력을 분쇄하는 消耗戰 (窒息作戰)으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눈치챈 敵은 강력한 遮斷作戰을 밀고 나오는 UN空軍의 空中作戰을 저지하기 위하여 對空砲 火를 강화시키고 야간을 利用, 飛行場建設에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補給行爲를 위하여 각 가지 위장수단을 사용하였다. 即 탄약 및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鐵橋을 야간에만 사용하고 주간에는 물 속에 위장하며, 小舟艇을 이용하며, 軍需列車을 야간에 티넬 속에 위장하며, 民間人들의 지체나 牛馬車를 이용하며, 또한 500,000명의 民間 勞務者를 투입, 파괴된 수송수단을 보수하는 등이다.

그러나 UN空軍의 空中作戰은 政策的인 制約으로 鴨綠江以北, 즉 滿洲地域에 대한 出擊을 하지 못하였지만 北韓全域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遮斷, 防空, 近接支援等作戰을 펼친바 있다. 地上軍은 平澤—原州의 主抵抗線以北에서 彼我間 停戰會談席上에서의 有益點을 많이 얻기 위하여 2年間の 消耗戰을 벌이고 있었다.

이 期間中 空中作戰의 戰果는 다음과 같다.

牛馬車 破壞	75,000	機關車 破壞	1,000
客車 "	16,000	橋梁 "	2,000
鐵路 "	27,000	小舟艇 "	600
兵力殺傷	28,000	탱크 "	300
要塞破壞	12,000	補給廠 "	15,000

以上으로 韓國戰爭의 3局面을 통해서 전개되었던 遮斷, 近接支援, 空輸等作戰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UN軍의 空中作戰에 대한 敵空軍의 反擊은 어떠한가, 그들이 치루어야만 했던 代價는 얼마나 되었나 하는 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北韓이 南侵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YAK-7, YAK-11, IL-10等 소聯製舊式航空機 150臺를 가지고 領空에 기선을 제한바 있었으나, 美極東空軍과 UN空軍의 강력한 空中作戰으로 1953年 7月 26日 韓國戰爭이 잠정적인 終了가 성립될 때까지 我軍이 우세한 領空權을 쥐고 있었다. 이러한 UN空軍의 越等한 空軍力에 대항하기 위하여 敵軍은 MIG-15를 1950年 11월에 韓國전에投入한 바 있고, 또한 中共空軍이 韓國전에 介入함에 따라 敵의 空軍力이 매우 強化되기도 하였다. (MIG-15 4,000臺) 그러나 UN空軍은 그의 우세한 空中作戰과 戰鬥力이 강한 航空機로서 韓國전쟁中 MIG戰鬪機 840臺를 분쇄하여 그 追擊率은 10對 1로서 航空史上 稀貴의 戰果를 올렸다.

그리고 韓國戰爭은 그 地域的, 軍事政策的인 特殊性으로 인하여 第2次世界大戰時 歐洲에서 全出擊의 10%가 近接支援作戰에 충당되었으나 韓國戰爭中 地上砲火에 代置하는 近接支援에 全出擊의 30%가 충당되었음을 特記하여 둔다.

4. 敎訓

여러가지 側面에서 관찰하여 볼 때 韓國戰爭은 政治

의인制約과軍事戰略目標의流動性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이매대한制限戰爭이었다。空中作戰面에서 볼 때

우리가치르어야했던代價도 컸지만敵에게 던져준被害는 무척 컸다。敵의追擊率 10對1이바로이를 웅변으로증명해주고있다。

韓國戰爭을치르는동안自由世界가배운敎訓은政策的、軍事戰略的、心理的인諸側面に적지아니하다。即첫째、共產主義者와의冷戰은앞으로얼마동안계속될 것이며 共產主義의侵略은受動的인政治妥協으로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武力으로서 저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軍事戰略的인面에서戰爭의地域을限定하거나、所謂人道主義的인戰爭遂行이라고해서戰爭武器의使用을制限한다는것은戰爭을승리로이끌수없고 또한얼마나우스파스러운일이냐하는것이다。

셋째、韓國戰爭中空中作戰은主로戰術的인作戰에 지나지 아니하였고、그戰術이나技術面에서第2次世界大戰의敎義나過程을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한국전쟁에서奏効한空軍作戰이 없었더라면韓國은共產의불은말굽아래 밟히고 말았을 것이다。

5、結 論

지금우리에게明白해진것은現代戰에 있어서空軍力이란不可分の것으로매우중대한역할을담당한다는것이다。言必稱空軍力이란國力을결정짓는重大要因으로서空軍力을航空機의機種이나作戰形態 또는目標物의種類에따라서評價한다는것은매우어리석고混亂과誤謬에빠지기 쉽다。空軍力、即實際의空中作戰을戰略目標、敵의威脅、絶好的作戰機會等諸與件에대한종합적인고려에의해서決定·수행하여야하는것이다。이는바로우리空軍將兵들의가장기본적인責任이며目的인것이다。

〈參考文獻〉

- 1、空軍史 第1輯：△62、10、30△(空本政訓監室)
- 2、Air Power: The Decisive Force in Korea(1952)
(C. 제임스·T. 스티워트)大領(編者)
- 3、Air Review 創刊號：△1957△(空軍大學)
- 4、6·25의 잿더미에서 오늘의富強을：△1966△(公報部)
- 5、6·25와北傀：中共·소聯：△1966、아시아共產主義문제세미나트△(文藝叢)

351高地爆擊作戰

△編 輯 室▽

1953년에 이르러, 休戰會談이 본격화되고 그 회담의 진행에서 現戰線이 휴전선으로 설정될 것이 거의 確實視되자 敵은 150마일 전선 도처에서 浸蝕作戰을 감행해 왔고 또 UN軍의 일시적 制限作戰은 적으로 하여금 補強整備의 기회를 주어, 그들은 人海戰術에 의한 맹공의 발악을 다하고 있었다.

이 무렵 우리 空軍은 江陵前進基地에 주력을 집중, 第10戰團飛行團을 창설하고 능력을 大幅증강하여 동부 및 중부의 我地上軍 第1, 2軍團 前面의 空地協同作戰과 敵후방의 보급로 차단 작전을 본격적으로 감행하여 名實共히 韓國空軍의 능력을 과시하는 長足の 발전을 성취한 時期였다.

이 351高地爆擊作戰이란 동해를

끼고 올라 北緯 38度 37分에 위치한 조그마한 高地로서, 高城地區 發射陣의 거점이 되는 가치 때문에 彼我的 전사적인 攻防戰이 전개되고 있을 때, 我地上軍의 위기를 구출했던 空軍作戰이었다.

이 高地의 地勢를 살펴보면 江原道 高城 근처에 자리잡은 野山에 남짓한 저점으로써 西쪽으로는 적이 장악하고 있는 月飛山(495 m)과, 대치해 있고 이 산을 중심으로 연한 362, 187 高地 또 無名高地 등의 敵戰線 陣地가 역시 이 351고지를 瞰制하고 있었다.

특히 敵은 이 고지를 중심으로 인접하고 있는 A, B, C 高地를 橫隔室안고 있어서 火網構成이 지극히 용이하였

으며 351高地와 月飛山과의 거리가 約 1 km, B高地와는 불과 200 m 내외의 근거리로서 敵의 기습작전이 대단히 용이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我軍은 이들 모든 地勢를 縱隔室로 안고 있기 때문에 적의 攻擊觀測에 좋은 목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아군이 이 고지를 상실할 경우 敵陣에 대한 射擊觀測이 완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高城面大康里一帶가 완전히 敵의 瞰制下에 놓이게 되므로 부득이 아주 저항선을 후퇴시켜야 할 要地要部이므로 여하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高地의 사수는 불가결한 것이었다.

더우기가 351高地의 전투에서 敵은 我軍의 철동 같은 방어로써 高地를 還이 불여의하게 되자 B고지로부터 地下洞窟을 구축하여 本高地에 육박하는 晝夜적인 공격을 감행하였고 급기야 3월에 이르러서는 이들 敵의 동굴공기통이 我陣地 50 m線에까지 접근하자 아무리 勇敢無雙한 我地上軍으로서도 束手無策이었고 무슨 비상대책이 없는

한 351고지는 敵의 수중으로 돌아
갈 부득이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
이다.

당시 이 고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
른 여하한 地上軍火器로서도 도저히 불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我地上軍은
악착같이 접근하는 적의 격퇴를 위하여
는 空軍 및 해군의 艦砲支援射擊을 받
아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여 그 순간을
포착 敵陣地인 A, B, C 및 月飛山
까지 탈취하는 일제반격 작전에는 다
른 방법이 없다는 작전이 成案되었고
이에 따라 地上軍은 공군에게 空中爆
擊支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支援要請은 너무도 어려운
과제였으니, 첫째 아무리 고도한 기술
과 훈련이 잘된 조종사일지라도 彼我
50m의 간격으로 대진한 적을 命中
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둘째 적의 치열한 對空砲火網을 뚫고
이 작전을 수행하는 최대의 자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조건으로
인하여 만약 誤爆이 있을 경우 오히려
我軍에게 치명적인 손실은 물론, 적의

戰勢를 보강시켜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與件 아래서 이 作戰이 도저히
수행될 수 없다면은 공중폭격에 있어
서의 보편적인常識이었던 것이다. 그
러던 중 1959년 3월 중순, 당시
第1軍團航空連絡參謀로 나가 있었던
金成龍中領(現少將)에 의하여 이 지
원작전은 정식으로 요청되었고 이는 당
시 戰隊長이었던 張志良大領(現中將·
參謀總長)에 의하여 신중 검토되었다.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
러나 그것은 또한 韓國空軍의 態度如
何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조차 아
니었다. 그러나 連 2日間の 검토와 논
의 끝에 결국 4個編隊로 大規模出擊을
決定, 100回出擊以上の 배테런들의
人選에着手했다. 100回出擊조종사
들의 솜씨는 믿음만한 것이었다. 정
말 戰備區分 A級(Combat Rating, A
class)에 속하는 조종사의 命中率이 아
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空軍의 명예를 전이
351고지의 작전은 극비밀리에 결정
되고 영예의 作戰編隊群長 겸 第1編

隊長에는 尹應烈 중령(現准將·空士校
長)이 임명되고, 第2編隊長에 李基俠
소령(故大領), 第3編隊長에 金錦成 소
령(故准將) 第4編隊長에 玉滿鎭 소령
(現准將·空大總長), 그리고 편대원 전
원은 100回出擊 이상의 배테런들이
이렇게 해서 모든 작전제회와 편대구성
은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作命문이었다. 19
53년 3월 26일 드디어 祝賀飛行作戰
이란 이름으로 作命이 하달되었다.

日日作戰命令(Flag order)에는 당일
의 임부가 소상히 기록되고 351고
지의 最新航空偵察寫眞도 첨부되어 있
었다.

H-50분, 海軍 艦砲射擊開始
H-25분, 地上軍 砲擊開始
H-15분, Flag supation(艦砲와 地
上砲의 V T彈에 의한 敵對空砲火制壓)
TOT H+0.. 第1編隊突入
TOT H+10.. 第2編隊突入
TOT H+20.. 第3編隊突入
TOT H+30.. 第4編隊突入
TOT H+40.. 地上軍一齊反擊

※武裝 500 파운드 폭탄 2 발, 5 인치 로케트彈 6 발, 機關砲 1, 800 발. 폭탄에는 백묵으로 「一發必中」이란 글씨가 써어져 있었다.

出擊의 날, 氣象은 스키타. 雲高 12,000 「피이트」, 視程 7 마일, 비행 조건은 좋았다.

視野에 展開되는 황폐된山野가 적견지였음을 우리 조종사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出發 20分 後에는 351 고지가 바로 남개 左側 밑에 보이는地點에到達하였다. 저기에는 縱橫으로 구불구불한 많은 塹壕가 펼쳐 있는 벌거숭이高地들이 보였고, 그 周邊은 모두 죽은 듯이 잠잠하였다.

이때 우리의 「모스키이트」(偵察機)는 이미 351高地 正面의 目標附近에서 山골짜기를 살살이 뒤지며 攻擊目標을 찾고 있었다. 이를 發見하자 戰鬥機隊는 곧 目標上空에 到着하였음을 알리고 攻擊目標의 指示를 付託했다. 無線連絡은 約 20分間이나 계속되었다. 戰鬥機들은 左側으로 旋回하며 目標의

西쪽으로 進出하였다. 그러는 동안 351高地 西쪽 傾斜面 골짜기에서 黃塵과 白色煙氣를 뿜으며 로케트彈이 작렬했다. 드디어 目標의 指示가 끝난 것이다.

暫時後 目標附近 一帯에 友軍側에서 發射하는 野砲彈이 敵火力을 制壓하기 위하여 落下하기 시작했다.

編隊群長 尹應烈中領은 이때 바로 攻擊命令을 내리고 自身이 먼저 500 파운드의 爆彈을 안고 急降下하였다.

이때의 正確한 時間은 10時 39分 계속해서 2番機, 3番機, 4番機가 연달아 山골짜기로 「다이빙」을 했다.

351高地 稜線에는 赤色, 黃色의 對空標識板이 깔려 있었다.

우리 操縱士들은 照準器 속에 들어오는 目標物에 對하여 操心스럽게 「스위치」를 눌렀다. 좁은 골짜기는 瞬息間에 검은 煙氣와 黃塵으로 덮여버렸다.

操縱士들의 「레시버」에는 命中! 命中! 하는 歡聲이 連續적으로 들려왔다.

第1編隊가 攻擊을 敢行하고 있는 사

이에 第2編隊는 이미 上空에 이르러 다음의 命令을 待機하며 旋回하고 있었다.

그런데 第1編隊의 攻擊이 거의 끝날 무렵, 이제까지 잠잠하던 敵의 對空砲火가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했다. 37 「미린」의 自動 高射機關砲의 銃彈이 目標附近 一帯의 上空에다 火網을構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第2編隊는 間隙을 주지 않고 猛烈한 機銃掃射로 그들을 制壓하면서 勇敢히 敵彈幕을 뚫고 들어갔다. 無數한 불꽃이 캐노피의 위와 옆을 스쳐 지나갔다.

編隊群長 尹中領은 8,000 「피이트」에서 공격개시, 3,000 「피이트」에서 폭탄투하의 攻擊原則을 무시하고 6,000 「피이트」공격개시, 1,500 「피이트」에서 폭탄투하라는 아슬아슬한 모험을 결단했던 것이다.

第3編隊와 第4編隊가 到着하였을 때에는 目標은 이미 산산히 파피된 뒤였으나 다시 한번 命中彈을 퍼부었다.

그렇게 조심했던 100%의 命中은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슬아슬한 「패스」. 모든 반대와 기
우를 물리치고 空軍의 強烈한 투지는
351고지를 향해 무자비한 명중의 強
타를 몇번이나 되풀이했던 것이다.

이로써 我地上軍의 威脅은 만감히 사
라지고 말았다.

이날의 出擊으로 351高地一帶의
敵洞窟은 完全히 파괴되고 11個所의
번거陣地와 100「야드」以上の 交通
壕 및 塹壕가 절단 또는 파괴되었던 것
이다.

진장을 극했던 조종사들의 얼굴이 흥
분으로 변하고, 구름꾸들한 조종복이
담에 흥진히 젖어 基地로 全員이 無事
히 돌아왔을 때, 團長과 戰隊長, 그리
고 전기지의 장병들이 성공을 경축하
는 대열을 짓고 있었다.

— 尹應烈將軍 實戰記에서 拔萃 —

參戰記錄

平壤大爆擊作戰

△編

輯

室▽

우리 第1編隊群이 新幕과 沙里院을

거쳐 大同江下流의 兼二浦 上空을 通
過한 것은 1952년 8월 29일 午前
9時 15分이었다.

지난 5月の 大爆으로 굴뚝만 남아
있는 造船工場이 남개의 右側 밑에 홀
어진 장난감처럼 보였다.

第1編隊群은 마지막 폭격시발점(Initial point)인 平壤 4哩 西方의 大平
을 向하여 大同江을 따라 비행하였다.
이때 翼端左側 밑에는 푸른 黃海바다,
그리고 右側으로는 平和 그대로의 農村
이 넓고 푸른 들 사이에 묵묵히 산재하
고 있었다.

姜鎬倫中領(지금 交通部 航空局長)이
指揮하는 12臺의 F-51무스탕機는 드
디어 평양으로 돌입하는 最後地點에 到

達하였던 것이다.

空中 總指揮官은 美第51戰爆部隊의
作戰參謀——

第1編隊群은 右側으로 크게 旋回하
여 目標을 向하여 直線 코오스를 잡았
다. 平壤市街가 눈 앞에 다가왔다.

連日の 爆擊으로 廢墟化된 建物들이
푸른 街路樹 사이에 보였으나 市街는
이미 불바다가 되었고 검은 煙氣가 여
기 저기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前後 四
方에서 炸裂하는 敵 高射砲彈을 뚫고
2~300臺에 달하는 「유엔」 空軍의
各種 戰爆機가 交替하면서 市街攻擊을
敢行하고 있었다.

第1編隊群은 그 사이를 뚫고 大同江
對岸에 위치한 目標에 接近했다. 우리
目標 右側에 있는 放送局과 敵 高射砲

陣地는 勇敢한 F-84戰爆機에 依해서
설 새 없이 爆彈과 로켓트彈의 洗禮를
받고 있었다.

우리 編隊는 F-84編隊의 攻擊이 끝
나기를 기다리며 目標 外廓을 크게 旋
回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爆彈을 投下하고 急上昇하
던 F-84 한臺가 우리 編隊群 右側에
서 敵 高射砲彈에 맞아 불덩어리가 되
어 大同江 沙場으로 墜落하는 것을 보
았다.

그 순간 操縱桿을 쥐었던 우리 손과
心臟은 異常히도 動搖되었고 식은 땀이
이마와 등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이때 진장된 戰隊長 姜鎭倫중령의 목
소리가 들려 왔다.

『HOB HOB ABLE, 공격준비!』
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진스위치」를 點
檢하고, 침을 삼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종간을 툄차게 꺾어 보았다.

이때가 9時 23分.

『들어간다』

목소리와 함께 姜中領이 「로울링」으
로 第1彈을 퍼부기 위하여 「다이빙」을

시작하였다.

2番機가 目標을 向하여 機銃을 퍼부
으며 猛烈히 물입하였고, 3番機, 4番
機도 一定한 間隔을 두고 뒤따라 急降
下하였다.

巨大한 敵 車輛修理工場과 兵器工場
이 瞬息間에 火焰과 黑煙으로 덮여 버
렸다.

第2編隊가 공격을 시작할 무렵에는
검은 연기와 불덩어리 外에는 아무 것
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짐작으로
目標인 듯한 곳을 찾아 爆彈을 퍼부
었다.

제3편대도 제2편대의 뒤를 따라 실
새 없이 「다이빙」하였다.

「캐노피」와 날개 밑을 붉은 불덩어리
가 미친 듯이 스쳐 갔다.

목숨은 運命에 맡기기로 決心하고 다
만 順풍에 따라 「다이빙」만을 되풀이하
였다. 피가 머리에 물린다. 건물들이
눈앞에 벼락 같이 다가온다. 「스위치」
를 누른다. 그리고 反射의으로 조종간
을 당긴다. 이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목격의 成果를 확인하기 위해 地上에
눈을 들렸으나 煙氣의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四方으로 흩어졌던 편대機들이 全速
力으로 目標地域에서 離脫해 나왔다.

平壤市街가 아득히 뒤에 보일 때에
진장되었던 마음도 점점 풀렸고, 뒷잔
들이 맘에 흠뻑 젖었다는 것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各編隊 異狀 없다.』

戰隊長의 음성인 「레시버」를 올렸다.

『×편대 이상 없음.』

各편대에서 잘막한 대답들이 들려 왔
다.

이날의 平壤爆擊이야말로 韓國空軍
創設以來 가장 크고 熾烈한 戰鬪의 하
나였다. 이 攻擧를 감행하기 위하여 美
第5空軍에서는 2個月間에 걸쳐 綿密
한 계획을 수립, 100餘回の 出擊을
감행했던 것이다.

韓國空軍도 36회에 걸쳐 이 爆擊에
參加했고, 決死的인 攻擧으로 巨大한
敵의 車輛修理工場과 兵器工場 3棟을
完全 破壞하였는데, 이것은 美第5空軍
의 綜合戰果中 第2位の 爆擊命中率을
誇示하는 것이었다.

△林鍾斗機務役少領實戰記에서 拔萃▽

勝湖里鐵橋爆擊作戰

故俞致坤准將遺稿

황막한 비행장에는 아직도 눈보라치는 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 매웠다.

아침 동이 트기전부터 자기의 愛機를 정비하던 정비사들의 털모자가 눈이 가리울 정도로 눈터쓰고 기름투성이의 장갑을 입에다 대고 입김을 불어서 손을 녹이면서 여기 저기에 두서너섯씩 응크리고 서 있다.

이때 出陣準備을 마친 조종사들이 홀어서 각자의 비행기로 向함을 보자, 그들 정비사들도 驅歩로 따라간다. 그리고 地上點檢을 끝마치고 機上에 오르려 할 때 그들은 눈은 서로 마주치며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基地를 출발한 第1編隊와 第2編隊는 오전 8시 55분에 鐵原空공에 도

달하였고 더기에서 방향을 바꾸어 목표지점까지 직선「코오스」를 택하여 敵地에 돌입하였다.

「1952년 1월 15일」

그들은 지금 아직 역사가 짧고 또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못한 제10전투비행대대의 명예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적지를 향하여 비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1편대장은 王滿鎬소령 그리고 제2편대장 尹應烈소령은 각각 적지에 들어서는 순간 적지 아니 불 앞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UN軍 戰機가 500회 이상이나 출격하고도 성공치 못한 것을 불과 2개 편대로서 절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勝湖里 철교 爆破

임무는 절절 자신이 회박해지는 것 같았다.

「만약 실패를 한다면?」하고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는 듯하였다. 전대장 金信대령이 전우들에게 호언장담을 하던 그 언록은 또한 어찌 될 것인가?

하여간 이 일은 경솔히 행동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가치있는 임무라는 데 생각이 미치자 이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적지에 들어온지 5분도 못되어 物開里 서북방의 작은 고지로부터 12,000 피이트 상공을 비행하는 우리편 대에 對하여 미칠 듯 高射砲彈을 쏘아올렸다. 그리고 그 포탄은 모두 아슬아슬하게 편대 밑에서 터지고 있었다.

이때 저상을 내려다보니 銀幕으로 회게 덮여 있는 山野에는 폐허로 化한村落만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主補給路에는 車輛이 통과한 가느다란 자국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기지에서 출발한지 50분이 경과하

였을 무렵 굴곡진 大同江이 太陽光線에
반짝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제 목표까지는 30분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다. 평양 시내와 대동강 인도교가
날개 좌측 밑에 보이기 시작하였을 때
갑자기 진장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제1편대는 목표물을 좌측으로
내려다보며 大同江을 넘어서 크게 선회
하였고 제2편대도 그 뒤를 따라 목표
에 접근하였다.

勝湖里 「시멘트」공장 부근에서는 벌
써 두서너발의 고사포탄이 터져 올라
왔다.

비교적 정확하게 편대 부근에炸裂
하였다. 편대는 자작 심한 기동으로敵
火器를 피해가며 공격점에 들어갔다.

「공격 준비!」하는 진장한 목소리가
「레시버」를 통하여 날카롭게 들리자 편
대장機는 飛機首를 낮추고 쏘살같이
급강하하였다. 철교를 향하여 일정한
속도로 조준을 측정하면서 날아갔다.
2번기도 잔적을 두지 않고 급강하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철교 北端에서 검
은 연기가 플럭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순간 나의 조준기에 일직선으로 목표
물이 反映되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
로 폭탄 「스위치」를 누르고 로케트탄
을 한꺼번에 발사하였다.

철교 옆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
오르는 것을 보면서 3번기가 「다이빙」
을 시작하였다. 적 고사포탄은 끊임없
이 비행기 주변에서 터졌다. 「다이빙」
을 끝마친 3번기가 기수를 돌려 上
昇을 하려는 순간 좌우 날개가 흔들리
고 짙은 함정이라도 빠지는 듯한 「쇼
크」를 받았다. 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덜 주저앉고 잔등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끼쳤다.

제2편대가 고도를 낮추고 공격태세
에 들어갔다. 1, 2, 3번기가 모두
일정한 잔적을 유지하면서 제1편대가
상공에서 그들을 엄호하고 있는 동안
숨길 사이 없이 공격을 가하였다. 제
1편대가 로케트彈과 機銃으로 敵火器
陣地에 정면으로 필사적인 육박전을 감
행하여 이를 沈黙시킨으로써 제2편대
는 아무런 위협도 없이 목표를 공격할
수 있었다.

제2편대는 목표인 철교 중앙부에 다
른 두 개의 커다란 공간을 만들었다.
승리의 기쁨이 마음 속으로부터 북반
져 올라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앞
이 흐릿해졌다. 돌아가면 기쁘게 맞이
해 줄 전대장과 전우들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리면서 혼자 즐거웠다.

「산폐자들 돌아가자!」하는 意氣揚
揚한 편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
리」의 개신분을 통과하던 「나폴레옹」과
나를 비교해 보았다. 문득 전대장이 우
리에게 약속한 상품이 무엇일까? 예대
하여 상상해 볼 여유가 생겼다. 고개
를 돌리어 내 옆에 붙어오는 僚機가 보
인다. 나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
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흔들어 보
였다. 상대편에서도 같은 동작을 하여
보인다.

우리가 기지에 돌아와 「브리이핀」室
에서 전과를 보고하는 동안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찬사, 만세소리, 환호
성 그리고 전대장의 굳은 안수에는 너
무나 감격하여 눈앞이 흐려지고 말
았다.

이날 얻은 바성과는 예측 외로 놀라울 정도였다. 이날 오후에 출격한 제3편대의 성파까지 포함하여 불과 12대의 출격으로 同척교 5개소를 切斷하였고 그밖에 철도 2개소를 완전 절단하였던 것이다.

그 후 同月 25일 美 第5공군작단 대장 회의에서 우리의 이 전공이 소개되었을 때 이에 참석하였던 金信대령은 해야 할 수 없이 축하악수의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부도를 걸어오는 전대장에게 어느 미군대위 한사람이 공손히 자기 소개를 하면서 길을 가로막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다른 장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공군에 철도철단 목표를 할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였노라고 말한 다음, 심지어는 한국 공군이 성공할 것이라고 돈을 걸면서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의 우리 戰果를 보아 틀림없으리란 자신을 가지고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리면서 그는 덕분에 20블을 벌었다고 기뻐하면서 전대장의 소매를 붙

잡고 꼭 술을 대접하였노라는 것을 겨우 뿌리치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그 후 우리 제10 전투비행전대의 용명은 모든 UN군에 전해졌으며 미육

參戰記錄

死線의自然

故 金 英 煥 將軍 遺稿

우리는 「폼라인」을 넘어서 敵陣上空에 날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眞正히 祖國을 爲하여 殉할 수 있는 高貴한 몸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감촉은 조종사로서만 지낼 수 있으며, 또한 조종사에게만 부여된 영광이기도 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감촉과 榮光裡에 조국의 하늘을 날아 敵 公山군에 대한 공격목표를 捕捉하여 그들 분쇄하고야 마는 강력한 擊滅意識에 불타고 무수히 치열한 적의 對空砲火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금도 느끼지 않

군 星條紙에도 우리의 공적이 대대적으로 게재되었다.

— 空軍史 資料에서 —

을 뿐더러 無謀하거나 猜突이 아니며 逃走나 비겁을 도무지 모르고 전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폼라인」을 넘기전까지는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며 나도 모르게 어떤 形言할 수 없는 오싹하는 감촉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아예 죽음의 공포 같은데서 오는 類의 그러한 감정이 아닌 것이다. 江陵 前進基地에서의 우리의 작전은 우리 공군역사에 빛나는 영광의 한 페이지일 것이다. 그것은 과거와 같은 미군전투단의 한 부

본으로 미군장교의 손에 의한 비자주적인 전투행위가 아니라 실로 그것은 우리의 자주적인 작전지도 밑에 적군을 공격하고 적기를 遭遇하여 싸운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영광의 江陵 前進基地에서 僚機와 더불어 「푸라인」을 넘어 적진을 함할 때 금강산의 비단결 같은 단풍을 본다. 물론 우리 조종사들의 생각에는 적을 분쇄할 것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갖는 思考와 시야에는 한 가지의 집중된 목적 밖에는 전연 생각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목표물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금수강산의 고운 단풍을 볼 적마다 지극히 우아한 詩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강산이란 것이 우리의 강산이 아닌 어느 異域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다만 美에서만이 아니라 조국과 鄉土愛에서의 치열한 美感인 줄 안다. 적의 執着스러운 대공포화가 있음에도 그 적포화에 맞을 우려 없이 그러한 금강산 단풍의 美를 느낀다. 이것은 人間

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일 것이며 또한 침체된 항토에서 우러나오는 唯獨 우리 한국인 조종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적의 보급품 集積所와 적의 車輛과 적의 砲陣擊破와 적의 兵力殺傷과 적의 교량, 건물에 대한 정확한 捕捉과 命中的인 공격에 있는 것이다. 적의 대공포화는 치열하다는 말로서는 부족하리만큼 執着스럽다. 나는 出擊에 있어서 陣대의 지휘자로서 항상 僚機를 염려한다. 무전으로 연락하여 攻擊에 대한 지시와 安否와 실수 없기를 通告한다. 적은 맹렬한 對空射擊의 火焰을 퍼붓는 동시에 허다한 偽造物을 布陣해 놓고 공중사격을 한다. 이와같은 적의 위장전술에 우리 한국인 조종사들은 「絕對」라고 할만큼 숙지 않는다. 또 우리들같이 과감하고 강렬한 공격정신을 가진 조종사도 드물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들은 地上 몇 야드까지 내려가서 지상군을 공격기술도 한다. 우리 조종사들은 거의 대부분의 타국인 조종사

명중 못시키는 목표물에 몇 차례씩이나 명중탄을 보낸다. 어느 때에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僚機가 저공공격을 거듭한다. 저공산군의 어떤 위장술에도 역시 우리는 속지는 않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他國人 조종사들이 하기 쉬운 일이었음에도 우리는 절대로 숙지 않았다.

나는 한 지휘자로서 다시 무전의 연락을 한다. 그들의 음성으로 완연히 얼굴과 대도가 보이는 것이다. 비교적 조급한 語調로 무전지휘를 할 때 그들은 맹렬한 적의 砲火를 받으면서도 그 침착성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추호의 들뜬 음성이 아니라 「무사합니다」 「네 알았읍니다」가 틀림없이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조종사들의 우수성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아예 적의 대공사격을 眼中에 두지 않거나 無謀나 盲目的인 아니라 모든 주의와 포화에서의 모면과 強力果敢한 공격정신의 미묘한 조화에서 발휘되는 전투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푸라인」을 넘어서 적진 상공의

이러한 지역에서도 행하여지는 용감하고 침착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성품에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자랑하고 싶다.

한번은 저의 목표물을 발견捕捉하여 이것을 집중공격할 때 僚機들의 짓궂음을 막음 거듭 공격하는 데는 나는 지휘자로 서 위험지역에 대한 無謀를 견제치 않을 수 없었다. 대개 조종사로서 하나의 적진에 대하여 對地攻擊할 때 상당한 대공포화에는 이것을 거듭 날아들어 공격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僚機들의 그와같은 無謀를 수습하여 元山方面 해상에서 再編하여 가져고 임무를 完遂한 일이 있다.

나는 이와같은 훌륭한 조종사들로 된 우리 공군의 역사적인 발전을 본 江陵 前進司令部의 사령관의 자리와 또 여러 장병들과 헤어져서 渡美하게 되었다.

우리의 공군은 허다한 애로물 전디어 내면서 그것도 짧은 기간에 전쟁을 통하여 이만큼 커 왔다. 나는 渡美에際하여 그러한 대한공군과 우리의 우수한 기능을 가진 조종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히 더 빨리 더 많이 양성하고 그들의 성품을 연마시켜서 그것을 더욱 빛나게 발휘하며 나아가서는 후진육성

△用語 풀이▽

外貨貸付制

施設材라든가 原資材를 海外에서 導入하기 위해 필요한 外貨를 정부가 保有하고 있는 保有弗 가운데서 꾸어 주는 제도이다.

이는 中長期 內國「유전스」와 外國「유전스」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前者는 物品을 導入한 후 한국 은행이 外貨결제를 먼저 해주고 約定期日에 가서 物品輸入商으로부터 外貨를 받아들이는 방법이고, 後者는 輸出商이

에 힘이 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하였다.

— 空軍史 資料에서 —

物品을 수출한 후 이 代錢을 濟濟日에 가서 받기 전에 韓銀이 먼저 올라 해 주고 나중에 濟濟가 되면 그 外貨代錢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최근 保有外換의 急激한 증가로 인한 外換「인플레이」의 우려성이 대두되자 정부는 外換貸付制의 실시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中小企業을 비롯한 民間外貨實需要者에게 外貨를 中期에 걸쳐 꾸어 주고 滿期日에 가서 元利金을 外貨로 받아들이겠다는 방법이다.

恥辱의 그날 6.25

金炳律

△陸軍准將・國防部政訓涉外局長▽

17年前인 그날을 回想할 때마다 共產徒輩들의 奇襲의인 蠻行에 對한 憎惡心이 불꽃같이 솟아오름을 禁치 못한다.

그날 나는 오랫동안 入院中에 있던 中學同窓을 問病次 나가면 途中 憲兵白車의 요란스러운 歸隊警告에 황급히 집으로 되돌아와 家族에게는 별일 없을 것이라고는 樂觀의인 말만 던지고 作業服차림으로 明洞에 자리잡고 있었던 事務室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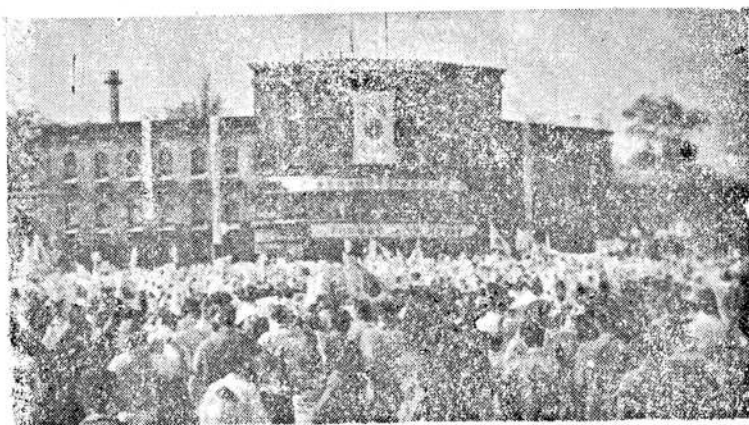
日曜日 화사한 아침이어서 市民들의 表情은 明快했으며 모차렘의 休日을 즐기고 있는 霧圍氣로 市街를 돌르게 했었다. 설마 놈들이 南侵이야 해오라 하던

것이 時間이 흐름에 따라 本格的의인 全面的인 敵의 攻擊임을 알게 된 軍의 首腦陣도 唐惶하지 않을 수 없었다.

當時 나는 陸軍大尉로서 國防部 政訓局에 勤務하고 있었으며 約 月餘前에 아이·엘렌機로 처음으로 越南해은 北傀 空軍中尉 李某(現在 空軍大領)의 歸順으로 敵의 動態와 裝備 및 南侵을 判斷할 수 있는 엄청난 戰爭準備에 關한 資料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萬若 그들이 本格的인 南侵을 決定한 한다면 裝備나 兵力面에서 우리보다 3~5倍 越等한 그들이기에 悲觀의인 結果가 닥쳐오리라는 것이 豫見되던 터였으며 그날 午後에는 前線은 既히 崩壞되어 敵의

先鋒은 首都에 肉迫하는 超緊急事態가 벌어졌다. 前記한 李某中尉의 持參한 情報에 依해 當時의 國防部長官 申性模氏는 敵의 南侵이 迫頭했음을 朝野와 美國에도 呼訴하면서 이에 對應할 수 있는 裝備와 兵力의 緊急한 措置를 促求하였으나 美國은 既히 韓國이 極東防衛圈內에서 疎外되어 있음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韓國에 나와 있었던 美顧問團長은 韓國의 地形에는 戰車戰이 適合치 않다는 등 納得이 가지 않는 見解를 表明함으로써 매우 失望케 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6月 27日 「UN」이 맥아더司令部的 緊急報告에 依하여 南侵沮



〈國軍 드디어 勇猛無雙의 友擊으로 平壤入城, 歡迎大會 光景〉

止에 自由友邦 各國의 參與를 呼訴하여 16個國 自由軍이 十字軍을 形成하여 積極的으로 參戰하게끔 決定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韓國國民의 愛國의인總 蹶起로서 敵의 攻擊을 粉碎하고 3年 동안에 巨한 荆棘의 慘禍에서 헤아릴 수 없는 民族의 犧牲을 勘耐하면서도 끝끝내 오늘날의 自由와 希望의 大韓民國을 지켜왔다는 것은 子孫萬代에 물려줄 燦然한 業績으로 先輩들의 자랑으로 길이 간직해 마땅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지난 날의 6·25에서 우리들이 刻心하여야 할 일은 첫째로 自由를 지키기 爲해서는 如何한 高價의 犧牲을 하더라도 이를 勘耐해 나간다는 崇高한 精神을 大韓民國國民全體가 한 個의 生理로 여기도록 道義的 教育을 徹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둘째로는 共產徒輩들을 그들이 勝算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어느 때는 저 再侵하는 것이 그들의 常套手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敵에 優越한 힘의 育成 保有만이 敵으로 하여금 再侵의 野欲을

拋棄케 하는 唯一의 秘策임을 銘心하고 끊임없는 對備策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는 巨視的 見地에서 自由友邦은 勿論이고 中立陣營도 包含해서 國際의 友好關係를 增進시켜 集團防衛體制를 形成發展시켜 國際的으로 共產膨脹勢力을 封鎖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하여야 함은 우리가 自由越南에 大軍을 派遣하여 自由陣營의 先驅의 役割을 다하고 있음도 그와 같은 國家의 意志의 表現임을 熟知하여야 할 것이다.

모기 속도 42킬로

헬기로 追跡 測定

보기에 는 別로 빨리 날으는 것 같지 않은 나비나 모기가 사실은 시간마다 42「킬로」의 빠른 速度로 날고 있다는 것이 「헬리콥터」로 따라가 본 바로 알려졌다.

詛呪의 惡夢

方



榮

△朝鮮日報社 會長△

해마다 6·25가 되면 잊었던 惡夢이 되살아난다. 그때의 悲劇이 어디나 하나만의 슬픔일까 많은 6·25의 傷處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린이의 무서운 꿈처럼 때가 되면 다시금 살아나곤 한다.

渡江을 못한 것이 不幸의 시초였다. 서울에 共産軍이 들어오자 며칠 후 우리 집에도 「政治保衛部」라던가 하는 곳에서 私服과 軍服차림의 청년들이 찾아왔다. 「反動의 집」이라는 뜻인지 장농, 쌀독 할것없이 모조리 「딱지」를 붙이고 갔다. 내 집 살림이 전만 손 하나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날부터 살아나가는 것이 막막하

였다.

年老하신 할아버지에게 쌀밥한 그릇 해드리지 못했다. 나는 糧食을 求하러 매일 이곳저곳 쏘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拉北당하시던 날도 糧食을 求하러 나가고 집에 없었다. 아직 20代의 靑年이던 나는 大韓靑年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몸이었다. 身邊에는 危險이 언제나 따라지만 糧食을 求하기 위해서는 별 수 없었다.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뛰어 나오시더니 빨리 피하라고 손짓을 하셨다. 나는 그길로 집에도 들리지 못하고 몸을 피했다.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拉北되어가시

는 것을 직접 뵈지 못한 것이 오늘날까지 恨이다. 年老하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어떤 접대를 받고 食事は 어떻게 그리고 주무시는 곳은 어디에서, 北쪽 땅의 추운 겨울철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언 16년의 歲月이 흘렀다. 이제 할아버지의 연세도 80歲가 넘었다. 그 高齡의 몸으로 16年이라는 긴 나긴 歲月을 어떻게 지내셨을까. 生死조차 杳然한 할아버지의 消息. 6·25가 돌아오면 16年前的 그날이 생각나고 그날을 생각하면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 詛呪의 6·25여!

空軍風俗圖

(2)

金

淳

慶記

第1章 空軍「유니폼」有感

얼마 전 일이다. 공군본부에서 尉官 將校 全員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일이 있었다. 버란간에 불호령이 떨어졌지라 「펜」대와 서류용치를 벌려 놓은 채 모두 부랴부랴 뛰어 나갔다. 공군본부의 집합치고 가장 빠른 記錄이었을 것이다.



경례태도의 不良이나 군기확립에 대한 氣合(?)이 아닌가 하고 戰戰兢兢하면서 정렬을 재빨리 했다.

결과 는 이게 아니라 服裝檢査를 위한 집합이었던 것이다. 前列에 늘어선 20餘名을 『10步 앞으로 갔!』해서 빼어 놓고 뒤로 물러 보니 입고 있는 부장의 색깔과 原緞의 質이 千態萬象이었다. 흔히 「空軍은 紳士, 멋장이」라는 榮光의 稱號의 一部分도 우리 공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유니폼」의 매력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막상 將校들의 복장을 자세히 검토해 볼 때에 과연 「軍服」이 지녀야 할 「統一性」을 完備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對해선 新 뜻 首肯이 안 가게 된다.

우선 服地의 빛깔과 原綴의 質이 每年 다르게 支給되어 온 탓으로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물론 被服豫算과 軍援物資의 애로가 있을 것이나 團結을 과시하고 一絲不亂한 「統一」을 表徵하는 「유니폼」의 長期的 對策이 적진할 줄 안다.

第2章 「文官」論

이제 우리의 建軍史도 「요란」에서 벗어나 「TAKE-OFF」段階에 處해 있다고 보겠다. 모든 制度나 運用面에 서의 획기적인 발전이 거듭되고 있음에



는 우리가 알지 못한 숨은 일꾼들의 노력이 뒷받침한 事實을 알아야 할 것 같다.

항공기 정비작업에 半生을 바쳐온 技術者, 급양업무에 종사해 온 半白의 調理師, 車輛修理에 10餘年間을 종사해

온 성실한 「엔지니어」, 기지시설과 繕繕 업무를 맡아 온 「베터런」木手、 그리고 묵묵히 직장을 지켜 온 오랜 知面들인 「文官」님들의 고마움을 우리는 잊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에서 「文官」의 地位問題가 아무래도 애매한 것 같다. 새파란 一等兵이 손위벌의 文官에게 「영감, 이것 좀 해 주구」하는 光景을 散見할 때에 다시 한번 軍內에서의 「軍屬」處遇問題와 더불어 制度面의 考慮가 아쉬워지게 된다.

戰地를 달리고 國土守護를 使命으로 하는 軍隊組織內에서 심세한 감정의 餘裕를 부여주고, 特殊技術을 奉公하고 있는 이들 역시 우리 戰列 가운데의 一

員임을 다 같이 共感해야 될 것 같다.

女文官諸嬢, 신봉종소지와 명찰패용을 강조하는 근무자에게, 또는 出退勤 버스 속에서 좌석을 안 내주는 무뚝뚝한 「男性」네들에게 짜증부터 부리저마시라. 軍內의 諸規定에 적용되도록 깊은 理解心으로 명랑, 유쾌스런 분위기造成에 一役이 되어 주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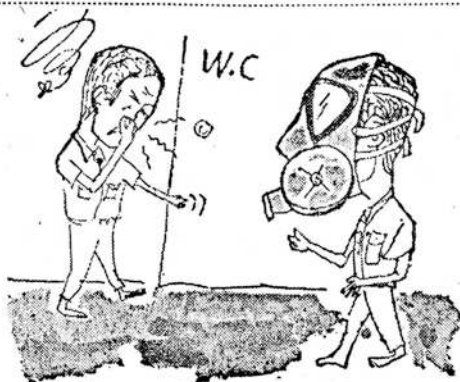
空軍의 전통 「人和團結」은 또한 여기에서부터 補完되는 것이니까.

第3章 營內「W.C」

그 家庭의 규모와 主婦가 부지런한지 如何는 윤끼나는 마루질레질과 집안의 「변소」청결상태에서 測定된다고들

한다.

어느 女學校에 가서 構內便所에 꽃이 놓여 있고 신발을 안 신고도 들어갈 수 있는 光景을 보고 바로 그 學校의 校風



과 學生의 水準을 評價했노라는 老境의 敎育자가 얘기한 것이 생각난다.

우리 軍人의 家庭이라는 「兵營」의 화장실 청소상태는 과연 如何한 것일까.

비록 시설이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청소」 하나라도 성의껏 해 나가야만 하겠다.

日朝點呼를 끝내고 當番人員만이 나와서 물이나 끼얹는 정도의 형식적인 걸치례에 그칠 것이 아니다. 우리의 戰友들이 다 함께 사용할 이 「思索의 場所」를 서로 美化해 보자.

內務班長諸公, 내일부터라도 가까이 있는 營內便所의 청소에 귀관의 반원을 인솔하고 가보지 않으시렵니까.

基督教의 共產主義의 理論的 對決

金 在 俊

△한국신학대학·명예교수△

基督教에서 共產主義에 對한 態度 또는 理解는 그 基底에 있어서 共通點이 있는 것은事實이나 그表現과 詳細한 部分에서까지 千篇一律의 인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알스 웨스트의名著「共產主義와 神學者들」이라는 책을 읽어 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冊에서 다른 神學者들만을 舉論하여 볼지라도 共產主義와 基督教과는 共存할 수 없는 敵對關係에 있다는 主張 強硬한 立論을 主張하는 에밀 부른네 같은 이가 있는가 하면 共產主義는 西歐文明에 대한 하나의 審判이며, 따라서 共產主義와의 對決에서 西歐文明은 反省과 悔改와 更新을 促成해야 한다는 가장 柔和의 인호로 마디가 같은 이도 있다. 그 中間에 宗教의 社會主義를 提唱하는 바를

달리히, 美國의 人 現實主義에서 共產主義와 基督教을 다룬 니버「하나님의 啓示와 全體로서의 歷史에 대한 하나님의 經綸等」에서 神學的으로 共產主義를 다룬 칸 바르트 등이 詳細하게 比較研究되어 있다.

부른네에 依하면 共產主義는 가장 徹底한 全體主義에서 全能한 政府가 神의 자리를 僭奪한 것이며, 하나님 없는 人間의 「비전」을 強行하려는 것이라 했다. 即ち 人間은 自己가 自己存在의 根據인 때에 참 자유人이 된다.從來의 人間이 宗教的으로 神에 依存한다는 것은 資本主義制度下에서 人間이 經濟的으로 資本者에 依存했던 現實을 反映시킨 것 뿐이다.... 人間社會에서 擲取가 없어지고 온전히 平等

한 存在로 될 때에는 人間은 絕對自由人이 된다고 믿는 마르크스는 人間을 物質的 欲求面에서만 보았으며 大衆(대중)으로만 보려 했고 따라서 集團의 인 단속 方法에 運命을 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가 全體主義 形態를 취한다는 것은 不可避한 歸結이라 했다. 그것은 기독교의 人格의 自由, 社會的正義를 多元的 會議體 構成에 依하여 具現하는 方向을 높이 評價하고 國際聯合과 美國의 役割에 큰 期待를 걸었다. 人間自體를 內面的으로 更新하는 기독교와 人間을 前面的으로 社會에 묶어 集合體를 만드는 共產主義와는 兩立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 없는 人間의 絕對自由란 人間神化에 依한 人間沒落 以外에 다른

아무 것도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제코의 호로마디카博士는 世界的 神學者로서 共產圈內에 머물고 있는 唯一한 사람이다. 그가 共產主義에 意識의 人 敵意를 가지지 않으려고 努力하는 사람이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가 共產主義의 惡과 危險에 盲目인 사람인 것도 아니다. 共產主義가 權力을 集中하여 全體를 驅使하는 것이 個人的 獨裁慾과는 다른 集團意志의 表現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世界 赤化에 進出하는 때 世界破滅을 가져올 위험이 深刻하며, 그들의 唯物論的 歷史哲學은 歷史進展의 餘他 諸要因을 無視하므로 말미암아 頑冥에 빠지는 憂慮가 많으며, 마르크스의 唯物論的 革命이 人間自由와 人格의 尊嚴을 守護할 수 있겠는가는 疑心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共產主義哲學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아니다」 하고 맞서야 할 세 가지를指摘했다. 「① 國家와 社會가 아무리 強力하고 有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人間의 絕對 忠誠을 强要할 권

리는 없다. 都會의 終末學的 證言은 마르크스의 理論에 正面으로 對立한다. ② 人間의 價値는 人間自身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며 人間集團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教會는 人間價値가 다만 그리스도 안에 根據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가령 無階級의 社會가 到來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人間敎護를 위한 그리스도 證言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人間悲慘의 根源은 階級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自身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는 同時에 西歐 基督教文明의 崩壞의 因 缺陷과 너무 過히 資本主義에 迎合한 教會의 過誤等을指摘하고 悔改와 正을 促求했다. 그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無神論은 反資本主義, 反封建主義 運動을 위한 政治的 武器 또는 方便으로 案出된 것이요, 어떤 明確한 信念이나 形而上學으로 樹立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唯物論的 歷史觀은 歷史自體 안에서 歷史를 解釋하려는 立場이므로 이것은 歷史를 제대로 보지 못할 運命에 있다고 했다. 歷史를 超越한 永遠한 眞理와

標準에서 歷史를 보는 기독교적 歷史哲學이 要請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호로마디카의 對共產主義 論調는 기독교와 共產主義를 마치 2層의 構造와 같이 생각하는 그것이다. 即 共產主義는 窮極의 眞理나 最後의 善에까지 갈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包含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는 現歷史의 「다이나믹」이다. 그러므로 第1層 工事が 끝나면 第2層인 기독교 眞理가 要請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見解인 것 같다. 그러나 共產主義는 호로마디카의 期待를 正當化할 아무 意圖도 갖고 있지 않다는 事實을 그는 正視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에 對立하는 하나의 對立的 信仰體系요 결코 2層이라는 段階의 人 해석을 용납할 여유를 갖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설사 2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어이 떨어버리려는 것이 그들이 心算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科學을 絕對化하고 그것에 絕對의 忠誠을 바치도록 强要한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하여는 하나의 獨斷이라고 밖에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만남에서 생기는難關은 훨씬 더 深刻한 것이라는點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共產主義에서 公産革命을 경험하고 그 길에서 公産主義의를 批判한 亡命哲學者 벨자에브의 公産主義觀을 우리는 無視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는 기독교의 人權主義에 陶醉하다 싶이 한 人格主義者니 만큼, 公産主義의가 歷史와 人間을 內部的의로 拘束 強要하는데 대하여는 根本的인 反撥을 表明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公産主義에는 모든 眞理와 함께 단 한 가지 거짓이 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거짓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다른 모든 眞理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무거우며 동시에 다른 모든 眞理를 破壞하고 만다」고 했다. 그「거짓」이란 것은 하나님과 人間과를 함께 拒否하는 그것이라 하였다. 보이엔바하는 저어도 後者만은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經濟에 形而上學的, 宗教的着色을 試圖하여 거기에 敎育의 소망을 賦與했으며, 그리하여「國家資本主義」에 宗教的情熱을 부어 넣게 되었다. 그러

므로 共產主義는 非人格的인 集團主義(Collectivism)인, 社會主義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歷史的의로 意味가 있다면 그것은 歷史에 대한 하나님의 審判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했다. 너무나 貪慾的인 歷史에 대한 하나님의 審判의 道具로 불세비들이 使用되었으나 불세비들自身은 그것을 理解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滅亡을 自招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共產主義者 以上으로 革命에 熱情的인 人物이다.

그러나 그는 共產革命은 社會革命이 아니라, 以暴易暴에 不過하며 같은 人間의 魂의 부를 換은 의복으로 잘아입고 새 人間의 魂을 登場하여 橫暴을 恣行하는 것이라 했다. 社會革命은 人間自體를 內面的의로 更新하는 人格革命에서만 기대된다는 意味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강조했으며, 때로는 神秘的인 境地에 그의 思索이 深化하는 일도 있었다. 그는 기독교적인 立場에서「人格主義的 社會主義」를 提唱하였으며 그것은 부른너의「共同社會」안에 있는 個人(Person)이란 말이나 탈리히의「神律的文化」란 말과 서로 통하는 얘기가

하겠다.

美國의 니버는 理論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 自身の「디트로이트」市 敎會에서 겪은 경험에서부터 出發했다. 그는 資本家와 勞動者間的의 緊張關係, 그리고 그 勢力均衡에서 社會가 安定된다는 相對的關係를 中心으로 그의 思考를 展開했다. 그는 人間을 考察하는 가운데서 人間의 罪惡性에 깊은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漸次 神學的의로 되어 그의 有名한 人間論이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現實을 重視하기 때문에 空疏한「유토피아」를 斷然 拒否했다. 妄想的인 飛躍이 世界를 流血과 混亂에 몰아 넣는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共產主義는 硬質유토피아니즘이어서 그 橫暴과 破壞가 더욱甚하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와 提携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同盟國과 行動을 같이 하려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共產主義의 獨斷論과 無理한 單一化는 너무나 큰 虛僞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西歐政治의 現實을 다루기에는 適合하지 못하며 強行한다면 또 하나의「파시즘」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主義의 기독교인은 歷史의 現實에서 可能한 最善의 改善을 위하여 社會의 平和의 變革을 最大限으로 企圖해야 한다고 했다. 共產主義는 自身에게 無制限 忠誠을 要求하는 態度에서 스스로 宗教化한다. 그러나 그것은 高等宗教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人間의 超越의 自由를 確保하는 二元的 餘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國家至上主義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偶像으로 밖에 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共產主義는 惡魔요 美國은 天使라는 식의 安易한 自家流의 判定을 是認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西歐文明의 峻嚴한 批判者였으며 美國의 豫言者였다. 그리고 그 豫言의 成就是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기대했다. 歷史는 歷史自體 안에서 그 意味와 成就를 기대할 수 없다. 歷史自身이 犯罪者로서 救援主를 要請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지금 우리의 歷史는 十字架 그늘의 黃昏에서 復活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情況이라는 것이다. 칼 발트는 하나님과 人間, 啓示와 理性, 永遠과 時間等을 明確한 對立關係에

서 붙과 同時에 그리스도라는 仲保者에 依하여 그 兩者가 緊張關係을 이루고 人間은 辨證法的인 危機를 건는 信仰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共產主義는 19世紀 産業革命에서 생긴 人間機械化가 靈魂없는 人間像을 만들어 낸 그것을 基盤으로 하고 더욱더 「로보트人間」의 惡靈에 陷入한 것이라고 하며, 따라서 唯物論的인 歷史觀을 案出하는 것이라고 했다. 共產主義에서의 소위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人間의 온갖 哲學의 一部여서 그것은 하나님 自己疏外에서 脫出하기 위하여 만든 온갖 프로그램은 信仰的 決斷과 다른 것이 아니라 했다. 발트에 있어서는 罪안에 있는 否定的인 人間存在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應答하는 肯定的인 人間存在에로 變해지지 않는 限人間이나 歷史에 救援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共產主義에 歷史救護의 소망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 倫理의 立場이나 萬有的 主宰者이신 하나님이라는 神學的立場에서 볼 때 共產主義가 神에서 離脫

한 自由享有者일 수 없다는 것만은 사실이며, 따라서 共產、資本 두 主義가 함께 하나님의 審判과 更新을 기다려야 할 存 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西方 自由陣營의 터무니 없는 교만과 自己主義化는 발트의 猛烈한 攻擊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世代는 다시 一轉하고 있다. 이른바 後期 共產主義時代로 轉入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의 宗教的인 後光은 날로 消散되고 있으며 흐르시초프以後 共產主義는 「이데올로기」보다도 「내셔널 인테레스트」(國家利益)에 左右되고 있다. 共產陣營의 兩大國인 소련과 中共의 對立은 「이데올로기」의 差異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國家의 利益의 相反에서 오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共產主義는 世界革命、새世紀의 誕生을 위한 메시아의 情熱보다도 自由民 生活向上的 道具 또는 方便으로 轉落했다. 그러므로 未來世紀는 亦是 기독교의 人間革命에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事實化하고 있다.

共產國家에 있어서의 宗教



— 宗教는 果然 消滅되고 말 것인가? —

金 蒙 恩

△ 新 報 · 大 南 報 主 注 稿 稿 △

宗教는 共產主義 國家인 소련에도 存在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宗教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宗教는 天上에 있는 것이 아니고 地上에 있는 것으로서 邪惡한事實(La réalité perverse)라 나탄 것이며, 이 宗教의 理論은 착취적인 社會組織인 만을 破壞되고 自滅해버릴 것이다.

……人間에 依한 人間의 擄取는 끝날 것이며, 社會主義가 資本主義를 쳐 이길 때 宗教는 죽어가기 始作할 것이다.」여기에 對한 소련 共產黨의 선언은 이러하다. 「社會、經濟 및 모든 分野에 있어서 共產黨의 法則이……實現될 때 自動的으로 宗教는 完全히 消滅될 것이다.」그러나 그

들이 말하는 宗教에 對한 消滅法則은 과연 어떻게 實現되어 왔는가?

한편으로 포이에르바하는 「神이 人間을 創造한 것이 아니고 人間이 神을 創造했다.」神의 意識은 人間의 自己意識이며 神의 認識은 人間의 自己認識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포이에르바하는 個人的인 立場에서 宗教를 보았고 마르크스는 社會的인 立場에서 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社會的 意識의 殘有物」을 宗教라 하였다.

해설은 마르크스보다는 自然科學的인 唯物論의 影響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

그는 辨證法을 自然에까지 適用시키면서

「反뒤이링論 = Anti-Dühring(1878)」 「自然 辨證法(1883)」 「포이에르바하論(1886)」等 著述에서 마르크스主義의 哲學理論을 어느 程度 體系的으로 解說的으로 서술하면서 「宗教란 人間의 每日의 生活을 支配하는 外的인 힘의 源泉인 人間의 머리 속에 있는 架空的이고 幻想的인 생각에 不過하다」라고 하였다.

이렇듯이 舊 思想家들이 宗教를 들어 표현해 왔으나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消滅法則은 어떠한가? 近來의 소련은 宗教—카톨릭—에 대하여 갖가지의 선언 방법을 통하여 無神論을 主張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의 條件下에 信者들을 묶어 버린다. 어찌서일까? 여기서 말하는 條件이란 것은 아주 미묘하다. 그러면 좀더 詳細하게 研究해 보기로 하자.

유럽과 아시아의 人民共和國에 있어서 共產主義가 追求하는 것은 같은 目的이다. 그 條件과 方法에 있어서는 불란서의 경우와는全然 다른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問題되는 것은 社會主義化된 人間의 意識 가운데 「資本主義의 殘有物」의 하나로 看做되는 그리스도教的 現實(La réalité)을 漸次的으로 消滅시키는 데에 있다.

人民共和國國家에 있어서의 共產主義가 그리스도教徒와 敎會에 對하여 取하고 있는 態度에 關해서는 再三 分析되어 왔다. 그것은 國家와 國家에 따라서 다르며 또 1945년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宗敎生活의 強度와 그들이 屬하고 있는 所屬團體(카톨릭, 회람正敎, 러시아正敎)와 各 나라의 國內의 共產主義의 特殊한 狀況과 그것이 여러나라에서 일으키는 反響 때문에 依하여도 다르다.

이러한 態度와 그 發展의 갖가지 局面을 여기에 叙述하기보다도 이 論題에서 重要한 것은 共產主義가 지난 15年以來 그 發展途上에서 그리스도敎와 一致한 地點에서 그리스도敎에 對하여 追求한 目的과 採用한 方法을 明確히 하는 데에 있다.

그들의 目的이란 것은 明白하다. 이것은 共產主義 運動이 追求한 一般의 目標에 直接的으로 結付되어 있다.換言하면, 1917年以來 소련에서 實現된 것을 모델로서, 集團主義型的 經濟社會를 創設하므로 인하여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抑壓의 一切의 形式과 人間의 意識을 채우는 이데올로기의 全體 型式에서 完全히 決定的으로 解放된 새로운 人間을 創造하는 것이 것이다. 또 특히 그리스도信者가 問題인 경우는 共產主義의 人間으로 變貌하는 것의 커다란 障害物의 하나라고 看做되고 있는 宗敎의 信抑에서부터 그들을 떼어놓을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目的은 漸進的으로 밖에 達成할 수 없다. 따라서 거기에 到達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의 段階가 있다.

于先 급한 것은 目的을 明確히 하므로

若干의 경우를 除하고는 殉敎者를 낼 수 있으며, 또한 自己들에게 害로운 反動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信者가 敎會에, 即 카톨릭信者가 로마 카톨릭敎會에 所屬해 있다는 事實에서, 그리스도敎가 統一된 하나의 政治力을 형성한다는 見解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國民의 인 同時에 國際的인 政治力을 解體하는 길이다. 여기서 追求해야 할 目標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 人民共和國의 카톨릭 共同體를 世界 카톨릭 共同體에서 分離시킬 것.

2, 카톨릭 共同體를 國內의 相對되는 여러 要素와 分離시키는 것 등이다.

敎會를 「組織된 政治力」이라고 看做하는 敎會에 對한 이러한 解釋은 多少의 實際의 態度——그것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를 一貫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全部는 아니다. 카톨릭信者 가운데 있는 信抑과 敎會에 對한 忠誠을 消滅시키는 作業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기 위하여 敎會에 對하여 不信을 조장시키고 그리스도敎信仰을 억

누를 수 있는 운동을 일으켜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운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精神的인 再教育을 通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解釋에 依하면, 問題는 教會를 直接的으로 破壞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企圖하면 오히려 두려운 反對의 結果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教會라는 制度를 漸次的으로 變質시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教 內容이 各信者들의 日常生活에 있는 共產主義의 態度를 받아들임으로써 次次로 無力化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制度가 制度로서 存續하여 오는 限 共產主義의 樹立에 協力하게 하는 것을 꾀하여 온 것이다. 信仰을 緩慢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確實한 方法은 그리스도信者라고 自稱하는 사람들을, 마르크스主義의 人 精神 안에서 行動하게 함으로써 그들 信仰을 조금씩 抑壓하는 것이다. 教會制度는 탄압하면 오히려 이상한 逆反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教 共同體의 責任者와 主敎 或은 司祭(神父)가 共產主義의 精神에 依한 運動에 協力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

게는 가장 要求된다.

그렇다면 段階를 조금씩 實現할 수가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이 期間은 나라에 따라 多少 다르지만 共產主義 權力은 教會에 對하여 公平하게 처신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 部面에서(學校라든가 結婚이라든가) 유혹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 運動은 끝내는 카톨릭信者의 側으로부터의 反對에 당면하고 만다. 그러나 이 경우 이 카톨릭信者들은 共產主義 政權의 周圍에서 再形式되는 어떤 國民의 共同體 가운데에서 分派의 要素로서 나타나게 된다.

1949年 中國에서 行하여졌듯이 宗教上의 自由가 宣布되기까지는 한다. 그러나 同時에 共產主義의 精神에 依한 情報과 教育이 提案되고 있다. 그리고 이 情報과 教育은 다음으로 善良한 市民에게 있어서 免할 수 없는 하나의 義務로 되어 버린다.

이 心理的 緩和의 時期 혹은 有利한 條件形成을 爲한 準備期間은 大部分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後에 찾아오는 段階에 있어서는 지열한 對決이 번

어진다.

이것은 信者의 마음 속에 教會에 對한 「不信을 심고」 붕괴를 꾀하기 爲한 特別한 努力이 지불되는 時期이니만큼 努力이 크면 그에 따라서 普遍的이고 카톨릭의 統一을 崩壞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宣傳活動에 있어서는 敎皇은 財政的 政治的인 굴레에 의하여 帝國主義 勢力에 눌리운 바티칸國의 으름으로 看做되고, 그리스도敎는 資本主義에 隸屬하는 道具 或은 白色人種에 依한 黑色人種征服을 爲한 道具로 看做되며, 儀式은 迷信으로 취급되며, 모든 宗教는 科學 以前的의 精神狀態의 殘存物이라든가 또는 科學發達에 反對者로 看做되고 攻擊당하고 있다. 主敎들은 人民共和國 諸國家의 褻瀆國民의 利益에 대한 敵에 지나지 않는 바티칸政策의 協同者로서 攻擊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適合한 宣傳文句의 一切 테마(그리스도敎라든가 宗教라든가)가 그들에게서 討議되고 있는 大衆集會의 效果를 完全한 것으로 한다. 宣傳은 同等에 또한 過去의 行爲와 教會와 資本主義的經濟制度와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여러가

지의形態를 告發하고 있다. 例를 들자면 土地私有라는가 私有財産等.

이와같은 局面을 目標로 하고 있는 카톨릭 共同體의 狀況、다음으로 多少 緊張과 또 그 繼續期間을 가진다. 이 局面은 努力이 企圖되는 當初에는 겨우 存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 局面은 共產主義와 카톨릭 시즘의 關係의 總體 안에 항상 存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人間의 再教育을 爲한 하나의 形態인 것이다.

여기에 계속해서, 혹은 이것 代身으로 그때의 狀況에 따라서 拘留 혹은 演出 効果를 피하는 裁判의 時期가 찾아온다. 이것은 1922年과 1923年에 카톨릭 教會에 對하여 소련에서 行하여진 것과 같은 種類의 裁判으로 1948年 항가리에서 民권 뒤 추기경의 拘留당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拘留에 앞서서 學校、慈善團體、靑少年組織、出版機關等 特히 카톨릭의 人組織과 集團의 解體가 企圖된다. 愛國의 人組織이 여기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으나 이 愛國의 人組織은 다음의 세 가지의 利點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聖職者

와 平信者의 如何를 不問하고 카톨릭 信者 사이에서 이 愛國의 人 組織에 參加하는 사람과 參加하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 不和를 자아내는 것이다.

카톨릭의 勢力 혹은 적어도 그 大部分이 共產主義와의 協同的인 活動에 動員되고, 共產主義者의 精神에 의하여 指導된다는 事態 혹은 이 카톨릭 勢力이 普遍的인 教會의 統一을 暗黙 가운데에 집어 넣으려는 原理에 參加한다는 事態를 자아내는 것. 教會가 制度인 限制度로서의 教會의 影響력이 國家에 依하여 追求되고 있는 目的을 達成하려고 하는 것等.

이러한 全體의 人窮極의 目標은 共產主義의 人意味로서의 人間精神의 再教育이라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目擊者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共產主義가 누군가를 再教育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全的으로, 根本적으로 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思考方式、人間의 全體的인 精神生活와 活動性、그 생애 對한 感覺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黨派에 屬하는 人間의 世界觀、思考와 生活와 行動의 方法이 참으로 共產主義의 이기를 원하고 있다.」

再教育은 이것의 方法으로 實行되리라. 教育會議、學校、會舍、自己批判等. 이와 同時에 共產主義의 精神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있는 運動에의 參加는 理論的 教育에 살(肉)을 주는 것이리라.

以上的 敘述은 人民共和國 諸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와 그리스도敎와의 對決의 內容을 要約하여 놓은 것뿐이지 그 內容의 完全한 展開라는 點에 關해서는 全的으로 檢討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때때로 지금指摘한 諸要素는 여러가지의 경우에 서 찾아볼 수 있다. 共產主義側이 얻은 成果와 이 共產主義者의 活動에 對한 카톨릭側의 反動에 關하여 어느 것이나 말하지 않는 것은 또한 그것이 모두 未完成狀態에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여기서는 共產主義와 그리스도敎와의 對決의 全貌를 敘述하는 것이 目的이 아니고 共產主義에 依하여 追求되고 있는 目標과 實行에 따르는 方法을 明確히 하는 것이 目的이다.

아직까지의 敘述에서 보면 共產主義者의 目標가 直接 그리스도敎의 公公然한 迫害에 있는 것이 아님이明白하다.

이와같은迫害는 단지 附隨의 現象이며 이러한 手段은 共產主義에 屈服하고 있는 國民의 內部에서 그리스도敎 共同體를 解體시키기 위하여 必要한 限度內에서 使用되고 있다. 目的은 그리스도敎 信仰의 消滅이다. 따라서 여러가지의 批判, 告發 그리고 ฆ을 通하여 攻擊의 目標로 삼고 있는 것은 敎會에 對한 信者들의 忠誠이다. 왜냐하면 敎會의 忠誠에 상처를 남으로써 微妙하고, 그러나 確實한 方法으로 그리스도 信者의 信仰을 摧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敎會에 對한 人民共和國 國家의 態度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은 上記한 方法外에 온갖 手段으로 宗教를 迫害하고 있다. 그렇다만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宗教는 消滅되고 말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眞相을 알아 보기로 하자.

우리는 新聞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소련을 비롯한 衛星國家에서의 宗教를 읽어 볼 수 있다. 現今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最近 美國上院에서 發表한 것을 알아보자. 「北韓과 越盟政府가

똑같이 그리스도敎를 消滅하려고 온갖 努力을 하나 그 方法은 전혀 다르다.」 「共產主義下의 敎會와 國家」를 研究하는 上院 議院 國內安定分科委는 「北韓에서는 그리스도敎를 根絶하기 爲해 甚한 迫害를 가하며 越南에서는 침투자 전으로 敎會團體를 虛弱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布敎 1千年을 지낸 폴란드에서는 3日間 「자스나고라」 修道院에서 열렸던 行事에 수십만을 헤아리는 信者들이 參禮하였으니 宗教가 共產主義에 對해서 完全히 勝利하였다고 믿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同行事에 共產主義者의 障害가 없지는 않았으나 敎宗特使로 任命된 뷔 추기경은 강경하고 슬기롭게 行事를 進行시켰다. 또 「메이메이」에 플란드當局은 이 날을 記念하는 赤色旗를 달도록 하였으나 「자스나고라」 修道院 주위는 밤새도록 敎宗旗가 壓倒의 으로 휘날렸다고 한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토록 細密한 計劃을 세우면서 神의 消滅을 꾀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信仰이 불타고 있는 것일까? 共產主義는 그릇된 구원의 思想과 그릇

된 社會正義와 그릇된 平等主義 및 勞動에 있어서 그릇된 友誼와 熱狂을 주는 하나의 信條이다. 또 不均等한 分配에서 오는 非正常的인 貧困과 經濟力의 發展을 目標로 하는 手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共產主義의 特色이라 하겠다.

그들은 人間을 모든 制度 아래 노예로 취급하면서도 絕對平等主義를 부르짖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된 哲學이나! 人間에게는 勿論 平等權이 있다.

그러나 個人間에 있어서 年齡, 社會的地位, 理知的이고 倫理的인 差異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共產主義는?

또 그들은 家庭을 破壞하고 있다. 父母는 子女에 對한 生産의 主動者일 뿐 아버지로써의 責任이 없으며, 女子는 生産道具에 不過하다. 또 社會秩序를 破壞한다. 그들의 社會의 唯一한 使命은 物質의 進歩이며 人間의 目的은 物質의 향락 뿐이다. 따라서 道德秩序와 法秩序는 이 目的(生産)을 爲해서만 存在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한 解答은 儼한 것이다. 筆者는 올바른 判斷을 讀者 諸位에 依賴하고 싶다.

<論 文>

身元調查制度의 改善方向

②

車 孟 震

△中尉・監察監室▽

3. 調査段階

(1) 調査對象範圍

身元調査의 對象範圍는 行政府의 公務員만도 約 25萬에 達하며 國營 및 政府管理企業體 傘下職員과 陸海空軍 海兵隊의 軍人 軍屬을 包含한다면 거의 100萬이라는 莫大한 數에 達하게 될 것이다. 이에 比해서 美國의 「人事安全保障制度」의 被適用 公職者도 거의 600萬名에 達한다고 하며 根據法令인 公法 733號는 政府의 11個省廳의 職員을 모두 對象으로 하며(國務省、商務省、司法省、國防省、陸軍省、海軍省、空軍省、沿岸警備隊、原子力委員會、國家保全資源局 및 國家航空諮問委員會)議會와 聯邦法院의 職員만이 權力分立의 原則에 依據, 大統領의 命令이 미치지 않을 뿐이다. 그 외에도 原子力委員會 職員과 契約者를 爲한 原子力委 安全保障計劃、國防省의 契約 雇傭者를 爲한 產業安全

保障計劃、美國의 航海船員에게 適用되는 港灣安全保障計劃 및

國際組織의 勤務職員에게 適用되는 國際職員計劃等이 있어 各適用範圍를 確立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身元調査의 對象은 大統領令 1664號에 公務員任用 豫定者、秘密取扱認可 豫定者、海外旅行者(入國僑胞포함)、各級機關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者와 公共團體 직원과 任命上 政府承認이나 同意를 要하는 法人職員等으로 規定하고 있다.

또한 大統領令 4號는 軍人、軍屬은 國防長官이 高級公務員、判檢事、大學教授等은 中央情報部長이、其他의 者는 內務長官이 調査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被調査者의 權益을 無視한 一括的인 調査는 全員을 嫌疑者視하며 또한 「많은 對象者에 대한 是인 調査官」은 必然的으로 形式的인 調査의 拙速을 招來하게 된다. 實例로서 調査對象者의 家族訪問에 의한 陳述記錄、身元陳述書의 卓上構想에 의한 恣意的 作成等을 招來하여 重大한 個人의 權益을 侵害한 일이 있었다. 또한 身元調査는 定期、不定期의 인 繼續調査가 希望되나(適格者라도 恒常 身元에 變

動이 있기 때문에) 對象者가 이와같이 廣範圍한 경우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調査 대상범위를 縮小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實質的인 安全保障과 全體公務員의 마음의 부담을 除去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 縮小範圍

國家安全保障上 極히 必要한 範圍로 縮小해야 한다. 卽「國家安全을 害할 機會가 있는 일」에 從事하는 者로 限定할 것이며 다시 區分하면

(가) 國家安全保障上 秘密로 區分된 資料에 接近하는 業務 (秘密取扱業務)

(나) 國家安全保障과 重要關係가 있는 政策立案者의 擔當業務 (主要補職者業務)

美國을 例로 들어 보면 600萬名の 聯邦職員中 上記와 같이 減縮한다면 約 150萬으로 된다고 한다. 卽 75%의 減少가 되는바 이 75%의 減少率이 實質上으로는 75%의 國家安全의 強化란 確信을 얻었다고 뉴우요크 연호사협회 의 리포트는建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職務를 區別해 내는 作業이 遂行되어야 할 先決問題이나 空軍을 例로서 들어 본다. 空軍將兵、軍屬은 全員이 身元調査를 畢함으로써만이 入隊 任用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 空軍將兵을 約 3萬名으로 본다면 少數의 防諜隊員으로서는 業務의 過重과 實質的인 調査의 困難等이 結果됨은明白하다. 따라서 이를 秘密取扱者나 重要補職者에게 局限시킨 경우 約 20%로 減少시켜 實質的 調査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空軍에서 重要補職과 秘密取扱者의 限界를 一應 空規 205-11의 特殊職責(第4條)으로 보아「空軍本部參謀部 課長級以上、大隊長級 以上の 指揮官 및 團級部隊 以上の 參謀、空中勤務、航空機整備、管制警報、레이다 整備、通信電子、暗號、情報、憲兵、防諜搜查等」으로 範圍를 限定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리하여 階級別、特技別 統計表에 依據, 該當者를 抽出해 보면 約 20%로 減少될 수 있는바 이는 人力과 豫算의 節約이라는 行政能率을 가져올 것이다(身元調査費의 比較(省略)).

治安局擔當者는 역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바 特別 身元調査業務의 過重에서 허덕이는 治安局에서는 切實히 必要한 課題리라 본다. 卽「地方郡守나 中學校長等은 級數는 높지만 國家安全에 害를 끼칠 機會있는 일에 從事한다고 볼 수 없는 反面에 發電所나 都市 水道施設勤務者는 一個雇傭員이라 해도 能히 安全을 害할 기회있는 職務라 볼 수 있다. 따라서 現在와 같이 全國家公務員이라는 級數에 따른 一括의 調査等은 마땅히 職務의 區分으로 大幅 減少시켜야 될 것이다.」

나. 情報의 區分

情報의 區分 및 再分類檢討는 調査對象의 範圍와 密接한 關係가 있다. 卽 身元調査가 秘密情報接近의 必要性에서 오며 또한 情報의 秘密分類後에 身元調査에 依한 秘密取扱이 認可되기 때문이다. 有名한 物理學者인 진·판·우렉스키는 이 事實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우리가 칠판과 다이아몬드같은 程度로 熱心히 保管한다면 보

통치술은 잃어버리지 않으나 다 이면드는 오히려 잃어버리기 쉽다.」 또한 科學의發達을 促進하는 情報의 自由로운 流通을 沮害하여 「積極的인 安全保障」을 害하는 수도 있다. 卽 國家安全을 保護하는 利益과 情報에 대한 公共의 保護라는 두 要素間の 調和는 美國의 트루먼大統領의 「情報分類에 關한 大統領令 第10290號」 公布時의 演說에서 強調된바 있으며 現行 大統領令 第10501號가 나왔을 때의 아이젠하워 大統領의 聲明에서도 強調된바 있다.

「……美國의 防衛를 爲해서 重要情報을 保護할 必要와 民主國家의 國民이 그를 政府의 하는 일을 알 必要와의 사이에 適當한 발린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은……要求한다.」 이런 努力의 하나로 空軍에서 秘密取扱 및 重要補職者를 形式上 區分할 수가 있겠으나 勿論 階級과 特技, 補職에 適當한 調整이 必要한은 勿論이다.

(2) 調査機關

가, 調査業務의 主導者

나, 調査官의 能力向上(省略)

(3) 調査方法

가, 調査方法 및 內容의 統合

身元調査는 原來 機關調査와 背景調査로 區分되어 있었으나 法令制定에 依해 統合되었다. 그러나 軍機關에서는 尙今 區分實施하며 警察에서는 統合實施하고 있다. 이 두 調査方法은 調査結果가 同一하게 나타나는 경우 統合함이 必要한 것이다. 現在 形式上 機關調査는 各該當기관(例: 警察署, 稅務署, 學校, 法

院, 區廳等)에 依賴하여 間接調査함을 말하며 이는 人事存案에 依한 照會와 文書에 依한 調査等으로 行하며 背景調査는 「保安上 重要人員에 對하여 防諜隊員이 直接 調査對象者의 緣故地(本籍, 住所地)等에 出張하여 調査함을 말하는바 이는, 卽 知人 또는 代理人의 調査로서 個人的 接觸을 통한 背景을 比較的 完全하게 調査하는 것이다. 그러나 事實上 兩調査는 混用되며 同一한 結果를 나타낼이 普通이다. 空軍에서 機關調査와 背景調査의 結果가 다르게 나타난 境遇는 極少數였다.

被調査者들에게 公然한 不安感을 造成시키지 않고 또는 人力豫算上의 節約을 하기 爲해서도 兩調査方法을 統合하여 實施함이 妥當하다. 機關調査와 背景調査의 對象差異는 幾千名에 達했으나 調査結果는 不過 179名만이 差異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意味하는 것인가?

또한 調査事項을 樣式에 依해서 보면 統一을 缺하고 있다. 大統領訓令 第46條에 身元調査包含事項이 있으나 軍과 警察에서의 使用樣式이 相異하다. 調査機關이나 對象에 따라 特別調査事項이 있겠으나 身元調査의 目的 達成을 爲한 不可缺의 內容은 同一한 것이다. 調査樣式的 相異는 어느 機關은 必要內容의 不調査 또는 不必要한 內容의 過剩調査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調査書樣式을 統一하여 不必要한 調査나 重複을 避해야 할 것이다. 各기관의 樣式檢討後 適切한 改正을 함에 있어서 銘心事項은 必要한 事項만을 包含하며 또한 調査官들에게 애매한 感을 주지 않는 明確한 것이어야 한다. 例컨대 第46條 4項은 本人 및 背後思想關係의 調査인바 여기 背後의 範圍가 애매하고 10項

의 家族關係調査는 身元陳述書와 重複되어 不必要하며 차라리 適性國家나 共產國家에 居住하는 家族이나 親族關係를 調査明示함이 어떨지? 또한 交友關係等의 重要事項이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한 例에 不過하며 全般的인 再檢討를 乞친 後 統一된 樣式的 制定이 必要하다.

나, 調査所要時日

身元調査의 要請을 받은 機關長(特히 治安局長)은 調査結果를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30日內에 回報하도록 規定되어 있는바 이는 治安局의 「身元調査所要日別統計」(一般, 海外, 移民, 綜合) 特히 一般人 調査所要日別統計에 依據한 95%의 通常所要日數인바 調査기관의 一方의인 特惠하는 非難이 높다. 이는 調査對象者의 過多에도 原因이 있으나 各 기관의 行政節次 消費時間이 많기 때문이다. 例컨대 治安局의 경우, 決裁後 末端支署까지 下達되면 2~3日 餘裕뿐인 것은 署나 警察局, 治安局의 行政節次段階가 많기 때문이다. 거칠은 기관수를 줄여 차라리 調査기관에 直接 要請하여 約 1週間の 時間을 주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特히 過去에 身元調査의 期間內 未畢로 因한 公職任命의 拒否, 海外旅行의 取消 및 故意的인 不當한 遲延等을 보아 緊急必要時에는 國民의 權益을 爲한 措置가 要望되었다. 過去에 身元調査 期日內의 未完으로 因하여 海外旅行者 및 移民申請者의 直接要請結果 海外旅行者의 今年度 身元調査는 1~10日 사이에 完了된 것이 全體의 約 37%를 차지하며 移民申請者의 경우는 全體의 約 54%를 上廻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身元調査 所要日別 統計(治安局)

所要日數 區分	1~10	11~20	21~30	31~40	41以上	計
一 般	0.6%	1.5	95.3	1.7	0.9	100%
海 外	37.2	41.5	17.4	2.8	1.1	100
移 民	54.3	31.1	11.3	1.6	1.7	100
綜 合	24.6	22.4	49.7	2.0	1.3	100

이다. 法令은 普通 30~40日을 策定하고 있음에도 對象者의 過渡로 形式的인 抽選으로 흐르게 되는 弊端에 對해서는 上述한 바와 같다. 따라서 身元調査의 目的에 따라 約 10日로 縮小시켜 對民關係事項 充分하고도 必要한 調査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極端的인 緊急身元調査의 경우(例컨대 不審檢問時의 身元照會)의 1件當 所要時間算出을 지난 65, 10, 18의 行政計劃에 提出한 治安局資料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市內의 경우 回報時間이 6時間, 地方警察局의 경우 6時間 35分으로 大幅 短縮할 수 있음을 最短時間으로 잡아 充分한 對民奉仕와 搜查支援의 迅速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 實質의인 國家安全의 見地에서 보면 身元調査의 迅速이란 年々스

서울特別市		地方局	
接受—下命	10分	15分	
調査期間	180分	240分(을, 면, 지서까지)	
回報(서—국—치안국)	30分	120分	
治安局 決裁回報	20分	20分	
계	240分(6시간)	395分(6時間 35分)	

4. 審査段階

(1) 概要

調査機關은 身元調査結果 國家安全保障上有害한 情報가 確認된 者는 關係機關長에 그 事實을 通報함으로써 身元調査業務는 事實上 끝나고 다음의 審査段階는 關係機關長의 裁量에 一任하게 된다. 다만 出入口에 關한 事項은 關係機關長의 任意處理가 不可하고 中央情報部長과 協議하여 決定하게 하고 있다. 中央情報部의 64年度 直接實施者는 19,336名이며 그 중 15%인 3,080名의 特異者가 發見되었으며 治安局의 統計는 特異者의 多數를 나타내고 있다. 64年度 總實施者 68萬中 約 2

8,000名으로 4.1%의 率을 보이며 一般 3.6%, 海外旅行者 19%, 移民申請者의 9.2%로 外國旅行者 등의 特異者는 새로운 措置가 要望되는 法的 根據가 早速히 마련되어야 하겠다(現在는 와 EIA關係기관장 協議로 決定).

65年度 總實施者(一般) 45萬名中 約 23,000名(5%)의 特異者가 發見되었으며 海外旅行者, 移民申請者는 各各 15.7, 16.6%로 激增되고 있다(治安局統計). 이와같이 많은 特異者가 關係기관장의 任意的 處理에 맡겨진다면 여기에必히 어떤 基準이나 救濟節次가 必要할 것이다. 그러나 國防部傘下의 軍人, 軍屬 및 任命豫定者와 軍關聯 民間人中 保安上有害로운 事實이 發見된 者의 處理를爲해서는 保安適否審査委員會를 두어 補職制限과 秘密取扱 認可與否의 審査를 맡고 있으며 各軍은 共히 各軍審査委를 具備하고 있다. 其外에 國家公務員法의 訴請審査委가 있어 「國家公務員에 대한 懲戒處分 其他 그意思에 反하는 不利한 處分에 對한 訴請을 審査決定하기 爲하여 總務處, 國會事務處, 法院行政處에 各各 設置 運營되고 있다. 또한 政治淨化法에 依한 政治活動의 適格與否를 判定하기 爲한 「政治淨化委員會」도 類似한 作用을 하고 있음을 附言해 둔다.

(2) 審査機構

가. 概要

現在 政府公務員의 人事安全保障制度가 確立된 바 없으나 國家公務員法에서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確立하고 公正을 圖謀하여 中央人事掌機關을 두고 人事委員會 및 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를 했다. 이것이 美國의 聽聞委員會와 性格上 差異는 있으나 廣

義로 보아 國家安全保障上兩者의 共通點을 發見할 수가 있겠다.

다만 우리의 訴請審査委는 「行政爲主」이며 美國의 聽問委는 國家安全爲主란點이 相異하다. 如何間 自由民主國家에서는 忠誠調査結果 不適格者가 本人의 意思에 反하는 不利한 處分이 있을 때에 이는 訴請할 수 있는 審査機構가 必要하다. 身元調査結果에 對한 審査機構는 現在 法律上 制度로 確立된 바가 없으며 다만 國防部의 保安審査委員會가 形式上 存在할 뿐이며 이에 對한 救濟機構의 性格(?)의 訴請審査委員會가 있다. 各軍 保安適否審査委는 軍人, 軍屬等의 保安上 適否 심사를 擔當하며 必要時에 設置할 뿐이다.

이 判定에 대한 救濟機構의 性格을 가진 訴請審査委員會는 公務員에 대한 懲戒處分 其他 그 意思에 反하는 不利한 處分에 대한 訴請을 審査 決定하기 爲하여 總務處와 國會事務處, 大法院 行政處에 設置하고 法令에 依한 訴請(특히 여기서는 公務員資格을 喪失케 하는 解任 또는 罷免) 接受時 이를 審査케 한다. 同委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7人으로 構成되며 各各大統領, 國會議長, 大法院長이 任命하며 이들의 資格은 「人事行政에 관한 識見이 豊富한 者中에서 法官, 檢事, 三級以上公務員, 行政學, 法律學教授等의 一定經歷을 必要로 하고 있다.

이는 美國의 聽問委員과 類似한 資格을 가지며 특히 美國에서는 3人 委員會에서 行하며 聽問室에는 起訴된 職員과 그의 辯護士 및 訴請機關을 代表한 政府辯護士가 出席할 수 있다.

나, 中央審査機構의 設置

(가) 告發機構의 補強

各情報搜查機關의 告發(特異事項 通報)의 濫發抑制과 客觀化를 爲해서 告發機構의 補強과 새로운 運營이 問題된다. 法曹界에서 令狀發付件數와 起訴件數 그리고 起訴件數와 有罪判決件數 사이에는 아직도 커다란 數字上的 差異가 있음은 在野法曹의 非難事項이거니와(中央日報 六五, 一二, 二三 社論) 理想的으로 본다면 令狀申請件數와 有罪判決件數는 密接히 接近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와같이 搜查機關의 通報와 保安適否審査委의 否制定間에도 接近됨이 理想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現實情이다. 이러한 數字上的 隔差解消는 「司法運營의 永遠한 課題」들인 저도 모르나 文化國家에의 跳躍臺와 바로미터인 것은 事實이다. 保安상의 有害情報 通報의 濫發은 關聯個人의 心的 衝擊과 休職 등으로 인한 人力浪費를 招來하므로 慎重이 要望된다. 勿論 美國과 같이 各기관의 恣意的인 告發基準 差異에서 오는 70餘個의 聯邦行政機關의 混亂은 없더라도 統一的인 告發基準의 確立과 慎重을 爲해서 3人으로 된 合議制의 獨立機構를 設置함이 必要할 것이다. 여기에는 法律家가 包含되어 證人訊問이나 證據評價에 專門의인 役割을 해야 하며 또한 非搜查기관원이 包含되어 冷靜한 客觀性과 非政府의인 見解를 갖도록 할 것이다.

(나) 審査機構의 設置

身元調査結果 保安上 有害情報의 通報(告發)를 接受한 때에 關聯公務員의 秘密取扱認可 및 任命可否를 審査決定할 中央審査機構가 法律上 確立된 바가 없다(國防部는 設置). 이런 中央審査機構를 設置하여 業務를 集中化시킨 必要가 있다. 勿論 政府各機關의 職員任命資格이 相異하므로(例 問諜前科者를 採用歡迎하

는 公報部나 情報部等) 統一的判斷은 困難하다라고도 政府 各機關의 綜合的인 政策과 相互考慮를 爲해서도 꼭 必要한 것이다. 各軍 保安適否審査委員會와 같은 程度의 中央審査機關이 設置되어 「審査對象者의 參席과 聽問權은 勿論 關係者의 出席과 證據物의 提出等을 可能하게 할 것이 要望된다.」

(다) 救濟機構

告發과 審査決定이 끝난後 不利益한 處分에 대한 救濟措置를 爲해서는 上述한 訴請審査委가 構成되어 있으나 亦是 實質的인 救濟機構가 되지 못하고 있다. 卽公務員法 第15條는 「訴請委의 決定은 處分行政廳을 羈束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나 尙 問題가 되는 就職希望者와 見習職員에게는 適用될 수가 없는 것이다.

實質的인 救濟任務를 遂行하기 爲해서는 訴請委의 訴請審査請求權者에 「行政기관 또는 公務員」의 任命豫定者나 就職 希望者를 追加함이 要望된다. 在職中인 公務員의 告發後 審査結果 無嫌疑率이 많았다는 事實과 本人이 모르는 身元情報로 因하여 一生을 就職을 拒否當할 憂慮性에 鑑하여 이들에게의 訴請權賦與는 妥當한 것이다. 或者는 公務員이 되는 것은 特典이지 權利는 아니기에 保護할 必要가 없고 또한 合法身分爭取 手段으로 이를 使用할 때의 政府의 負擔增加等을 云云하고 있으나 大部分의 就職 志望者의 立場이 이와는 다르다는 것은 常識에 屬한다.

(3) 審査節次

가, 概要

軍保安適否審査委員會는 委員 全員の 出席으로 開會하며 過半數의 議決形式을 가지며 無記名投票에 依해서 適否를 決定한다.

또한 調査對象者의 聽問의 機會를 賦與하며 關係者의 出席과 證據物의 提出等을 要求할 수 있게 하는 등 民主的인 制度를 確立함으로써 他行政機關에 比하여 一層 發達된 感을 보임은 아이러니컬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또한 訴請審査委는 「必要한 境遇에는 檢證, 鑑定, 其他 事實調査, 證人 喚問 및 關係書類의 提出을 命할 수 있으며 반드시 訴請人에게 陳述의 機會를 賦與하도록 하며 이에 違反한 決定은 無効」라고 規定하고 있다. 美國에서의 審査節次는 通常 調査, 適格審査와 起訴, 聽問, 覆審, 最終決定等의 五段階는 區分하고 있는 바 1, 2段階는 調査段階이므로 省略하고 聽問, 覆審, 決定에 關해서 概略해 본다. 美國의 聽問手續은 3人의 合議制에서 行하며 起訴職員과 辯護士 및 政府辯護士가 出席한다. 聽問은 聯邦計劃, 國防省產業計劃等에 따라 若干式 相異하나 大體的인 共通點은 다음과 같다.

(가) 政府辯護士의 役割

政府를 代表하는 변호사가 出席하여 起訴職員이 변호사를 帶同하지 않은 때에는 政府代表와 職員補助의 二重役割을 하며 起訴職員의 변호사가 있는 때에는 오히려 檢察官의 性格이 된다.

(나) 職員辯護士

相當數의 起訴職員이 辯護士에 依하여 代表되지 않으나 이들은 法廷審理에 參加하는 辯護士와 같이 委託事件을 提出하고 證人 訊問等의 役割을 한다.

(다) 證人和 證據

政府의 證據는 起訴職員의 一件 調査書類 作成이며 그 內容은 職員 및 政府辯護士에게는 밝혀지지 않는다. 政府證人은 普通

稀少한바 그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調査書類作成에서 情報提供者의 姓名이 밝혀지지 않으며 이것이 表面化될 때에는 協力을 拒否하는 수가 많다.

둘째, 調査書에 情報者의 姓名이 記載된 때에도 聽問會에서의 證言은 拒否하는 수가 많은바 이는 出席證言은 안 함을 條件으로 하는 情報提供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公開된 證人도 그 費用과 旅費支拂規程의 未備로 因하여 不可한 수가 있다. 職員을 爲한 證人도 費用 등의 負擔 때문에 거의 없고 職員을 爲한 自進陳述者의 證言이나 便紙等에 不過하다.

(라) 聽問委 決定

最終的인 決定이 아니고 다만 推薦에 不過하다. 覆審段階는 普通 없으나 例外的으로 存在하는 수가 있으며 亦是 最終決定權者의 諮問에 不過하다.

以上 우리나라 制度와 特히 다른 點은 政府辯護士 制度인바 事件의 過多와 複雜 및 國民生活이 富裕하게 되었다면 當然히 생길 수 있을 것이며 별다른 點은 없겠다.

나, 運營上 改善建議點

(가) 審査回附前 段階

調査對象者의 審査機關 回附前에 搜查기관 또는 告發合議機關에서도 關係職員에게 非公式會見을 通한 변명의 機會를 줄이 개인의 負擔과 不名譽를 피하고 聽問等 節次에 따른 費用節減의 利益이 있다. 勿論 이때에 변호사의 助言과 協助을 받을 權利가 주어져야 한다.

(나) 審査中の 對象者 取扱

調査對象者가 審査에 回附된 경우에는 普通 補職制限이나 否 制定으로 看做하여 身元證明 發給이 保留되고 있다. 美國에서 처럼 停職과 減俸을 안 함은 多幸이나 한층 더 慎重한 考慮가 要望된다. 特히 美國에서의 告發과 同時에 停職이 되므로 그의 潔白鬭爭의 費用收入源을 막탈당하게 되어 自進辭退하는 例가 많다고 한다.

(다) 聽問節次

審査機關은 被告發職員의 陳述權保障을 爲해서 聽問節次를 要하게 된다. 審査委員은 法律家와 非政府職員이 반드시 包含되어야 하며 相反한 見解에서 正確과 公正한 審議를 遂行할 수가 있도록 審査關聯部門外의 委員이 參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委員의 永續的인 勤務가 豊富한 經驗과 理解를 깊이 하는 有益性이 있지만 特異한 技術分野, 即 通信, 原子委, 中央情報部 등의 職員聽問時에는 被告發職員과 같은 專門 知識을 一人割當하여 時宜에 應하는 決定을 함이 必要한 것이며, 따라서 審査委員은 永續의 일 必要性이 없이 隨時組織의 原則을 擇함이 妥當할 것이다. 審査委에는 被告發職員의 出席과 陳述 및 關係者의 出席과 證據物의 提出 등이 좀더 細密히 規定되어야 한다.

特히 辯護人의 參與, 證人 訊問, 辯護料辯의 辨償과 非公開會議 등이 必要하다.

첫째, 被告發직원은 代理하는 辯護人을 出席케 하여 證據提示와 證人 訊問權을 갖게 할 것이 必要하다.

둘째, 審査委員은 證人 訊問權이 保障되어 證人을 喚問코 宜誓

證明書、訊問書面、書簡等關係證據物の提出을 要求하는 細密한 節次가 補充되어야 하며 證人召喚時의 旅費와 日當이 支給된 것은 勿論이다(訴請委는 公務員이 아닌 者의 證人召喚時는 法令에 依하여 日當과 旅費를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證人召喚狀의 發給에는 一定한 統制가 必要한 것이다。即 正規의 情報提供者、秘密機關의 雇傭人等은 身分暴露 또는 出頭가 國家保安上 有害하다는 委員會의 文書證明이 發給된 때에는 不召喚制度가 援用되어야 한다。所謂 搜查기관인 「手口破壞 또는 對決要求時의 情報拒否事態의 防止」를 爲하여서이다。惡質의 共產黨이 CIA, CIC, 警察의 秘密諜者를 身分露出시키기 爲하여 줄거이 그 同僚를 회생시킨을 想像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證人의 證言에 依한 一方의 決定은 惡意의 정보원의 虛無孟浪한 造作에 依한 副作用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이런 調整案으로서 召喚免除證發給은 充分한 情報의 證據가 包含되게 하여 단지 召喚免除口實로 使用됨을 막아야 하는바 따라서 그 證明書에는 情報의 入手 또는 風評與否、情報員의 教育、經歷、犯罪行爲、交友關係、補償金等이 詳細히 記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審查委員會의 審查結果 無嫌疑로 된 때에 辯護人의 費用等은 適切히 補償됨이 要望된다。即 刑事被疑者의 無罪確定時의 刑事補償金의 精神의 慰藉料는 못반는다 해도 最少限 實費補償은 必要하다。이들에게 辯護人費用의 負擔은 苦痛이며、때문에 辯護人不雇傭의 事例가 많으며(美國에서도 1/2은 無辯護) 따라서 防禦를 漸次 困難케 하는 不安환을 만들게 된다。여기에서 可能하다면 刑事訴訟法上의 國選辯護人制度의 導入進用 또는 辯

護人協會의 自進援助計劃等이 바람직하다。

네째、이는 犯罪裁判과는 다른 「責任과 分別이 要求되는 職員의 安全保障上 適性 調査」에 不適하므로 公開發判廷의 분위기도 나는 非公開裡의 조용함이 妥當한 것이다。

(라) 最終決定

審查結果 適否에 對한 最終決定權은 任命機關長에게 賦與함이 特定職務의 知識과 責任上으로 보아 妥當하다。그러나 最終決定前의 再檢討 또는 再審段階가 必要한 것이며 任用기관장이 이런 措置를 取하는 與否는 任意的이다。同一人에 對한 實質上 同一事實이 反覆審查決定되어 當該職員을 困惑하게 만드는 수가 있다。例컨대 當該 직원인 他機關에 轉屬時 새로운 身元證明이 必要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때에는 새로운 證據가 없는 限 再審查와 새로운 클리어런스(Clearance)의 賦與가 必要하지 않을 것이다。또한 各部長官(특히 特殊職責間) 相互間의 클리어런스 相互承認制度를 採擇함으로써 解決될 수가 있을 것이다。

(마) 救濟節次

이런 保安適否審查委의 最終決定이 내리면 當該職員은 國家公務員法에 依하여 「懲戒處分 其他 그 意思에 反하는 不利한 處分에 對한 訴請」을 할 수 있다。訴請審查의 節次는 訴請節次規程(閣令 1332號)에 依據한 것이나 前述 審查節次상의 運營上 建議 및 機構의 改善가 實現된다고 假定하면 「同一한 審查의 反覆」役割에 不過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法院의 第二審의 機能을 發揮하게 되며 그렇게 큰 意義가 없을 것이다。

犯法의 原因을 檢査한다

金

俊

徹

△大領・法務監▽

犯法의 原因은 사람에 따라 見解를 달
리할 것이며 決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하겠
다. 여기서는 制限된 紙面이라 專門의 으
로 다룰 수 없으므로 空軍將兵의 防犯에
對한 參考資料에 그치기로 한다.

1、犯法의 原因은 遠因과 近因이 있을
것이다.

空軍의 犯法의 原因은 亦是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犯法의 原因과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犯法의 原因은 크
게 볼 때 經濟的인 貧困에 基因하고 있는

바 크다. 이것은 우리들이 共認하는 바라
하겠다.

특히 그 遠因은 2次大戰 前後의 犯法
의 遠因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政治、文
化、經濟、社會、風習等 問題를 제쳐 놓
고라도 우리나라는 2次大戰後 너무나
混亂하고 貧弱한 狀態에서 38線이 兩斷된
제 남의 힘으로 政府를 樹立하게 되고 모
든 면에서 基礎를 닦기 위하여 일어서려
할 때 6·25라는 戰亂에 휩쓸려 싸도
트기 전에 큰 禍를 입은 花草처럼 구부러
진 狀態에서 모진 必死的인 生의 回復을

爲한 몸부림을 쳐왔다는 데부터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軍이건 민이건 間에 現在 우리들의 周
邊에서 犯法으로 社會를 汚濁하고 있는
成年들을 따지고 보면 그 大部分이 그 當
時 戰爭狀態에서 正常的인 教育을 받을 수
없었고, 正常的인 文化와 環境下에서 人品
을 닦을 수 없었고, 오히려 極에서 極으로
生이나 死의 極端的인 人間像을 헤매며
올바른 營養조차 取하지 못한 失調狀態에
서 成育되어 今일에 이르렀음을 생각할
때 이 成長期의 惡影響이 犯法의 遠因이

되고 있다고 보겠다. 한편 이遠因에다가 犯罪의 直接動機가 되는 近因이 結合되어 있을 때 犯法은 이루어지기 쉬운 것이라 하겠다.

5. 16後 政府는 이 遠因에 近因의 불이 붙지 않도록 強力한 施策으로 繼續 努力하고 있는 터이므로 各自가 크게 自覺하고 法과 正義를 崇尚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1965年度 1年間の 一般犯罪發生狀況을 살펴보면 年間 民間犯罪는 443,424件이 發生하여 74.8%인 321,783件이 檢舉되고 軍犯罪는 3軍合하여 13,104件이 處理되었다.

民間犯罪의 近因을 分析해보면 대개 利慾關係가 55.8%, 怨恨 憤怒가 14.6%, 偶發原因이 4.4%, 中毒醑酏이 1.8%, 射倖心이 1.2%, 其他約 20%로 大分할 수 있으며 第一項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利慾關係의 內容은 「용돈인기」가 16.6%로 首位를 차지하고, 다음이 生活費 充當, 遊興費 充當, 虛榮心, 奢侈心, 學費 充當等의 順序인바

여기에서 우리들의 注目을 끄는 것은 「용돈」을 求하기爲하여 犯한 犯罪가 利慾關係에서는 가장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는事實이다.

젊은 部下를 거느리고 있는 指導層이나 子弟를 가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느끼는 바가 큰 點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용돈」을 求하기爲한 犯罪의 種類를 보면 竊盜가 絕對多數를 占하고 있지만 其他 贓物罪, 詐欺, 橫領, 恐喝, 賭博, 暴行, 文書偽造等이 있으며 甚之於는 「용돈」을 求하기爲한 強盜가 相當數를 占하고 있으니 寒心하기 짝이 없다.

空軍의 財産犯의 35.2%가 亦是 所謂 雜費調達이라 하여 즉 「용돈」關係이다. 그리고 다음 怨恨 憤怒關係의 內容은 復讐가 首位이고 다음이 侮辱當하여 憤怒한 것, 더싸움, 痴情關係, 嫉妬, 二重生活, 刑餘者不信用等의 順序이다. 그리고 偶發原因은 그 內容이 「연두 생각하여」가 首位이고 好奇心, 脅迫當하여 等이다. 其他는 過失, 義俠, 自暴自棄, 迷信, 事業失敗, 失職等이 各 0.1% 정도를 占하고 있다. 軍人犯罪의 原因은 家庭事情이

23.6%로 首位이며 다음이 過失 11.8%, 金慾 11.4%, 職務厭症 9.2%이고, 其他 鄉愁心, 私慾, 處罰憂慮, 異性關係, 私的制裁, 氣合過度, 危險忌避, 人事不滿, 給食不滿, 過度訓練勤務, 無依托悲觀等의 順序로 占하고 있다.

3. 犯法者를 種類別로 살펴볼 때 첫째, 年齡別로는 少年이 16.8%, 成年이 82.4%를 占하고 있으며 成年中에서도 26歲~30歲間이 가장 率이 높고 다음이 31歲~40歲까지, 41歲~50歲 順位로 同率을 차지하고 있다. 性別로 볼 때 民이나 軍이나 男性이 絕對多數를 占하고 있음은 勿論이나 女性의 犯罪는 亦是 利慾關係가 59% 이상을 占하고 있으며 竊盜等이多數이나 強力犯도多少 있다. 女性의 가장 많은 犯法은 特別法犯이며 租稅犯處罰法, 關稅法,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專賣犯等 違反犯罪이다. 그 原因은 大部分 生活費를 充當하기爲한 것이다.

軍에 있어서의 女性의 犯法은 軍務離脫程度이다. 그리고 犯罪者의 素質問題는 素質과 無關한 것이 大部分이며 性癖, 性

格異常、精神薄弱이 少數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常習犯에 있어서는 性癖으로 인한 것이 相當數를 占하고 있다.

犯法과 時間關係는 竊盜等은 午前으로 부터 日沒前까지 屋外가 가장 많으며 深夜에 많은 것은 強姦、賭博等이다. 曜日別로 볼 때는 土曜日、日曜일이 率이 높으며 犯法者의 教育程度는 國民學校 卒業者가 首位이며 다음이 不就學者、中學校 卒業者이고 在學生은 極少數인바 이것을 教育程度別 比例로 볼 때 大學卒業者가 가장 높은 率을 占하고 있다. 다음이 國民學校 中退者이고 不就學者나 國民學校 中退者는 가장 下位를 占하고 있으니 教育程度가 높은 사람들의 犯法率이 반드시 下位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教育程度別 比率로 볼 때 上位를 占하고 있음은注目되는 바이다.

그리고 犯法者의 生活環境別로 살펴보면 下流가 가장 많으며 極貧者는 오히려 下流者보다 下位를 占하고 있다. 中流도 相當數를 占하고 있으며 上流나 富者는 少數이므로 그 犯法數가 少數인 것은 肯定되는 바이나 그 犯法內容에 있어서 詐

欺가 가장 많고 暴行이 相當率을 占하고 있음은 注目되는 바이다. 下流 또는 極貧者의 犯法內容은 竊盜가 그 大部分을 占하고 있으며, 다음이 暴行、傷害、詐欺、橫領의 順이다. 그리고 竊盜、強盜等은 住居等に 侵入하여 犯하는 數가 絶對多數인데 그 侵入의 動機를 살펴보면 門이 「열려 있다」 「逃亡할 때 交通이 便利하다」 「不在中임을 알다」 등이 그 多數를 占하고 있고 그 方法에 있어서도 「자물쇠 부수기」 「열쇠로 열다」는 極少數이고 「자물쇠 안 채움」 「門 團束없음」等 被害者들의 失手로 犯罪의 動機를 주고 있는 것이 大部分이다.

軍에 있어서도 警備를 소홀히 한다는지 監督者의 監督이 不充分하여 財産犯罪의 原因을 주고 있는 것이 많음을 否定할 수 없는 問題의 하나이다. 그리고 學生犯罪의 原因은 學費 充當은 不過 0.6% 정도이고 「용돈 없기」가 首位이며 다음이 復讐、生活費 充當、遊興、奢侈心 등의 順位이고 보니 이러한 學生은 全體 學生數에 比하여 少數이지만 이러한 學生들도 合流되어 軍에 入隊할 것이므로 軍訓育에 考

慮해야 할 點이라고 생각한다.

4. 空軍의 犯法數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財産犯의 原因을 살펴보면 生活困難이 53%、雜費 調達 35.2%、身病關係 3.5%、其他 8.3%로서 家族을 가진 營外者의 財産犯은 生産困難이 그 多數를 占하고 있고 其他 獨身士兵은 雜費、即 용돈 調達이 그 大部分의 原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空軍의 軍務離脫犯은 全犯法 事件의 34.2%를 占하고 있는바、原因을 살펴보면 意志薄弱으로 인한 服務 厭症이 29.2%로 首位이며 家庭事情 24.2%、異性關係 9.8%、處罰憂慮 7.8%、身病 7.8%、氣合 3.9% 其他 17.8%인바 筆者가 多年間 事件을 處理한 經驗에 依하면 軍務離脫犯은 그 90% 以上이 裏面に 반드시 女子關係가 있음을 發見하게 되고、그 女子關係가 軍務를 離脫하여도 解決되지 아니할 때에는 自害까지 하는 事例를 많이 볼 수 있었다. 軍務離脫犯은 아니라 財産犯에 있어서도 裏面に 女子나 술關係가 直接間接의 動機를 이루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바이다. 序頭

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戰爭後의 混亂의 惡影響이 遠因을 이루어 強한 家庭教育이나 自覺을 한 青年을 除外하고는 「술」 「女子」等으로 無秩序한 生活을 하다가 窮之策으로 犯法에 이르는 數가 特히 青年層에 많음을 否認할 수 없으므로 一般 社會와 軍에서 共同으로 그 對策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結論的으로 犯法의 原因을 해쳐 보려고 하는 것은 犯罪를 未然에 豫防하려고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犯法의 原因을 參酌해서 그 豫防에 盡力해야 할 것은 勿論이더니와 첫째、一般 社會에서 少年에 對한 環境改善 및 調整、敎化、善導와 家庭監督、學校指導를 하는 한편 保護觀察을徹底히 하는 등 豫防의 根本策을 樹立하여야 할 것이고、둘째、一般成年者를 爲하여 社會福祉施設의 擴充과 아울러 經濟的窮乏의 救濟、更生의 緊急救護策樹立、公務員의 綱紀肅正 그리고 公務員의 經濟的窮迫을 救濟하기 爲한 果敢한 施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社會로 一步 一步 前進할 때 國民들의 마

음에 餘裕가 생기게 되면 自己의 利益만을 爲하여 社會나 國家를 度外視하는 사람은 줄어들 것이고 全體的인 利益을 더重視하는 社會氣風이 造成하게 될 것이다. 愛國하는 기풍을 서로 줄일 수 있을 때 犯法의 數는 先進國家와 같이 極少數로 減少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훌륭한 家庭과 社會에서 教育받은 많은 子弟들이 軍에 入隊하게 되므로 軍의 犯法者數도

逐惡

무릇 軍에 커다란 弊害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 私的으로 黨與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고 自我의 意思와 一致가 되지 않으면 賢良한 사람이라도 그를 毀呪하고.

둘째 衣服을 奢侈하고 帶나 모자 같은 것을 달리 하여 團體의 規律를紊亂케 하고.

셋째 妖妙한 기술이 있음을 거짓 誇張하거나 또는 神通한 재주가 있다는

激滅된 것이다.

좋은 社會建設이 되기 前에는 軍에 있어서 各級上官이 部下의 指導 監督에 더욱 盡力하고 恒時 그 身上과 動向을徹底히 把握하여 機會 있을 때마다 過去의 民間에 있어서의 惡影響인 犯法遠因을 除去해주고 近因이 될 여러가지 惡素를 鎮壓 除去해 주도록 格別한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으로 確信하는 바이다.

虛妄한 言辭로 軍心을 眩惑시키고.

네째 말은 바 責任에는 忠心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上司나 同僚들의 잘못만을 가리며 安암리에 군율을 疎鬆시키고.

다섯째 利害로운 기회만을 엿보아 敵側과 內通하며 남모르게 結탁하는 反動的인 行動을 하는 者等이니 이른바 이더한 道義에 배치된 모든 惡人은 용서 없이 除去해야 하나니라.

나의 空軍時節

和睦한 組織生活이 그리워

朴斗先

〈韓國鐵業製鍊公社社長〉



親愛하는 空軍將兵 여러분과 紙上을 通하여 對한 機會를 가지고 보니 다시금 지난

20個星霜의 空軍服務時節이 아련히追憶됩니다.

여러분과 告別한지도 어느덧 한 해가 가까와집니다. 아지도 空軍 유니폼을 입고 있는 錯覺을 일으킬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처음 任官되어 軍服務를 始作한 것은 1948年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赤手空拳으로 空軍을 創設할 때였으므로 오늘의 空軍力을 이루하기까지의 基調가 될 「덕전」을 닦기까지 實로數

많은 隘路와 難關을 克服해야만 했을
니다.

나는 後方分野(軍需)에서 服務한關係로 將兵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애피소우드」는 別로 갖지 못했으나 오로지 信念과 勇氣로서 每事에 熱誠의으로 服務했다고 自負합니다.

지금도 記憶에 새로운 것은 現在의 航空本廠의 母體인 空軍 第40補給廠을 創設한 任務를 맡고 荒蕪地 위에 基地를 建設할 때 空軍의 傳統인 和睦團結精神으로 將兵이 渾然一體가 되어 苦樂을 같이 하며 任務를 完遂했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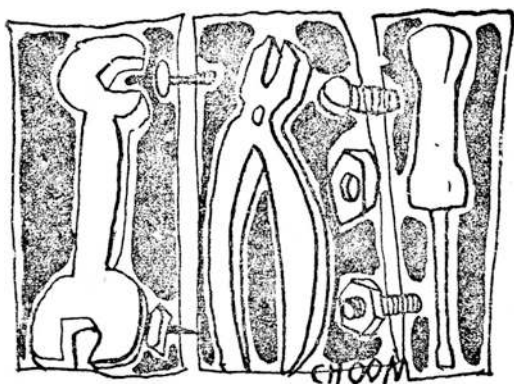
正義를 爲해서 젊은 情熱을 불사른 空軍將兵의 勞苦를 回想하니 그 일이나 보람치고 뜻있는 生活이 있는가 하는 것이 切實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니다.

有名な 「디그라스·맥아더」 將軍의 『老兵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라고』 말한바와 같이 本人도 軍生活를 떠나 一般社會의 새로운 境地에 서고 보니 睦團結된 組織生活이 다시금 그리워져서 아쉬워지는 것입니다.

空軍將兵 여러분! 空軍은 大韓民國이라는 國家의 組織의 한 縮圖인 것입니다. 따라서 將兵 여러분은 國家的인 視野에서 우리의 자랑인 空軍을 보다 現代적이고 보다 強大한 空軍으로 育成發展시키는 데 모든 努力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限定된 紙面關係로 服務時節의 面貌를 詳細하게 記述할 수 없으므로 頭序 없는 所感의 片想을 羅列한데 지나지 않음을 未安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軍門을 떠난 선배로서 한 마디 말하고자 하는 것은 現在의 空軍을 育成發展하기 爲해서는 軍需物資를 善用하고 軍人의 本分을 다하는 데 最善의 努力을 바쳐야 할 것을 誠心으로 付託하는 바이며, 끝으로 護國의 神으로 산화하신 先靈영현의 명복을 衷心으로 빌며, 불철주야 空軍의 發展을 위해서 분투하는 空軍將兵 여러분이 健勝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安)(全)(살)(롱)

航法補助施設과

TACAN 裝備의 位置

박 상 희

△대위 · 716 대대 V

航法補助施設하면 호머(HOMER), 전방향 표지장치(VOR), 제기착륙장치(ILS), 방향탐지장치(DF) 등 열 손가락으로 꼽고도 남을만큼 많은 종류가 있지만 폭주하는 交通量과 性能上的 끝 없는 향상은 재래의 시설만으로는는 안전을 기하는데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리하여 좀 더 다각적인 정보와 정밀성과 有効性이 높은 戰術 항공기 운용에 適合한 장비로서 등장한 장비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TACAN(戰術航法施設: Tactical Air Navigation)이다. 이 부분의 전문가로부터 기계적인 원리와 運用方法 등에 관한 좋은 투고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우선 이 裝備의 利點 및 活用 範圍와 기타 몇 가지 이 장비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항법보조시설에 비하여 본 장비의 잇점은 보통 低周波 航法施設에서 야기되는 전파 간섭이 없고 항행 「코스」의 數的制限이 거의 없으며 남은 VOR 장비에 대한 더

항공 음통성을 제공한다. 보통 저주파 항법시설은 만 주파수의 간섭을 받는 일이 허다하나 TACAN 장비는 극 초短波(962~1213 MCS)로運用되기 때문에 저주파 항법시설에서 발생되는 간섭이나 장애는 완전히 제거된다.

회전 안테나에서 발사된 電波는 항공기의 方位를 알 수 있게 하고 장비의 부분인 거리 측정 장치(DME)는 항공기와 TACAN 지점간의 斜線距離(Slant range)를 계속 나타내고 있으므로 특별한 노력이나 계산이 필요없이 항상 航空機의 位置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裝備가 아주 完全無缺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장비는 일한 極超短波 장비와 마찬가지로 有效方位가 可視距離(Line of sight)에 제한되어 있으며 항공기와 TACAN 위치간의 거리도 水平距離가 아닌 항공기와 直線距離인 관계로 고도에 따라 실제 거리상의 오차를 초래하는 등의 단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장비는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이 많은地形條件下에서는 활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나 해상합정상에서는 그 성능을 십이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항공기에 기여할 수 있는 편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거리측정장치(DME)의 운용.....앞서도 잠깐 언급한바와 같이 이 장비는 TACAN의 위치와 항공기 사이의 거리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이와같이 계속 거리를 지시한데는 복잡한 전자학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항공기 탑재 장비로부터 보낸 전파가 地上裝備에受信되면 지

상장비에서는 다시 응답 전파를 발사하게 되는 때 이때 두가지 전파가 交換되는 시간에 의해서 거리情報가 操縱席에 장치된 거리 지시기(ID-310)의 숫자로서 항공마일(NM)로 나타난다.

이 방향 정보 전파는 반경 195NM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나 TACAN SITE가 저고도에 위치한 경우는 이 유효거리도 地勢等の 영향으로 감소될 수도 있으며 항공기의 고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 航路의 指示.....TACAN 장비에 의한 航路의 指示는 VOR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동일한 것이나 조종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것은 단지 TACAN 位置로부터 주어지는 DME에 의한 거리의 通報와 비행 進路가 妨害(바람의 흐름)되는 동안 진로(進路)의 수정(修正)을 위한 角度의 決定等の 잇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구형 전방향표지장치(VOR)에 대해 보다 훨씬 融通性이 있는 것이다.

3, 航空機 實際速度 點檢.....TACAN을 이용하면 항공기의 실제 비행 속도를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첫째 시간의 기준(몇 분간)과 거리지시기(距離指示計)에 나타난 거리가 소수점 이하가 분지 않을 때를 調節한다. 속도 계산을 시작할 때의 時間과 距離를 기점(基點)으로 해서 끝날 때의 시간과 비행 거리를 다음 公式에 應用하면 즉시 항공기의 실제 속도를 구할 수 있다.

$$\text{公式...} \frac{\text{비행거리} \times 60}{\text{경과된 시간(분)}} = \text{항공기의 실제속도(시속)}$$

예를 들어 항공기가 2분간 비행한 거리가 12NM이라고
가정한다면 위의 공식을 적용해서

$$\text{속도} = \frac{12 \times 60}{2} = 360 \text{ Knot} \text{ 라는 답을 즉시}$$

구할 수 있다.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을 많이
잡을수록 좋다.

4. TACAN 上空通過……TACAN 位置上的圓錐型의
전파 혼란 지대(Cone of Confusion)는 참으로 크다. 이 Cone
은 4,000피트에서 보통 13~15마일로 가장 크고 高度가
增加함에 따라 점점 縮少된다. 항공기가 이 Cone 상공에 도
달하면 方向指示計는 건장을 수 없이 동요되고 TO-FROM
지시제는 TO와 FROM 사이를 왕복하며 進路指示計(DI)
는 계기판을 가로 질러 옆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거리 지시제
는 항공기가 TACAN 바로 상공에 있다고 해서 0을 지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 고도만큼의 거리를 지시한다. 이
Cone을 지난 후의 計器動作은 VOR과 대략 같다.

5. 체공(滯空)……TACAN은 항공기가 체공하는데 있
어서 다른 시설의 추종을 불허할 많은 잇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TACAN은 만 시설처럼 滯空軌道時間을 基準해서
設定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상
공(Homer, Range-Station, VOR, Fan-Marker 등)에
固定된 滯空픽스(Fix)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시에 거의 무
제한의 체공픽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통 TACAN은 두 개
의 체공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20,000피트 이상
의 고공 비행 항공기 또 하나는 그 이하의 低空飛行 航空機를

위한 것이다. TACAN에 의한 체공시의 폐도는 다른 在來
施設에서 처럼 형태 및 位置가 固定되지 않고 便利한 대로
거리 위치 형태를 維持해도 되는 융통성이 있어 좋다.

6. 着陸降下 및 接近……空港에 着陸 進入은 최초 접근 픽
스에서 시작되어 활주로 접지점으로부터 착륙활주로의 연
장선 약 $7\frac{1}{2}$ 마일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게이트(Gate)로 들
어온다. 이 지점에서의 항공기의 高度는 대략 1,500
피트이며 최초 접근 픽스로부터 게이트까지의 거리는 약
27NM, 비행속도는 250Knot 정도, 강하율은 매분 4,5
00피트정도 유지함이 가장 이상적이다. TACAN 접근
을 시도할 때는 게이트에 도달하기 전이나 또는 도달하자 마
자 완전한 착륙자세를 취해야 하며 最終接近時는 ILS, R
ADAR 등 사용 가능한 다른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
다. TACAN 접근의 또 한 가지는 호(ARC) 접근이 있
으나 여기서는 설명을 약하기로 하겠다.

7. TACAN을 利用한 出發節次……위의 착륙 및 강하
절차를 거슬러 체공軌道와 接近 進路를 出發節次에 적용할
수도 있다. 항공기가 ARC에 도달할 때까지 특정한 출항
(Out-bound) 진로를 비행해도 되고 출발 진로에 이를 때까지
ARC를 따라 비행해도 된다. 그리하여 비행하던 TACAN
ARC와 항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계획된 항로를 따
라 비행한다. 이상은 TACAN 장비의 잇점과 다각적인 활
용에 대해서 대개 그 概要만을 전하려 보았을 뿐 그 활용도는
참으로 광범위하다. 현재 우리 공군은 각 戰術基地를 비롯해

서 항로상의 요처에 우리 전력을 완전히 망라하고도 남음이
와 같은 훌륭한 시설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용의 熟練度를 높이고 이와 같은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
는 高性能의 항공기를 더 많이 確保함으로써 조국의 하늘
을 지키는 힘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날도 머지않으리라 확신
한다.

非·常·處·置·法·

熟·知·와·活·用

곽 진 호

△대위 · 11전비 V

非常處置法이라 하면 기계를 操作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에 익
은 말이고 또한 잘 알고 몸에 익숙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더우기 우리들 操縱士라면 操縱桿를 처음 잡는 병아리조종
사에서부터 조종사라는 명칭을 벗을 때까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만인 것이다.

조종사로서 비상처치법을 잘 알지 못하고 飛行한다면 백번
에 한 번, 천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非常時에 귀중한 자
기의 목숨은 물론 고가의 國家財産까지도 눈 깜박하는 사이에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비상시에 처하였을 때 조종사로서 어떠한 行動을 취
함으로써 귀중한 생명과 국가재산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
은 비상처치법을 완전무결하게 알고 있을 것은 물론 그 처치
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非常處置法을 완전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자자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이다. 완전히 암기함으로써 머
리에서부터 입으로 녹음기를 돌려놓는 것같이 일어나가는 사
람, 또는 처치법의 순서를 우두머리 글자만을 골라 어떤 말을
만들어 암기하는 방법, 또는 비상처치법을 암기하면서 손과 발
로서 실제 器材取扱하는 듯이 놀려 입과 몸에 익히는 방법
등, 또 어떤 先輩님 한 분은 매일 아침 저녁 婦人에게 비상처
치법 한 가지씩을 質問하도록 하고 질문에 답이 틀리거나 순
서가 뒤바뀌면 부인과의 어떤 約束을 이행하도록 하였다는 만
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方法은 정말 온 家族이 動員된 非常處置法 暗記 熟知
의 좋은 예의 하나라 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상
처치법을 숙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행중 비상에 처하였
을 때에 얼마나 正確하고 迅速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問題點인 것이다.

조종사가 조종생활하는 동안 비상에 遭遇되지 않는다는 것
은 정말 드문 일인 것이다. 空中을 날으는 機械에 우리의 모
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인 만큼 恒常 非常에 對備하고 있어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비상을

미리미리 예고한다는 것은 期待하기 어렵다. 이렇게 갑자기 조우되는 비상을 조금하게 처치하다 보면 그릇처치하여 다른 附隨의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비상에 처하였을 때는 먼저 침착하고 냉정한 마음가짐으로써 平常時에 암기하고 몸에 익숙시켰던 비상처치법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간다면 이 이상 더 훌륭히 비상처치법을 숙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TO-1 Flight Manual에 있는 非常處置法에 관하여 말한 것뿐인 것이다. 우리가 비행중 教範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비상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비상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조종사라면 비상에 조우했을 때 그것에 부수된 원인으로 인한 비상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비상처치까지를 결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K종위가 GCA에 잘못接近하여 Power 90%로上昇中 좌석 내에 연기가 들어와 시계가 나빠진다 하여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며 비상착륙장주 BASE키를 잡아 무사히 착륙하였다. 착륙 후 원인을 알아본즉 油壓系統과 열로 기름이 타는 연기가 좌석 내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니 비상 원인은 油壓系統의 비상이었으나 실제로 행한 처치법은 그것이 아니었다. 만일 飛行場에서 거리가 멀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하여도 등에 식은 땀이 흐를 일이다.

이와같이 비상 原因을 알게 되면 여러가지의 비상처치법을 한꺼번에 취해야 하며 教範에 없는 처치법도 사용해야 할 때가 많은 것이다.

비상처치법은 各者가 생각해 낸 방법으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비상에 처하였을 때는 비상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침착 냉정한 마음으로 적절한 비상처치법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비상에 조우되었을지라도 귀중한 목숨과 국가재산을 훌륭하게 살릴 수 있는 것이다.

突變氣象과 安全

박 춘 태

△종위·101대대▽

突變氣象이란 豫期치 못했던, 갑자기 닥쳐온 惡氣象을 말한다. 이것은 비행에 막대한 支障과 危險을 招來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판단과 처치, 아니면 不可抗力의 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과 귀중한 國家財産을 상실케 해 왔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그러한 화를 우리들에게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惡氣象 현상이 가장 많은 夏節期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크나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예기치 못한 갖가지 비상이 우리들을 꼬리물고 다닐지 모르듯, 갑자기 닥쳐오는 氣象狀態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타 리에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

惡氣象狀態、즉 비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상요건을 대별해 본다.

1' 視程障礙物(Restrictions to Visibility)

2' 擾亂(Turbulence)

3' 航空機着氷(Aircraft Icing)

4' 雷雨(Thunderstorms)

등이 있다.

위에는 네 가지를 대략 살펴보고 우리들이 이러한 장애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1' 視程障礙物(Restrictions to Visibility)

視程障礙物이라면 안개(Fog, Haze) 연기(Smoke) 먼지바람(Blowing dust) 눈바람(Blowing snow) 강수 그리고 구름 따위가 있다.

이것들의 형태와 강도는 주로 氣團의 안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안정한 기단 내에서는 안개, 낮은 구름 그리고 시정의 장애가 되는 약한 降水 등이 잘 형성되고 안개와 연기는 대기가 안정되면 잘 흩어지지 않고 오래 머무르게 된다. 반대로 불안정한 기단 내에서는 대기의 垂直運動으로 인하여 안개는 소산되고 안개와 연기 등은 상승 확산되어 버리나 먼지바람(Blowing dust) 눈바람(Blowing snow) 심한 강수 등이 시정을 악화시킨다.

비행에 장애를 주는 기상 장애물의 대표적인 것중의 하나인 안개(Fog)는 50 피트 이하에 밀바닥을 두는 下層雲과 같은 것으로 시정을 3 마일 미만으로 감소시키며 霧 마일이 될

경우도 있다. 안개는 대기권 높은 고도에까지 산재되어 있는 미세한 먼지, 소금의 미립자나, 기타 불순물이 제한된 층에 집중된 것으로 특히 지표면 근처의 안개의 밑도는 대기가 안정한 날일수록 증가하며 공기의 對流로 인해서 15,000 피트 상공까지 이를 때도 있는데 이 안에서 태양쪽을 향해서 비행한다면 시정이 零 마일 될 때도 있다. 연기는 보통 공장 지대 또는 큰 도시의 풍하쪽에 집중되는데 안정한 대기의 逆轉層에 머무를 때 시정이 나 빠지고 이것의 微粒子는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핵의 역할을 하여 연기(Smoke and Fog)를 형성하기도 한다. 먼지바람(Blowing dust)은 낮은 겨울과 봄에 걸쳐 흔히 경험하는 黃砂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 黃砂는 중국 대륙의 黃河流域이 겨울에 동토대가 되었다가 날씨가 풀림에 따라 눈이 시작하여 강한 상승기류와 바람을 타고 상승하여 대륙에서 생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상승기류를 타고 동진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黃砂는 圈界面 高度까지 이르러 空中視程을 크게 악화시킨다.

이와 같은 시정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우리들은 경계에 큰 곤란을 느끼게 되며 안개나 연기 등이 비행장 근처에 깔려 있을 때는 착륙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케 한다.

2' 擾亂(Turbulence)

요란이란 동시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기류의 거칠은 파동을 말하며 이것이 항공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심중하고 위험할 만하다. 요란의 생성요건을 본다면 ① 熱的 요인으로 받

생하는 것, ② 力學的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③ 전선(前線)에 의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④ 바람 급변(Wind shear)에 의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⑤ 인공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熱的 要因에 의한 것은 지표면의 加熱, 불안정한 溫度遞減率, 파동한 지표면 위를 이동하는 한랭한 공기 때문에 생기는 국지적인 垂直對流作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더운 여름날 오후, 해안선이나 강위에서 흔히느낄 수 있는 擾亂이 바로 이것이다.

力學的 要因에 의한 것은 불규칙한 지형위를 통과하는 기류에 의해 생기는 것인데 즉 불규칙한 地形(비탈, 언덕, 산)과 건물과 같은 장애물 위를 통과할 때 느끼는 擾亂이다. 이 力學的 要因으로 발생하는 요란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山岳波이다. 특히 低空飛行을 할 경우, 山岳波 擾亂에 조우한다면 비행기에 파손을 가져올 우려가 많다. 이것은 산이나 산맥에 거의 수직으로 강한 바람(25 KTS 이상의)이 불어올 때 생기는 것으로 특히 풍하면에 생긴다. 이럴 때는 대개 산맥의 풍하면의 Roll cloud(말린 구름)가 발생하는데 이 말린 구름 근처의 요란은 雷雨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고된 것이 있는 것 보며 얼마나 심한 요란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요란은 대개 풍하면 산 높이까지 있는데 圓界面高度까지 달할 때도 있다. 이 山岳波 擾亂을 피하려면 요란이 예상되는 지역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산 높이의 반을 더 높은 고도(최소한 50% 더 높이)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추천할 만한 것은 비행전에 자격있는 기상예보자로부터 비행할 항로상에 대한 기상 브리핑을 상세히 받아 요란이 예상되는 지역을 피하는 것이다.

전선(前線)에 의한 요인으로 생기는 것은 한랭기단에 의해서 온난한 공기가 국지적으로 상승하든가 대개의 한랭전선에 따르는 바람 급변(Wind shift)으로 생기는 것이다.

바람 급변(Wind shear)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상승운동과 기압의 일반적인 변화 때문에 풍속 및 풍향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데 대표적인 것으로 晴天擾亂이 있다. CAT는 수직과 수평적으로 큰 바람 급변이 있는 제트氣流(Jet stream) 근처에서 빈번히 발견되는데 구름이 형성되는 등의 어떠한 지각적인 경고도 없이 완전히 맑은 하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晴天擾亂이라고도 한다. 또한 CAT는 제트氣流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상태하의 대기 중 고립된 지역에 서 일어날 수 있다. CAT는 제트氣流의 중심이 있는 근처에 가장 심한데 이것은 대개 폭 10~20 마일, 길이 40~50 마일, 두께 500~2,000 피트로 존재하는데 CAT를 조우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高度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치이다.

인공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전방의 항공기 뒤를 따를 때 그 後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 중에서 인공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대개 2개 이상의 要因이 동시에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

요란의 강도는 Light(가벼움), Moderate(적당함), Severe

(극한) Extreme(가극한)으로 표시되는데 Light가 항공기 내에 컵을 뒀다면 컵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요란이고, Moderate는 컵이 움직이고 넘어지거나 심각, Severe는 항공기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 Extreme인 항공기가 파손될 정도의 강도를 표시한다.

3. 항공기 착빙(Aircraft Icing)

착빙은 항공기가 파빙·작된 水滴(구름 또는 강수현상) 사이를 비행할 때 항공기의 노출된 표면에 얼음이 축적하며 항공역학적 효율을 감소시키고 심할 때는 비행을 불가능케도 하는 외부착빙과 엔진의 흡입공기량을 줄여서 出力損失을 일으키게 하는 내부착빙(흡입구 기화기 및 엔진착빙)이 있다.

외부착빙이 생기는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액상의 습기와 자유대기 온도가 빙점 이하일 때 잘 생기는데 특히 驟雨를 받을 때와 積亂雲 속을 비행할 때 잘 생긴다. 착빙의 종류에는 Clear Icing(파파하고 군파 빙착)과 Rime Icing(알·크고 부석부석한 빙착)이 있는데 비행에 위험을 가져오는 Clear Icing은 積雲 속에서 큰 수적이 있고 대기 온도가 $0^{\circ} \sim -10^{\circ}C$ 에서 잘 발생하고 Rime Icing은 層雲 속 작은 수적이 있고 대기 온도 $-10^{\circ} \sim -20^{\circ}C$ 에서 잘 발생한다. 내부착빙이 생기는 요인은 습기가 많고 대기 온도가 빙점 근처($+10^{\circ}C$ 쯤 되어도 생긴) Low Air Speed, High RPM 일 때 잘 생긴다. 내부착빙이 발생하면 대개 외부착빙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TPT가 상승하고 출력이 줄어들어 消焰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일반적

으로 착빙이 생겼을 때 느끼는 위험은 항력(抗力: Stall Speed) 그리고 무게가 증가하고, 양력 그리고 시정이 감소된다. 防水裝置가 착빙이 생겼을 때의 대처법은 그것을 작동시키고 없는 항공기나 작동시키도 심할 때는 피하거나 出力을 줄이고 고도 변경을 하여 結氷高度 이하로 내려오는 것이 좋다.

4.雷雨(Thunderstorms)

雷雨는 積雲이 최고로 발달한 상태, 즉 소나비, 우박, 돌풍, 번개, 요란 등 모든 비행장애물을 동반한 우정의 25,000 피트 이상의 적운형 구름을 말하며 내부의 요란과 빙착은 비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다시 말해서 대기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기상의 대부분은雷雨 내에서 일어난다. 통계학적으로 전세계를 통해서 볼 때 매일 약 44,000 개의雷雨가 발생하므로 장거리雷雨항법 등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흔히雷雨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많다.雷雨는 생성단계, 성숙단계, 소산단계의 3 단계의 주기로 진행되는데 생성은 뇌우 몇 개의 積雲이 합쳐서 한 개의 뇌우가 되므로 이 단계를 積雲段階라고도 한다. 뇌우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장애는 성숙단계(또는 성년단계라고도 한다)에서 최고 강도에 도달한다. 성숙단계는 적운단계에서 생긴 적경 1~5마일, 운정 25,000 피트 미만의 대류수적이 15~20개쯤 모여 25,000 피트 이상이면 때는 60,000 피트까지 충분히 발달한다.雷雨가 소산단계에 이르면 모루(Anvil)가 생겨 마치 여자가 머리를 풀어 서풍에 휘날리는 형상을 짓는다.

雷雨의 특징은 요란, 보통에서 극심한 단계까지의 상승 및 하강기류, 우박, 착빙, 번개, 강수 및 지역에 따라서는 심한

회오리바람(Storms)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요란은 수천 피트의 고도에 걸쳐 35 m/sec의 속도로 계속적인 상승 하강기류이며 뇌우가 있는 범위만큼의 넓은 수평 지역 내에서 계속된다. 5,000 피트 또는 10,000 피트 까지의 뇌우 내에서의 요란은 고도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며 10,000 ~ 20,000 피트에서 제일 심하고 무섭다. 또한 상승, 하강기류 때문에 계기상으로 6,000 피트가량의 고도오차가 생기는 때도 있다. 착빙은 대기 온도가 빙점 이하인 지역에 있는 뇌우 내를 비행할 때는 반드시 氷着을 예상해야 된다. 이 속의 Clear Icing 과 Rime Icing 이 공존하는데 특히 Clear Icing 이 많고 10,000 ~ 20,000 피트 사이에서 빙착에 조우할 확률은 50% 가량이다. 외기온도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0 ~ 20°C 사이에서 많이 생기고 가장 심한 빙착은 0 ~ 10°C 사이에서 생긴다. 우박(Hail)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이것은 대략 11,000 ~ 21,000 피트에 제일 많이 있고 조우할 확률은 10% 이나 한번 조우하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우박도 마찬가지로 성층단계에서 많이 생기며 큰 우박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직경의 $\frac{1}{2}$ ~ $\frac{3}{4}$ 인치 이상되는 큰 우박을 만난다면 단 몇 초 내에 비행기에 손상은 입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중위도 지방의 뇌우는 성층단계에서 우박을 동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많다. 번개 또는 벼락에 의해서 장애를 받는 예는 극히 적다. 벼락은 맞을 확률이 1/10,000 정도이고 번개를 만날 확률은 약 2% 정도이나 전자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는 번개의 충격으로 상당한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조종사에게 시력장애를 일으키게도 한다.

이상에서雷雨 속을 통과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악기상을 들었는데 그러한 악조건에 이르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운중비행에서 뇌우를 피하려면 Radio Compass 주파수를 200 ~ 410 KC 에 두고 계기를 주시하면 번개가 일 때마다 바늘이 그 방향을 순간적으로 지시하여 뇌우가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뇌우에 진입했을 때는 잘 판단하여 되돌아나오거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때는 계기상으로 많은 오차가 발생하므로 적당한 出力調節(대개 순항속도를 낼 수 있는 출력)을 하고 번개로 인한 시력장애를 억제하기 위하여 조종석燈을 모두 가장 밝게 하고 자세제만을 위주로 자세비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탈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우박, 동상, 低酸素症, 번개 그리고 요란으로 인한 낙하산 고장 때문에 생명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雷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위험하고 심한 착빙과 요란이 있으므로 結氷高度를 피해야 하나 위에 든 여러가지 위험은 각오해야 한다.

이상에서 기상장애에 대한 상식적인 것을 열거해 봤는데 이들에 대한 가장 좋은 안전조치법은 피하는 것이겠으나, 불가피하게 직면했을 때 그 판단과 처리는 오로지 각자에게 있을 뿐이겠으나 보다 안전하고 훌륭한 판단과 처리를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많은 연구가 필요한 뿐이다. 반드시 약조건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만약을 위해서 보다 훌륭한 안전을 위해 위에는 요건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겠으나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비행기 기상 브리핑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흔히 스캐터(Scatter)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기상 점진도 잘하지 않고 비행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변화무상한 하늘의 조화에 대해서 극히 무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때금 그 몇가지를 특별히 받은 적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母基地의 最低制限値 以下를 가상해서 예비기지 설정을 확실히 하고 예비기지까지의 연료량까지 충분하도록 연료잔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기지가 있더라도 미리 계획된 예비기지로 갈 것이지가 낫다고 타기지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연료가 적어서 母基地에 착륙치 못하고 예비기지 아니면 타기지로 오락가락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실례를 많이 보아오고 들어 왔다.

셋째, 비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악기상하의 비행을 대비해 부수과목으로서 계기비행을 실시하고 해마다 한 번씩 생일전 계기비행검열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기비행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허용하는대로 계기비행 모형기(Jid) 탑승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가 악기상이라는 것을 가상하고 어떻게 해결 것인가를 익혀 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네째, 무엇보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 알지 못

하고서는 행할 수가 없다. 어떠한 기상장애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무난히 돌파하려면 우선 알아야 할 것이다. 정확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훌륭한 처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기지에의 착륙이 불가능할 때는 인근의 기지 아니면 어디라도, 많지 않은 국내의 자기지에 착륙할 자신을 기르기 위해 着陸進入節次를 숙지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요행이나 우연율 바라는 것은 賢者의 道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두서없이 부끄러운 얘기를 그친다.

〈海外 토크〉

무슬리니腦 質保管 夫人에 보내주겠다

미육군 병리연구소는 그들이 「이탈리아」 전 독재자 「무솔리니」 뇌의 일편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미육군 병리연구소 대변인은 문제의 「무솔리니」 뇌편을 그의 미망인으로 부터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아직 받은바 없다고 전하면서 정식 요구를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내주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심팀△AFP△V

NOTAM 確認의 徹底

양 출 고

▲중위 · 111 비행대대 V

오늘도 하늘로 치솟는 우리 제트기들의 爆音은 地軸을 흔들고 있다.

제트기들이 이와같이 하늘로 하늘로 솟아오르는한 祖國의 하늘을 지키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愛機들이 이렇게 치솟을 때마다 우리들의 關心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비행안전이라 하겠다.

죽어떨게 하면 보다 더 安全한 비행으로서 최대한의 飛行成果를 올리는나 하는 것이라 하겠다.

흔히들 비행사고라 하면 不可抗力의인 것이라 생각하자마는 과거 수년간 우리 공군에서 발생했던 비행사고를 볼 때 결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요, 조금만 애썼더라면 우리의 인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행안전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方便으로서 平素에 느낀바

NOTAM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NOTAM이라 하면 英語에 있어서 Notice To Airmen의 약자로서 航空機 運輸上 안전과 늘들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지선, 입부, 전차 또는 장애 등의 창설, 상태 또는 변경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최근의 公告文인 것이다.

그러므로 NOTAM 제도의 유일한 목적은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각 기관에 알리고 또 조종사를 補助함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NOTAM 제도라 함은 항공기 운항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航法補助施設 및 항공 교통관계 시설의 운용 현황에 관한 가장 새로운 결합사항을 조종사나 각 기관에 알려 國家의 막대한 財産을 보호함은 물론이요, 高貴한 人命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와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NOTAM에 어떠한 사항이 공고되는 것인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電子裝置 또는 기타 航法補助施設(항로용/비행장용)을 설정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했을 때

둘째, 항법보조시설(항로용/비행장용), 공저통신업무에 관한 운용중단, 원상복귀, 周波數變更, 施設別記號의變更, 方位變更, 位置變更 및 出力의 현저한 증감 등의 사항이 있을 때

세째, 비행장 및 接近用 通話施設의 운용이 중단되거나 원상복귀되었을 때

네째, 착륙지역 또는 그 부근에 임시적인 障礙物이 있을 때나 또는 이를 除去하였을 때

다섯째, 着陸地域 표면상에 결합상태가 발생하였을 때나 또는 이를 正하였을 때

여섯째, 항공기를 위한 驛務施設(Servicing Facility)의 운

을을 중단하게 되었거나 또는 원상복귀하였을 때
일급제, 좌륙지역상에 눈, 얼음 또는 물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여덟째, 항공기의 대량 이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항공기의
비행장 사용을 금지할 때 그리고 최신 NOTAM (또는 비행
정보 간행물)에 부정확한 사항이 있음으로써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NOTAM이發送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발송되는 NOTAM 제도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불 것 같으면, 모든 空軍 基地司令官은 해당
자기 관할기지에 상기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항공기 운항에 위
험을 초래할만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NOT-
AM 전문을 즉시 발안해서 공군 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중앙
NOTAM 시설에 발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 NOTAM 시설에서는 발송한 NOTAM을
수령하여 이를 모든 필요한 配布處에 재송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再送된 NOTAM 내용을 자기지휘소 및 관제
각 부처에서는 관제관, 조종사 및 병들이 잘 볼 수 있는 곳
에 게시하여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關係官 操縱士 및 兵들은 평상시 보다 더 안전한
飛行管理를 위해서 NOTAM에 무엇이 나왔는가, 어느 비행
장에 무엇이 나쁜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요, 매 비
행전에 꼭 NOTAM을 확인하고 나서 비행에 임해야 하겠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종사들은 일단 離陸하게 되면 공중에서 예기치

않았던 非常事態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둔 비행장이 아닌 다
른 비행장에 비상착륙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突變하는 氣象狀態, 비행기 자체의 비정상적인
作動, 조종사들의 신체적인 조건 및 出港基地에 豫期하지 않
았던 사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기지로 귀환해야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사전에 각 비행장의 상태
를 잘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출항기지에 착륙을 企圖하려다 예기치 않았던 사고
로 燃料가 적은 상태에서 다른 기지에 歸還을 해야만 할 때
迅速正確한 판단이 요구되는바 사전의 NOTAM 확인이 소홀
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이 비행에 임했다고 한다면 필경 당
황하여 國家의 막대한 재산은 물론이요, 자신의 고귀한 생명
마저 위태롭게 하는 悲慘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NOTAM을 確認하지 못하고 비행을 한대서 오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어 보면 가령 IFR (제기비행 절차) 상
태에서 목적지 기지의 항법보조시설이 사용불능이라는 NO-
TAM을 확인하지 못하고 비행을 했다 하자. 이미 연료가 적
은 상태에서 목적지 상공에 왔을 때 구름 속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종사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또 서해안 일대에 美
陸軍 미사일 部隊의 射擊訓練으로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
지 항공기의 운항이 禁止되어 있는 것이 NOTAM으로 公告
된 것을 모르고 通過했다면 과연 그 누구가 미사일 사격에 격
추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하겠는가!

다행히 擊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모험 아니어서
석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操縱士나 各關係官 및 兵들은 보다 더 안전한
비행으로서 국가의 막대한 財産을 保護함은 물론 조종사의 高
貴한 生命을 보호하기 위해서 精神的、肉體的 건강관리에 주
의함은 물론 외부 환경에서 오는 정신적 불안의 要素를 제거
해야만 되겠고 또 NOTAM 확인에 積極的으로 참여해 달라
는 것이다.

空中勤務者の 士氣昂揚

유 병 각

△소위 16 비행대대 V

1. 머리말

核武器가 극도로 발달됨에 따라 戰略 戰術의 개념이 달라
졌고 戰爭樣相도 그 變化를 가져왔음은 常識 論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그렇다면 現代戰의 戰爭樣相은 어떠한 변화과정
을 가져왔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原始時代는 고사하고, 中世以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戰
爭概念上은 地上軍의 接戰에서 그 勝敗의 左右가 결정되었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상군을 주로하는 戰爭概念이 漸
次 研究 發展된 結果, 制空權의 강화야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
끌 수 있다는 結論을 얻었던 것이 現代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現代의 國力이라 함은 空軍力의 대칭어
로 사용되었으며, 空軍力이라 함은 조종사의 숙련도와 성능이
좋은 항공기를 비롯한 裝備에 依存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조종사의 전투력은 그 士氣에 至大한 影響이 있음을
생각할 때 空中勤務者の 사기야말로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는 기막힌 結果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空中勤務者の
士氣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2. 士氣라는 것

「名將 밑에 악졸이 있을 수 없고 우매한 장군 밑에 용감한 兵
士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음은 지휘관의 통솔력이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그 저의를 살
펴보면 名將은 언제나 士氣를 제일의 통솔지점으로 삼았다는
結論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歷史的으로 優秀한 武器와 많은 수의 兵力을 가진
군대가 미약한 무기를 가진 적은 수의 군대에게 敗北당했음을
戰史를 통해서 배웠다. 이것은 전술의 기술적인 운영도 있겠으
나 軍隊士氣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士氣라는 것은, 군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士氣를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는 相互聯關性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空中勤務者는 아무런 마음의 걱정이 없고 使命感과 정신

력이 투철할 때, 또는 相互 依支하고 協助하며 굳게 단결하여, 투지를 솟구치게 하는 생물이 작용할 때 느끼는 충족스런 마음속의 情熱, 그것을 가리켜 士氣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士氣를 振作시킬 수 있는 方法

우선 훈련의 묘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技術의 이고 與件을 고려한 多角的인 訓練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訓練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士氣面에서도 커다란 長點을 얻어볼 수 있다. 反面에 지나친 效果의 기대만을 우선으로 한 엄격한 懲罰은 初學者에게는 처음부터 실력에 비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므로 飛行術 自體를 不安定하게 만들고 기초가 미약하게 되므로 내심에는 언제나 不安한 마음만을 갖게 되고 숙련된 조종사라 할지라도 일정한 한도선 이상을 넘어서는 그 효과와 훈련량에 비해서 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증만을 일삼게 하는데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제도의 運營面에서 고찰해 본다면 지휘관은 空中勤務者의 士氣에 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제도를 運營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호 의논 제도 등을 운영하여 비밀을 보장해 주는 조건 아래 空中勤務者의 고민거리를 조금이나마 解消해 준다면 그것대로 意義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잠시나마 緊張과 休息을 갖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그것이 얼마마한 士氣振作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의문을 풀어보는 것도 그 自體에서 얻는 사기진작은 그

만무고라도 지휘관이 士氣振作을 위하여 그만큼 관심을 표명한다는 자체, 그것만으로도 士氣振作은 이미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휘관은 航空軍醫官을 통한 공중근무자의 健康管理를 철저히 실시 도모하고 개개인의 私生活에까지 個人面談 또는 환담을 통하여 완전 숙지하고 공중근무자의 生活實態, 將來의 所望, 現在의 隘路, 個人關係, 家族思想, 飛行意慾等을 파악하여 그 문제해결에 협조하고 그만큼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士氣를 양양시키는 통솔력의 발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본다.

4、맺는 말

現代戰에서의 空軍의 位置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空軍力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有能하고, 熟練된 조종사가 필요한 것이며 이와같은 조종사를 輩出, 내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士氣의 問題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급지휘관은 항상 空中勤務者의 士氣振作 문제를 항상라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하며 전기의 예와 같은 技術的인 訓練과 制度의 創案乃至 運營, 그리고 개인 사생활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空中勤務者는 使命感이 透徹해지고 협심, 단결하여 오직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空軍力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整備士の愛着和使命

문 광

△ 조위·15 교육대대 V

비행장 활주로 한쪽엔 정비대 라인반 정비사들의 바쁜 모습을 어느 때고 보여주고 있다. 恒常 기계를 상대로 그들의 生活은 날으는 기계에 대한 愛着과 관심은 이것과 生命을 같이 하는 操縱士에 못지 않을 것이다. 죄이고 다지고 넣고 치고 닦고 부속을 갈고 검사하고……。 한 대의 항공기가 무사히 作戰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계에 加해지는 정비사들의 努力은 참으로 큰 것으로 항공기는 그들의 汗과 피로 씻겨지고 뛰아지며 生命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밤과 낮이 없이 계속되는 勤務속에서도 그들은 不平하기 보다는 自身の 努力으로 또 한 대의 飛行機가 國家를 위해 일할 조종사를 태우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지니는 참다운 태도로 매사에 임하고 있다.

항상 바쁜 정비사의 生活은 그들이 安穩한 愜意를 생각할 수 없게 하고 끊임없는 노고의 댓가는 飛行壽命을 他國航空機보다 훨씬 더 길게 하고 있다.

春夏秋冬晝夜를 莫論하고 그들은 주어진 임무에 묵묵히 충

실하고 있다. 추운 겨울철 라인에서 始動을 하기 위해 외부 전원을 끌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들의 모습은 추위나 고충 등을 도외시해버린, 오로지 임무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자 努力하는 근면해야 될 現代軍人の 상징이 되고 있다.

정비사에겐 비행기가 생명에 없는 단순한 정밀기계로 보이기 전에 자기의 分身처럼 느껴질 것이다. 自身の 온 정열을 다 쏟아 담고 다들은 그 飛行機를 單純한 기계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흔히들 飛行機는 操縱士의 愛人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恒常 함께 살아야 하는 操縱士로선 그 飛行機가 愛人이 아닐 수 없다. 飛行機의 모든 기계적 작동이 愛人の 行動처럼 믿음직스럽고 安心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비행기를 기른 어머니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비사는 비행기의 어머니다. 다시 말하여 조종사의 장모가 된다. 내 딸을 잘 데리고 살라고 장모는 사위에게 누누이 일러준다. 그 인자한 母情은 飛行機와 같이 사는 사위, 조종사가 飛行機에 느끼는 愛情이 상으로 깊이 있고 알뜰한 것이겠다. 조종사들은 정비사들을 볼 때 자기 愛人을 진리준 장모처럼, 정비사가 조종사를 볼 땐 자기 딸을 데리고 살 사랑스런 사위로 보일 것이다. 서로가 그러한 友好가 있기애 조종사는 정비사의 점점이 끝난 비행기라면 安心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그 비행기 속에 生命을 담을 수 있는 조종사의 마음은 따뜻한 장모의 사랑과 愛人の 이쁜 모습과 귀여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딸을 데리고 라인으로 나가는 조종사에게 소화를

들고 나와 무사히 돌아올 것을 마음 속으로 기원하면서 배웅한다. 팔과 사위를 보면 어머니의 마음은 모두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내려올 시간을 늘 열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또 사위와 딸을 맞이할 준비에 바쁘기만 하다. 장비를 정리하고 정돈하고....

멀리서 飛行機가 활주로를 향해 오는 것을 보는 정비사의 마음은 이제 오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무사히 着陸해서 들어 오길 기다린다. 비행기가 땅에 닿는다. 멀리서 Taxiing 해서 들어오는 팔과 사위에게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그 손짓을 본 조종사와 그의 애인은 웃음으로 어머니의 품안으로 포근히 안긴다.

이와같이 進行되는 어머니와 딸과 그 딸의 애인인 사위와의 세 사람의 생활은 恒常서로 믿고 사랑해주고 아껴줌으로써 그들의 共同的인 目的인 防空의 義務, 나아가 國土防衛의 重要な 임무를 充實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共同目標을 達成하는데 있어서 三者의 同心적인 協助精神과 융화없는 每事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操縱士는 정비사들의 勞苦를 더욱 더 充分히 理解해야겠고 그들의 生活環境의 үүл배를 위해 정신을 기울임은 勿論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조종사들의 生命의 安全을 위해 헌신적인 努力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야겠고, 정비사 또한 자기가 손질한 愛機에 온 마음과 精誠을 말기고 모든 사실들과 상대를 정비사의 정비하나로 믿으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비사의 책임은 더욱 막중

해지고 자신의 임무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기계를 믿고 온갖 것을 다 바쳐 空中을 날으는 조종사는 정비사를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귀중한 生命과 莫大한 國庫가 自身の 正성어린 정비로 하늘을 날고 있으며 국가의 安全保障을 위해 一線조종사가 防空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데는 누구보다 정비사의 힘이 가장 重要하다는 것을 재삼 느끼게 된다.

남달리 고단하고 바쁘며 정신적인 중한 책임까지 느껴야 하는 정비사의 생활은 고달프고 힘들며 많은 애로를 지닌다는 사실은 否認할 수 없으나 정비사가 차지하는 空軍內의 비중과 크기는 우리 國防力の 比重으로서 그들이 지닌 책임과 使命이 지대하고 또한 영향력이 莫大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힘든 생활이지만 自負心을 지니고 每事에 熱中할 수 있는 훌륭한 정비사가 됨이 우리 空軍을 위한 자량이 될 수 있을 줄 믿는다. 他戰友들은 고히 잠들었는데 야간비행 준비에 바쁜 저녁의 일과는 무척 고단하고 어떤 때는 온 조종사와 飛行機가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될 때도 없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비행기를 사랑했고 사랑할 사람으로서 飛行機에겐 어머니로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아껴주는 심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고결한 정신으로 손질되어진 飛行機에 모든 조종사는 의심할 여지없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비행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조종사와 정비사,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다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人間味가 필요하겠고 그

들의 勞苦를 充分히 理解해서 無理한 要求를 하기에 앞서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줌으로써 상호간에 理解해 주는 가운데서 서로가 웃는 얼굴로 일할 수 있겠고 더 현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飛行機의 壽命을 늘이고, 또한 飛行安全 關係者와 無事故飛行時間을 늘이는 것은 勿論 操縱士의 努力도 크지 않을 수 없으나 가장 큰 공로자가 정비사임을 느낄 때 정비사들에게은 공로는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好調된 飛行記錄은 정비사와 조종사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겠다. 서로가 理解하고 뜻을 모아 國家理念과 空軍의 目標達

成을 위해 현신적인 努力을, 자부심을 지니고 할 필요가 있음을 재삼 느끼는 바이다.

우리는 공군과 국민들은 정비사의 勞苦를 덜기 위해 위로의 찬사를 아끼지 않아야겠으며 정비사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며 자신이 국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가를 잘 생각해서 國家에 큰 힘을 미친다는 自負心과 정비사의 點檢만을 믿고 몸을 마끼는 조종사를 생각할 때 母性愛的인 사랑을 지니고 每事에 임할 必要가 있음을 강조하는 마음 간절하다.

◇ 軍用用語辭典 ◇

◇.....Air Control Team (A.C.T.) (空中統制班)——

前方 地上軍 單位部隊의 近處에서 視覺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서 近接 航空支援 強襲을 指揮하도록 特別히 組織된 統制班。

◇.....Air Craft Scrambling (航空機 緊急 遂擊出動)——

地上警戒態勢中인 航空機에 對한 即刻 離陸을 命하는 것。

◇.....Air Defense Control Center (防空統制所)——

全航空機 防空作戰, 對空砲火, 誘導미사일 및 防空責任 特定地域의 防空警報 機能을 監督하고 協助하는 情報, 通信 및 作戰 主指揮所。

◇.....Air Defense (防空)——

離陸後의 敵機나 敵誘導 미사일의 攻擊有効性을 減失 또는 減少시키기 위한 모든 手段。

◇.....Air Defense Action Area (防空行動區域)——

特定 狀況下를 除外하고 友軍 航空機 또는 地對空 武器에 優先權을 賦與하는 區域上的 空域 또는 空間。

◇.....Air Command (集團空軍)——

空軍의 主要 隸下部隊 作戰目的을 爲하여 通常들 또는 그 以上の 番號空軍으로서 構成된다。

◇.....Air Controller (空中統制官)——

所管 區域內에서 作戰上 割當된 航空機를 라디오, 레이다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서 統制하도록 特別히 訓練되어 配屬된 사람。

注意集中과 安全習性

김 삼 묘

△소위·항상사▽

習性이란 一般의 어떤 주어진 刺激에 對하여 일정한 反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習性은 先天的인 것과 後天的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習性이라 하는 것은 大部分이 後天的인 習性의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先天的인 習性의 形成過程에는 理論과 論爭이 많지만 後天的인 習性의 形成過程은 많이 研究되었고 또 믿을만한 理論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 習性의 形成過程에서 人間과 他生物과 다른 점은 人間은 이 習性의 形成을 自身이 統制할 수 있는 반면, 다른 生物은 外界 外部의 刺激에 依하여 形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習性이 어디에 속하는 그것은 反復되는 刺激에 對한 反復되는 反應에 依하여 形成되는 것만은 同一하다. 物質文明이 극도로 發達한 現代에 있어서 모든 人間生活은 分化되고 特殊化되어 人間으로 하여금 反復되는 行動을 強要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고 나쁜 習性들이 形成된다. 여기서 人間은 나쁜 習性을 억제하려 하고 좋은 習性은 積極적으로 形成시켜 強化하려 한다. 安全習性이 그 一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항상 有形的 利益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그것을 輕視하기 쉽고 그 重要性을 忘却한다.

전날부터 앞서 일단 正查하여 左右를 살피는 運轉兵、機械 作動前後 모든 造作點을 먼저 確認하는 作業者、引火性物質을 取扱하기 전에 일단 자기의 服裝을 確認하여 보는 POL 要員 등、그 目的을 모르는 사람에게겐 너무나 無意味하게 보이는 이들의 行動은 意識的인 行動을 넘어 하나의 習性에 까지 發展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自動車가 철로를 橫斷할 때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確率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며, 일단 정지의 行動이 習性에 까지 發展되어 있지 않으면 運轉兵의 人的要素가 不安全할 때 그는 지켜야 할 規則을 잊고 차를 물게 되어 事故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安全한 行動은 고기를 잡는 魚網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習性에까지 도달치 못한 安全行動은 찢어지기 쉬운 魚網이다. 그것은 언제가는 不安全한 環境에서 찢어져 事故要素들을 잡지 못하고 事故를 誘發시키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安全習性을 어떻게 形成시킬 것인가? 이 問題는 그 習性을 形成시킬 刺激을 어떻게 마련하는냐는 問題에 귀착된다. 먼저 우리는 이 行動의 主體가 人間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人間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刺激이 자기의 意志에 違背되는 것이면 그 刺激에 反撥하고 그 刺激을 歪曲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刺激을 받는 사람이 자진하여 즉 그의 意志의 허락을 받아 그 刺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이 指向하는 方向으로 옮겨 行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段階에서 그 行動의 主體는 自身의 行動에 注意를 集中하게 되고 따라서 그 行動의 習性화도 急速히 이뤄진다. 이러한 安全習

性을 기를 效果의 인 刺戟으로 다음의 3개의 方法을 들 수 있겠다.

1、教育

教育은 行動을 誘發시키고 그 行動을 習性化하는데 가장 基礎의 이고 能率의 인 것이다. 우리는 「安全 필을 어떻게 取扱하라」, 「일단 점검을 實施하라」, 「직접 機體 위에 工具를 두지 말라」 등의 直接 行動을 要求하는 명령을 하기에 앞서 왜 그렇게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過程을 통하여 어떤 事故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등의 具體의 이고 本質의 인 知識을 직접히 教育하여 스스로 그렇게 行動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人間이 意志의 支配를 떠나 外部의 刺戟만으로 「억지」의 行動을 하였을 때 그 行動은 극히 不安全하고 더구나 그 行動의 反復을 통한 習性化는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2、監督

一般的으로 우리는 어떤 刺戟에 對하여 똑같은 反應을 항상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즉 위의 教育에서 가르친 方向대로 모든 사람이 항상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크레인의 取扱方法을 아무리 열심히 教育하였다 하여도 실지 그 機材의 取扱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른 行動을 나타내고 그 行動이 원래의 方向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도록 더 큰 危險을 內包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 行動을 監督하여 統制하

여야 한다. 이것은 不安全的 行動에서 오는 事故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監督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習性화된 行動을 強化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하여야 할 점은 위의 教育의 結果에 影響을 주거나 그 行動을 악화시킬 監督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監督者의 資質과 人格이 問題가 된다.

3、訓練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諸般 行動節次를 상세히 알고 있어도 그것을 正確히 行動으로 옮길 수 없으며, 不斷한 反復을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行動을 하게 된다. 이러한 熟達된 行動을 얻기 위하여 단순히 日常作業의 經驗에만 依存한다는 것은 많은 時日을 要할 뿐만 아니라 그 行動 또한 쉽게 習性化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實際作業 이외의 反復訓練은 그 作業을 能率의 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重要な 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正常的인 行動을 習性화시킨다.

위의 세 가지 刺戟이 圓滑히 結合하여 反復될 때 우리가 바라는 行動이 正常的으로 이뤄지고 또 習性化된다. 安全習性은 하루 이들의 訓練이나 책장에서 얻은 知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安全知識으로 오랜 期間을 통하여 日常生活 속에서 거뒀을인 값비싼 收穫이며 우리의 軍事力에도 直結되는 것이다.

溺

死

및

熱

射

病

防

止

오

홍

태

△소위·107기지단▽

1. 溺死防止는 어떻게

해마다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바다나 혹은 연못 등으로 모여든다. 水泳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서를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심신을 단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 같다. 일상생활의 터전을 떠나 바다나 강으로 감으로써 정신을 상쾌하게 하며 精神衛生上 해로운 고민이나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다. 또한 육체적인 운동으로 피속의 적혈구를 증가시킨다든가 피부를 태우고 食慾을 증진시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수영은 개인보건에 좋은 營養을 주게 된다. 그러나 물가에 가면 의례히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에게 警鐘을 주는 데 물론 이는 이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에 빠져서 앉으려면 물가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비록 다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주의만 한다면 사고없이 우리의 목욕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溺死는 어떻게 하여 생기는가를 보기로 한다. 이사는 보통 두 가지의 原因과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신장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水域 안전을 기할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1) 水泳場 選擇

가, 指定된 場所가 아닌 곳에서는 수영을 금하며 비록 안전한 장소일지라도 홀로 행동치 말고 최소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것.

나, 水泳區域에는 應急治療員이나 구조기가 있어야 한다. 水泳場은 모래사장으로 굴곡이 없고 서서히 傾斜된 곳이

라야 한다. 波濤가 몹시 치거나 물의 흐름이 너무 센 곳은 피할 것이며 물이 더러운 곳도 가자 말아야 한다.

마, 障礙物이 많거나 突起가 심하여 負傷을 입을 수 있는 장소는 禁해야 한다.

(2) 水泳에 適合치 않은 時間

가, 이른 아침이나 밤중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나, 식사 직후에는 금하며 1시간이 지난 후 물에 들어간다. 다, 추운 날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 것.

계통에서 오는 심장마비가 하나이고 둘째로는, 水泳中에 힘이 지쳐서 물에서 나오지 못해 빠져지게 되며 물이 폐로 들어가 호흡이 중단되는 질식사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사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적절한 方途로서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3) 水泳前の準備事項

가, 먼저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완전히 풀며 특히 팔, 다리, 관절 등은 잘 운동시켜야 한다.

나, 물에 들어갔을 때는 심장으로 부터 먼 곳에서 순서로 물을 적시고 차츰 차츰 몸 전체를 물에 담근다.

다, 얕은 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

(4) 水泳時の注意事項

가, 수영시간은 대체로 체질이나 수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회에 20分 내지 30分으로 한정할 것이다.

나, 입술이 부르며 몸이 떨릴 정도면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한다.

다, 자신의 능력을 잘 알아서 깊은 곳이나 육지에서 먼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라, 물 속에 있을 때도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행동한다.

마, 가능하다면 튜브나 그의 부유물을 갖고 있는 것도 좋다.

바, 팔이나 다리에 「취」가 났을 때는 당황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므로 「취」가 더욱 심해져서 익사하는 수가 많다. 무이나 팔에 「취」가 났을 때는 머리를 물 속에 담고 「배형」 또는 「개형」으로 수영하며 다른 손으로 「취」난 곳을 서서히 원형으로 비빈다면 간단히 풀린다. 「취」가 제일 잘 나는 곳이 다리며 또 제일 위험하기도 하다. 다리의 어느 곳이든지 (발가락은 제외) 허리를 굽혀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취」가 풀

릴 때까지 잡아 당긴다. 다리의 모든 「취」는 이렇게 함으로써 풀릴 수 있으며 이때 좀 아픈 것을 참아야 한다. 「취」가 풀린 후는 그곳에 무리한 힘을 주지 말고 곧 밖으로 나와야 한다. 사, 흰에 지쳤을 때는 물 속에서 반듯이 들어누우면 떠오르고 수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5) 水泳後の注意事項

가, 수영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여야 한다.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수영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가벼운 전신운동이 필요하다. 혈액 순환을 정상으로 되돌리며

심장의 「점프」 작용을 부드럽게 해서 피로를 덜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청수로 눈을 닦고 탈지면이나 흡수지 또는 뜨거운 물같은 것을 써서 귀속의 물을 빨아내야 한다. 그러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탈지면을 쓰면 오히려 해롭다.

나, 해수욕을 했을 때는 후에 반드시 민물로 샤워해야 한다. 다, 물에서 나오면 수진 등으로 곧 물기를 없앤다.

2. 熱射 및 日射病 防止에 關하여

(1) 日射病이란 무엇인가?

일사병이란 것은 머리, 목덜미 등에 일광의 직사를 장시간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이며 열사병이란 습도와 온도가 높은 실내에서 또는 무더운 초린 날씨에 근육노동을 강행하는 때에 생기는 것인데 양자 모두 과열로 기인된다.

(2) 症勢는 갑자기 失神 卒倒한다.

대개의 경우 전신권태, 두통, 잠들리기, 헛기증, 시력의 장애 등의 증세가 먼저 온다. 이렇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 또는 실내에 휴식시키고 옷을 편하게 풀어 주고 충분히 음료수를 주면 졸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증세가 있는데도 계속작업을 하면 나중에는 혼탁, 다음으로 실신, 땅 위에 떨어져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사이에 대다수는 간질병 같은 경련을 일으키고 혹은 헛소리를 하는 상태에 빠진다. 체온은 처음 40도 C나 그 이상으로 오른다. 호흡은 처음에 촉박되었다가 차츰 고르지 않게 되고 맥박도 심히 빈번하면서 약화되었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다. 구토나 설사는 때때로 볼 수 있으며 땀나는 것이 갑자기 멎는 것은 이병의 발생 시초의 징조이다.

(3) 治療 및 處置

가, 가슴을 열어 제치고 서늘한 그늘에 조용히 눕혀준다. 열 끝빛이 창백할 때에는 머리를 낮게 하고 볼을 때는 머리에다 베개를 고여 높게 한다. 그리고 식염수를 마시게 하면 좋다. 心臟部와 非心臟部, 즉 장판지에는 거저반죽을 발라준다. 소량의 술을 마시게 하여도 좋다.

나, 의식이 회복되었다가 또 다시 잠을 잘 때에는 위험하므로 잠들지 못하게 깨어 있도록 한다.

다, 경련이 일어나면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작은 나무조각이나 고무조각을 형전에 싸서 상하의 이빨 사이에 물려준다.

라, 호흡이 곤란하거나 정지되었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整 備 士 의 하 루

윤 선 길

△하사 · 32정찰대대 V

깊이 잠든 새벽, 아적 날이 밝기에는 조금 시간이 일렀다. 요란한 起床나팔과 함께 미처 이루지도 못한 달콤한 꿈을 깨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어여쁜 아가씨가 손에 잡힐까 말까 실경이를 치면서 따라가는데, 마침 기상나팔이 나를 깨운다. 그러나 내가 이불을 걸어챘을 때는 이미 그런 것은 사라진지 오래다. 내 앞에는 오늘의 任務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차가운 옷을 찾아 입으면 나의 유일무이한 드라이버가 우선 나를 반긴다. 드라이버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 뿐만이 아니라 空軍의 全整備士라면 그 것이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반려자인가는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學者에게는 붓과 말이 武器요, 戰爭의 무기는 銃과 칼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비사에게는 드라이버만큼 훌륭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다.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 비행대 기선으로 나오면, 밤새껏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애기가 나를 반긴다. 아무도 그를 위해주는 사람도 또한 건드리는 사람도 없진만, 이렇다는 불평없이 서 있다. 이른 아침의 환주로는 고요하기만하다. 멀리 활주로를 알리는 푸른 등만이 유난히 빛나고..... 여기에 나는 고요한 새벽하늘에 저상장

비시동을 전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을 듣는다. 하루가 무척도 지루하다고..... 따라서 3年間の 군대생활이 무척도 길다고..... 그러나 우리 정비사는 비행기 몇 번만 댔다 내리면 어느덧 하루가 간다.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가 뜰 때나 내릴 때마다 오직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 어떤 아기가 엄마에게서 바라는 것은 것이요, 손자가 나들이에서 돌아오신 할머님에게 바라는 것은 달콤한 과자 한 봉지라면, 내가 댔다 내리는 항공기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사고없이 고장없이 돌아오는 無事요, 안전이다. 우리는 얼마나 이 무사를 바라는지 모른다. 내 몸 같이 아끼는 애기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란 정비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아직 못내기 정비사로서 경험히 별로 없지만, 선배 정비사의 이야기를 빌리면, 옛날 전투가 한창 치열하던 때의 이야기다. 敵補給路遮斷任務를 띠고 1個編隊가 북쪽 하늘을 향하여 떠났지만 임무수행후 돌아오는 데 공교롭게도 그 어느 한 대가 불키의 격이 되고 말았을 때 그 항공기의 機長, 機附는 어깨를 맞잡고 울부짖었다는 그 광경만 생각해도 아찔하다. 이와 같이 전쟁의 상처로 인한 사고도 이렇게 여울거늘, 하늘며 전쟁도 아닌 평시 훈련에서 그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는가? 진정한 사람에게는 藥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이 안전할 때는 안전의 중요성을 여러 사람은 모르고 저낸다. 말로만 안전 말고 체함으로 안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안전의 몇 가지를 말하면 첫째 우리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安全이

란 精神,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크게 믿는다. 各者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비사가 아침 日朝點呼時에 드라이버로 점검장을 열고서 잠간의 실수로 나트 하나를 죄이지 않았다면 비행중에 점검장은 여지없이 날아가고, 흡입구에 들어갔다 오는 정비사가 부주의로 무는 汚物이나 부스럭기 또는 드라이버를 吸入口에 놓고 나왔다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한 무기인 드라이버가 무서운 사고의 악마로 변하는 것이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행기 밑에서 작업하던 정비사가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윙팁(Wing Tip)이나 플랩(Flap)의 이마를 다치는 일은 우리가 종종 보아온 것이며 또한 外部的인 심적 자극도 사고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비행대기선에서 보는 일인데 가령 항공기가 착륙한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두 번째의 스케줄이 나왔다고 하면, 정비사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시간관계로 점검이나 오일, 燃料補給이 끝나지 않은 때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상급자나 혹은 조종사가 무엇하는냐고 꾸짖거나 또는 불안케 한다면, 이제 군대에 온지도 얼마되지 않은 못내기 정비사는 당황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항공기가 시동이 걸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주의를 잃게 되어 잘못하면 휴임구에 팔려들어 막대한 國家財産뿐만이 아니라, 귀중한 자기 생명까지 잃고야 마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유의하지만 「법에 게를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俗談과 같이 좀더 매사

에 침착하고 주의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도 어느덧 하루가 갔다. 잠자리에 들어서 또 하루가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나감을 생각한다. 내일도 모래도 영원히 안전하기를 바라면서 드라이버에게 감사한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정비사 생활에 그리고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지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으며, 무사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되새겨 본다.

安 全 意 識 과 精 神 武 裝

집 제 칠

△하사·757항로통신대대V

우리가 고된 事役을 치를 때마다 機械가 주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共通된 심정일 것이다.

봉화불을 피워 올려 千里밖의 災難을 알리고 역마를 달려 소식을 전하는 옛 시절. 손방아로 쌀을 얻어 밥을 짓던 수동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텔레타이프, 전신 전화, 자동차 등의 문명의 이기를 흠뻑 맛보게 되었다.

섬세한 조직과 질서있는 救助, 그리고 원활한 동작으로 힘차고 장엄하게 운전하는 기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끔 경탄하여 마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高度의 科學萬能時代에서 마음껏 자연을 활용하고 정부하게 되었고 더욱 더 새롭고 편리한 이기를 얻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의 성냥불이 巨大한 火力의 원동력을 제공하여 發動機를 돌리고 工場을 움직이는 혜택을 주는 반면 순간적인 不注意로 값진 공장을 불사르고 온 도시를 한층의 잿더미로 화하게 되는 문명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위험을 당하게 된 것이다.

순간적인 부주의나 잠깐동안의 放心으로 얼마나 많은 財貨를 불태웠고 얼마나 많은 중대한 사고를 빚어내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時時刻刻으로 문명의 이기에 도전하는 각종 사고로부터의 위험과 싸워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문명의 개화 이전의 손과 발로서 힘에 겨운 일을 할 때의 고충보다 더 큰 문제거리로 대두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많은 분야가 나열될 수 있겠지만 우선 저상사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地上事故는 너무나 다양하다. 취중운전으로 낭떠러지에 던져져 귀중한 인명과 차량을 잃고만 사고도 있었고 인화물질을 잘못 취급하여 값진 전물과 시설을 불태운 사고도 경험했고 술마시며 뱃놀이하던 토요일의 즐거움이 한강수 물किन으로 화하고 말던 인사자전도 경험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을 분석해 보면 天災地變이나 불가항력의 사고는 극소하며 거의가 人爲의 인태만, 부주의, 방심, 경솔 등이다. 引火物質과 酸素, 熱等의 발효 요소를 잘 아는 화학도가 취발성이 강한 유저 탱크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는가 고압선에 접근하면 죽는다는 것을 배워온 電氣工學徒가 高壓電流를 만진다든가 醉中

運轉은 죽을길이라는 것을 잘 아는 운전병이 滿醉한 채 핸들을 잡는다든가 하는 것등의 평범한 사실은 모두가 시시하게 다 알고 있는 사무원이라 하더라도 오만한 虛勢, 지나친 자위, 보잘 것 없는 실력의 과시로 거대한 국가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게 되는 불행이 너무나 허다했던 것이다. 더구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수단으로만 자율적으로 執務를 처리하는 일부 군인들의 思考方式은 왕왕 불미스러운 사고를 야기했고 劣等意識으로 방종하거나 스스로의 人格을 비하시키는 일부 탈선 군인들의 주범은 항상 사고라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龐大한 規模, 거대한 경비를 들여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군인들의 사상은 일국의 흥망과 직결되어 있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멋뻐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양 어깨에는 국가와 국민을 짊어지고 있으며 자기의 一舉手 一投足은 곧 민족의 운명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겁다는 걸 느껴야만 한다.

나 한 사람만은—— 이렇게 자기를 열외시키는 愚鈍한 생각은 쟁그리 버리고 누구나 똑같이 동일한 책임자로서의 계급의 상하나 지식의 유무나 직책의好不好를 막론하고 共同運命體 속에서 호흡하는 군인들의 連帶責任은 너무나 중요하다. 차라리 사고는 운전병이, 보이라의 過熱爆發은 發電兵이…….

이렇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다 高次元의인, 巨視의인 면에서 동일한 책임의식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민족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事故防止를 위한 공동의식은 강제적이거나 他律的이 아니라 良心과 理性에 의한 자발적인 參與가 요구되는 것이다. 즉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안일무사할 수 있으며 부하 혹은 상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是正하고 사고 없는 주변을 위해 자기의 力量과 才量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밝고 명량한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國利民福에 기여하는바도 실로 클 것이다.

前述한대로 地上安全은 정신의 재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기술부족, 지식의 결핍 등은 조금씩 수탈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경솔, 오만, 부주의, 태만, 책임회피 등의 정신적인 문제는 자발적인 자성없이 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자자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자기로 인한 거대한人命被害나 국가재산의 손실은 없어야 한다.

文明의利器를 마음껏 활용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유발되기 쉬운 각종 사고의 근절을 위해 총력량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자기로 인한 조그만 부주의나 태만, 방심, 책임회피가 얼마나 국가 재산을 좁고고 있으며 社會建設에 악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밝고 명량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地上事故防止와 戰力

박 종 원

△상병·30방관단△

우리는 大韓의 아들로서보다 祖國을 지키는 軍人으로서 오늘날 北쪽 하늘을 향해 레이다를 生命살아 목숨히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한 마리의 보라매들이다. 戰爭과 貧困과 헛된 죽음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순식간의 잘못으로 막대한 재산을 불살라 버리고 마는 안타까움이 우리 주위엔 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 國民이 모두 잘 살 수 있고 강한 戰鬥力을 갖출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본적이 있다.

물론 보다 알뜰히 하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틀림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우리 개인 하나로 인해 자신을 망각하고 국가를 좀먹는 事故부터 防止해야 될 줄 알아야겠다. 아무리 훌륭한 高臺廣室을 지었다 하더라도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작은 土塼가 뒤를리기 시작한다면 그 집은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해서 많은 財産을 쌓아 놓았다 해도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 순식간에 날려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

늘을 날으는 조종사는 조종사대로 철저히 飛行安全을 지켜한 풀 두둔 피탐 홀린 돈으로 사들인 비행기 한대라도 희생시키지 말고 그들의 길잡이요, 保護者가 되는 우리는 우리로서 地上安全을 지키기 위한 방을 木材 하나라도 아껴써야 하겠다. 그렇다면 자주 일어나는 地上事故로 인해 희생되는 재산과 인명 피해는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다같이 조용히 생각해 보자. 그것은 아마 天文學的 숫자일 것이다.

記憶을 되살려, 눈은 나리고 살을 찢는 바람은 사정없이 스치는 지난해 겨울, 바로 舊正을 하루 앞둔 설날 그믐날, 같은 사병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웃고 지내던 최일병이 예상치도 않은 차량사고로 인해 우리와 생사를 달리하고 말았다. 사물통이 없는 나에게 그날 그는 손수 만들어 주겠노라고 해 놓고 汚物處理 作業에 동원되었다.

오늘을 잔뜩 실은 덤프·트럭에 타고 간 그가 시체로 들어오고 말았으니 이제 무슨 끝이 되었겠는가? 물론 추위로 인해 모든 동작은 멎었지만 瞬息間의 不注意로 인해 車에서 떨어져 生命을 잃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덤프·트럭은 통근차나 버스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없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타셔야 되겠는가? 참으로 어안이 병병한 노릇이다. 다 키웠다고 몇몇이 國家에 바친 子息을 거정하고 있는 父母님들을 생각해 보자. 그냥 웃고만 일이다. 아니면 남의 일 같단 말인가! 그때 난 행정계원인

관계로 그 식어버린 시체가 재가 될 때까지 며칠을 밤잠이
무저 못하고 같이 했어야만 했다. 그는 지금 국가를 위해 숨
져 갔으나 몇몇하지 못하게 괴롭다. 그러나 그가 간 뒤엔 무
엇이 남아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있다면 흔히 말하는 虛無
와 悲哀만이…… 지금도 죽은 아들을 겨안고 울며 불며 통곡
하면 그의 부모님들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저는 현실하느
졌다. 우리가 모든 일에 慎重을 기하고 한층 注意한다는 것
은 결과적으로나 자신을 위한 길이고 부모형제를 보다 내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앞에 달한 것은 저장사고중의 일례가 될 뿐 이외에도 우리
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저장안전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중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대
표적인 사건만 몇 개 뽑아 나열해 보겠다. 첫째로는, 차량사
고이다. 운전병들은 꼭 기억해 두어야겠다. 술을 마시고 運轉
을 한다거나 괜히 우쭐한 氣分에 規定에 어긋난 速力을 내어
자신을 과시해보는 헛된 장난 혹은 위험한 길을 모험삼아 달
려보는 것. 또한 교통표지판은 보지도 않고 기차가 다니는 건
널목을 횡단하는 것. 또는 겨울철에 얼음이 깔린 비탈길은 두
말할 나위 없겠지만 평한 큰 길이라도 조금의 조심도 없이 그
냥 운전해서야 地上事故를 防止할 수 없겠다. 아마 이 차량
사고가 지금까지의 사고중에 으뜸이 될 것 같다.

둘째는, 화재사고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各部隊에서 근무
하는 POL 勤務者와 油脂取扱者는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禁煙이라고 쓴 표지판을 부착해 놓고도 근무자가

먼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消防教育이 철저치
못한 전우들은 消火器 使用法도 몰라 이러 뉘고 저리 뉘다가
마는가 하면 어디를 먼저 연락해야 할런지조차도 생각지 못
하고 말았다 하더라도 귀가 아프게 들은 비상호출이 떠오르
지 않아 당황하는 일들이 있다면 거짓말이라 단정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전기선은 완전하며 퓨어지는 規格에
맞는 것인가? 아직도 소화가 배되지 않은 근무장이나 내
무반은 없는지? 또한 防火水 防火砂는 완전히 準備되어 있
는지? 웃은 일이긴 하지만 페인트를 끓여서 녹이려는 미
련한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도 火災事故는 광범위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는, 爆發物 取扱事件이다. 우리는 군인이므로 폭발물
을 취급할 때가 있다. 괜히 모험삼아 다루다가 불의의 폭발
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하
겠지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없는 방법을 개척하
려 들지 말 것이다. 반드시 완전한 사용도와 방법을 익힌 후
에 사용해야겠다.

네째로는, 裝備豫防 點檢이다. 전기라든가 위험한 장비는 항
상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點檢해 두어야 한다. 아주
예민하고 작은 스위치 하나라도 자칫 잘못 움직여 폭발하고
화재가 나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수가 있다. 또한 動作中
인 裝備를 두고 就寢한다거나 勤務場離脫을 했다면 이것은 地
上事故의 原因이 되겠다.

兵營生活과 遵法精神

崔 公 雄

△大尉・法務監室 檢察課長▽

1. 法이란 무엇인가?

「社會있는 곳에 法이 있다」는 말은軍隊가 하나의 社會인 이상 兵營生活에 대해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모여 사는 人間社會가 어떤 秩序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데 묶는 行爲의 基準、即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當爲(Ought to)가 필요한 것이다. 태초에 원시상태를 면치 못했던 인간은 當爲의 世界를 基礎로 秩序있는 인간 사회를 이룩하게 되었으며 사회생활의 발달에 따라 當爲規範은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각 시대의 法規範의 내용은 그 사회의 內部的 秩序를 표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軍社會의 內部를 規制하는 軍刑事法의 性格 및 內容도 필연적으로 軍社會의 特質에 의하여 특이한 性格과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軍法의 特性을 이해함으로써 軍秩序를 이해할 수 있으며 軍法을 성실히 지키는 遵法 정신은 다름아닌 軍의 秩序를 지키는 마음、即 軍人정신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他人의 財物을 竊取한 者는 6年 以下の 懲役에 處한다」 또는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年 以下の 懲役에 處한다」는 등의 法條文을 가지고 法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法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실로 法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로써 남아 있으며 이러한 法條文 자체와는 區別되어 研究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哲學이 「사람이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고심하고 있는 것과 같은 論理로서 法學에 있어서는 「法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2,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다루고 있으나 아직도 未解決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法の 本質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法哲學의 研究對象이 되는 어려운 문제이기 는 하나 적어도 우리는 法은 正義를 理想

으로 하며 사회의 秩序를 지키는 作用을 하며 法에 의한 支配가 가능할 때 참된 民主主義가 實現된다는 點만은 恒常 念頭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2、兵營生活과 軍法

軍隊는 國家의 存立을 大前提로 한 國防衛를 그 窮極의 使命으로 하며 戰鬥을 그 固有의 任務로 하는 特殊組織體이다.

戰勝이라는 生死存亡의 事態 앞에서 一絲不亂의 機動性이 요구되는 것이며, 따라서 엄격한 階級組織、절대적인 命令服從 그리고 指揮官에 權力의 集中이라는 軍隊社會의 特性을 나타내게 된다. 軍法 또한 이 目的에 充實히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軍組織의 秩序를 維持하고 戰鬥力을 保全發揮할 수 있도록 軍紀를 確立하는데 그 根本目的이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國家의 基本秩序가 人間의 尊嚴性을 理想으로 하는 自由民主國家에 있어서 는 軍秩序 또한 個人的 尊嚴性이 인정되는 民主的 軍隊이어야 할 것이며, 民主軍隊에서의 法은 결코 개인에게 專制主義의

이거나 獨裁의인 行動樣式을 요구하지 않으며 언제나 民主主義的 基準을 가지고 그 行爲를 判斷하게 된다.

그러나 軍隊에서의 集團全體의 團結과 統制된 행동의 필요성은 福祉社會建設을 理想으로 하는 民間社會와는 비교도 할 수 없으니만큼 秩序尊重의 필요성이 요구 강조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遵法정신도 민간사회에서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으나 병營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 意味를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은 軍社會의 特性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軍犯罪의 特殊性

軍隊는 青年의 集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一般犯罪와는 特異한 樣相으로 그 非行이 나타난다. 人生의 諸段階中 青年期(Adolescence)의 重要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思春期를 지나

이때까지 父母와 教師의 도움 속에서 外界로만 向하면 는 이 스스로를 意識、內部的 世界를 발견하고 하나의 새로운 人間으로 獨立된 人格으로 탄생하려는 時節、自

我的 發見은 青年期의 本質的 特性인 무한한 內部的의 彷徨은 때로는 自意識의 過剩、懷疑、自己嫌惡에 이르게 되며 심지어 青年은 모든 것을 否定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軍에서의 많은 自殺事故는 이러한 面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 더구나 이 나라의 경제적 궁핍, 사상적 혼란 등 어려운 社會實情 아래서 군대라는 異質社會에 들어와 強力한 外部의 壓力을 받을 때 누구나 많은 心的葛藤과 欲求不滿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 軍人으로서의 使命感을忘却하면 흔히 不適應狀態에 들어가豫期치 못한 事故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軍檢察의 한편에서 매일같이 많은 犯法者를 대하면서 특히 불행스럽게 느끼는 것은 대부분이 惡質의인 犯罪라 하기보다는 衝動的이고 瞬間의인 過誤 때문에 前科者라는 엄청난 汚點을 찍고 社會에 復歸해야 한다는 事實이다.

이들은 엄격한 의미의 刑事犯(Crime)이라기보다는 젊은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른바 青年期の 非行 Juvenile delin-

(efficiency) 卽 勤務怠慢이라는表現이適切하게 된다. 그들은團體員으로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비난이 적고 웬만한 잘못도 서로 관용된다는 환경, 그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좀더脫線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는 青年期의 葛藤과 欲求不滿을 克服치 못한 것으로 결국 誠實히 살려고 하는 精神武裝의 解弛에서 기인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물론 소수의 殘忍한 強力犯은 그것이 軍人으로서生死를賭하고 있다는 心的環境과 武器等危險物을 항상 携帶할 수 있는 諸與件 때문에 일어나는 예외적 현상이라 하겠다. 이제 軍犯罪中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몇 개의 죄를 예로 들어 事故防止對策에 參考로 하기로 한다.

4. 軍犯罪現況

軍犯罪中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도망병 문제로서 그數에 있어서도全體 軍犯罪 發生數의 50%를上廻하고 있는 實情이며, 다만 空軍은 志願兵이라는 이유에서 陸軍보다 약간 低率로서 보통 約 30% 線을 유지하는 것 같다.

그 다음이 軍用物竊盜, 暴行傷害, 過失事故 등의 순서로 되어 있는 바 이들 범죄의 頻發은 軍의 實體를 侵害하는 重大한 문제이므로 以下 약간의 설명을 하기로 한다.

① 軍務離脫

軍務를 忌避할 目的으로 部隊 또는 職務를 離脫한 때에는 軍刑法 第30條는 敵前, 戰時事變 및 戒嚴地域, 그리고 其他의 경우를 區別하여 최고 死刑에서 3年 以下の 懲役까지 단계별로 規定하고 있다. 軍務忌避의 目的이 없을 때, 卽許可없이 勤務場所 또는 指定場所에서 일시 離脫하는 경우, 指定된 시간 내에 指定된 장소에 到達하지 못하는 경우는 無斷離脫이라 하여 軍刑法 第79條는 1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에 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軍務離脫은 軍統帥權作用이라는 軍本來의 法益을 侵害하는 것으로 軍組織의 破壞紊亂을 助長하여 兵力減少에서 오는 戰鬪力 및 軍士氣에 미치는 영향이 他범죄에 비하여 특히 큰 것이다. 따라서 軍務離脫은 軍刑事政策上 가장 중대한 문제

로 論議되어 왔으며 그 原因分析, 量刑基準 등 많은 研究로서 그 豫防對策에 腐心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軍務離脫의 原因을 分析하면 軍服務에 대한 厭症에서 基因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鄉愁心, 女子關係, 身病悲觀等 軍入隊 후의 急激한 私生活環境變動에 따른 忍耐力의 不足과 平素가 정빈곤 등에 따른 家族扶養문제 등의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 그의 社會親舊의 誘惑그리고 部隊內에서의 上級者の 氣合, 私的制裁, 事故後 처벌우려, 補職不滿 등의 이유가 약간씩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軍부이탈의 기간과 其他 自首 등의 情狀에 따라 대개 6月以上 1年 정도의 懲役刑을 宣告받고 다시 再服務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에 前科者로서 받는 同僚들의 冷待 등은 무시할 수 없으며 좋은 善導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軍務離脫의 豫防策으로는 먼저 兵營生活의 改善, 明朗化가 크게 요구되며 政訓教育을 통한 服務意欲의 鼓吹, 指揮官의 部下에 대한 個人身上把握, 嚴正한 軍紀의 確立 등 실효로 軍自體의 根本對策이 研

究樹立되어야 하는 것이다. 先進諸國의 軍隊인수록 軍務離脫의 비율이 적은 것은 좋은 參考가 될 것이며 特記할 것은 혼란한 越南에서의 軍務離脫者가 많은 點이다. 대체로 越南에서는 軍務離脫者에 대한 처벌이 輕하고 30日 內에는 歸隊 또는 逮捕되어도 不問으로 하며 그 외는 1日間の 營倉을 살고 再服務한다는 것이다. 엄하게 처벌하면 베트콩이 된다는 이야기는 웃을 수도 없는 寓話라 할 것이다. 各者의 精神武裝의 必要性이 再三強調된다.

② 軍用物竊盜

竊盜와 같은 財産犯罪는 주로 經濟的 貧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國民의 經濟生活와 緊密한 關聯性을 가지고 있으며 民間社會에서는 財産犯罪가 全 犯罪件數의 半을 차지하는 데 비해 軍人犯罪로서는 財産犯罪 이에 비해 극히 低率인 것은 軍대라는 特殊社會에서 經濟的 貧困은 우선은 切迫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軍用物은 軍의 物的 構成要素를 이루는 것으로 軍用物事故는 軍의 存立의 完全性을 侵害하는 것이므로 軍의 人的 構

成要素의 完全性을 害하는 軍務離脫罪와 함께 軍刑事犯中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軍刑法은 刑法의 財産犯罪에 比하여 軍用物에 관한 罪의 처벌을加重하고 있는 것이다.

軍刑法 第75條는 兵器、彈藥、車輛、裝具、器材、食糧、金錢、被服、馬匹 其他 軍用に 供하는 物件 또는 軍의 財産上의 利益에 關하여 刑法上 財産의 罪를 犯한 때에는 死刑、無期、1年以上의 懲役에 처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軍에서의 竊盜 등은 1年以上의 懲役이라는 法的 制限이 있음을 注意해야 한다.

이와 같은 軍用物에 관한 罪는 國軍의 軍用物뿐만 아니라 國軍과 共同作戰에 종사하고 있는 外國軍의 軍用施設 또는 軍用に 供하는 物件의 行爲에도 適用된다. 特記한 것은 軍刑法 第69條는 軍用施設이나 物件을 損壞하거나 効用을 害한 者를 無期 또는 2年以上의 懲役に 처한 것으로 하고 過失로 인한 軍用物損壞에 대해서도 5年 以下の 懲役に 處할 것으로 規定하고 있는바 이는 刑法上 過失로 인한 損壞罪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주의

해야 할 것이다.

軍用物犯罪의 原因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金慾에 있는 것이나 大部分이 賭博、酒代 등 遊興費 營倉에 직접 動機가 있으며 部隊 BX 등에서의 外上 去來 등 無秩序한 生活로 인한 負債清算 등에도 그 理由가 있으나 大體로 보아 目的的인 犯罪라기보다는 瞬間的인 好奇心、衝動에 基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軍用物愛護精神을 鼓吹함과 아울러 秩序있는 생활、節約生活、耐乏精神을 養育해야 할 것이다.

③ 暴行 傷害

兵營生活에서 또 輕視할 수 없는 것이 暴行 傷害事故이다. 暴行罪는 他人의 身體에 대하여 有形力을 加하는 罪인데, 이로써 사람을 死傷케 한 때에는 暴行致死傷罪라 하여 傷害罪 또는 傷害致死罪의 例에 의하여 처벌된다. 團體 또는 多數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特殊暴行罪라 하여 그 刑이 무겁다. 傷害罪는 사람의 生理的 機能을 害하는 罪로서 傷害의 結果 生命에 대한 危險을 發生하게 하

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病의 疾病에 이르게 한 때에는 重傷害罪라 하여 그 刑이 무겁고 傷害의 結果 사람을 죽게 한 때에는 傷害致死罪라 하여 더욱 그 刑이 무겁다. 軍刑法은 軍組織의 特殊性 때문에 上官, 哨兵 그리고 職務遂行中인 者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하여 加重 처벌을 하고 있다.

個人的 尊嚴性을 至上理念으로 하는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個人的 身體의 安全을 保護하는 것을 國家의 重要任務로 한다.

비록 軍隊內의 人間關係가 命令服從의 上下秩序라 하더라도 上級者의 恣意에 의하여 報償과 처벌이 달라진다면 豫測 不能한 制裁와 壓力은 軍隊의 不安을 助成하고 이는 軍의 士氣低下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軍務離脫과 衝動의 下刺上事故가 이 暴行 등에 基因하는 것을 분 때 懲罰로서도 毆打 暴行은 決코 容許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上級者의 暴行事故는 初級將校나 下士官들의 質的向上이 促求되는 것이며 同僚 기타 民間人과의 暴行事故는 飲酒亂行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飲酒의 機會를 制限하고 內務軍紀를 確立하

고 평소 毆打의 惡習에 대한 徹底한 教育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結 語

결국 軍犯罪를 概觀해 볼 때 少數의 例外的인 強力犯事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的 軍犯罪가 瞬間의 이거나 衝動의 事故로서 비록 그것은 쌓이고 쌓인 欲求不滿과 葛藤의 表現이기도 하나 결국은 精神武裝의 解弛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各者의 遵法精神, 人格修養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戰鬪의 勝利라는 軍의 目的은 國家의 存立을 위한 것이므로 그 構成員에게 보 다 많은 희생적 協力を 요구하게 되며 上命下服의 位階秩序는 一朝有事時에 주저 없이 生命을 賭하는 勇氣를 요구한다. 모름지기 各者는 國家의 干城으로서의 使命感에 불타 있어야 할 것이며 올바른 軍人精神의 涵養을 寸時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嚴正한 軍紀의 確立과 軍秩序의 維持는 法에 의한 秩序임은 勿論이며 秩序를 저키려는 마음은 곧 誠實히 살려는 마음, 犧牲精神과 協同精神의 發揮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다. 法은 결코 各者에게 기대할 수 있는 以上の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誠實과 勇氣를 가지고 참된 生活을 指向할 때 훌륭한 軍人으로서 模範의 兵營生活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道德이나 人情에 어긋나더라도 法에 저촉되지 않으니 正當하다는 式的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遵法精神의 올바른 理解가 아니다. 誠實하게 살려는 마음, 그것이 곧 遵法精神인 것이다.

(海)(外)(로)(픽)

名畫 2點에 2億원

「피카소」作品 등 팔려

「시카고」미술관은 70만「달러」(원화 약 1억8천만원)로 「피카소」와 16세기 伊太利 화가 「코레지오」의 그림을 사들였다.

이 미술관은 「코레지오」의 그림 「성모 「마리아」와 어린이와 성 「요한」을 50만「달러」로, 「피카소」의 「소나무 아래의 나체여성」은 20만「달러」로 각각 사들인 것이다.

(시카고 11로이타)

水陸兩用運兵艦(PACV)이 독특한 성능을 誇示하면서
봉파우 근처의 카트르海邊에 上陸하고있는 光景. 지난 5월
1일 越南에 도착한 3대의 PACV는 現在 카트르에서 搜索
訓練을 하고있다. 우선으로 물위에 뜨는 이 배의 適力은
完全武裝했을때 50노트이다.



越南戰線 異常 없다!

나의「베트남戰線」從軍手帖

裴 孝 珍

△大韓日報社 記者▽

○……砲火 속에 밤이 오고 또 날이 밝는 영원의 전쟁터 越南戰線——

이 속에서 우리 韓國軍은 가는 곳마다 戰勝의 깃발을 꽂았다.

우리 靑龍과 猛虎가 이 먼 「정글」戰線으로 달려간지 6개월만에 大·小 6
00여회의 決戰 모두를 우리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越南人들 뿐 아니
라 美軍들에게도 神話처럼 전해져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번 우리 海兵이 「靑龍 1號」작전을 벌이고 18年間の 難
攻不落의 城을 「베트남」의 뽕넝 「투이·호아」(Tuy-Hoa)의 「퐁로」(Vung.
Ro)灣을 뚫고 「다비아」 706高地를 무너트렸던 作戰은 越南戰史에 찬란
한 기록을 남긴 作戰이었다.

누구는 이 戰鬪를 보고 U·S·「마린」(海兵)이 기업을 토렸던 「투라이」大
捷보다 더 멋있고 「클린」한 승리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의 유일한 해상 보급추진 基地며 兵器보급창, 그리고 곡창지대로

그들의 주요한戰略要地인 이 「다비아」 지방은 美軍 聯隊兵力이 4 次, 越南 공수부대가 8 次나 공격해도 실패했던 곳——「헬리콥터」로 30분을 나는 이 광활한 T A O R (Tactical Area of Responsibility 作戰責任區域)을 단 2 개大隊로 파헤친 우리 海兵은 기적을 낳았던 것이다.

피를 피로 씻던 이 血戰場을 우리 海兵과 함께 뛰며 從軍했던 實戰기록을 단편적으로나마 소개해 보고 싶다…….

X X X

○……5日——드디어 기다렸던 「디·메이」가 왔다.

이날따라 하늘은 찌푸려 흐리고 약간의 보슬비까지 내렸다.

철모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 굵직한 빛방울, 팔 등으로 닦아내리는 우리 병사들의 얼굴에는 더 더욱 비장한 자오의 빛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마르기로 한 第2大隊 5中隊의任務는 「나트란」에서 「퀴논」을 잇는 第1番道路의 한 關門을 攻擊해 빼앗는 것이었다.

「베트콩」의 특정한 要塞을 우리는

「目標·Y」로 정하고 새벽진을 나섰다.

「目標·Y」1킬로地點까지 이르렀을 때가 아침 8時,——敵의 配置、洞窟等 수색병들이 상황 관측을 끝낸 것이 11時 45分이었다.

수색병의 觀測報告를 받은 中隊長은 小隊長들을 불러 進擊路를 各各 나누었다.

그리고는 진격의 信號彈을 올렸다.

5中隊 兵士들은 「정글」의 가시덤불에 살갓을 찢기면서 L·D·를 통과해 Y高地 山麓까지 밀고 올라갔다.

우리 兵士들이 敵陣地까지 2百미터—1百미터 접근해 갔을 때 도사리고 있던 「베트콩」들은 火口를 열기 시작했다.

「정글」과 암석으로 뒤덮인 天然동굴속에서 떨어 나오는 V·C·의 저항은 생각보다 대단했다.

3小隊 1分隊 金부안下士가 指揮한 分隊員들은 左側 陵線을 따라 오르다가 敵의 미친듯한 抵抗을 받으면서 第3포복으로 일드려 기기 시작했다.

적은 50미터 앞에 놓고 방아쇠 한번 당김없이 또 기어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 戰鬪는 보통 전쟁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여기는 越南이기 때문에 별 수 없었다. 나무들이 벼처럼 쌓여 앞을 가리는 「정글」속에서는 10미터만 넘어도 정조준 사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간격에서 100발을 쏘아 한 방이 命中해도 그것은 기적처럼 보였다.

현재도 그렇지만 越南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한국 병사들은 적을 3 내지 5미터까지 誘導——또는 접근해서만이 사격을 하고 있다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이날도 第1分隊 金부안하사가 이끌던 분대원들은 바로 20미터쯤 앞에서 뿔어내는 機關銃聲의 威脅을 받으면서도 右로 左로 돌아가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눈 앞에 적을 두고서 20미터를 더 들어가면서 30분——V·C·의 機關銃聲을 바로 귓전에 들으면서 바위 등을 마저막기어내려 가려 할 때다. 은폐된 洞窟入口에서 殺氣騰 輕機關銃 2정이 미친듯이 불을 뿜고 있었다.

「베트콩」들은 우측 第2小隊長이 진격

해 오는 方向으로 發惡하듯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정작 戰友를 향한 敵의 銃口들이 발버둥치고 있음을 눈 앞에 다 보았을 때 온몸의 피가 머리로 치솟아 오르는 모양이었다.

金부안하사는 담에 젖은 오른손에 手榴彈을 움켜쥐고 「편」을 뽑아 번쩍 들었다.

불과 7·8미터——金하사는 「베트콩」機關銃 射手의 얼굴 正面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내던졌다. 던졌다 하는 순간 다른 곳에서 폭음이 고막을 울리고 이어 곧 金하사가 던진 수류탄도 폭음을 내었다.

어느 틈에 「편」을 뽑아 던진 李상병의 수류탄과 함께 나란히 「베트콩」機關銃 射手가 슬팍에서 터졌던 것이다.

이 爆音과 함께 右側 小隊의 진격 隊列을 향해 불을 뿜어대던 「체코」製 기관총 2정이 4명의 V·C·와 함께 산산 조각으로 날라 버렸다.

『정통』로 먹었다』고 李상병은 金하사를 불붙고 함성을 올린다.

그때 李상병과 金하사의 얼굴에는 모래와 담배불이 뒤범벅되어 있었고 그 흠뻑

물 타내리던 얼굴에 웃음을 짓던 모습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싸우는 한국男兒의 모습이었다.

「싸워서 이기고, 이기고는 또 웃을 짓는 이 늠름한 모습을 고국에 그대로 담아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모두들 미더워 할까」하는 찰라에 향수가 머리를 스쳐 갔다.

이때다. 누운가가 「分隊長!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기 놈들이 도망잡나, 빨리요 빨리!」매연을 마셔 더욱 켜 켜해졌는지 초조해 보이면서도 몹시 목선 「허스키, 보이스」의 慶尙道 사투리가 정신없이 좋아하던 分隊長을 일깨웠다.

이 말에 精神을 가다듬은 金하사는 다시 進擊의 姿勢를 가다듬고 일어서 뒤러 갔다.

뒤에서 보고 追擊하는구나고 생각했을 때 한 방의 장총 소리가 우리 앞을 지나 는 듯하다니 金하사가 주저앉고 말았다.

숨어서 도망치던 「베트콩」이 最後發惡으로 당진 방아쇠가 소리를 울린 것이다.

金하사의 땀뻘 옷 위에 피가 배어 나왔다. 복부 관통이었다.

우리가 달려 갔을 때 金하사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려고 애를 썼지만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듯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第1組長 指揮를 부탁하네! 저쪽으로 질러 잡게」하고 呻吟을 깨물며 다음 순간까지를 염려하는 모습은 感激스러웠다.

이 말을 듣고 있던 第1組長은 핑그르르 도는 눈물을 담은 채 분대원을 이끌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金하사는 衛生兵의 들것에 싣려 내려갔다. 뒤따라 도착한 第3小隊 PRC 16 無電兵은 도망치는 「베트콩」의 도주로를 차단해 달라고 右側 第1小隊에 無電으로 要請했다.

右側 第1小隊의 逃走路 遮斷이 성공하고 第3小隊의 계속 추격이 마지막으로 V·C· 나머지 小隊兵力을 한 洞窟 속으로 몰아 들어갔다.

이때다. 이 洞窟 속으로 우리의 機關銃彈이 줄기차게 떨어 들어가면서 V·C·의 울부짖는 죽음의 怪聲은 마치 核分裂을 일으키는 듯 골짜기에 번졌다.

孫子兵法으로 본 韓國戰爭 ①

— 敵이 攻擊치 아니함을 믿지 말고, 敵이 攻擊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防備를 믿어야 한다……(九變篇)—

李 鍾 學

△少領・空士校 教材室長▽

1、『孫子』의 現代的 意義

지금으로부터 2,500餘年前 中國戰國時代의 齊나라 사람 孫武가 吳나라의 閼閭王에게 不過 6,600餘字의 著書를 贈物로 바친 것이 萬古不滅의 名著로 알려진 『孫子兵法書』이다. 이 케케묵은 著書가 常勝將軍 나폴레옹의 愛讀書였고, 西歐의 兵學者 클라우제비츠 의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獨逸皇帝 윌헬름 2世로 하여금 敗戰後 『孫子』를 읽고 『20年前에 읽었어야 할 책이었다』고 述懷케 하였고, 또 2次大戰後 日本의 高名한 將軍도 『우리들이 을바르게 『孫子』를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悲慘한 敗戰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0年 世界의 軍事古典 5卷을 모은 『Roots

of Strategy』의 編者인 필립스(Thomas R. Phillips)는 『紀元前 500年에 著述된 孫子兵法은 지금까지 存在하는 軍事作品 가운데 最高이며, 또 아마 最善의 것이라…… 孫子兵法의 原理를 現代戰爭의 狀況에다 適用할 수 있는 軍事學徒에게는 그것이 著述된 지 2,400年이 지난 現今에 있어서도 그것은 戰爭遂行에 있어서 가장 새롭고 또한 가장 價値있는 指針書이다』고 하였다.

共產世界에서 第一가는 戰略家인 毛澤東의 所謂 16字 戰法(敵進我退, 敵守我擾, 敵疲我打, 敵退我進), 또 自由陣營에 있어서 戰略思想家로 알려진 리델·하아트(Liddell Hart)의 間接接近(Indirect approach)이 바로 孫子兵法의 意譯이 아니면 表現法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의 戰略, 戰術은 結局 孫子兵法에서 나온 것이

라 하여도誇張된表現은 아니리라.

或者는 原子彈이나 水素彈과 같은 大量破壞武器의 出現에 무슨兵法 따위가 必要한가 하고 말한다. 兵法의 不必要를主張하는 그 말 속에 바로 兵法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컨대 美國은 2次世界大戰後 核武器에 基盤을 둔 大量報復(Massive retaliation) 政策에 의한 單一武器體系의 戰略(Single-weapons system strategy)에 依存하여 왔다. 그리하여 空軍의 戰略空軍은 增強하면서 陸軍과 海軍力을 削減하게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美陸軍參謀總長 브라들리(Bradley) 將軍은 1948年 第80次 美國議會의 한 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이 證言한 바 있다. 『各階 各層에 亘한 많은 知性人들의 原子爆彈과 大量破壞武器의 出現으로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戰爭에 있어서도 陸軍은 必要치 않게 된다는 印象을 갖고 있다』.

이러한 影響으로 因하여 所謂 在來式 軍隊에 關한 諸般 研究開發計劃은 하지 않고 袖手傍觀만 하고 있었다. 共產主義者들은 美國의 이러한 戰略의 虛點을 利用하여 그들이 決定한 在來式武器와 戰爭方法으로 美國에 第一擊을 加한 것이 韓國戰爭이였다. 또 美國이 지금 越南에서 허둥지둥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理由가 있는 것이다.

아마도 共產主義者는 孫子兵法의 다음 內容을 잘 利用한 것이다. 즉 만일 敵의 兵力이 強大하고 또 戰鬪隊列이 整齊되어 그 形勢가 우리를 攻擊할 듯하다면 우리가 如何한 對策을 取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敵이 恃賴하는 바(敵의 急所)를 奪取하면 敵은 우리의 戰術에 拘束될 것이다. 戰爭은 반드시

迅速하여야 하니 敵의 不意의 時期를 다서 그들이 想像할 수 없는 方向으로 거쳐서 그들의 弱點을 攻擊하여야 한다(敢問 敵衆整而將來待之若何 曰先奪其所愛 則聽矣 兵之情速 乘人之不及 由不虞之道 攻其所不戒也——九地篇)

韓國戰爭과 越南戰爭에 있어서 美國의 大量破壞武器는 무슨 威力를 發揮하였던가? 이것은 讀者의 判斷에 맡긴다. 리널·하아트가 얘기하시피, 『우리는 現在 戰略概念의 新時代에 突入했다. 그것은 한때 舊時代의 革命이라고 불리던 空軍原子力의 擁護者가 생각하던 戰略概念과는 相異한 것이다. 우리의 敵國이 現在 發展시키고 있는 戰略은 優秀한 空軍力을 回避하고 不具로 만드는 二重의 目的에 依하여 鼓舞되고 있다. 우리가 爆擊武器의 大量破壞效果를 發展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더 새로운 遊擊戰形態의 戰略發展을 도와주는 結果가 되었음은 아이러니크한 現象이라 하겠다.』 2次大戰後 西歐陣營, 특히 美國에 있어서 軍事思想이나 兵法의 研究가 소홀하였는데, 그理由는 그들이 2次大戰에서 勝利를 하였기 때문이요, 또 現代科學의 急進的 發展으로 大量破壞武器에 대한 過信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共產主義陣營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2次大戰에 있어서 自由陣營과 함께 그들은 勝利를 하였지만, 그勝利에 陶醉하지 않고 그들의 世界赤化라는 國家目標을 達成하기爲하여 努力을 傾注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새삼스럽게 西歐世界에 있어서 孫子兵法에 대하여 關心을 가지고 研究할 뿐만 아니라, 世界兵書의 王座를 占하며, 他的 追從을 不許한다고 생각하게 한 理由는 무엇일까?

첫째, 孫子兵法는 時間과 空間을 超越한 普遍妥當한 兵法의 原理를 다루고 있다. 2,500餘年前 中國에서 著述되었지만, 그동안 科學의 發達로 因하여 武器體系는 想像할 수 없으리만큼 變하였고, 戰爭의 範圍와 方式 그리고 軍制도 變하였지만, 그의 原理 原則은 아직도 不可變일 뿐만 아니라, 생성한 指導原理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電氣工學分野에 있어서 오옴(Ohm)의 法則은 不可變이지만, 그것의 應用法은 變化하고 進歩한다. 그래서 無線電信機, 텔레타이프, 텔레비 등으로 發展해 나간다. 조미니(Jomini)가 애기한 바와 같이 『兵武의 變化는 實施에 影響을 주어도, 原則을 犯하는 것은 아니다』고.

예컨대, 오늘날의 核時代에 있어서, 『戰爭』이라는 것은 國家의 重大事로서 國家存亡과 國民死生의 岐路이기 때문에 慎重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兵者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 『百戰百勝하는 것이 作戰을 잘하는 者의 長點이 아니고, 接戰하기 전에 敵으로 하여금 降伏하게 하는 것이 作戰을 잘하는 者의 長點이다』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고 하는 孫子の 思想은 한층 더 빛을發하는 것이다.

둘째, 孫子兵法는 요즘의 軍事用語로 表現한다면, 國家戰略(Grand strategy)과 軍事戰略(Military strategy)과의 關係를有機的으로 잘 다루고 있다. 이에 反하여 西洋의 軍事學 巨星인 클라우제비츠의 『戰爭論』은 다만 軍事戰略을 爲主로 해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戰爭은 國家戰略과 軍事戰略의 密接한有機的關係가 切실히 要求되는 時代이다.

셋째, 孫子兵法는 深奧한 戰爭哲學을 가지고 있다. 클라우제

비츠의 『戰爭論』이 칸트(Kant)의 批判哲學에 基盤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孫子』는 東洋 三大思想(儒敎·佛敎)의 하나인 老莊思想에 基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약간 老子の 思想을 紹介하는 것이 『孫子』를 理解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老子の 思想의 根本은 道의 一元論이다. 道는 宇宙의 本體이며 萬物創造의 根本이며 萬象의 어머니인 것이다. 그리고 이 道는 視覺, 聽覺, 觸覺等을 超越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일컬어 無라고 한다. 無라고 하여도 有에 對한 相對無가 아니라, 有無를 超越한 絕對無이다. 故로 無는 天地의 始作이다. 이처럼 本體가 活動의 이 아니고 靜止의 이기 때문에 萬物도 靜止의 인 것을 本然의 모습으로 하며, 本體가 超目的인 것을 가지고 無爲自然이라고稱하는 것과 같이, 萬物도 또한 無爲自然을 가지고 그 理想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老子の 人生觀, 倫理論 그리고 政治論이 흘러 나올 뿐만 아니라, 『孫子』의 思想의 特性도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老子の 思想은 孔子에 比하면 한층 더 哲學的이며 深奧하며 또 孔子의 肯定的 積極思想에 比하여 否定的 消極思想의 傾向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孫子』는 兵法書이지만 戰爭挑發論인 것처럼 印象을 가지기 쉬우나, 事實은 穩健한 非戰主義의이며 또한 極力戰爭回避를 強調하고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 하고서는 계속하여, 『그러므로 智謀로서 戰爭하는 것은 兵法의 上等이요, 外交로서 戰爭하는 것은 兵法의 次等이요, 兵器로서 戰爭하는 것은 兵法의 下等이다』(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이라 했다.

候補生 어깨에 少領階級章이

柳 洪 烈

〈서울大 教授〉

내가 空軍에 入隊하게 된 것은 뜻하지 않았던 6·25의 戰亂을 맞아 피난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괴뢰共産治下에서 간신히 살아나 大邱로 피난하게 된 1950年 12月 30일의 일이었다.

그해 9、28 이후부터 大學의 整備를 위하여 文學部長代理의 일을 맡아보던 나는 學長代理이면 故方鍾鉉교수의 指示로 大學公金의 절반을 가지고 그보다 1週日 앞서 大邱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나랏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끝에 同

僚 교수의 소개로 그곳 曉星女子中學校에 本部를 두었던 空軍參謀副長 金昌奎 大領을 만나 이분의 勸告로 將校候補生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40고개를 넘은 나는 大邱 七星國民學校에 자리잡고 있던 空軍士官學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와 같이 入隊한 第4區隊 100餘名 候補生中에는 우리 大學의 젊은 교수 10餘名과 나와 비슷한 年輩의 몇 社會名士와 많은 大學出身의 後輩들이 있어서 마치 피난大學 같은 느낌이였다. 여기서 敎

그는 戰爭回避를 다음과 같이 言明하고 있다. 『國家가 亡하면 다시 存在하기 어렵고, 죽은 者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賢明한 임금은 戰爭에 대하여 極히 慎重하며 善良한 將帥는 이에 대하여 甚히 注意한다. 이러한 措置는 安國全軍의 道理이다.』(亡國不可以復存 死者不可以復生 故曰 明主慎之 良將慎之 此安國全軍之道也)라 했다.

日本の 孫子兵法 專門家인 佐藤堅司博士(이 분은 「孫子의 思想의 研究」로 博士學位를 獲得한)는 孫子의 戰爭哲學을 科學的 體系、常變一體、靜動一元、萬全主義의 네 가지 方面에서 考察하였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科學的 體系……「孫子」 13篇을 通讀하여 느끼는 것은 그 內容이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中道를 절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孫子』의 思想이나 文章은 一面에 있어서는 老莊의 無爲自然에 共通하지만, 他面에 있어서는 孔孟의 人道主義나 現實主義와도 步調를 같이 하고 있다. 다른 方面에서 본다면, 本書의 特色은 事理의 一方에 치우치지 않고, 兩者를一體化

育大隊長 朴元錫中領과 區隊長 金洪守少尉의 指揮하에 1週間 正도의 訓練을 받는 사이에 戰勢는 惡化되어 우리 空士校는 다음 해 1月 12日 그곳을 떠나 濟州島 慕瑟浦國民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訓練中 가장 괴로웠던 것은 거의 1週日 동안이나 세수를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물이 귀하여 아침 저녁이면 담을질을 쳐서 2킬로쯤 떨어진 바닷가에 갔다 와야 하는 일과 배고름이 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訓練과정도 이럭저럭 마치고 그해 2月 15일에 배를 타고 進修了式에서는 나와 같은 年輩의 몇 候補生의 어깨에는 一躍少領의 階급장이 달려지고 그밖의 候補生들에게도 經歷에 따라 少尉, 中尉, 少尉의 階급장이 달려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곧 大邱로 돌아와 흠여졌던 空軍再建의 重任을 맡게 되었다. 空士校의 教官이 되기를 바라고 있던 나도 뜻밖에 2代政訓監의 일을 맡게 되었으므로 날마다 參謀會議에 出席하여 作戰遂行의 一翼을擔當하는 한편 軍의 指揮教育을 위

한 講話를 비롯하여 政訓監室의 組織強化, 空軍旬報의 創刊, 文人을 中心으로 한 蒼空俱樂部의 結成, 音樂美術人들 中心으로 한 政訓音樂隊美術隊의 組織, 他軍 및 報道機關과의 連絡, 空軍戰史資料의 蒐集 등에 微力을 바쳐 일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大學교수의 職責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大邱에 設置된 戰時聯合大學에서 出講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釜山에 本部를 둔 서울대학교와도 자주 連絡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힘에 비찬 政訓業務보다는 나의 專攻分野를 살릴 수 있는 우리 空軍史를 처음으로 編纂하는 일을 몇 달 동안 맡아보다가 大學側의 거듭한 要請으로 1952年 3月 31일에 豫備役에 編入됨과 아울러 大學으로 돌아가 醫豫科部長의 일을 맡게 되었다. 이렇듯이 나의 空軍服務시절은 겨우 2年 3個月에 지나지 않았으나 戰亂에 시달리던 피로운 가운데 있어서도 보람이 있고 즐거웠던 일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 보람은 나에게 中領의 階급장을 달고 한 달 동안 服務한機會까지 마련하여 주었다.

한 점에 있다. 그래서 本書에 이러한 中道的 性格을 부여한 것은 著者의 人間尊重에서 緣유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天보다도, 地보다도 人에 比重을 두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科學의 이 되어, 迷信의 一切를 排斥하여 妖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3篇의 全部는 一聯의 사슬로 連結되어 있다. 始計와 用間의 2篇은 首尾가 되고, 胴體라고 할 수 있는 다른 11篇, 즉 作戰, 謀攻의 2篇, 軍形·兵勢·虛實의 3篇, 軍爭·九變·行軍의 3篇, 地形·九地의 2篇, 火攻의 1篇은 대체로 各各의 集團에 있어서 一串 一意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率然이라는 常山の 蛇(蛇)처럼 그 全篇은 微妙히 首中尾를 가지고 科學的 體系로 構成되어 있다.

各篇은 제각기 始計篇에 指導理念을 求함으로써 그것 스스로가 獨立된 1篇으로 存在하고, 또 強調하고 싶은 것은 始計篇의 絕對的 價値이다. 이 1篇은 다만 首篇이나 序論이 아니라, 그것 스스로 完成된 가장 重要한 1篇인 同時에 또 다른 12篇을 包攝내지 要約한 것, 徹底的

예기한다면 그것은『하나이면서全體』(One and whole)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330餘字에 지나지 않으니 1篇이고, 五事·七計·說道(註1)의 計算에 의하여戰爭에 있어서의勝敗의數를未然에 알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常變一體……始計篇에 있어서戰爭의勝敗를決定하는三要素로서 五事·七計·說道가 있는데, 五事·七計는 平常時의 正常의手段인 常法이고, 說道는 戰時의 變法이다. 常變二法の 區別에 있어서 二元論으로 보기 쉬우나, 本質의 으로 그렇지 않고 둘이 하나인 一元論에 지나지 않는다.

靜動一元……이 問題는 常變의 그것과 共通되는 것으로, 여기서 靜動一元이다. 靜은 常으로, 動은 變으로 通한다. 그래서 五事·七計는 靜에, 說道는 動에 該當된다. 이러한 경우 靜이 主體이며, 動이 從屬이라는 것은 常變의 경우와 같다. 이러한 見解는 靜보다 動에 主體를 둔 西洋의 歷史學에 있어서의 動的史觀과는 曄面目을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五事·七計라는 靜 속에 모든 힘이 包藏되어, 그 속으로부터 說道의 動이 나타나는 것이다.

兵勢篇에『奇正』의 두 자가 나타나는데 正은 常·靜이며, 奇는 變·動이다. 즉 五事·七計는 正, 說道는 奇, 形은 正이고 勢는 奇가 된다. 이關係는 兵勢篇의 다음句節에서 잘 알 수 있다. 즉『三軍』로서 敵을 抵抗하여 항상 勝利하는 것은 正面動作과 機動動作에 能熟하기 때문이요, 大凡 戰爭은 正面動作으로서 開始되어 機動動作으로서 勝利한다.『三軍之衆 可使必受敵而無敗者 奇正是也 凡戰者 以正合 以奇勝』

孫子가 말하는 奇正의 變은 複雜한 것이다. 正은 奇로, 또 奇는 正으로 끝없이 循環한다. 戰略的으로 말하면 正은 靜, 奇는 動이지만, 戰略的으로는 正奇의 靜動關係는 循環한다. 특히 注意를 要하는 것은 奇正의 循環的 變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正은 靜, 奇는 動의 態勢를 가지며, 二者 一元의 精神을 잃지 않는다는 점이다.

萬全主義……孫子は 敵을 불상히 여긴다는 立場에서, 또 我軍에 대해서는 愛國·愛族의 立場에서 戰爭을 避하는 것을 最上策으로 하였지만, 그는 別途로 經濟方面에서 그 理由를 찾고 있다. 作戰·用閑 兩篇의 冒頭の 몇 줄은 모두 戰爭의 不經濟를力說한 것이다. 作戰篇에 있어서 孫子の 本心은 물론 戰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長期戰을 避하고 短期戰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始計篇의 五事·七計·說道의 充實 즉, 國力 내지 國防의 充實은 勝算의 標準이 될 뿐만 아니라, 그 充實의 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威力으로 敵을 壓倒하고 또 戰爭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계속)

(註1) 孫子の 戰爭觀 내지 兵法觀의 要諦는 始計篇에 있는 五事(知己 治內), 七計(知彼 知外), 그리고 說道(應變)에 있다. 戰爭의 常法인 五事は 다음과 같다.

첫째,『道』……百姓들에게 指導者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上下는 生死를 같이 함은 물론 어떠한 危險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둘째, 『天』……陰陽의 理, 寒暑의 變化 등 時間的인 條件이다.
세째, 『地』……遠·近·險·易·廣·狹·死·生 등 地理的인 條件이다.

네째, 『將』……智·信·仁·勇·嚴의 五者는 指導者(將帥)의 人格 構成의 要素이다.

다섯째, 『法』……組織·規律 그리고 裝備 등을 말한다.

五事는 孫子兵法의 正法이며, 戰爭의 勝敗를 決定하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다음은 七計를 살핀다.

첫째, 양편의 君主는 어느쪽에 道가 있는가.

둘째, 將은 어느쪽이 有能한가.

세째, 天과 地는 어느쪽이 有利한가.

네째, 法令은 어느쪽이 잘 施行되고 있는가.

다섯째, 兵衆은 어느편이 強하다.

여섯째, 士卒의 訓練은 어느쪽이 熟練되어 있는가.

일곱째, 賞罰은 公明正大하게 하고 있는가 등이다. 七計를 通

하여 우리들은 나를 알고, 또한 敵을 알게 된다. 그래서 七計의

成否는 勝敗를 決定하는 열쇠이다.

孫子兵法 가운데 『詭道』만은 古來로 많은 兵學者들의 是非의

論爭이 된 것은 없으리라.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거짓

진』이라고 할 수 있다. 孫子兵法을 英譯한 자일스(Lionel Giles)

도, 『兵者詭道也』로, All warfare is based on deception이라

했는 데 適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기서의 『兵』인 『兵法』(Art

of war)이므로 고, 또 『詭道』는 『機會의 따라 事物을 臨機應變

으로 處理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全體를 봐서 온당한 것이

라 생각된다.

孫子는 詭道の 內容을 14個로 構成하였다.

① 能力이 있으면서 없는 듯이 보이며(能而示之不能),

② 싸울 생각이 있으면서 없는 듯이 보이며(用而示之不用),

③ 가까이 와 있으면서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近而示之

遠),

④ 멀어가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遠而示之近),

⑤利를 제 하여 敵을 피어내며(利而誘之),

⑥ 敵을 混亂케 하여 쳐 빼앗으며(亂而取之),

⑦ 國力을 充實케 하여 敵의 奇襲을 防備하며(實而備之),

⑧ 強한 敵은 避할 것이며(強而避之),

⑨ 敵을 성나게 하여 그의 判斷을 그르치게 하며(怒而撓之),

⑩ 卑屈하고 謙遜한 態度로 敵을 驕慢케 하며(卑而驕之),

⑪ 安佚한 듯이 보여 敵을 奔走케 하여 疲勞케 하며(佚而勞

之),

⑫ 敵의 同盟國과 親交하여 離間시키며(親而離之),

⑬ 敵의 防備가 없음을 擇하여 攻擊할 것이며(功其無備),

⑭ 敵의 뜻하지 않는 點을 發見하여 攻擊하는 것이다(出其不

意).

詭道十四變은 여기서 標準에 지나지 않으며, 戰場에 있어서

의 詭道는 千態萬變하는 것이다. 이것은 戰術的 勝利의 妙法이

기는 하지만, 이것의 實施는 쉽지 않다. 孫子는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미리 傳해 들 수는 없다』(不可先傳也)고 하였다.

— 세계의 分斷地域을 가다 —

＝ 冷戰의 角逐場 ＝



李

鍾

律

< 印度의 軍人들이 「히말라야」 국경 초소에서 악랄한 中共의 침공을 지키고 있다. >

歐와 소聯을 갈라놓은 불은 세력을 표시하는 개념인 것이다. 2次大戰 이후 「베를린」에서 「보르네오」까지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板門店까지 철의 장막은 세워지고 國土는 지도상의 위도에 따라 分斷되어 世界の 平和를 위협하는 紛亂의 震源이 되고 있다.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아시아가 이러한 분란의

人間의 人間에 대한 非人道性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人間の 精神은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기 위하여 高度로 비상하기도 하지만 人間을 처참한 戰爭과 紛亂 및 分斷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유명한 「처어칠」의 응변 속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바 있는 「鐵의 帳幕」이라는 말은 西歐文明과 思想의 主流로부터 東

고통을 가장痛感하고 있는 것이다.

「카슈미르」은 印度와 「파키스탄」을 오
랫동안 분단하여 놓았고 中共은 「티
벳」과 印度의 「히말라야」國境을 계
속 괴롭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보르네오」를 위협하고 있으며 越
南과 韓國은 南北으로 分斷되어 있
고 「라오스」는 不安한 中立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分斷된 世界,
即 人間精神의 타락상을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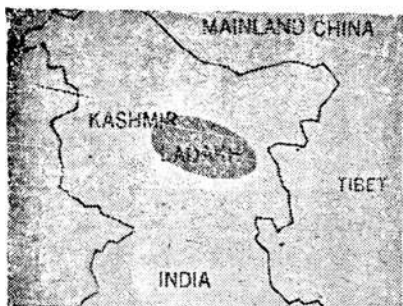
本稿는 66年 4月 24日字 「아시
아·패가진」(The Asia Magazine)
誌에 실린 資料를 참고한 것이다.

금이란 友情

印度와 中共

이미 세상을 떠난 「네푸」前印度首相은
1962年 9月 8日 中共이 印度의 國境
을 侵攻했을 때 이는 歷史의 이상한 아이

터니라고 언급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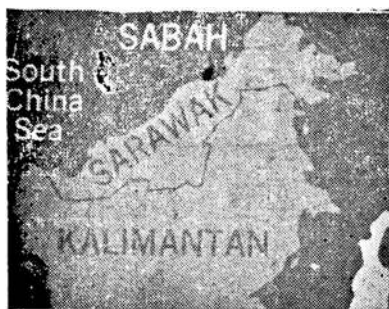
지금까지 「히말라야」國境地帶의 황무
지에는 中印間의 友情을 표시하는 殘影이
산재하여 있었다. 中共을 友好國으로 취
급해 온 「네푸」의 中立主義의 인 태도가
그 자신과 印度國民의 눈을 어둡게 하여
中共이 「백마흔」線을 不可侵의 선으로 간
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게 했다.
印度가 계속 「中印은 兄弟」라고 제창하
여 왔지만 中共은 「라다크」로 진입하여

12,000명방마일의 지역을 점거했다.
1962년 운명의 9월, 近 10萬의
中共軍이 印度의 영토, 40마일까지 침
입하여 2,500마일 국경을 위협하였
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에 힘입어 印度
는 「히말라야」국경 방위를 위하여 방위
군을 조직 유지하고 있으나, 中共은 그의
兵力을 삭감하려는 아무런 표시도 나타내
지 않고, 계속해서 국경을 위협하고 있
다.

惡辣한 侵略

印度와 馬來聯邦

印度大統領 「수카르노」는 馬來聯邦에
대한 침략을 「對決」이라는 말로써 표시하
고 있지만 사실상 「말레이아」, 「싱가포
르」, 「사바」 그리고 「사라와크」等 諸地
域의 聯邦構成을 교란시키는 계렬과 戰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카르노」는 馬來聯
邦이 아직 와수되지 못한 印度革命을 방
해하려는 新植民主主義의 음모를 꾸미고 있
다는 구실로 그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구실을 정당하다고



작년 1년 동안 馬來聯邦은 국방비 2억 7백 6천만 M\$를 소비했고 앞으로 5년 동안의 국방비로서 45억 M\$를 책정하고 있다.

끝이지 않는 內亂

|| 自由中國과 中共 ||



현재 잘 훈련된 近 60만의兵力이 臺灣을 방위하고 있으며 自由中國의 宿願은 언젠가는 中國本土를 탈환한다는 것이다. 自由中國의 海空軍은 매우 強力하지만 中共은 자주 金門 馬祖島를 포격하고 있어 中國의 內亂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近來에는 兩中國의 외교상의 자극전을 벌이고 있다. 即 中共은 自由中國이 UN의 非會員國이 되도록 무척 고심하고 있으나 세계의 여론은 계속 自由中國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近數10년에 걸친 中國의 內亂은 東南아시아의 세력균형과 위협을 조성하는 근원이 되어 왔고 지금도 中共은 東南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피로 물든 聖域

|| 「이스라엘」과 「아랍」諸國 ||

1948년 5월 14일 英國의 「팔레스타인」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共和國은 탄생하였다. 그러나 新生國「이스라엘」이 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對決」이라는 것이 국내의 각박한社會經濟의 인문제로부터 탈피하려고 계획된 모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시사하고 있다. 1963년 「그리스도」의 수난일인 4월 4일, 완전 무장한 一團의 印度의 용군이 北「보르네오」의 변경초소를 침공함으로써 침략의 첫발을 내어딴 것이다. 그 이후 印度는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國境紛爭이라는 명목으로 馬來聯邦을 괴롭혔다.

自由中國은 1949년 中國本土를 共產黨에게 빼앗기고 臺灣으로 이주하였다.



생함과 동시에 「아랍」諸國即「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의 군대가 가담한 침략이 뒤따랐다.

武力이 매우 약했지만 「이스라엘」은文字 그대로 열렬한 信仰心에 힘입어 「잘릴리」, 「네게브」와 「예루살렘」에 이르는 저대로부터 「아랍」軍을 추방하였다.

1948년來, UN이 이에 간섭하여 종전이 이루어졌으나, 8년 후인 1956년 10월 29일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여 「시나이」半島와 「가자」地帶를 확보하였고 佛蘭西와 英國軍도 이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그 해 9월 UN은 침략자 3개국이 물러나도록 결의한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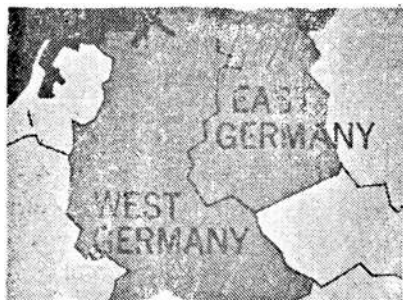
호전적인 「아랍」諸國은 1965년 「아랍」연맹會議에서 60년대 內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급속히 방위력을 강화해야만 하였다. 「유대」民族과 「아랍」民族間에는 항상 전쟁도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中東地域의 政局은 언제나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다.

兩斷된 獨逸

西部獨逸과 東部獨逸

獨逸의 前首都인 「베를린」을 東西로 갈라놓은 近 27마일의 철조망 장벽은 치욕과 분란과 굴욕의 상징인 것이다. 지난 21년 동안 분단된 「베를린」은 소聯軍과 美軍의 압두에 의하여 자주 存廢의 위험을 받아왔으며 西方陣營에 있어서 冷戰의

촉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베를린」장벽을 「발틱」海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850마일 「마르크스」線이 獨逸을 東西로 分離하여 놓은 線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다.

東部 「베를린」市民은 수십명씩 共産 위험을 피하여 탈출하다가 숨겨졌다. 그러나 西部獨逸과 동떨어져 있는 西部 「베를린」은 「올브라이트」의 압정과 피폐 앞에서 市民들의 열렬한 開志로 정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다. 獨逸統一의 念願은

역사적인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聯軍이 참여 자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東獨에常駐하는 限獨逸統一の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바랄 수 있는 것이 못된다.

「베를린」의 장벽은 그것이 國家分斷을 상기시켜 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국민들에게 통일, 念願을 불태워 주는 「마스크트」가 되고 있다.

講和없는 平和

|| 南韓과北韓 ||

韓國動亂은 1953년 7월 27일에 다시 38線으로 韓國을南北으로 分斷시킨 채 끝났지만 아무런 講和條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南北韓을 잘라놓은 150마일 前線에는 아무런 실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150마일前線中 185마일의 방위는 5萬의 美第8軍이 맡고 있고, 나머지 방위는 近 60萬의 韓國軍이 맡고 있다.

不安한 휴전상태가 13년 동안 계속된 韓國은 共產主義의 北韓과 自由民主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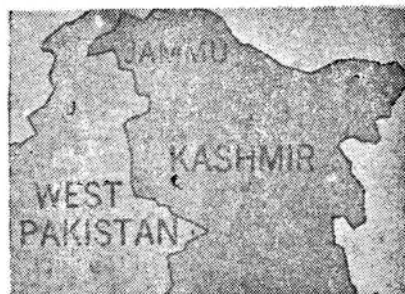
營의 南韓으로 無人의 不毛地帶에 의해 分斷되어 있다.

韓國은 美國이 아시아에 있어서 「自由民主陣營의 少, 원도우」로 基礎作業을 시도한 이래 이 지역에 있어서 美國의 노력은 여러가지 면에서 시행되었다. 韓國은 또한 東南아시아에 있어서 中共의 간섭을 받은 최초의 國家인 것이다.

越南은 軍事的인 觀點에서 韓國보다 우세하지만 駐越美軍에 대한 中共의 反抗은 韓國에서보다 격심하여 다시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가 나쁜 兄弟國

|| 印度와 「파키스탄」 ||



印度北境에는 印度와 「파키스탄」間에

끊임없이 紛爭의 초점이 되고 있는 「카쉬미르」가 있다.

1947년 小大陸國으로 분단된 「파키스탄」의 모슬렘教徒들은 「카쉬미르」와 「파키스탄」을 통합하기 위하여 北部 「카쉬미르」를 침공하였으나 「마하타자」는 「카쉬미르」를 印度聯邦에 併呑함으로써 이에 對抗했다. 1949년 UN이 관여하여 휴전선을 세워 놓고 「카쉬미르」 北西 3分之1의 地域을 「파키스탄」의 統治下에 두게 했으나 1956년 印度는 공식적으로 「카무」國인 「카쉬미르」와 原來의 「카쉬미르」를 통합했다.

昨年 9月 두 나라의 군대는 「카쉬미르」에서 「루치」의 「란」까지 이르는 800마일 前線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금년 1월에 소聯首相 「알렉세이·코시킨」의 주판하에 「파키스탄」의 「아유브·칸」과 印度의 「탈·ବାହ두르·샤스트리」가 타쉬켄트에서 만나 회합을 가진바 있다. 이 회담에서 발표된 「타쉬켄트」宣言에 의하면 양국은 현분쟁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약속하였던 것이다. 「카쉬미르」문제는 兩國이 그전부터 다루어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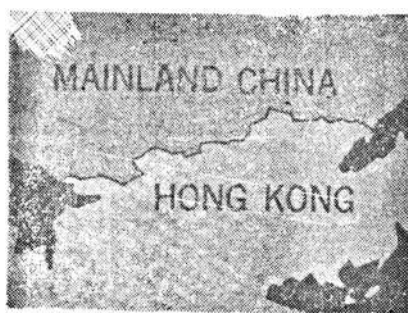
역사적인 숙제이었다. 「타쉬켄트」의 정신은 계속 존속할 희망이 있으며 印度大陸은 平和의 새 시대를 곧 맞게 될 기미가 엿보인다.

植民主義와 共產主義의

共存場

「홍콩」과 中共

英國植民地인 「홍콩」은 「포르투갈」領



「마카오」와 같이 中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1962년에 최고 결정에 이른 피난민의 流入 문제를 제외하고는 植民政府와 中共은 아무런 국경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 최근에 美第7함대가 휴가를 즐기도록 많은 兵力을 越南에서 실어온 것이 中共으로부터 강력한 反撥을 야기시키기는 하였으나, 中共이 조약의 범위를 넘어 「홍콩」에 대한 주도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홍콩」은 1843년 「빅토리아」女王 당시 英王國의 식민지로 되었다가 1860년에 영국해의 식민의 국경지대로 확고히 되었고, 1898년 北京協定에 의해서 九龍半島와 235부속도서에 대한 99년간의 조차권을 얻게 된 것이다.

國境 분쟁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으나, 「홍콩」정부와 中共은 빈틈없는 국경방위를 계속하고 있다.

말이지 양국 전쟁

「南部越南과 越盟」

1954년 佛領 「인도차이나」의 一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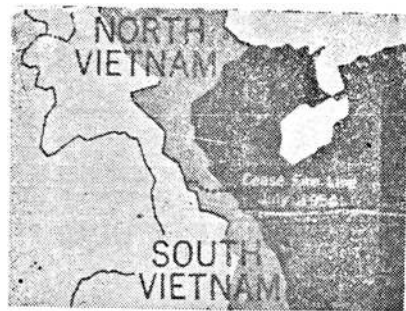
이었던 越南은 佛蘭西가 패배하고 「제네바」協定에 의하여 南北으로 분단되었다.

17度線으로 잘라진 越南은 처음에는 佛蘭西에 대한 해방전쟁으로 인하여 피로물들여졌고, 지금은 무자비한 共產越盟과 대치해서 南部越南을 自由民主의 테두리 내에서 존속케 하려는 그치지 않는 분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近 20萬餘의 美軍, 55萬이 넘는 南部越南軍,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우질랜드」 및 南韓의 지원군이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인 對「베트남」계릴라戰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달 동안 여러번 越南은 우연이든 아니든 세계를 제3차전으로 유발할 위험을 겪어왔다. 이번 전쟁과 같이 人類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平和를 얻기 위해서 이처럼 처참한 싸움으로 고심해 본 적이 없다.

越南自體는 그치지 않는 戰爭으로 기진맥진해졌고, 美國은 不明確한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數億弗의 전비와 적지 않은 數의 인명을 소모했다. 南部越南은 그칠줄 모르는 정치적인 혼란과 테러로 인하여



무질서의 고뇌를 겪고 있고 北部越南은 강력한 美空軍의 공습으로 인하여 피폐의 極을 맛보고 있다. 이는 거대한 고래싸움의 틈바구니에서 가련한 새우의 등이 처참하게 더져버리는 격인 것이다.

禁蛇의 섬에 뱀 上陸

남태평양 섬의 놀란 원주민들은 2. 5 「피이트」 카리 뱀이 어떻게 이해안 에 상륙했는가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하와이」 서남방 3,520 「킬로」 지점에 있는 이 외딴 마을에는 지금까지 뱀이 살고 있지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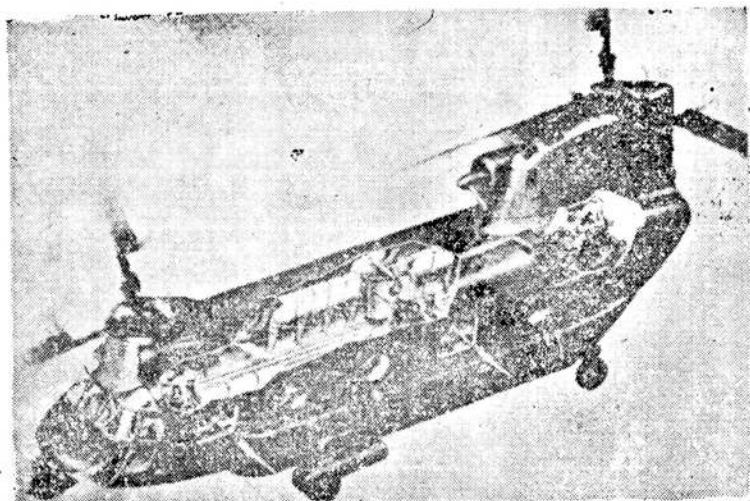
【나누미야 · 길버트와 엘리스섬 11 UPI】

寡婦와 結婚하려고

50歲의 神文가 還俗

和蘭의 天主教신부 두 명은 결혼안 하곤 배길수가 없어 사임했다고 관한 주교가 발표. 속세로 돌아간 두 신부가운데 50세난 노장은 과부와 결혼할 작정이고 27세난 젊은 이는 좀 두교와야 알겠다고.

【헤르트게보시 11 로이터】



〈武裝하고 機甲된 치누크機〉

越南戰에서 立證된

헬리콥터의 戰鬪價値

나 운 장

헬리콥터는 피격되어 불이 붙어서 不得
已 땅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 乘務員들이
뛰어나오자마자 機內의 탄약이 폭발하여
기체는 散散 조각이 나고 말았다.

했다.

「내가 총에 맞았다.」고 副조종사가 말

총사격을 받았다.

매 잡자기 밑에 있는 춘락으로부터 기관

하고 있는 美陸軍 헬리콥터 한 대가 越南

에서 기총소사를 퍼붓고 빠져나오고 있을

美海兵 소속 H-34 機 호송용으로 활약

現今 世界의 神經이 집중하고 있는 越
南戰은 정글지역과 아열대지방이라는 地
域的인 特殊性 때문에 在來式戰爭과는 상
이한 장비 및 戰法을 요구하고 있다. 전
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는 作戰, 兵力, 精
神武裝等 여러가지 要因이 圓滑히 작용해
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勝戰의 關鍵
이 되는 것은 그 戰場의 特殊性에 적합한
軍裝備을 여하히 有效하게 使用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特殊戰의
性格을 띠고 있는 越南戰에서 헬리콥터는
兵力, 輸送, 장비수송, 기습공격 등 제 국
면에 있어서의 有利한 點을 나란히 하고 있
다. 여기에 越南戰에서 헬리콥터가 어떻게
活躍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나의 空軍時節

金參謀長과 나

金 敬 洙

△成大教授△

6. 25赤侵時 우리 공군은 무스타
10臺로 싸웠다는 용감하고도 처량했던
이야기는 너무도 有名하다. 내가 1.4
後退 후 入隊했을 때만 해도 當時 空
軍은 1個 飛行團을 가졌을 뿐이었으며
泗川에 자리잡은 이 飛行團은 파일롯
養成等 將次의 增強에 對備하는 데 注力
하고 있었다. 泗川은 말하자면 一線地
區였고 또 파일롯氣質(?)도 作用하고
해서 規律이 엄하기로 이름나 있어서
當時 空本에서 이곳으로 出張하는 行政
系將校들은 가기를 무서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었다.

公報將校이며 空軍 大尉인 나는 어느
날 報道資料 蒐集次 泗川에 갔었다.
때마침 參謀會議가 끝났다가에 同會議
室로 들어서면서 參謀長 金英煥大領에
게「:取材次 왔읍니다.」라고 來團의
뜻을 傳했다. 듣고 있던 그는「이놈
아! 너 미쳤니? 왔읍니다가 무엇이냐」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 어리둥
절하는 參謀들에게「이 친구는 중학 동
기야!」하고 내게 의자를 권하였다.
호탕하고 팔팔한 性格을 지녔던 그는
大領과 大尉라는 差異를 이렇게 넘어서
친밀감을 표시해 주었고 德分에 나는

地上에서 당황하고 있는 美軍兵士들의
상황을 알아차리고 美海兵隊 헬리콥터가
날아들었을 때에는 벌써「베트콩」계릴라
들이 포위하고 있었으나 위기에 처한 兵
士들을 날리게 신고 도망쳐 날아올 수 있
었다.

越南의 또 다른 곳에서는 美空軍 스카
이레이다 攻擊機의 조종사가「베트콩」의
지상포화에 맞아 격추되었다. 이 飛行機
의 조종사가 낙하산을 펴고 敵地에 내리
는 것을 美軍 헬리콥터 한 대가 목격했다.
헬리콥터는 낮게 내려와서 그 조종사를
무사히 집어들러「베트콩」의 一齊 사격을
받으면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공격지역에서 헬리콥터의 多樣性和 能
率을 보여주는 數 많은 경우와 더불어 위
에서 말한 사건들은 헬리콥터가 地上車輛
이나 在來式 飛行機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再配置, 增強, 救助, 攻擊 및
追擊의 기본적인 수단에 혁명적인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美軍當局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헬리콥터는 월남에서 분명히 軍事航空
史에 새로운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여러 參謀들로부터도 階級에 過分한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

그 후 연제인가 大邱 嶺南日報社가 同飛行團을 取材하여 座談會 記事를 2~3日間 同紙에 連載한 일이 있었다. 當時 新聞活字는 「아」字가 「이」字로 보일 정도로 남아져 있었는데 이것이 大騷動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다.

即 參謀長을 위시해서 參謀들 操縱士 整備士들이 登場하는 이 座談會 記事에서 參謀長 金大領의 發言 끝이 그가 웃었던 그대로 表示하려고 「……하하하」라고 해 두었던 것이 「……히히히」로 되었다는 일이다. 이것을 본 그는 격분했다. 곧 大邱에 있는 政訓監을 電話로 불러내어 내가 언제 「히히히」 웃었느냐고 따지면서 座談會에 參席한 사람 가운데 發言內容이나 웃는 꼴이 내가 第1 못난 者로 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即刻 만족할 만한 措置를 해주지 않으면 政訓監室을 機銃掃射하겠다고 야단 야단이었다. 金大領의 性品을 아

는 政訓監은 당황하고 집도 났다. 責任者인 公報課長에게 경위를 듣고 곧 조치하겠다는 政訓監의 應答에 그는 「도대체 公報課長이란 놈은 누구냐」고 호통을 쳤다. 이 公報課長은 그의 성격이나 前例(本部參謀도 그에게 얻어맞은 일이 있었다.)로 보아 無事할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公報課長이 나라는 것을 政訓監으로부터 듣고 난 그는 「당신은 그 친구 때문에 살았소 살았서!」 하고 진화를 끊더라는 것이다. 後日 그와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前記 記事關係에 對한 解明과 謝過를 하자 그는 양해를 하면서도 나에게 「자네 때문에 나는 부하들술이 안 되게 되었네. 히히히 웃는 者의 명령을 누가 듣겠나」하고 兇惡을 피기도 했다. 그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옛 친구로 되어 버렸다.

이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가지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越南에서의 그것이 처음이다.

헬리콥터는 비단 광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敵의 공격을 받고도 빠져나올 수 있는 能力은 애당초 예기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다고 美國務省當局은 말했다. 지난 48개월간의 작전중 지상 포화로 격추된 헬리콥터의 數는 겨우 62대 밖에 안 된다.

헬리콥터의 전투임무 중에는 방어지역으로의 兵力수송, 포병대의 수송 및 목표물 접근중 또는 상륙작전중 兵力輸送用 헬리콥터의 무장호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헬리콥터는 前方戰鬪地區로부터의 전상자 철수, 정찰 및 초계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는 「베트콩」에 포위당한 부대나 촌락에 공급을 제공할 수 있었다.

헬리콥터는 越南의 전투부대에 다른 方法으로는 얻을 수 없는 機動性과 機敏性을 제공해 주었다고 美國防省當局은 말했다.

「팩나마라」美國防長官은 15,000여

명으로 구성된 신설 第1空輸機動師團을 駐越 美軍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派越하면 서 헬리콥터의 가치를 찬양했다. 400여 대의 헬리콥터가 이 師團을 따라 극동으로 이동해 왔다. 이 가운데는 약 50대의 CH-47A型「치누크」大型 헬리콥터가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戰場에서 人員과 武器를 운반하는데 헬리콥터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기습원칙을 이용하는데空前의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매나마라」長官은 말했다.

美海軍艦船이 1965년 9月 第1空輸機動師團을 越南으로 수송했다. 이 부대는 그 후 헬리콥터에 의하여 「캄보디아」邊境의 「드랑」溪谷으로 공수되어 착륙하자마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美國은 「베트콩」을 기습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현재까지의 越南戰鬪에서 최대의, 또 가장 치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투에서는 상당수의 兵力과 彈藥과 砲를 가장 알맞는 시기에, 가장 알맞는 장소에 수송할 수 없었더라면 전투의 결

과는 달랐을런지도 모르며 아니면 많은 사상자를 냈을런지도 모른다.

例를들면 24시간 동안에 헬리콥터는 敵을 보다 더 호되게 치기 위해서 砲를 보다 더 전략적인 지점으로 39회나 이동시킬 수 있었다.

第1空輸機動師團이 數100臺의 헬리콥터와 더불어 도착함으로써 越南에 주둔한 回轉翼航空機의 數가 대폭 증가되었다. 보다 더 큰 火力과 耐久力을 가지고 있고 보다 더 機動性 있는 헬리콥터가 궁극적인 군사목적에 위하여 고안되고 있다.

越南上空에 뜨는 헬리콥터는 「치누크」機 뿐만 아니라 부상자를 철수시키고 少數의 전투부대를 수송하는데 있어서 능률을 올려 유명해진 多能한 小型 「벨」會社製作의 「웨이즈」機도 취역하고 있다.

「웨이즈」機는 다른 어느 헬리콥터보다도 더 많은 세계적 활동실적을 가지고 있다.

「치누크」機와 「웨이즈」機(UH-1B 및 UH-1C「이로코이즈」) 외에도 다른 종류의 헬리콥터가 있다. 즉 越南에 있는 것으로는 제일 작은 「시옥스」機(CH-3), 「모자브」機(CH-37B), 「흑타우」機

(CH-34), 「스카이크레인」機(CH-54) 및 「시·나이트」機(UH-46A) 등이 있다.

美陸軍 소속 CH-47A 「치누크」中型輸送機는 영웅적인 임무수행을 해 왔지만 美軍官吏들은 越南에서는 重武裝을 하고 여러가지 무기를 갖추고 약간 개조된 헬리콥터가 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형된 「치누크」機(이 이름은 北美洲 「인디안」부대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는 1965년 말경에 겨우 일만에 공개되었다.

軍事官吏들은 최근 공개전시된바 있는 CH-47A를 개조한 헬리콥터가 비단「공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敵의 공격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다.「고」자랑했다. 雙發터빈인「텐덤」로우터機는 자동식 수류탄투척기, 로켓 및 5대의 기관포로 구성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

개조된 「치누크」機의 두부에 장치된 40밀리 手榴彈投擲器는 보조종사가 조종하며, 발사한다. 헬리콥터의 兩側 파일론에는 20밀리 砲와 19發 2.75인치 로켓砲 아니면 7.62인치 개블링식 수사기관포를 포함하는 前面發射用 武器가

장치되어 있다.

개조된 「치누크」機에는 또한 兩側各 2대, 후미에 1대, 도합 5대의 기관포가 장치되어 있다. 후미의 사수는 지상포화로부터 헬리콥터를 보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무장된 헬리콥터는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 「치누크」機는 前面, 側面, 後面에 무기를 장치함으로써 360도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조된 「치누크」機에는 1톤 이상의可用彈藥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유래없을 만큼 충분한 火力을 갖게 된다고 陸軍關係者들은 말했다. 탄약은 送彈帶를 통해서 부단히 自動武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모든 무기는 個別的으로 발사할 수도 있고 連帶의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현재 시험중인 「치누크」機의 또한 가지 특징은 중요한 부분을 포화로부터 막을 수 있도록 約 2,500 파운드 무게의 鋼鐵防彈板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치누크」機는 또한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동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防彈席을 자랑하고 있다.

강철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기 위해서

熱處理하는 아우스프르밍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치누크」機의 防彈板은 「탄환에 맞으면 먼저 그 탄환을 산산히 부순 후에 삼켜버린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二重으로 된 防彈板의 단단한 外板이 탄환이 부딪치는 순간 이를 산산히 부수면 비교적 연한 內板이 外板을 뚫고 들어오는 彈片을 흡수해 버린다. 이리하여 헬리콥터는 지상포화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증대시키게 된다.

개조된 「치누크」機는 반경 185킬로미터, 高度 2,325미터의 범위 내에서 荷重 4,530킬로그램을 싣고 巡航速度 241킬로미터, 總重量 14,966킬로그램으로 활약할 수 있다.

2대의 라이카잉 T1155 7터어빈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이 「치누크」機는 기체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水上에 着水할 수도 있으며 水上에서 떠오를 수도 있다.

개조된 「치누크」機는 섭씨 영하 55도로부터 51도의 氣溫圈 내에서 시험을 마쳤다.

軍事關係者들은 이 개조된 「치누크」機의 주요인부는 兵力輸送用 헬리콥터를 공격지역 내에서 호송하고 着陸할 때에도防護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同關係者들은 개조된 「치누크」機는 地上砲를 대치한다고 간주될 수도 없을 뿐더러 「날으는 砲」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말하고 헬리콥터는 近接支援을 대치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越南에서 취역하고 있는 CH-47A型 「치누크」機에 언급하여 이 헬리콥터는 모두가 완전무장을 한 兵士 33名, 들것에 실린 患者 24名 및 醫務員 2名을 수송할 수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越南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치누크」機가 모든 기대를 훨씬 넘어 아무런 난점이나 실패없이 가지가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헬리콥터는 식량, 연료 및 탄약을 이동시키고 砲를 操作兵 및 砲彈과 함께 발사지점으로 운반해 주고 추락 또는 파손된 항공기를 회수하고 1個 小銃小隊를 지원수송하고 地上車輛, 航空機, 水陸兩用艇에 연료를 공급하고 死傷者나 越南人의

난민을 철수시키고, 人員과 장비를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戰鬪技士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치누크」機의 임무는 모두가 완전히 군사적인 성격만을 띤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쌀과 탄약을 실은 CH-47A機 한 대가 「베트콩」에 의하여 2개월 동안이나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餓死死境에 빠진 「푸터」이라는 越南의 촌락을 구조했다.

第1空輸機動師團 소속 CH-47A機의 조종사 「알렌·매우시」大尉는 500포대의 쌀, 탄약 6톤, 「몬타크나드」兵士 1개대대, 1團의 民間活動隊 및 우물 파는 기계 1톤을 불과 이틀 동안에 수송할 수 있었다. 「매우시」大尉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우리는 비행장으로 날아갔는데 그곳에는 1,000여명의 부락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들은 「치누크」機를 보고 모두들 신기하게 야단들이었읍니다. 「치누크」가 그들의 마을에 내린 것은 처음이었읍니까요?」

1962년 1월 1일 이래로 陸軍 헬리콥터가 越南에서 1백십만여회나 출격하여 1백6십만명의 兵力 및 승객과 3

천 7백만킬로그램의 화물을 수송했다. 美國防省當局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越南에서의 경험은 헬리콥터가 좀처럼 파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피격되더라도 곧 수선해서 다시 취역시킬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과거 4년 동안에만 여회의 출격에 비추어 봐서 地上砲火에 의해서 격추된 비율은 每萬8千回の 출격에 헬리콥터 1대의 비율이다. 被擊率은 每450회 출격에 1회이며, 격추당한率は 每8,000회 출격에 1회이다.

헬리콥터는 戰鬪出擊時나 非戰鬪出擊時를 막론하고 피격되기 때문에 전투, 비전

◇軍事用語辭典

◇……Air landed(空輪着陸)——

航空便으로 輸送되어 航空機가 着陸한 다음에 飛行機에서 내려 놓는 것.

◇……Air Launched Ballistic Missile

(空中發射彈道 미사일)——

空中 運搬體로부터 發射되는 空中發射彈道 미사일

투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전투시에 격추당하는率は 13,000회 출격에 1대 정도이다. 헬리콥터는 고장이 생기더라도 거의 어떤 지점에나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격추된 헬리콥터의 半 이상이 회수되어 수선되고 다시 취역하게 되었다.

越南에서의 헬리콥터의 주요한 역할에 대하여는 평하면서 한 「와싱턴」官吏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헬리콥터는 최소한도의 人命 및 장비 피해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승리를 거두는데 필요한 高速機動力을 제공해 주고 있다.

◇……Air Liaison Officer(航空連絡將校)——

校)——

航空顧問으로 地上部隊에 派遣된 戰術空軍 또는 海軍의 航空將校

◇……Air Lift Service(空輸勤務)——

人員, 貨物, 郵便物 其他 物件을 移動하는 데 要하는 空中輸送을 爲한 勤務

소금과 그리스도인



송 중 칠

△軍牧・1戰飛▽

유명한 신학자 뮐러만이 인간 존재의 특수성에 관하여 말하기를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자기 행위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바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깊숙한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소금처럼 곧게 승화시켜 자기행위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비본래적이지 아닌 신의 창조주인 인간 본연의 본래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소금이란 도시 어떠한 물질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소금은 그 모습과 지닌 빛깔이 희다. 「희다」는 그 색소가 내포하는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깨끗하다, 청순하다, 때묻지 않았다, 고결하다, 정직하다, 순진하다 등의 내용들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누구나 흰 빛깔의 양심적인 품격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자기가 책임을 진 자기 분야에서 깨끗하고 순진하고 때묻지 않고 청순하고 정직해야 하며 부정과 부패를 증오하며 과감히 그것과 대결해서 타협을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조국의 당면한 근대화 과정에서 소금이 지닌 흰 빛깔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둘째로, 소금의 맛은 동일하다. 서양에서 생산되는 소금도 동양에서 구어내는 소금도 그 맛은 똑같이 짜다. 사람은 피부의 색소와 국력의 빈부, 지식의 유무, 소유의 격차, 계급의 고하, 문벌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계층은 한결같이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소금 맛의 동일성을 지적하여 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셨던 것이다.

제곱의식이 강한 군대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인간성의 평등사상이다. 신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셋째로, 소금은 그 행위에서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안다. 나팔을 불거나 떠들지를 않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는 자기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결코 없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키어 다른 물체 속에 스며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패성의 물체의 부패작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인류 구속의 대사업을 성취하신 것과 같다. 마치 맹호부대 장재구소령이 부하를 위해 자신을 조용히 포기한 군인정신의 숭고한 본보기는 소금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주위에 영향을 끼치며 자기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늘날 세속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본다.

반가를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아예

◆軍事用語辭典

◇.....Air Defense Operations Area(防空作戰地域)——防空作戰과 他作戰間에 있어서의 相互障害을 最小限度로局限하기 爲하여 節次가 設定된 境界內의 地理的 地域。

◇.....Air Defense Readiness(防空準備態勢)——防空部隊가 短期間에 있어서 通常의 境遇보다 高度의 準備態勢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作戰態勢。

◇.....Air Defense Region(防空地區)——防空區域의 地理的 一部分

◇.....Air Defense Sector(防空分區)——防空地區의 地理的 一部分

◇.....Air Division(飛行師團)——飛行團級보다 上位의 部隊 또는 그 司令部. 두 개 또는 그

잘 못하면 주위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떨치지 못하고 세속의 강한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소금처럼 자신을 옮겨 승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격을 옷입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인간세계에 물입해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우리 주변의 세속 사회 속으로 강하게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때 우리는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진정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以上の 戰團飛行團으로서 構成되며 또 境遇에 따라서는 다 른 編成體에도 適用된다.

◇.....Air Drop (空中投下)——飛行中에 있는 航空機로부터 人員이나 物資를 投下하는 것。

◇.....Air Frame(機體)——

1、航空機의 構造部分으로서 胴體, 꼬리部分, 날개, 着陸裝置와 機關等과 같은 機體 構造物 및 表面

2、飛行船의 船體, 構造物, 空氣室 및 操縱室。

3、미사일에 있어서 推進裝置, 操縱裝置, 電子裝置 및 미사일 積載를 除外한 基本的 組立 構造部分。

生의 方向轉換

김 선 도



△軍敎・技敎團▽

1950년 10월 하순경의 일이다. 며칠 후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가 옆에 찬 수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돌아오리라는 흥분에 찬 개선의 행진이었다.

평양을 해방시키고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전승군의 대열에 참 여할 영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군이 수십만의 당나라의 적을 물리쳤다는 옛 전승자인 안주 백성루와 칠불사를 지나 청천강을 건넜다.

도하작전을 저지하다가 쓰러진 적군의 시체가 여러 곳에 덩굴고 있었다. 소월의 정서어린 시에 나오는 「영변의 약산」 동대를 지났다. 운산 북진으로 물입하려는 적진 대천강을 앞을 놓고 부대가 일단 정지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북쪽 신작로로부터 흰옷 입은 민간인들이 소마차에 짐을 싣고 배를 지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알아보니 바로 전방에 만주에서 내려온 팔로군(중공군)이 교두부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밀려 내려오는 피난민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부대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수류탄을 비롯하여 각종 화기의 탄약이 각 전투원에게 힘에 겹도록 지급이 되었다. 얼마동안 저항해 오는 적과 조우해 보지 못해 다소 심심한 감마저 있던 차에 한 번 멋있게 겨루어볼 기회가 온 것 같아 모든 전투원들은 흥분해 하는 기색조차 보였다.

이윽고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 황혼이 깃들어가는데, 모두들 철모의 턱끈을 힘껏 죄고 부대 공방선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다. 전투원들은 긴장과 흥분으로 눈알이 충혈되어 있었다.

낙엽들을 밟고 지나가는 군화 발자국 소리와 통신병이 무전연락하는 조급한 어조의 소리만이 들려온다. 점점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배치된 능선에서 적방을 향해 숨을 죽이고 매복해 있는 것이다. 전방 능선 밑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낱설은 방인의 소리와 기동부대의 엔진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지 않는가. 바로 중공군의 인해 작전 공세가 개시될 참태에 있는 것이다. 음파를 통하여 짐작되는 수로는 아군은 비교적 안 될 정도로 다수인 것 같았다. 지휘관과 참모, 옆드려있는 전투원의 얼굴은 방금 경련이 일것만 같은 긴장감이다.

밤은 점점 깊어오고 적의 소란한 소리는 점점 이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있는 화기는 모두 짐중시켜 놓고 사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중공군과의 최초의 교전인 것이다.

권총 한 발의 영광탄신호와 함께 일제사격이 개시되었다. 쌍방간에 숨막힐 듯한 총탄의 소리가 마치 시골의 화로 위에다 놓고 고이는 콩 튀는 소리와도 같이 들렸다. 정신없이 교전하다보니

우리 부대 좌우방의 총성이 점차 우리 부대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유선통신병과 무선통신병은 후방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보고였다. 또 최전방에 배치된 초소병의 보고에 의하면 장총에 대검을 꽂은 적병이 수없이 이곳으로 돌진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휘관은 지금은 도저히 저항해낼 정황이 못됨을 알아차리고 철수명령을 내린 것이다. 점차 질서있게 엄호사격을 하여 철수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하려는 무렵 난데없이 아군 바로 뒷면에서 중공군의 그 유명한 나팔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는가. 총성 사이로 들려오는 그 이상한 중국식 멜로디. 총조의 나팔소리에 우리들의 사기를 여지없이 저하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있다는 정조인 것이다.

이제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 포위를 뚫고 나가는 길 밖에 없는 것이다.

모두 숨을 죽이고 부대장이 희미한 전지로 비쳐 보는 지도를 따라 두령 위로 탈출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얼마쯤 측방으로 가보니 갑자기 전방에 검은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엇이라 암호를 부르는 것이다. 일제히 었드렸다. 중공군이었다. 아군으로 알아차린 그들은 일제히 기관총 사격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때야말로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옆에 전우들이 비명을 올리며 쓰러지고 있었다. 이때 내 가슴 속에서는 영혼 깊숙이서 잔절한 기도를 드리었다. 『하나님 다 죽게 되었읍니다. 꼭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뭇대로

살겠습니다.』 규모는 없으나 잔절한 기구가 나오고 무릎과 손으로 기기를 시작하였다.

『주여!』 『주여!』 하는 외마디 부르짖음이 무의식 중에 구령과 같이 불려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다다른 것이 다. 방향을 바꾸어 얼마쯤 가다가 보면 역시 그곳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집중사격을 해 오는 것이다.

이 곳까지 부진해 올라와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될 것을 상상해 보니 그야말로 미처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키리라』 하시는 성경말씀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최후까지 탈출구를 찾아 헤매이는 것이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었다. 완전히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친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멀리 많은 뒤에서는 중공군들의 고향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다.

사방을 살펴보니 적은 시내 골짜기가 눈에 띄었다. 그곳에 뛰어들어 몸을 숨기고 기기를 시작하였다. 지도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다. 하여간에 백방으로 요란한 총성 사이를 뚫고 내려가는 것이다. 온몸은 땅에 젖어 마치 물 속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 같았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다. 얼마쯤 가다 보니 날이 흰색 새기 시작하였다. 멀리 앞쪽에 서 엔진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엎드려 자세히 살펴보니 유엔군의 탱크 부대가 이쪽으로 포신을 향한 채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반가움에 눈물을 숨길 수가 없었다. 살아나온 전우들은 서

로 얼싸안고 살아나온 신기한 감격에 미처 말도 전내지 못했다. 많은 친구들의 얼굴이 눈에 떠져서 앓았다. 전사하지 않았으면 포로가 되었으리라. 그때 나는 살아남았다는 것은 결코 내힘에 의해서 된 것이라 생각되지가 않는다. 운산 복진 어느 산골짜기에 흰 백골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을 것인데 저금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으로 믿는 것이다.

× × ×

1951년 1월 하순경이라 기억이 된다. 1차 후퇴로 강원도 神林까지 밤낮 쉬지 않고 남하하게 되었다. 신림 뒷쪽 적은 부락에 도착하여 비로소 장구를 들고 하룻밤을 지나게 된 것이다. 장기간의 피곤을 풀고 완전 휴식상태로 들어간 것이다.

새벽 5시경 용변을 보러 문밖에 나와 보니 부락 주위에 둘러있는 능선에서 적이 기습하는 총성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비상」있는 힘을 다해서 고향을 질렀다. 모두들 장구를 차리는 등 마는 등 하여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능선에서 우리를 쫓을 향하여 집중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뛰쳐나가던 전우가 양손에 밭이른 밭뽕을 든 채 머리에 총탄을 맞고 엎드려지는 것이다. 먹기 위하여 들고 가던 밭뽕의 밤이 훌어진 그 위로 피가 벌겍게 물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 기습을 피해 나온 후 같이 자고 먹던 그 전우의 최후의 모습이 늘 뇌리에서 살아저지를 않는다. 「먹는 것이 무엇이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때부터 더욱 더 나의 가슴 속에 인생의 삶에의미를 찾아 대의명분이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 × ×

일찌기 키에르케고르는 「I suffer therefore I am」이라고 하였다. 인생은 그에게 주어진 苦難의意味를 발견할 때 새로운 존재로서의 기점을 삼을 수가 있는 것 같다. 6·25의 참혹했던 전훈을 되새기는 젊은이치고 人間의 한계 상황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행인저 불행인저 모르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한 세기를 두고도 겪지 못했던 역사적인 시련을 10년 내외에 압축하여 당하게 되고 보니 생을 입체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6·25를 통한 나의 신앙 체험은 생의 전환점을 적어주었으며 오늘의 목사가 되게 한 것이다.

모태적부터 물려받았던 전통적이며 인습적인 종교생활에서 참된 신앙의 생동력을 찾아 얻을 수가 있었으며 곱힐 수가 없는 생의 방향을 설정해 준 계기가 곧 나의 6·25가 된 것이다.

◆軍事用語辭典

◆.....Air Ground Operations System(空地作戰體制)——陸空軍間の作戰體制, 地上軍指揮官이 隸下 地上部隊指揮官으로부터 航空支援에 對한 要請을 接受하고 處理하여 空軍에게 要請하는 方法을 마련하고 또 諜報資料와 情報의 迅速한 傳播의 手段을 마련한다.

◆.....Air Interception(空中遂擊)——友軍機가 他航空機와 視覺 또는 레이더接觸을 이루는 것.

◎軍陣講壇

戰場에 핀 꽃

이영렬

〈군목·군종잡설〉



「전쟁」이란 것은 영화를 볼 때 느끼는 것처럼 단순한 감상이 아니다.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말 못할 무거움」이라고나 할까? 전쟁을體驗한 사람이라면 한미디말로 그 심정을表現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대전을 유발한 전쟁범죄자들에對하여 공통적으로 그 죄과를 책문하고 6·25의 도발자에 대하여 한없는 증오를 쏟고 있는 것이다.

현충일 추도회가 겨레의 상처를 씻어 주지 못하고 6·25 기념식이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하기에 우리는 전쟁의 비극과 죄악을 다시 저주한다.

그러나 전쟁은 반드시 참혹한惡란의一邊倒는 아니었다.

죽은 어머니의 것에 매달려 울고 있는 갓난 아기의 비참한 장면에서도 자식을 위하여 등으로 총알을 막아낸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성을 볼 수가 있으며 적지에 떨어진 戰友를 구출하려고 생명의 모험을 걸고서 적중에 投下하는 戰友愛의 눈물겨운 모습이 「전쟁」이란 惡의 囂堂 속에서 핀 꽃이라 할 것이다. 출고처치고 황급한 후퇴의 정황 속에서도 눈위에 버려진 전쟁고아

를 등애다 업고서 걸어나온 의국 군인의 숭고한 人間愛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나라를 爲하여 자유를 爲하여 진리를 守護하려고 모진 고문과 학대로 순국 순교한 분들의 사실도 이 전쟁이란 惡의 바탕에서 피었던 꽃들이라 할 것이다.

이 꽃의 씨앗을 나는 「사랑」이란 말로 要約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처절한 惡을 배경으로 하여 아름답게 피어나 영원한 생기를 부여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소망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惡이 극성할수록 보다 더 큰 「사랑」이 제1선에 나서서 전쟁 戰場에 핀 꽃처럼 이 땅 위에 사랑의 꽃이 전만 피어 있어야 할 것이다.

◎軍陣講壇

正義에 立脚한 軍人

김두식

〈군목·공사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는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무력적 단체이므로 직접적 과 싸우는 데 우선 필요한 신무기나 장비, 훈련에만 중점을 두기 쉽다.

그러나 전투라는 것은 손발과 눈만이 활약하는 것이 아니고

근육과 골격이 활약하는 것이며 정신상태가 승패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색이 빠진 정신을 가진 병사에게 아무리 신무기를 주고 훈련을 잘 시켜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허수아비에 게 무장을 시킨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군인은 잘 싸워야 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를 입작한 도의적인 군인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군인이 되어야 하며 군인 자자가 참된 군인정신에 입자해야 한다. 우리 국군은 정의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민주군대이니만큼 더욱 힘써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군인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국군이 자유를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강력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적보다 도덕적으로 우수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군대도 여지없이 패망한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가 죄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군대의 패전기록 중에서는 「아이」성의 패전과 「에벤에셀」의 패전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패전의 이유는 「아이」성 공략에 있어 「아간」이란 자가 전리품을 부정취득한 까닭이었고, 「에벤에셀」 전투에서는 지휘관에 있었던 「홀니」와 「비느하스」 두 형제의 생활이 음란하고 부정부패의 원흉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다. 다시 말하면 패전의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 국군이 필승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정의에 입작한 군대가 되고, 도의적인 군대, 하나님편에 서는 군대가 되어야 하겠다.

◎軍陣講壇

삶과 죽음

한 학 수



〈군록·K-2V〉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빌립보 1:23-24)

1. 삶

사람이란 삶을 의미한다. 사람은 생물적으로 신진대사를 하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번식하며 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삶을 다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윤리적으로 윤게 살아야 한다. 사람의 삶은 본질적으로 윤리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불의한 삶은 사람과 하나님이나 함께 융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윤게 살아야 참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남의 유익

을 위해 살아야 한다. 백해무덕인 인생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될 것이고 무해무덕인 사람도 되지 말고 무해 유덕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의 표본이다. (참조 고전 10:33 ~ 12:1).

2. 죽음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의 청산이요, 완결이다. 생물적으로는 신체기능이 종식되었을 때에 사망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사람이 생물적으로 죽기 전에 벌써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다. 양심이 마비되어 의를 행할 줄 모르고 선악을 분간할 줄 모르는 자는 살았으나 도덕적으로는 죽은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은 자는 육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죽음은 자살, 타살, 형사, 사고사, 병사, 전사, 순직, 순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자살은 고성과 환란의 도피는 될런지 몰라도 개죽음이다.

순직, 전사, 순교 등은 가장 고상한 죽음이다. 남을 위해 살다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죽는 죽음, 곧 희생적 죽음은 값있는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하고 높이하는 이유는 그가 만민의 속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제구 소령의 죽음을 귀하게 보는 것도 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번만 사는 삶을 가장 값있게 살다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게 죽어야 할 것이다.

◎軍陣講壇

그분은 갔어도



최영자

△부산 YWCA 교육원간사 V

5월 초순! 나는 금년도 전반기 연금을 타기 위하여 원호청에 갔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젊은 여인 등 각종의 연금대상자들이 수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귀한 생명을 나랏에 바친 군경의 유가족들의 모습이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설움도 원망도 분노도 살아졌겠으나 그 가슴 깊은 곳의 원한이 얼마나 클 것인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아는 이 없고 위로하는 이 없으니 그냥 참고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들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다름도 없고 서로 양보와 협조가 있는 참 인간이 모인 곳이었다.

어느덧 내 설움도 잊은 듯 허리 굽은 영감님께서 자식을 잃고 연금을 타러 오신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생자하면 아득한 세월이 흘러간 16년 전 그러면서도 생생한 기억을 잊을 수는 없다.

요새 같으면 아직 혼인도 안한 많은 여성이 서른을 갓 넘은 나이에 열 살을 선두로 갖돌을 지난 컷먹이까지 네 아이의 어머니였다. 오랫동안 병이라든가 알아서 세상을 떠났으면 채년도

생기고 앞으로 살아갈 방도도 생각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종일에 쓰러지고 보니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고 눈앞은 캄캄하여 다시 일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오직 절망만이 있었고 앞으로의 내 생명이 계속되리라 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6. 25 당시 그이는 대한청년단 부단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9. 28 이 지난 10월 18일, 강원도 지방의 재집 때였다. 석달 동안 사경을 넘어 살아온 생명이 간 날이다. 참아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고 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던 그날 새벽, 청년단원만이 22명, 수많은 경찰, 학도병, 국민회 간부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창고의 쌀은 노략당하고 불지들을 당한 아비규환의 날이었다. 한 방 총알에 쓰러진 죽음은 일등 죽음이었고 돌에 찌누를 당하고 칼에 찔리우고 도려냄을 당한 죽음이 그 일마나 많았다고, 맑게 개인 가을날, 청년동지들의 손에 상여는 나가게 되었다. 작은 집들에서 영결식을 하면서 이성을 잃은 나의 귀에 목사님의 기도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의 찬송은 나의 울음을 멈추게 하였다. 그렇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운데 존재하는 내 생명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남았구나 하는 희망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 내 생명 다하도록 나에게 는 사명이 있고 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굳어지기도 전에 1. 4 후퇴라는 막다른 길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다달았다. 등에 없고 손에 이

끌고 강원도에서 부산을 향하여 걸어서 떠났다. 눈보라치는 동해안 구비구비 길을 등에서 우는 아이 옆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굶주리고 해매던 그 많은 날들은 상기하고 싶지도 않다. 남부여대란 말도 있거니와 어려운 피난길이라도 아빠가 같이 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트럭을 타고 가는 피난민! 우차에 짐을 싣고 가는 이들이 그지없이 부럽기조차 하였다. 어둡고 피를 면 피난, 남하의 긴 생활이 지나서 1951년 봄에야 부산에 도착하였다. 추운 겨울 다섯식구가 오들오들 떨던 일, 땀겨리 나부를 구하려 해매던 일, 배고파 굶주리던 날들, 젊은 여인이기에 당하기 어려웠던 슬픈 가정가사의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들려주어야 마음이 시원할까?

그러나 날이 가고... 설음보다는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나로 하여금 일거리를 찾게 하였고 보이지 않은 힘에 의지하게끔 만들었다. 교회를 찾아 기도로서 호소하고 동창생들을 만나 기도와 위로를 받게 되면서 내 생활은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다.

배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 혼자 어린 내 아이를 기르려면 남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온사의 앞선으로 일하게 된 나는 직장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일하였다.

피난생활에서 중학교 입학기를 당한 딸에게 우연히 도움의 길이 열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과 감사는 형언하기조차 어려웠다. 1주기를 당하던 난 선배 어른들께서 「선여위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일을 그가 다 못할 일까지도 시키시려고 생명을 주셨으니 길은 위로 가운데 살아라.」하실 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죽고 그가 살아 내일까지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을 하고 생각도 하였다. 하나님의 길은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알기에는 너무도 친한 우리 인간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만이 나의 할 일인 줄 알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

이제 16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오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아가 맡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도 미중이고 장남은 어느덧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재학중이고 아래 두아이도 대학,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닌가? 흔히 남들은 혼자서 장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매일을 하나님은 종속에 기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되리라고 믿는다. 미국에 있는 딸로부터 「어머니 일찌기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식어지는 날 저는 엄마의 딸이 아닐 것입니다.」나는 감사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

수 많은 이 나라의 유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길은 위로와 사랑을 느낀다면 그들의 생활은 보람있고 즐거우며 소망에 넘치리라 생각한다. 내일을 예측 못하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 부종하고 그의 뜻에 순응할 때 내 마음은 편하고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어미로서 나에게서는 할 일이 허다하다. 소망 속에 살

기에 내일이 있기에 즐거움으로 기다려진다. 6.25는 금년도, 내년도 돌아올 것이나 조국통일의 과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과 민 그리고 너와 내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분투해야 할 줄 안다.

1년에 한번조차도 가볼 수 없는 곳에 그는 묻혀 있기에 나는 동작동 무명용사의 묘를 가끔 찾는다.

금년은 형편상 서울을 멀리 떠난 곳에 있기에 조용히 집에 서 이날을 맞이하려고 한다. 영령 앞에 머릿수이며.....

공군 불이

◇.....Air Defense Area(防空區域) -

(1) (海外) 防空을 計劃하고 準備해야 할 것으로 特別히 規定한 空間.

(2) 國內防空緊急事態 突發時에 國家安全을 爲하여 航空機의 敏速한 統制가 要求되는 一定 空間으로서 當局에 依하여 指定된 空間.

◇.....Air Defense Direction Center(防空管制所) -

指定된 責任分界內의 割當된 防空武器의 運用, 對空監視 및 邀撃統制를 實施한 能力을 具備한 施設.

◇.....Air Defense Early Warning(防空早期警報) -

敵의 空中武器나 또는 武器運搬體의 近接을 早期에 電子方法 또는 肉眼으로 認知하여 通報하는 것.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防空識別區域) -

航空機에 對한 敏速한 識別, 位置確定 및 統制를 要하는 明確한 限界를 가진 空中區域.



한국군 5호 작전 중의 兵

越南戰線 異常 없다 !

나의 「베트남戰線」從軍手帖

玄 英 鎭

△中央日報社 記者▽

나는 지난 해 12월 13일 越南 「사이공」의 「탄·산·누트」 공항에 到着하여 금년 3월 27日 같은 곳을 出發하기까지 三個月餘를 從軍記者로서 取材活動을 했었다. 물론 韓國軍의 활동을 주로 취재 보도하는 것이 나의 임무, — 그동안 내 눈에 비친 월남의 이모저모를 紹介해 보련다.

12月 13日 午後 3時半 「탄·산·누트」 국제공항에 내리자 入國手續을 밟으려는 乘客 一行은 우선 입국관리세관에 줄을 지어섰다. 그러나 세관원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한 줄로 늘어선 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무더운 空港建物에서 기다리기 30분—어디선지 세관원이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승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여권에 입국승인 도장을 광광, 무표정하게 찍어대는 것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를 포함한 모든 外國人이 갖은 辱說을 퍼 부은 것은 물론이다.

「탄·산·누트」공항을 나서서 韓國大使館까지 가려고 전용택시(사이공공항까지는 일반 영업용 택시의 출입이 금지되

어 있다)를 부르니 택시요금이 3百「피아스타」(달라당 월남의 암시세는 보통 1百60「피아스타」내외)라고 하여 그대로 지불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2百「피아스타」면 충분했다.

越南의 첫 印象이 이토록 나쁘다 보니 도착해서부터 故國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흔히 월남은 악어가 들끓고 毒蟲이 득실대는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가 다녀본 곳에서는 악어의 발자

욱하나 구경할 수 없었고 나쁜 벌레도 상상했던 것만큼 많지를 았았다. 월남의 韓國軍을 慰問하고 온 女流詩人 M 女史의 詩에도 「악어가 운운」하는 句節이 있던 것을 기억하는 나는 그 詩를 보았을 때의不快感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 물론 문학인이라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러한 무책임한 글이 國民들에게 전해주는 惡影響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월남인들은 韓國人이면 누구나 태권도를 하는 줄로 안다. 그만큼 韓國軍의 태권도 시범은 越南人의 눈을 끌었고 心理戰에서도 상당한 效果를 거두었다. 사실상 韓國軍의 90「퍼센트」는 태권도의 기초동작 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남인들의 눈에 한국인이 무섭게 보이는 것도 사실, 「베트콩」들도 韓國軍의 實力을 무시하여 포로의 입을 통해 들은 말에 의하면 韓國軍과는 절대로 가까이에서 싸우지 말라는 指示를 받고 있다고 한다. 두꺼운 널판이나 벽돌 기왓장등을 머리나 손발로 깨트리는데 월남인들에게는 상당히 「아찔」했던 모양. 지금 월남은 「태권도」 「불」이

한창. 명칭도 태권도일뿐 아니라 구령도 「차렷」, 「쉬엷」에서 시작하여 모두 우리말로 하고 있다. 「사이공」에 있는 어느 태권도장을 가보았더니 修習生이 약 백명인데 그 중에는 10여세부터 커다란 아가씨까지 여자도 약 30명 있어 놀라웠다.

월남은 亞熱帶에 속하고 있는 땅인 관계로 상당히 덥다. 「사이공」은 보통 화씨 百度까지 오른다. 韓國軍이 주둔하고 있는 「취는」(병호) 「투이·호아」(청룡) 「캄란」(청룡)은 모두가 중부월남의 해안지방이고로 못견딜만큼 무덥지는 않다. 더우기 밤에는 상당히 선선해서 좋다. 하지만 軍服을 입고 太陽 直射光線 밑에서 있으면 삼시잔에 옷이 땀에 젖어버리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와 같은 외국인이 월남에서 지내노라면 3個月까지가 제일 괴롭다고 한다. 3개월만 지나면 어느정도 기후에 적응이 되어 괜찮게 되기는 하나 1년 이상 지내려하는 또 다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월남여자들을 외관상 보기에는 상당히 예쁘다. 육체가 조그마한 여자들을 보노

라면 淸風細柳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알고 보면 肉體가 너무 貧弱하다. 유방은 대부분이 만들어 붙인 것이 고 허벅다리야 살찐 사람 팔루정도. 거기다가 견디지 못할 것은 월남인 특유의 야릇한 體臭——무엇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하여간 월남사람 서녘이 모여 있으면 코를 비켜야 할 지경.

월남이 위험한 곳이 아니냐는 質問을 받고는 한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언제나 가보지 않은 사람이 상상하는 정도로 危險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베트콩」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스나이핑」——그렇지만 「스나이핑」도 自身들의 생명에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택하지 아무 곳에서나 저격하지는 않는다.地雷를 묻는 것도 民間人에게는 위험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주 다니는 길만을 택하면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사이공」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테러」分子에 의한 爆發事故는 주로 美軍을 相對로 하고 있다. 이 사고에 엉뚱하게도

市民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의 목적은 美軍만을 해치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테러」가 자행되는 가장 큰 목표의 하나는 심리적인 효과와 노리는 것이다. 대개 폭파사고는 두 달 반 만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베트콩」分子들의 意圖를 짐작할 수 있다.

월남의 佛敎勢力은 상상했던 이상으로 강력하다. 불교의 僧侶가 이 정권은 틀려먹었다고 한 마디만 해놓으면 그 정권은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월남의 현실. 따라서 월남의 불교는 사실상의 越南政府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1千4百萬人口(정확한 인구수는 월남 정부 자체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의 85퍼센트가 佛敎徒라고 豪言壯談하는 불교의 세력은 월남정국의 안정을 위해 과히 좋은 세력은 안 되는 듯하다. 政權을 잡은 爲政者는 먼저 佛敎道와 그들 指導者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월남사람들을 排他的이라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排他的이다. 내가 만난 어느 國民學校敎師는 「우리는 1千year이나 中國의 勢力아래 눌려 살아왔고 佛蘭西에서 80餘年을 植民地生活에 억매였으며 이제는 20년이나 戰爭에서 달리고 있다」라고 弱少民族의 悲哀를 털어놓은 일 이 있다. 항상 자기들보다 강한 민족에게 억눌려 지내왔기 때문에 性質이 모두 안으로 꼬부라져서 排他的이 된 것 같다. 美軍이나 韓國軍이 「베트콩」의 捕虜를 잡으면 이는 반드시 越南軍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비록 「베트콩」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外國軍이 捕虜를 毆打하는 것을 보면 몹시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自身들은 慘酷한 정도로 捕虜를拷問한다. 電氣拷問은 例事요 손톱 밑에 대 꼬챙이를 끼어 넣는 등 捕虜에게서 情報를 얻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한다.

월남인들의 反共意識은 놀라울 정도로 희박하다. 「베트콩」들의 수법이 교묘하여 民間人에게 나쁜 감정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월남인들은 共產主義가 무엇일지 모르는지 잘 모른다. 韓國에서는 極惡無道한 것을 자행한 共產

黨이 월남에서는 民間人에게 아첨하는 듯한 手法을 쓰는 것을 보면 그들의 奸惡한 피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알려줌으로써 월남을 自由陣營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할 義務가 있다. 自由主義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지라는 것을 월남처럼 實感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월남군의 戰鬪能力이란 형편없는 정도다. 「두이·호아」에서 韓國靑龍部隊가 戰鬪할 때 협력한다고 들어온, 월남의 최강이라는 空戰團은 韓國海兵隊가 占領하고 들어간 마을을 뒤쫓아 들어가 닭과 돼지를 쏘아잡는 데 열심이었다. 軍糧米를現地 調達한다는 事情도 있겠으나 이러한 戰鬪方式으로 民心을 끌어모으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엉터리가 陸軍뿐인 줄 알았더니 越南空軍도 마찬가지다. 爆彈을 요청하여 날아온 두 대의 越南戰鬪機들은 「장글」속 엉뚱한 곳에 爆彈을 투하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목표는 천연 동굴이긴 지점이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韓國軍은 명실공히 世界最強의 軍隊이다.



◇...莫強한 美空軍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美空軍大學은 어떻게 운영되며...◇
 ◇...教育하고 있는가? 66년도 A CSC의 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몇...◇
 ◇...분과 우리 공군대학 CSC 관계자를 모시고 좌담으로 들어보기로...◇
 ◇...한다. 단순히 남의 제도만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반성...◇
 ◇...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삼으려는 것이다.....◇

美空軍大學 CSC 教育을 말한다

● 때 : 1966년 3월 22일
 ● 곳 : 공대 부총장실



座 談 會

◇ 참석자

김 제 성 대령

(前空大敎務部長 現行政監)

정 해 영 대령

(空大 CSC 과장)

조 세 환 중령

(空大 CSC 교관, 64년 渡美)

김 동 진 중령

(空大 CSC 교관, 65년 渡美)

김 상 직 중령

(企劃局 運營課, 65년 渡美)

司會 李 三 悅 中尉

(空大政訓官室長)

사회 Ⅱ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미공군대학을 다녀 오신 여러분을 모신 것은 우리 장병들에게 미공군대학을 소개하고 우리 공군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참고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미공군대학의 위치를.....?

김동진 = 「엘라배마」주의 「루고베리」시
에 속한 「텍스텔」공관지지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부대가 공군대학이요 몇 개
의 지원부대들이 있습니다.

사회 = 영구로 Air University 인데
그럼 평실공의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것.

김상직 = 여러개가 있습니다. Squad-
ron Officers School, Special Warfare
School, Command and Staff College,
ROTC School, Academic Instructors
School 등이 있습니다.

김동진 = CSC 학생만 약 6000명.
고, SOS(이곳 SOOC 과정과 같은)에
는 1,000명이며, SWS에는 필요할
때만 학생이 있습니다.

사회 = 피교육자들의 계급은 어떤합니
까?

김동진 = CSC는 소령, 고참대위들이
며 임관 후 약 9년~13년 부무한 자들
입니다. 그리고 SOS는 임관 후 7년
정도 부무한 중위, 대위들이 피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직 =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피

교육자들의 계급이 일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CSC에 중
령, 대령들이 피교육자였으나 요즘은 보
다 오래 부무할 수 있는 젊은 장교를 교
육시키자는 방침에 따라 피교육자의 계급
을 낮추고 평균 연령도 30세前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 가장 계급이 높은 피교육자를
가진 Warfare School이 이제 대령중사 중
령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사회 = 다음으로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
까?

김동진 = 미국 장교의 전과정은 41주인
데 외국 장교들은 8주의 영어교육과 16
주의 CSC 과정, 합해서 24주로 CSC
교육의 약 60% 정도만 참석하는 셈입니
다.

정해영 = 육군대학 파견자들은 美陸大
에서 전과정을 다 밟는데 우리는 그런 코
오스가 없습니까? 비밀 교육과정이야 물
론 빠지겠지만.

조세환 = 언제부터지는 모르나 공군대
학에는 없습니다.

김상직 = 교육과정을 보면 ① 군사기본

지식 ① 군사관리 ③ 군사정세 ④ 군사운
영 등 4부로 되어 있는데, 1, 2부는
미국인, 외국인 모두 함께 들었으나 3부
부터는 비밀로 되어 많이 빠지고, 4부는
전부 빠지도록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
게 필요한 비밀은 4부에 들어 있지만 여
기에는 군사비밀, 적국의 정세, 조사원조
등의 내용이 있어 외국인들에게는 알리기
곤란한 모양입니다.

김동진 = 우리가 있는 동안에도 일부
비밀과목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외국장교
들이 Field Trip 계획을 세워 따로 보내
곤 했습니다.

사회 = 그런데 비해 우리 공군대학의
커리큘럼은 어떻습니까?

정해영 = 기본구조는 같다고 봅니다.
최근의 개편된 내용은 우리 나름의 경향
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편도 있으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사회 = 우리 나름의 특색이 있다면?

정해영 = 작임새면에서 개념적이고 이
론적면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파목
별로 단위를 아주 낮추다가 보니, 가령
관리만 하더라도 인사관리, 조직관리도

인사관리의 세부내용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좀 개념적인 교과과정의 경향이 있음니다. 따라서 과목(Objectives)이 좀 많아 집니다. 앞으로는 실무자급들에 도움을 많이 주려면 필요한 부분만 농축해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제성 Ⅱ 미국은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 공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방대한 임무가 있으므로, 임무에 따라 CSC의 커리큘럼도 우리와는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공권 확보와 근접지원에 국한된 전술공군이므로 이점에 있어서 교과과정에 대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조세환 Ⅱ 임무도 그렇지만 운영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산기를 사용하는 등 과학화되고 통제화되어 있어서 이런 과목들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큼니다.

사회 Ⅱ 그럼 통제학 이론같은 일반학과 목도 가르칩니까?

조세환 Ⅱ 실지 제산하고 통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정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해영 Ⅱ 지휘관 참모로서의 품성도야

가 물론 교육목표였지만, 군대교육에서의 특징같은 것은 별로 안 느꼈습니까? 피교육자들은 이미 상당한 계급에 올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군사회의 관리자인 지휘관을 양성한다는 것은 일반관리자와는 좀 다를텐데요. 저도력(리더십)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지휘관이 일반관리자나 같겠지만 일반 관리자가 합리적 요소만을 지닌데 비해 지휘관은 합리적, 비합리적 요소를 둘 다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조세환 Ⅱ 관리자와 지휘관의 구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에 보면 지휘관이 더 고차적인 개념이라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제성 Ⅱ 지휘관의 품성도야라고 할 때는 관리자의 품성에서 파진 것이 아니라, 이를 전부 포괄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정해영 Ⅱ 가령 민간기업체의 관리자는 합리적이면 되지만, 지휘관은 좀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포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용병같은 것은 물론 합리성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김동진 Ⅱ 지휘관이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먹구구식의 비합리성을 버려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김제성 Ⅱ 지휘관과 관리자를 볼 때 지휘관 속에 관리자가 포함되는 것이지, 관리자에 속해 지휘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삼직 Ⅱ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수한 지휘관은 우수한 관리자가 되지만, 우수한 관리자가 반드시 우수한 지휘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세환 Ⅱ 앞으로 영웅은 없다고 합니다. 영웅이 있다면 우수한 관리자일 것입니다.

사회 Ⅱ 그럼 다음엔 교육방법에 관해서 좀 더기로 하겠습니까.

김동진 Ⅱ 교육시설 교재지원이 너무 있고 풍부합니다. 예를들어 지도같은 것도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환 Ⅱ 교육방법은 지금 우리 자원관리 교육식으로 전부 개발식 교육이며 수입식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정해영 Ⅱ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도 강의 1/2, 세미나 1/2의 비율로 되었는데 세미나식 방법이 적지 않은 비중은 찾아합니다.

그러나 제발식 세미나가 원활히 움직이려
면 더 많은 교관, 풍부한 재료, 학생의
적극적 참여라는 구미여전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삼직 ॥ 과장장님 말씀과 같이, 커리
큘럼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식의 문제
입니다. 우리 공군대학에서는 세미나·리
더가 지도하는 것이 10% 정도밖에 안 됩
니다.

김제섭 ॥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들은 민주적 생활훈련이 되어 있고, 자발
적 참여의식도 강해서 감독자가 없이도
참여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성이나 민주생활의 역
사로 볼 때 담당 그런 제발식 교육이 성
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츰 나아지고 있으니 거기에 기대를 걸
어야죠.

사회 ॥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만 제도의 문제보다도 생활습관, 사고방
식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럼 미공군대
학의 교수진은 어떠한가? 민간인 교수
도 많은가요?

김동진 ॥ 거의 대부분이 민간대학의 저

명한 교수들이 옵니다.

김삼직 ॥ 민간인 강사지만 강의할 때
전문용어를 쓰는 걸 보면 전부 정확한 군
사용어입니다. 우리네 민간 교수들은 군
교육을 하려 와서 제급도 잘 모르는 사람
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환 ॥ 민간대학 교수들은 혹 수천마
일 밖에서 오는 저명한 교수들일 경우가
 많으므로 강의가 끝나면 꼭 1시간씩 질
문시간이 있습니다.

사회 ॥ 학생장교들의 학습태도나 연구
열은 어떠한가?

조세환 ॥ 피교육자로 선발되어 온 자들
이 우수한 자들이지만, 차기 진급대상자
가 성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사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
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해
서 교육장면을 참관시키며 계몽운동을 하
고 있지요. 250 여개의 세미나·룸에는
전부 텔레비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특히
저명한 교수들이 왔을 때는 가족들이 텔
레비전으로 함께 감의를 받습니다.

사회 ॥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김동진 ॥ 28개국에서 52명이 왔습니

다.

조세환 ॥ 64년도에는 27개국에서 48명이
었습니다.

김삼직 ॥ 재미난 것은 교육중 「사이프
러스」문제가 나왔는데 「터어키」와 「회람」
장교들이 열을 내어 다투고는 한 달쯤 만
을 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 ॥ 교육중 비행훈련은?

김동진 ॥ 네, 각종 비행기가 있어 자
윅(Wing) 별로 비행시간이 체육시간과
함께 할당되어 있습니다. 독서시간같은
것은 아주 정확히 책정되어 있는데 1 페
이지에 3 분 걸린다는 계산으로 50 분에
15 페이지라는 정도로 정확히 책정되어 있
습니다.

조세환 ॥ 교육중에 민간대학의 석사학
위과정을 밟는 자들이 많이 있는 데 이들
은 거의 밤새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회 ॥ 끝으로 특히 인상적인 것이 있
었다면?

조세환 ॥ 후진국에서 온 중령, 대령들은
구태다가 한 번 나면 대통령도 되고 장관
도 된다고 하면서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
에 뭐라고 특히 강조를 하더군요. 군사적

면에서보다 미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외교적 면에 외국 장교를 초청한 의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직 Ⅱ 사회활동이 많은 것이 부러웠습니다. 여기에 세련된 장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제반식 공부 방법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같은 집어치워라 할 애기도, 그들은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Ⅱ 우리 대학에서 앞으로 이런 제발식 방법을 더욱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해영 Ⅱ 네, 우선 도미한 교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제성 Ⅱ 나는 아직 미국공대를 가보지 못했지만, 여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들이 종전장부의 양성을 위해 바치는 정열과 지원에 대해 우리는 너무 빈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국방력 강화에는 그 나라 지휘관, 참모

대학이 발전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를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풀이〉

◇ 하트·퍼수트

Hot Pursuit (진급 추격) — 접근이 제한된 영토나 지역에까지 적기를 추격하여 들어가는 것. 한국전쟁 당시에는 만주를 「성역」으로 인정하여 중공의 「미그」의 도전에도 압박장을 넘어 추격하지는 않았다.

월남전쟁에서는 「하노이」와 「하이퐁」지역이 공식으로는 「성역」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구밀집지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군의 접근을 금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맹의 「미그」기들이 미군기에 대해 도발적인 공격을 해오자 미국은 「하노이」 및 「하이퐁」은 물론, 중공본토에까지라도 적기를 추격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한다.

사회 Ⅱ 벌써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通貨安定證券

中央銀行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流動性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통화가치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證券이다.

예금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은貸出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通貨量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이때 安定證券을 팔아서 貸出로 풀어나갈 재원을 흡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부족하여 資金需要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保有하고 있는 安定證券을 한국은행이 사들여 묶어있던 재원을 풀어주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支準 및 再割政策만을 主軸으로 한 金融間接統制方式이 限界點에 다다르자 30억원을 發行限度로 하여 通貨安定證券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난 18日 10억원을 발행, 第1次 賣渡操作을 단행한바 있다.

「도스토예프스끼」篇

朴 昌 烈

1. 幼年時代

「표도르·도스토예프스끼」는 1821年 10月 30日 「모스크바」의 聖 「마리아」病院 外科醫師의 次男으로 태어났다.

醫師의 아들로서 그는 貴族의인 自負心이 강하여 後에 刑의 宣告를 받고 貴族의 자리를 빼기자 도로 貴族의 자리를 찾고자 힘있는 친구를 찾아다니며 무척 애를 쓴 적도 있다. 「러시아」의 貴族이란 西歐諸國의 貴族과는 달라서 정부의 관리로서 어떤 적당한 지위에 오르면 귀족이 될 수 있었고, 농부나 장사치와 구별하고 스스로 신사라고 자처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다.

실지에 있어서 「도스토예프스끼」一家는 지식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계층에 속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였고 7명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어린 때부터 고난과 불행에 익숙해져서 인생의 여러가지 責務를 다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도스토예프스끼」가 16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형 「미카엘」과 함께 陸軍工兵學校에 갔으나 「미카엘」은 나제되고 「도스토예프스끼」만이 입학했다. 그러나 그의 학교생활은 외롭고 불행하였다. 단조로운 훈련에 실증이 난 그는 小說과 詩에서 재미를 찾았

고 틈틈이 「발자크」의 「우제니·그란데」를 번역하였다. 「표도르」가 18세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醫業을 그만두고 시골에 은퇴해 있었는데 워낙 잔인하고 잔혹했던지라 農奴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다. 그는 제법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工兵學校를 마치고 國防省 工兵局에 부임하였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자기의 봉급도 있고 해서 그의 수입은 적잖았지만 막장에 몰두하는 낭비벽 때문에 1년 후 사직하고 보니 빚투성이었다. 결국 그는 晩年에 이르기까지 빚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구할 수 없는 浪費客이었고 또 이 낭비로 해서 스스로 절망에 빠지면서 도한 번도 自縊한 일은 없었다.

「도스토예프스끼」는 아직 공병학교 재학중에 소설을 한 가지 쓰기 시작했는데 작가로서 생계를 유지하기로 결심한 이때에야 완결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1846년에 發表한 處女作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作品으로 인하여 그는 作家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곧 당시의 유력한 비평가 「벨린스

기」로부터 새로운 「고오폴리」가 나타났다. 절찬을 받으면서 일약 文壇의 화려한 총아로 자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2. 作品 및 作家生活

作品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높은書記「마카알」과 불행한 처녀「발라라」사이에서 주고 받는 淸純한 愛情의 전제로 構成되어 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박받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발라라」를 보호하기에는 「마카알」은 너무도 가난하다. 그러기에 때로는 그는 자포자기에도 빠지고 술도 마신다. 그러면서도 「마카알」은 위엄과 善良한 마음씨만은 끝내 잃지 않고 「발라라」에게까지도 自己의 가난을 되도록 숨기려 한다. 끝내 「발라라」는 가난과 불행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느 傲慢한 地主와 결혼하고 「마카알」은 또다시 고독 속에 홀로 남게 된다.

이 作品은 傑作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고독한 人間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

어가서 秘密를 캐어내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날카로운 눈과 人類에 대한 깊은 모를 정도로 한없이 큰 사랑은 이 이미 作品에서도 엿보여지고 있다.

同年末에 그는 第2作 ▲二重人格▼을發表하였으나 이것은 「벨린스키」를 失望케 하였다. 이후 3년동안에 「도스토예프스키」는 約 12편의 短篇들을 썼다.

이 初期 作品들에는 「고오폴리」의 영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나 이와 아울러서 그의 위대한 나중 作品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은 이미 이때부터 엿보이고 있다. 곧 그의 특이한 劇的인 手法, 조소와 모욕을 받아가며 살아나는 善良한 그러나 不幸한 小市民들에 대한 깊은 同情, 그리고 異常한 病的인 心理에 대한 유다른 關心, 人道主義的인 悲壯한 「유모어」와 象徵的인 手法들은 이때부터 싹트고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수줍고 고독한 非社交的인, 그리고 항상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그의 수줍어하는 태도도 없어지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간의 論爭에도 끼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때다가 성마가 신경질적이어서 自制하지 못하고 자기가 天才的인 作家라는 自負心을 지나치게 내세우곤 했다. 그러나 그의 人道主義的인 自由에의 憧憬은 必然的으로 「페트라셀스키」會라는 社會的, 政治的 改革의 研究討論을 目的으로 하는 젊은 이들의 秘密結社에 接近하게 하였다.

이 온전한 단계도 「니콜라이」 1世의 反動政府의 탄압을 받아 1849年 4月 「도스토예프스키」를 포함한 多數의 會員들이 구속되어 死刑宣告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황제의 잔인스러운 장난이었고 執行場에서 이들은 모두 「시베리아」 流刑이라는 特赦令을 받았다.

이리하여 그는 1849年 「크리스마스」의 前日 貴族의 특권을 박탈당하고 囚徒에 屬인 채 「시베리아」로 끌려가 54年 2월까지 4年間을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게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1861년에 發表한 ▲죽음의 집의 記錄▼은 일찌기 「레오·톨스토이」가 그의 作品中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긴 作品이 되

이것은 바로 그가 「시베리아」에서 겪은 피어린 체험의 예술적 結晶이다. 同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고독과 육체의 고통으로 엮어진 4年間の 流刑生活은 그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끝까지 그를 괴롭히던 잔질병도 이 동안에 더욱 악화된 것이었다. 한편 과격한 사상은 사라지고 그대신 神과 人間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이몰렸다. 그리고 그의 唯一의 愛讀書였던 新約聖書는 고통에 의한 救濟라는 그의 특색한 사상을 일깨워주었고 流刑地에서 罪囚들과 함께 지낸 生活은 그로 하여금 누더기를 걸친 농민 속에도 고결한 정신이 숨어있음을 깨닫게 하고 「러시아」의 위대한 장래는 이들 가난한 民衆에게 달려있다고 확신하게 하였던 것이다.

「도스또예프스키」는 1854년에 流刑生活을 마쳤다. 그러나 계속해서 59年 3월까지 二等兵으로 兵役生活을 해야만 했다. 「시베리아」의 一寒村에 주둔하게 된 그는 同地에서 未亡人 「마리아·이사에바」와 결혼하였다.

1859년에 特赦令으로 겨우 자유의 몸이 된 그는 11年만에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文學으로 生計를 꾸미기 시작한 그는 저금까지의 作風과는 전혀 다른 시골 마을에 대한 경쾌하고도 풍자적인 中篇小說 《아저씨의 꿈》(1859年), 初期의 作風을 따른 強烈한 인상파의 그림파도 같은 《스테판치코프村》(1859年), 《죽음의 집의 記錄》(1861年) 등을發表하였다. 특히 《스테판치코프村》의 主人公 「포마·오피스킨」은 그 후 「러시아」文學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그리고 또 가장 힘있게 있는 성격의 하나가 되었다. 長篇 《모욕받은 者와 상처입은 者》도 1861年 잡지에 연재되어 나왔다. 이리하여 그는 또다시 重要な 作家로서 文壇의 翹단에 나서기 始作하였다. 《모욕받은 者와 상처입은 者》는 「大都會의 어둠

침침한 뒷골목에서 어리석은 生活의 沸騰이나 情慾 利己主義나 利害衝突이나 늘날맞은 음탕이나 秘密의 犯罪 등의 모든 無意味하고 病的인 生活의 地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상한 음침한 애기를 「디킨즈」의인 「센티멘틀」한 要素를 섞어가며 그런 것으로 苦痛, 哀痛, 不幸을 主題로 하여 엮어진 은은한 사랑의 교향곡이다. 「도스또예프스키」 자신은 이 作品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학대받으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어두운 心理를 무한히 동정해가며 날카롭게 分析해낸 것이 이 作品이다.

한편 그는 1861년에 自己의 兄과 함께 雜誌 《時代》를 創刊하였는데 이것은 當時 과격 保守思想의 양극단 사이를 조심스럽게 몸가짐한 그의 기민한 편집방침으로 해서 즉시 큰 成功을 거두었다. 이때의 그의 포부는 확대받고 있는 農民의 비참한 生活을 改善하고 이들을 啓蒙하고 上流社會와 民衆과를 接近시키고 「슬라브」民族을 하느님과 함께 있는 人類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1865년에 그는 처음으로 「러먼」으로 外遊하였다. 그러나 수개월 후에 그가 귀국하자 同雜誌는 絶열에 걸려 停刊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큰 負債를 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家庭의인 不和로 그는 나이 어린 文學少女「폴리나·스스로바」라는 경박한 미모의 여성과 열렬한 사랑을 하는 한편 賭博에 미쳐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다. 「케테르브르크」로 돌아온 그는 1864년에 새로운雜誌 八世紀V를 발간하였으나 이것은 처음부터 難航이었고 얼마가 지 못하고廢刊되었다. 이 동안의 그의 유일한 수작은 그가 同誌에 연재한 地下生活者의 手記로서 이것은 그가 그 후에 쓴 다섯 개의 名作을 위한 一種의 序章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기에 「앙드레·지이드」도 이 作品이 「도스토예프스키」의 作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또한 이것은 그가 初期의 人道主義的인 理想主義에 대한 어딘지 애매 信奉者로부터 悲劇의인 創造者로 성숙되어간 그의 文學的 전환을 劃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해(1864年)에 그의 夫人과兄이 죽었다. 그는 막대한 負債를 갚기 爲하여 縮박한 정도의 집필생활

에 몰두하였다. 이리하여 나온 것이 1866년의 罪와罰이었고 그 다음 해의 賭博者였다. 賭博者는 그가 外遊中 賭博生活에 젖어있던 때의 狂의 心理를 作品化시킨 것이요 罪와罰에서 처음으로 人間의 深層 心理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一種의 象徴的「리얼리즘」을 確立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作品을 쓰고 있는 동안 그는 「안나·그리고리예브나」를 速記士로 두고 있었으나 1867년에 둘은 結婚해서 「러시아」를 떠나 外國에서 가난한 생활을 했다. 이 동안에 쓴 作品이 白痴(1868~1869年)와 永遠의 남편(1870年)이다. 그가 귀국한 1871년에는 惡靈을 쓰기 시작하여 그 다음 해에 完成시켰다.

그는 1873년부터 74년까지 1週刊誌의 편집을 맡아보는 한편 同誌에 作家의 日記를 연재하여 好評을 받았다. 永遠한 남편은 「앙드레·지이드」가 「도스토예프스키」의 絶作 중의 하나로 손꼽을 만큼 아내를 빼앗긴 男便의 心理와 永遠히 구제받지 못하는

放浪者의 一生을 精緻한 筆致로 그려낸 作品이다. 1875년에 發表한 未成年은 靈肉의 相契으로 번역하는 「벨시이로프」를 主人公으로 하여 超人主義者와 같은 私生兒「돌골키」, 永遠의 女性「소피아」, 聖人「조시마」의 前身이라고도 할 「아칸·이바노비치」 등의 人物을 그려나가면서 基督敎的인 사랑의 宗教에 到達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群像을 다룬 것이다. 이것은 또 渾沌과 회회의 時代에서부터 하나의 빛과 肯定의 姿勢를 찾아내려 한 作品이기도 하였다. 10年 동안 두고 構想해 오던 卡拉마조프의 兄弟의 第1部는 1880년에 完成시켰다. 여기에 온 精力을 다 소모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러나 그가 당초에 예정했던 13年後의 「아료소자」를 主人公으로 하는 第2部는 끝내 作品化시키지 못하였다. 이 卡拉마조프의 兄弟는 그가 一生 동안 意識의 으로 또는 無意識의 으로 고생하여 오면 것, 神의 存在라는 問題를 둘러싼 그의 遍歷의 思想의 總結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3年後의 「아료

오샤·카라마조프」를主人公으로 하는第2篇을 집필치 못한 채第1部 完成의 3個月後에 作者가 逝去하였기 때문에영원히 作品化되지 못하고 말았다.

『카라마조프의 兄弟』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친제다운 최후를 장식하기에 알맞은만큼 웅장한 全人類의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 人間의 어두운 獸性과 참혹한 인생의 고뇌를 두려움없이 응시하여, 神과 永遠한 것과 사랑에의 진을 찬연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의 作品이 한

결같이 추구한 主題는 人間의 自由, 神의 存在, 世界秩序와 같은 것이었고, 이들을 통하여 그가 보여주려 한 「메시저」는 絶望과 神性에의 동경이었고 모든 사람의 가슴깊이 숨어있는 사랑과 善을 깨어냄으로써 보다 純化된 世界를 이룩하겠다는 드높은 人類愛였다.

晩年の 「도스토예프스키」는 家庭의으로나 財政의으로나 安定되어 있었고 그의 명은 1880年 「루슈킨」 기념비 제막식에서 그가 연설을한 때 그 절정에 오르고 있었다. 1881年 1月 28日 밤 一生을 두고 人間의 根源의인 문

제를 추구하고 人類의 고뇌를 예술化시킨 「도스토예프스키」는 온 「러시아」의

〈軍事用語辭典〉

◇...Air Lift(1, 空輸量, 2, 空輸, 3, 空輸機) -

1, 空中 輸送되거나 輸送될 수 있는 人員과 貨物의 總重量. 2, 人員과 貨物을 航空機로 輸送하는 것. 3, 人員과 貨物을 空中으로 輸送하는 空輸機.

◇...Air Mission Intelligence Report(空中基本任務情報報告) -

飛行任務結果의 詳細한 報告, 基本任務의 完全한 情報評價가 包含된다.

◇...Air Mobile Operations(空中機動作戰) -

戰鬪部隊와 그 裝備가 地上戰鬪에 參加하기 爲하여 地上部隊 司令官의 指揮下에 戰場 內에서 航空手段에 依하여 移動되는 作戰.

哀悼을 받으며 31歲를 1期로 死去하였다.

◇...Air Movement(空中移動) -

空中投下 및 空輸着陸을 包含한 部隊, 兵員, 補給物 및 裝備의 航空輸送, 戰術의 및 行政의 移動도 包含된다.

◇...Air Movement Column(空中移動縱隊)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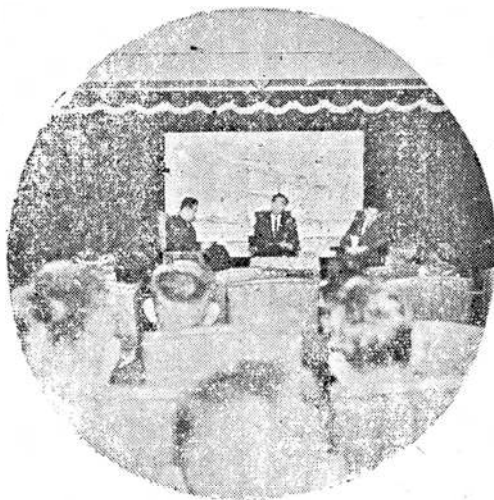
空輸作戰에 있어서 先導編隊와 그 뒤를 따라서 同一航路를 同一高度로 飛行하는 梯隊.

◇...Air Observer(空中觀測士) -

砲火의 射擊修正 또는 軍事의 諜報資料의 獲得을 爲하여 航空機로부터 觀測하거나 寫眞攝影을 主任務로 하는 人員.

◇...Air Superiority(空中優勢) -

他軍에 對한 空中戰에서의 優勢度.



韓國倫理의

基調確立

현금의 세계는 18세기말 독일사회의 人生觀이나 사상면에 있어서 激浪을 極했던 疾風과 怒濤(Strum und Drang)의 운동 以上으로 거칠은 革命的의 물결을 타고 급격히 변화하여 가고 있다. 政治, 經濟, 文化는 물론 이거니와 윤리, 종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傳來的인 安逸한 因襲은 潮水보다 거센 變革의 물결에 시달림을 받아 刻苦의 陣痛을 겪고 있다.

우리는 8·15解放이라는 歡喜와 6·25動亂이라는 激動속에서 지난 날의 思考를 정리할 사이도 없이 西歐의 새로운思潮가 물밀 듯이 들어와 韓國이라는 土着과 新思想이라는 現代의 소용돌이가운데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風浪속에서 混亂(Chaos)을 정돈할 수 있는 方向舵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 倫理의 기본적 개념, 한국윤리의 변천사, 현대 한국의 윤리적 기풍, 확립되어야 할 한국의 윤리 기초, 이의 실현을 위한 方案等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군중강설에서는 사계의 저명한 강사를 모시고 이를 진단하고, 그 처방을 패는 디스커션(Panel

(discussion)한바 있다. 다음 원고는
姜元龍博士(京東教會牧師)와 高範瑞
教授(崇實大學哲學科 教授)를 도시
고 情報局長 李연수准將의 사회로 행
해진 일련의 倫理問題討議會 속기록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倫理란 人間의 存在方式을

물론 것

司 會 Ⅱ 바쁘실텐데 이렇게 우리 空軍
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空
軍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광을 말아 악랄한 적
과 恒在戰場에 있는 軍人이지만 바로 생
命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五里霧中을
방황하는 韓國倫理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
을 가지게 됩니다. 韓國倫理의 基調確立
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간단한 對話의 作
業과 짧은 시간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
만 그에 대한 始作過程을 시도하기 위하
여 韓國倫理問題에 대한 연구가 많은 신
사제의 두 분을 모시고 高見를 듣고자 이

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투작전을 논하는 狀況室이라고 해서
또한 武器를 자기 生命以上으로 존중하는
軍人과의 對話라고 해서 거리점을 가지지
마시고 기탄없이 의견을 실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倫理와 道德이 어떻게 다
른지는 모르겠지만 倫理란 과연 무엇인지

▲ 參席者 姜元龍 博士
高範瑞 教授
▲ 司 會 李連수 准將
〈空本・情報局長〉
記錄 Ⅱ 白 梅

그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
으면 합니다.

高 Ⅱ 倫理는 自然界의 공기와 같다고 할
까요? 어떻게 人間의 存在方式을 묻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人間 個個人의 存
在方式과 한 社會의 存在方式이 소박하게
相互 영향을 미치고 調和한 것. Sile,

habos, 慣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慣習
의 個人的 表現이 바로 道德이요, 社會的
表現이 법인 것입니다. 英國의 功利主義者
들은 倫理를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라고
表現하고, 人間의 個人的인 欲望(Desire)
을 어떠한 體系를 통해서 最大限度로 滿
足(Satisfy)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
습니다. 한 文章이 完全하기 위해서 단어
사이의 關係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
배하는 文法과 같이 倫理란 人間關係가
어떠한 의미를 갖도록 이를 지배하는 근
본원리라고 하였는데 倫理는 一定한 계약
을 받으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라져 가는 家族中心의 倫理觀念

司 會 Ⅱ 倫理가 人間의 存在方式을 묻
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傳來的인 倫理規
範이 三綱五倫이라고 할 수 있는데 近來
의 合理主義의인 思考方式에 비추어 보면
매우 어색하고 非合理的인 요소가 적지
아니합니다. 과연 韓國의 倫理氣風은 어

떠난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姜 Ⅱ 우리나라의 사회를 數千年 동안 지배해 온 전통적인 倫理規範인 三綱五倫을 社會구조의 側面에서 考察해보면 우리의 경제 구조가 農業經濟이었고 이 農業經濟經營의 유일한 단위가 가족이었으므로 모든 生活가 가족 위주로 영위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가족의 집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三綱五倫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生活를 가족의 확고한 존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血緣의, 地緣의인 倫理觀念이 나왔고 이는 또한 上下間의 支配, 順從을 최고의 美德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무한 三綱五倫이 급속히 변모하여 가는 狀況에 부딪쳐서 무너져 간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그 正常的인 面은 社會經濟構造가 농업 위주에서工業 위주로 되어 감에 따라 가족이 파괴되고 血緣의, 地緣의인 倫理觀念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現代사람들이 만나는 곳은 직장이고, 점차로 共同社會(Geweschaft)는 무너져서 利益社會(Gesellschaft)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傳統的인 家族倫理觀念이 파괴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現代文明은 物質文明, 機械文明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文明의 요소들을 자기 固有의 것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非正常的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合理的인 倫理觀念이 緊要

司 會 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倫理氣風이 三綱五倫이라고 하는 儒敎의인 倫理觀에 어마어 數千年을 내려온 미련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러한저는 몰라도 현대의 우리 社會는 어느 정도 非正常的인 眞을 견고 있는 것같읍니다. 이러한 非合理的인 不純物이 여러가지에 산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의 實例를 들어서 현대 한국의 倫理氣風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高 Ⅱ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倫理란人間共同態, 즉 人間關係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해 주는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을 터

어닝·포인트(Turning point)로 하여 倫理觀念上에 획기적인 변혁이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權威(Authority)을 倫理의 基本潮流로 삼아 온 傳統社會는 무너지고 萬人對萬人의 關係를 특징짓우는 市民社會가 도래했읍니다. 그런데 社會의 外廓은 時勢에 맞는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겠으나, 실제적인 行動樣式이나 社會形體에 적합한 새로운 倫理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空白狀態를 이루고 있읍니다. 그것이 오히려 當然之事와 같이 여기는 각종 腐敗와 情實主義 그리고 實質보다는 雜多한 形式에 사로잡히고 있는 冠婚喪祭와 아직도 舊態依然한 愛情關係가 그 실례입니다. 效率(Efficiency)을 主眼目으로 科學的인 經營管理法(Taylor's system)를 사용하는 企業家精神(Business mind)에 의해서 合理的이고 세련되게 처세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姜 Ⅱ 傳統的인 倫理는 옷사람이 아랫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공멸화된 사회에 있어서는 血緣의, 地緣의인 유래보다 사회에서 자기

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각종 기구제도는 바꾸어지고 있으나 머리 속의 倫理觀念은 바꾸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民主社會는 그 구성원 상호간의 平等關係로서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意思疏通(Communication)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價値의 면에서 관찰하여 볼 때 가치기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은 人間으로서 「내가 人間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졌는가?」라는 질문이 「누가 뒷자리에 앉아서 他人을 支配하느냐?」하는 질문에 앞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가치기준이 바뀌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物質의 近代化보다 思考의

近代化가 더 要求

司會 韓國人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떠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高 Ⅱ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倫理觀을 빌릴 필요도 없이 最高의 가치기준은 사람의 人格을 手段으로서가 아

니라 目的의 그 自體로서 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英語에서와 같이 假定法(Subjunctive Mood)이 없습니다. 이를 비추어보아 우리는 來日이 없는 民族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民族에게는 고도의 도덕적 自律性 訓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姜 Ⅱ 우리는 보통 최고의 것을 과거에서 찾는 습성이 있듯이 우리 民族은 과거에 대한 의식은 明白한데 反하여 미래에 대한 의식은 不明白한 것 같습니다.

20세기初 獨逸의 社會哲學者인 「마르크스·웨버」는 「中國이 近代에 와서 世界文明列強國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된 것은 停滯意識과 家父長的 意識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는 아직도 非合理的 기적적 사상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이러한 사상을 拔本塞源하지 아니하면 한국의 근대화는 힘들 줄로 압니다.

高 Ⅱ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物質의 近代化에 앞서서 의식구조, 즉 사고의 近代化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部下의 잘못을 責任질 줄

아그 指揮官

司會 Ⅱ 일반사회에서도 그러하겠지만 軍內에서 지휘통솔상 적지아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新舊世代가 자자의 相異한 사고태도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예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國家觀念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姜 Ⅱ 젊은 부하장병의 잘못은 우선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지휘관은 젊은 세대에 앞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Image)가 뚜렷하고 透明하게 되도록 上下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投資라 하겠읍니다.

司會 Ⅱ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공군장병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갖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군인체육회

C I S M



鄭 東 後

〈국제군인체육회 韓國代表〉

陸軍少領

國際軍人體育會에서의

韓國軍의 活躍

〈국제군인체육회 마아크〉

1962年 9月 15日은 서울의 스포츠
팬들에게 잊혀지지 않은 날이며, 伯林의
스포츠팬들에게는 1956年 8月 3日
이永遠히 잊을 수 없는 날이 아닐 수 없
다. 軍事革命 直後인 1962年 이날에
韓國은 서울에서 最初로 國際軍人體育會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가主管하는 第17回 國際軍人蹴球選手權
大會를 大盛況裡에 開催하였으며, 이보다
6年前인 1956年에는 伯林에서 國際
軍人陸上競技大會가 傳統 깊은 伯林올림
픽 競技場에서 開幕되었다. 이때 伯林에
서는 이를 구경하고자 2萬名의 人波가
모여들어 마치 우리 孫基植選手가 다룬
世界 第1位의 榮光을 차지하던 1936
年의 伯林올림픽 競技大會를 방불케 하였
다. 第11회 CISM 陸上競技選手權大會
라고 불리우는 이 行事에 美國、佛蘭西、
和蘭、西德、이탈리、파키스탄、토이기 및
韓國의 軍人選手들이 參加하여 鎗、검
、넵이뛰기 등 多彩로운 競技를 보여주
어 軍人들의 발달한 體力를 誇示하였다.
韓國은當時 同國際機構의 會員國이 아
니었으나 將次 이에 加入하기 爲하여 特

別히 招請되었던 것이다. 양정주准將(空軍)을團長으로 하는韓國選手團 14名은 20年前에 우리民族의 健兒들이 마라톤에서 차지했던榮譽을 되살려 보려고數種目的의 競技에서 온갖 힘을 다하여奮闘하였다. 그리하여 넓이뛰기에서 우리空軍의 서영주選手가堂堂 第1位를獲得함으로써韓國의 認識을 새롭게 하였던 것은 感懷깊은 일이다.

大會 마지막 날인 8月 5日是 昨마침 日曜日을 맞이하여 6萬名에 달하는熱을 띤 베를린市民들이 世界最强選手가 大部分이 出戰하는 歷史的인 試合을 못볼세라 베를저어 올림피競技場에 殺到하였다. 6萬双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延 10萬名을 헤아리는 觀覽客들은 名聲 높은 國際軍人體育會가 舉行한 이豪華로운 陸上競技大會를 통하여 戰爭 아닌 平和를爲하여各國의 軍人들이 한자리에서親睦을圖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을 제 각己榮光으로 생각했다. CISM으로 알려진「國際軍人體育會」란 어떠한 것인가? 이機構의 佛語名稱은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이고, 약칭 CISM이

라고略하고「시슬」이라고 부른다.

1948年 2월에佛蘭西, 벨기에, 덴마크, 和蘭, 룩셈부르크 및 노르웨이의 軍人代表들이佛蘭西「니이스」에서會合을 가짐으로써創設된 CISM은本部를 벨기에의首都 브뤼셀에 두고 있다. CISM은 諸國家의 國軍을會員으로 하는國際機構로서體育를 통하여相互理解와友誼親善을增進시킴을目的으로하고있다. CISM은發足한以後 約 18年 동안에 놀라운程度로成長하였다. 最初 6個國밖에 없었던會員國의數가 現在 36個國으로늘었으며繼續增加하고있다. 創設以後 CISM은 200回 以上の國際競技大會를開催하였고 參加選手의數는總 30,000名에達하며 觀覽客의數는 무려, 3,000,000名 以上으로推算된다.

CISM會員國(1966年現在)

노르웨이	세네갈	伊太利
덴마크	西班牙	쿠웨이트
西獨	수단	튀니시아
레바논	스웨덴	土耳其

룩셈부르크 시리아 파키스탄

멕시코 아랍共和國 케루

모로코 알제리아 포르투갈

美國 아르헨티나 핀란드

벨기에 愛蘭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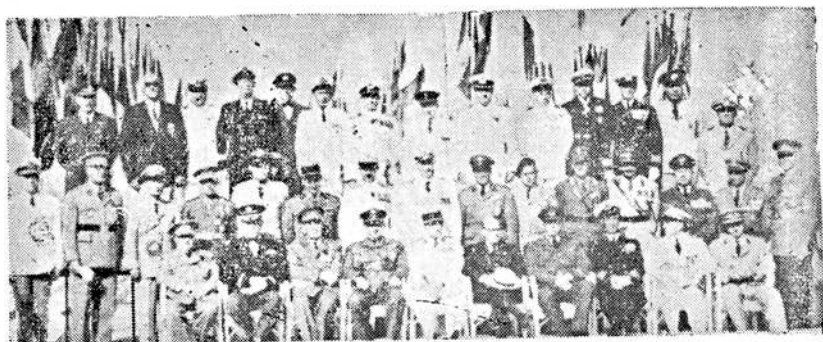
브라질 오스트리아 和蘭

佛蘭西 이라크 希臘

象牙海岸 이란 에쿠아도르

CISM은體育競技는 勿論이고 스포츠醫學 및 코치分野에 이르기까지 모든努力을傾注하고있다. 1957년에運動選手의醫學管理, 生理學, 運動原理, 體練方法 및 體力管理等 廣範圍한 研究를目的으로 CISM學術會를設置하였다. 이學術會는 2年마다體育運動研究에關한 研究講座를實施하며, 體育에關한映畫, 文獻, 記事를整理保管하는 시슬圖書館을 가지고있다. 이圖書館은世界屈指의體育圖書館으로서貢獻하는바 크다.

그리고 CISM은機關誌로서「Sport International」(國際體育)이란 이름의雜誌를佛語版과英語版으로 年 4回에 걸쳐發行하고있다. 이는世界的으로 가장權威있는體育專門誌의 하나로서올림피



<1957년 9월에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국제군인체육회 제 11 차 총회에 참석한 각국대표일동(○표가 한국대표 원대령)>

다 이병選手權 保持者인 「제미·리」少領(韓國人 第2世)等 著名한 各國의 體育人이 이에 投稿하고 있다. 1962年에 「시금 클럽」을 發足시켰다. 이 클럽의 會員은 CISM의 關與하거나 이에 關心을 가진 軍人 및 民間人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이 클럽은 每 3個月마다 發行되는 CISM雜誌(國際體育)를 購讀하며, 이를 通한 會員間의 親睦과 國際間의 友誼를 增進시키고 있다.

스포츠를 通한 國際間의 理解를 增進시키기 爲하여 會員國뿐만 아니라 非會員國도 많은 CISM 行事에 參加하고 있다. CISM을 通하여 軍人運動選手 및 任員들이 歐羅巴, 南·北美, 中東아프리카 및 極東에 旅行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한다. 「軍人올림픽」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는 CISM은 런닝, 점핑, 크라이밍, 投擲, 낙하산, 방향측정 및 射擊等에 있어서 軍人들의 訓練과 直結되는 武勇心을 發揮할 수 있는 아주 理想的인 方法이다.

CISM과 「올림픽」

시금(CISM)은 그 규모에 비추어 올

림픽 다음으로 君臨하는 國際體育機構이다. CISM은 그의 兄이 되는 국제올림픽을 爲한 準備도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많은 올림픽選手들이 CISM에서도 야 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軍人拳闘選手들이 1960年 「로마」 올림픽大會에서 10개의 금메달 중 6개를 獲得했었고, 1964年 東京 올림픽大會에서는 全 種目에 걸쳐서 13개의 금메달과, 9개의 銀메달, 15개의 銅메달을 獲得하였다. 오늘날 CISM의 몇몇 指導級人物들은 올림픽大會에서 自國을 代表하고 있다. 그들中에는 現 CISM의 事務總長 「라울 물레」少領(벨기에空軍)을 들 수 있으며, 그는 1936年 및 1948年 올림픽競技時에 現代 五種競技에서 벨기에 代表選手였었을 뿐만 아니라 1965년에 벨기에 올림픽委員會委員長으로 選出되었다. 現 스웨덴의 CISM代表인 「스벤·토렌트」准將은 1932년에 舉行된 올림픽大會에서 自國의 五種競技 代表選手였었다. 또한 現 CISM執行委員會의 佛蘭西委員인 「라방가」中領은 1936年 베를린에서 開催되었던

올림픽大會時 역시 自國의 現代 5種競技代表選手였었다. 올림픽大會와 亞洲競技大會가 每 4年마다 開催하는 反面에 CISM競技大會는 每年 開催된다. CISM에 依하여 主管되는 20個種目 選手權大會는 올림픽이나 亞洲 競技大會와 同等하게 그의 重要性을 認定받고 있다. CISM競技大會의 特徵은 순수 軍人스포르츠인 空軍 5種競技, 戰鬪水泳, 陸軍 5種競技, 스키週間, 海軍 5種競技를 包含하는 海洋週間, 射擊 및 方向測定等이다.

이밖에 CISM의 競技種目으로는 團體競技로 籠球, 蹴球, 水球, 野地壘球, 하키 및 배구이며, 國志競技는 권투, 펜싱, 레슬링, 柔道이고, 個人競技는 陸上競技, 승마, 水泳 및 다이빙을 包含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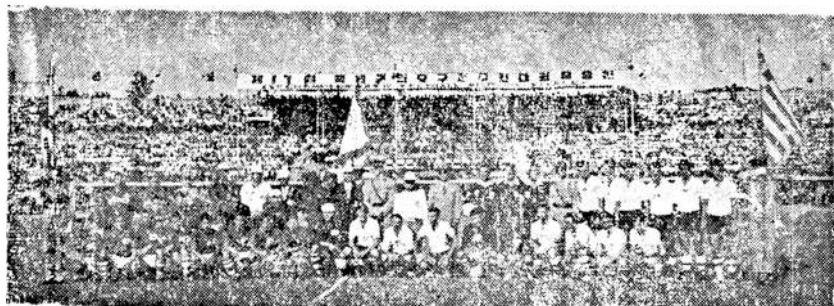
CISM의 權威가 나날이 높아짐과 아울러, CISM運動選手들은 全世界를 通하여 多大한 外交의 成果도 거두고 있다. 1960年以後에는 많은 國家의 元首들이 親히 各種 CISM選手權大會에 參席하였다. 即, 벨기에의 Baudouin王, 이란의 Shah Reza Pahlevi王, 크리웨의 Olaf 第9世, 포르투갈의 Antonio

Salazar 大統領, 프랑스의 Paul王, 파키스탄 大統領 Khan 將軍 및 레바논 大統領 Emir Fouhad Chehab 將軍이 CISM競技大會를 參觀하여 大會를 加一層 빛내주었다.

CISM을 統轄하는 中樞는 CISM總會이다. 이總會는 36個會員國의 代表들로서 構成되는 것이다.總會는 主로 翌年에 開催된 行事의 決定과 競技規則의 制定 및 發展을 圖謀하고 또 執行委員等任員을 選出하기 爲하여 每年 會合을 갖는다.

CISM과 韓國

韓國軍이 CISM과 因緣을 갖게된 것은 1955年 3월에 회람의 首都「아메네」에서 열린 第10回 CISM陸上競技選手權大會에 처음으로 出戰하게 된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韓國은 1956年 10월에 포르투갈에서 開催된 第10次 CISM總會에서 회람代表 파파레스코스大領의 韓國加入案 提議에 依하여 16대 0이라는 壓勝의 支持를 얻어 1957年에 加入하였다.



<1962년 9월에 서울충무구장에서 개최된 제 17 회 국제군인 축구선수권 대회에 기념촬영(한국군과 회람군)>

韓國은 CISM正會員國으로 加入되
前인 1955年 및 1956年에 前述한
바와 같이 CISM陸上競技選手權大會
에 各各 14名으로 構成되는 選手團을 參加
시켰고 1957年 拳關選手權大會에도 7
名으로 된 選手團을 出戰시켰다. 195
7年 第11次 CISM總會를 始初로 每年
總會에 韓國代表가 參席하였고 1958
年 5月에 佛蘭西「니스」에서 열린 第
7回 CISM籠球選手權大會에 金善철
少將(空軍)이 引率한 韓國팀이 出戰하였
다. 이大會에 佛蘭西, 벨기에, 美國,
스페인, 이란, 和蘭, 터키 및 韓國의
8個팀이 對戰하여 金善철은 「핸디캡」
에도 불구하고 韓國軍은 第3位를 차지하
였다. 1959年 6月 노르웨이의 首都
「오슬로」에서 開催된 第3回 CISM射
擊選手權大會에 김두찬准將(海兵)을 團長
으로 하는 韓國選手團을 出戰시켰으며, 같
은 해 10月에는 이태리의 「로마」를 訪問한
技場에서 開催된 第14回 CISM陸上競技
選手權大會에 韓國選手團을 派遣시킨바
있다. 또한 6名의 韓國射擊選手團은 1
961年 7月 부라질의 最大都市「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開催된 第5回 CISM
射擊選手權大會에 出戰하여 권종갑사에서
第2位를 獲得하였다. 1962년에는 第
17回 CISM 축구선수권大會 決勝戰을
우리나라가 主催하였다. 이 競技에는 C
ISM歷史上 最初로 極東에서 開催되는
것이었고 그 意義가 자못 큰 것이었다. 1
963年 7月에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서 開催된 第15回 國際軍人 拳關選手權大
會에 參加하여 김구철兵長(陸軍)은 프라
이슈에서 銀메달을, 그리고 서분남兵長(陸
軍)은 라이프치히에서 銀메달을 各各 획득
하여 祖國의 명예를 떨쳤다. 모로코에서
開催된 第18次 CISM總會에서 우리나라
라 首席代表 李昌雨將軍(陸軍)이 提議한
第1回 유도選手權大會를 1964年 10
月에 서울에서 開催키로 하여 單반의 準
備를 갖추었으나 極東에는 CISM會員
國이 韓國밖에 없고 大部分의 會員國들은
距離關係로 出戰할 수 없어서 그 實現을
보지 못하였다.

제19次總會에 韓國 首席代表로 參席한
朴斗先將軍(空軍)은 1966年에 있게
될 第21次總會를 서울에서 開催한 것을
提案하여 承認을 얻었다.

1965年의 第20次 總會는 서울에
極東分會를 設置한 것을 可決하였고 初代
分會長에 韓國 首席代表 尹鍾重將軍을 推
載하였다. 韓國이 分會長國이 된 것은 軍
體育에 있어서 앞으로 極東에서 主導的
役割을 맡게 됨을 意味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今年에
韓國은 5月 8일부터 5月 14日에 걸쳐서
伊太利가 「트리에스테」에서 主催하
는 第19回 CISM拳關選手權大會에 6
名으로 構成된 選手團을 보냈다.

歷代 CISM 韓國代表中 柳根昌將軍
(陸軍)과 朴斗先將軍(空軍)은 CISM에
寄與한 功勞를 높이 致賀받고 CISM功
勞會員의 稱號를 授與받음과 同時에 C
ISM메달을 授與받았다. 現在 CISM韓
國代表團은 首席代表에 國防部人事局長
인 尹鍾重少將(陸軍)이며, 代表에는 國防
部保健課長 金仁和大領(海兵), 空軍士官
學校 前體育課長 盧熙德大尉(空軍), 國防
部 國際體育擔當官 金文相大尉(空軍), 임
성인大尉(陸軍) 및 筆者로서 構成되어 있
다.

CISM 行 事 韓 國 參 加 一 覽

年 度	行 事 名	開 催 國	參 加 人 員	備 考
1955. 3.	第10回 陸上選手權大會	회 랍	14名	
1956. 7.	第11回 " "	西 獨	空軍准將 양정수 外 13名	남이뛰기 1位 공군중사 서영주
1957. 5.	第10回 拳闘選手權大會	"	7名	
1957. 9.	第11次 總會	佛蘭西	陸軍大領 원충연	
1958. 5.	第 7 回 농구선수권大會	"	空軍少將 申尙徹 外 14名	第 3 位
1958. 8.	第12次 總會(前期)	벨 기 에	陸軍大領 원충연	
1959. 2.	" " (後期)	파키스탄	" 원충연	
1959. 6.	第 3 回 사격선수권大會	노르웨이	海兵准將 김두찬 外 6名	권총급사 2 位
1959.10.	第14回 陸上경기 선수권大會	이 태 리	7名	
1959.10.	第13次 總會	회 랍		
1960.10.	第14次 總會	이 란	空軍大領 윤용렬	
1961. 4.	第15次 임시총회	서 독 (미국개회)	" "	
1961. 7.	第 5 回 射擊選手權大會	브 라 질	해병中領 김기화 外 6名	
1961.10.	第16次 總會	레 바논	陸軍大領 동홍옥	
1962. 9.	第17回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	韓 國	國軍體育會 全員	준우승
1962.10.	第17次 總會	美 國	陸軍少將 유근창 空軍中尉 김문상	
1963. 7.	第15回 권투선수권大會	西 獨	陸軍准將 백남대 外 5名	프라이급 준우승 (병장 김규철) 라이트급 준우승 (병장 서분남)
1963.10.	第18次 總會	모 로 코	陸軍少將 이창우 육군대위 정동준	
1964.10.	第19次 總會	멕시코	空軍准將 박두선 陸軍少領 최응범	
1965.11.	第20次 總會	서 독 (비즈바덴)	육군少將 윤택중 육군少領 정동준	
1966. 5.	第19回 권투선수권대회	이 태 리	陸軍准將 윤혁표 外 5名	

陸軍의 尹少將이 1965年 6月 21日자로 赴任하기 前에는 朴斗先准將(空軍)이 首席代表였다. 現 空軍士官學校長 尹應烈准將(空軍)은 1959년부터 1961년까지 CISM의 韓國代表로서 「이란」의 首都 「테헤란」과 獨逸의 「비스바덴」에서 各各 열린 CISM總會에 參席하여 크게 活躍하였고, 特히 「테헤란」에서 열린 第14次總會에서 그는 韓國에서 蹴球決勝戰을 가질 것을 正式 提議하여 극동에서 최초로 競技대회를 개최토록 유치하는데 成功했다.

서울서 開催된 第 17 回 CISM 蹴球決勝戰

以上과 같이 韓國은 1957年度에 國際軍人體育會의 會員國으로 加入된 後 CISM의 여러 行事에 參加하여 多大한 成果를 거두었다. 4年을 一期로 1個以上의 競技를 開催하여야 正會員國의 資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韓國은 第15次 CISM總會에서 韓國代表 尹應烈 大領(空軍)(當時階級)의 積極的인 活動으로

서 1961年度 蹴球決勝戰을 開催토록 承認을 받았었다. 그리하여 韓國의 國防部는 同 競技大會 開催를 爲한 제한 準備를 完了하고 決勝戰 出戰 資格이 있는 佛蘭西, 佛蘭西, 터키에 各各 초청장을 發送했으나 佛蘭西를 除外하고 佛蘭西와 터키는 事情에 依하여 參加치 못한다는 通知를 보내와서 結局 大會는 開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레바논國의 首都 「베이루트」에서 開催된 第16次 CISM總會는 CISM規約를 준수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韓國의 努力에 감복하여 1962年度 蹴球決勝戰을 韓國이 開催토록 다시 한번 機會를 부여한 것이다. 이하하여 1962年度 준 決勝전 우승국인 佛蘭西軍팀과 韓國軍팀이 同年度 世界軍人蹴球의 자웅을 다투게 된 것이다. 유고슬라비아팀 以後 두 번째로 來韓한 유팀의 강호 佛蘭西軍 축구팀에는 全佛蘭西代表選手가 5名이나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佛蘭西축구팀은 1962年 9月 12日 來韓하여 15일 제1차전을 가졌다. 韓國팀은 자카르타大會에 出戰했던 10名

의 代表選手가 主軸이 된 韓國代表팀이었으나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채 다크호스적인 佛蘭西팀과 對戰하였기 때문에 3對1로 패했다. 佛蘭西는 傳統的인 4.2.4戰法으로 始終했으며, 韓國팀은 基礎技術이 잘 習得되어 있었으나 짧은 合宿訓練으로 4.3.3戰法의 米숙과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9月 17日에 있었던 第2次戰에서는 佛蘭西의 戰法을 解得한 韓國팀은 전반전에 1點을 先取당했으나 後半戰에서 우리 팀의 허윤성中尉(空軍)가 멋진 한 골을 넣음으로써 2點을 얻어 2대1로 그 날의 勝利를 거두었다. 이하하여 1962年度 CISM蹴球決勝戰은 結局 총득점 4대3으로 佛蘭西軍이 優勝을 차지한 것이다. 비록 優勝의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韓國은 이大會를 통하여 韓國의 蹴球가 결코 유럽의 강호에게 뒤떨어져지 않는다는 事實을 世界에 널리 알리게 된 것이며, 極東의 유일한 CISM회원국인 韓國이 이와같은 大行事를 開催함으로써 앞으로의 CISM에서의 韓國의 發言權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셈이다.

1966년에 CISM

總會를 서울에서 개최예정

1964년에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9차 CISM 총회에서 한국 수석대표朴斗先(공군)은 1966년에 있을 제21차 CISM 총회를 서울에서開催할 것을 正式으로 제의하여 萬場一致의 동의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는 CISM에서의 위치를 향상시키고자 軍體育業務에 활기를 더우기 시작했다. 멕시코總會에서 돌아온 CISM 한국대표단은 금년에 갖게 될 CISM總會開催案을 작년 3월 16일의 第22次國務會議에 上程하여 大統領의 재가를 득하였다.

우리나라가 동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려는 데는 여러가지 目的을 지닌 것이다. 첫째, 韓國은 1962년에 第17回 CISM 축구선수전을 개최한 이래 한번도 CISM 行事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므로 1966년에 總會를 開催함으로써 4

년에 최소한 1개의 行事를 開催토록되어 있는 국제군인 체육회의 규약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4년에 한번도 行事를 開催 못한 회원국은 준회원국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CISM 총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한다.

둘째, 현재 極東에는 CISM 회원국이 韓國뿐인데 韓國이 총회를 極東地區에서 開催함으로써 極東 및 東南亞諸國에 對하여 CISM의 理念을 인식시킬 수 있다. 서울總會에 越南、中國、比律賓、泰國、日本、버마、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등 諸國을 「옵서버」로 참석시킴으로써 이들 국가의 가입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이들 東南亞 및 極東의 여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今年에 서울에 設置된 극동분회가지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極東分會의 설치는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이었다. 極東 및 東南亞細亞의 여러나라가 가입하면 極東地域에서 CISM 경기대회를 빈번히 개최할 수 있으므로 먼 지역으로의 遠征經費를 節約할 수 있다.

1964年 튀니시아에 設置된 CISM 아프리카分會로 하여금 아프리카원조

체회를 說明하기 위하여 이들의 CISM加入을 促進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總會 開催를 위한 最適의 時期는 1964年이었다. 全世界의 모든 體育人이 東京 올림픽 競技大會에 모이는 절호의 時期를 이용하지 못하였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셋째, 국위선양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년의 서울總會는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의 장엄하고도 화려한 기념행사를 전후하여 開催함으로써 58個國에서 모이는 수 많은 대표들에게 韓國軍의 위용을 과시할 기회를 마련한다.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치와 오랜 傳統을 자랑하는 固有文化, 그리고 고적 및 미풍양속을 紹介하는 물론, 산업의 부흥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문화수준을 높이 評價받는다.

넷째, 1957년에 創設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 군대체육회(이는 공산주의 진영의 CISM 기구와 유사한 것이다)에 대항하기 위하여 極東 및 동남아 국가가 결속하려면 9년전에 가입한 유일한 極東의 會員國인 韓國이 總會를 開催하여야 함은 너무나 當然한 사실

이다. 共產陣營의 CISM에 關한 압수된 정보에 의하면 63년 현재 소련,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중국, 몽고, 북괴, 월맹의 10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그중 중국 및 동남아 회원인 중국, 몽고, 북괴 및 월맹 등이 큰 비중(10분의 4)을 차지한데 비하여 36개 회원국을 가진 CISM이 韓國만을 이 지역의 會員國으로 가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그들은 1965년 6월에 越南共和國의 당시 부수상 겸 국방장(뉴넌·반티우)中將(現國家元首)이 金聖恩國防部長官에게 월남이 CISM에 加入할 것을 희망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고 1965년에 東南亞諸國을 순방하여 각국의 最高首腦를 만나 CISM에 加入할 것을 적극 권유한 결과, 금년 4월에 태국의 수상 겸 국방장 겸 국군최고 사령관인 「타누 키티카온」 원수가 CISM에 加入할 것을 金國防長官에게 표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들 兩國의 加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CISM 활동 長期計劃으로서의 韓國의

〈用語 풀이〉

B·A 정책

BA 정책(Buy American Policy)

라 함은 美國이 對外援助 등으로 「달러」가 海外로 많이 流出되어 1958년부터 國際收支가 악화하자 60년 11월 「아이젠하워」 정부는 「對外援助購買에 美商品優先購入法」을 제정, 「달러」의 海外流出을 막기 위해서 쓰는 정책을 말한다.

58년부터 2年間 美國의 金流出은

무려 38億弗이었다.

BA 정책의 내용은 ① 海外駐在 美軍

家族은 美國商品을 消費하도록 하고

② 對外援助자금에 의한 購買물자를

수송할 때는 美船을 優先使用하며 ③

後進國援助를 西歐諸國 및 日本이 맡

도록 하는 것 등이다.

「케네디」大統領時代를 거쳐 지금에

도 이 정책은 계속되고 있는데 원조를

받는 우리나라는 그 자금으로 대부분

美國地域에서 물자를 구매해야 하므로

많은 制約을 받고 있다.

이상 말한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966년도 제21차 CISM 총회

를 성공裡에開催코자 CISM한국대표

단(尹鍾重少將 및 筆者)은 서독 「비스바

덴」에서 개최된 작년도 제20차 CISM

총회에 가는途上과 歸國途上에 自由中國

國防部 政治作戰局 王昇中將, 比律賓國

軍參謀總長 아미엔자大將, 泰國軍 最高司

令部 人事參謀部長 이언中將, 말레이시아

國軍總司令官 오스만中將 및 越南國軍總

司令官 비엔中將을 만나 CISM의 精神

을 紹介하고 그들 國家가 이에 加入할 것

을 積極 勸誘하였으며, 今年 서울總會에

그들의 代表를 읍서버로 參席시킨 것을

要請하였다. 또한 昨年總會에 參席한 韓

國代表團은 CISM極東分會를 서울에

設置하는데 成功하였다. 極東分會는 CI

SM本部와 밀리 떨어진 極東地域에서의

CISM理念의 普及와 CISM競技大會

의 主管그리고 CISM會員國에 對한

技術援助提供等을 하기 爲한 猛活動을

展開할 것이다. CISM韓國代表團이 樹

立한 CISM에서의 우리나라의 活動을

爲한 計劃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CISM사업 5개년 계획

- 3대 목표
1. CISM을 통하여 국군체육 향상
 2. CISM을 통하여 국제친선 도모
 3. CISM을 통하여 국위선양 및 국동主尊權 장악

1966년	1967년
1. 서울총회 개최 2. CISM 행사 기념우표 발행 3. 월남가입 추진 4. 동남아 참관단 초청 5. 구미경기 참가 6. CISM 대표단 운영규정 제정 7. 극동분회 설치 8. CISM 잡지에 한국특집 게재	1. 총회참석 2. 구미경기 참가 3. 동남아 각국 가입 추진 4. 극동분회 운영규정 제정 5. 집행위원 입후보 추진 6. 극동경기 개최 7. CISM 클럽 확장 운동 8. 가입 10주년 기념우표 발행
1968년	1969년
1. 총회참석 2. 구미경기 참가 3. 집행위원 입후보 4. 극동경기 개최 5. 극동경기 참가 6. 극동분회 공보회의 개최 7. 학술회 참가 8. CISM 잡지에 유도 소개	1. 총회참석 2. 구미경기 참가 3. 집행위원 피선 4. 극동경기 개최 5. 극동경기 참가 6. 학술회 참가
1970년	
1. 총회참석 2. 구미경기 참가 3. 집행위원회 참석 4. 극동경기 개최 5. 극동경기 참가 6. 육상경기 개최 7. 학술회 개최 8. 집행위원회 개최	

● 將兵 코너

軍人과 雨傘

소령 · 김 수 룡

비오는 날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우산을 쓰고 거리를, 심지어는 부대 안에서까지 걸어도 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어떤 용의주도한(?) 군인이 저씨들은 비옷을 입고도 그 위에 또 우산을 받치는, 즉 이중의 완전 방비책을 강구하고 관찰하는 꼴은 정말 가관이라고 할 만하다.

군인에게서는 우비가 지급되어 있고 비가 올 때 쓰라고 우산은 내어준 일이 없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에는 당연히 지급된 우비를 입게끔 되어 있다. 이 우비는 물론 평상시에 비를 피해서 입을 수도 있지만 전시에 이것을 입은 채로 전투에 임할 수도 있고 평시의 교육 훈련에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인은 「常在戰場」이라 하였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천 가지 만 가지의 모든 행동은 전투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다. 우산을 받고는 전투는 교사하고 평상시의 교육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그러한 점으로 볼 때 군복을 입은 군인이 우산을 받고 다닌다는 것은 의식적인 전무의식적인 전 결코 옳바른 정신상태나 군인의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군인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지 말라고 어느 규정에 적혀 있는 것을 읽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와 비슷한 어떤 상부로부터의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그러면 누가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누구의 지시도 어떤 규정도 필요없는 한 가지의 상식에 속하는 不文律,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렇다면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뜻밖에도 갑자기 시내에서 우비도 없이나다가 비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정말 그와 같은 때에는 딱한 노릇이다. 그럴 때에 우선 당장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옆을 지나가는 우산장사로부터 값싼 종이우산을

사서 씌으로써 급한대로 임시변통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밖에 나가서 비를 좀 맞으면 또 어떠냐고 도리어 반문하고 싶다. 그렇게도 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도대체 시내에서 비를 맞으며 오랫동안 걸어야 할 만한 일이 얼마나 그리 많겠는가? 특히 아침부터 오는 비가 아니고 갑자기 오는 비는 그것이 대부분이 소나기일 경우가 많으며 그 소나기란 얼마 안 가서 곧 멎을 것이니까 어느 처마 밑 같은 데서 잠시 비를 피했다가 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룡기관이 발달한 요즘에는 시내에 수 없이 합승, 전차, 버스 등이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단 한 점지장 이상의 거리라도 걸을 만한 일이 얼마나 있겠는가?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교룡이 좋지 못한 데에 산다든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다음 차가 끊어졌다든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막차가 지나간 이후라든가 등으로 여러가지 애로

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참으면 될 만한 조건들일 것이다.

너무나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같으나 이러한 작은 일은 큰 일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서 작은 일이나 마지못한 것만 고쳐 나가자.

군복을 입은 군인이나 군속이나 할 것 없이 우산은 좀 삼가하자.

上士階級章

대위 · 심 수 명

지난 가을에 여타가지 일이 있어서 기술교육단에 갔었다. 우리가 훈련할 때와는 엄청나게 발전되어 놀라웠다. 이만 했으면 공군의 교육 본산지로서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기는 9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니까..... 넓은 연병장은 그대로 연병장이었다. 기마전에 피를 흘리면 연병장, 계속 길이로 찢으면 총검술의 연병장, 그대로 연병장이었다. 이 연병장의 한 귀퉁이에

서서 옛날이 그리워지는 마음마저 든다. 그 숨차고 분주하고 졸을 못쓰던 옛날이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살아남은 일이나 사치스러운 감상인가.

『.....』 문득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인사를 듣는다.

『아유 오래간만이 올시다.』

그 옛날 이웃부대의 선임하사였던 김상사.

이제는 늙은 티가 완연한 얼굴이다.

10년간의 상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런데 왜 그는 갈매기 세 개에 딱 잘린 동그라미가 하나 붙은 그런 계급장을 달고 있는가?

그 때, 그가 달고 있던 계급장은 얼마나 멋있고 품이 있었는가? 동글동글 위로 뿔은 줄이 두 개, 그 위에 네모진 적남표가 있었고 그 위에 또 줄이 세 줄, 그리고 또 세한 마리까지 있었던 그런 계급장이었다.

그것이 이 어색한 녀 줄짜리 계급장으로 변한 것이다.

물론 녀 줄로 바뀌는 때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내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 뜻이 국군 전체의 통일을 기한다는 데만 있었다면 상사 계급장에 좀더 관록과 멋을 가미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계급장의 뜻이 계급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녀 줄까지는 왜 필요할까.

두 세 줄까지도 필요함을 일이다.

10년이 넘는 상사 생활로 쌓은 군대의 관록에 녀 줄짜리 계급장이란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상등병 계급장이나 상사 계급장이나 그게 그거일 것이다. 석 줄과 녀 줄의 차이뿐이니까.

상사들이란 지긋하고 무개가 있는 군인들이다. 많은 변화와 유혹들이 스치고 갔으련만 묵묵히 현실에만 성실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동료들은 임관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동료들은 제대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유적이 지 않는 바위처럼 군복 속에서 자기의 정열을 불태우고 살아온 생활인들이 것이

다. 이 값있는 관록의 군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장교들의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일등병의 일도 했을 것이다.

상사라는 계급에는 어마어마한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상사들은 스스로가 이행한 책임이나 하급자들에게서 받는 인간적인 존경이나 권한이 국가가 그들에게 준 권한에 우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대라는 커다란 조직이 움직이는 데는 남이 모르는 구석에서 커다랗게 작용하는 이 상사들의 힘이 있는 것이다. 고기찌거나 화려한 반찬이 아니라 장아찌나 고추장같은 밑반찬이 상사들의 위치라면 좀 실체일 것인가? 어쨌든 나는 그것을 고귀하게 생각한다.

군대 속에 훌륭한 전통과 보람있는 역사를 만들면서 상사들의 얼굴에는 하나하나 주름이 늘어가고 있을 것이라. 옛날에 본 영화 「웨스트 포인트」에서 늙은 상사가 웅장한 열병 분열을 받으면서 줄기줄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만일 그 늙은 상사가 너를 찌르려 한다면

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면 그 계급장 속에 얹혀진 인간애가 얼마나 맛을 잃었겠는가. 근 10년 만에 만난 김상사가 양쪽 팔에 그득한 계급장을 달고 있었기를 바란다(물론 내 나름의 생각이지만).

나는 그 풍족하고 관록있는 상사 계급장 속에서 더 많은 세월의 흐름과, 훌륭한 전통 속에 섰게 자라난 공군을 더 실감했으리라. 너를 찌르려 상사 계급장, 어떤 이유와 사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의 밑반찬의 역할을 하는 상사들의 계급장이 너를 찌르려 변했다는 사실에는 나는 나대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俸 給 金

중위 · 신 세 호

溫度、濕度、光度等の 自然的 條件이不快指數를 높이는 主要因이겠지만 나에게는不快指數의 物理的인 變化와는 관계가 없는 또 하나의 不快要因이 있다. 每月 10日, 俸給金……

이 날이면 받을 것, 받을 것, 그리고 앞으로 써야 할 것 등 세 가지 貸借對照表上의 項目이 不快指數의 決定要因이 되어 있다. 값을 것과 쓸 것의 합이 받을 것을 초월하여, 그 차이가 달이 갈수록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계속 엄습하여 오는 자박한 現實에 짓눌려버려, 아예 諦念 속에 묻히고 만다. 그래서 俸給과 관련된 10이라는 數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망각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현실도피의 滑走路는 每月 10일이 오면 일단 멈추고 말게 되어 10이라는 數의 개념에 신경질적인(?) 집착을 하게 되면, 結局 不快指數가 급상승하는 우물한 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고 俸給날이 이렇게 우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람과 기쁨을 주는 날이기도 한 것은 每事에 경제가치 第一主義라는 못마땅한 현실 앞에 조그마한 내가 으시대어 보는데 유쾌한 날이기 때문이다.

每月 10일이 오면, 우선 시간, 장소 등 스케줄을 마음 속에 定해 놓고, 여러가지의 환영, 환송회식에 參席, 귀

여운 꼬마를 爲한 조출한 과자 한 봉지를 購買, 시간잡지 한 권을 구득. 그리 고 멀리 있는 친구에게 보낼 봉합엽서 몇 장을 구매..... 등등..... 이렇게 해서 기분 좋은 「쇼핑」이 끝나고 나면, 歸家の 버스 속에서 생각의 날개를 펴 본다.

俸給난 저녁 이맘때면 으레 생각나는 것.... 現代人들은 오늘날의 풍부한 物質文明과 복잡한 社會構造 속에서 精神的으로 枯渴, 退化해가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휘말려 들어감에 따라 未來의 自我를 상실하게 된다는 어느 社會心理學者의 이야기가 머리 속을 스친다. 이는 적어도 外形이나마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생활(?)을 하여 가는 俸給生活人에게 적합한 이야기일 것이다.

주머니 속이 빈약한 젊은 「셀터리맨」 부부가 새살림을 시작했으나 그들에게는 장만해야 할 生活品이 너무 많이 있다. 月賦라는 現代의 生活方便을 利用하여 生活必需品들이 하나씩 百貨店의 「쇼·윈도우」로부터 가정으로 배달된다. 봉급날이면 값을 치루는데 재를더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피탄어린 勤勞의 代價인 봉급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것을 정리하는 데 바쳐지고 왔다. 이렇게 되고 보니 오늘과 내일에 하는 일이란 결국 이미 살아버린 어제를 위해서이지(?) 결국 미래의 目標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고 만다. 이것을 느끼기 시작한 夫婦는 현실에 권대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自我喪失症이 빚어내는 허무감, 고독감 때문에 그들은 變態적인 剌那主義者로 轉落하고 만다는 것이 이야기의 內容이다.

우리의 실정과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지도 모르나 外形이 다를 뿐 그 次元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俸給은 그 이틀날이면 쌀값, 연탄값 그리고 각종 세금 등으로 거의 다 없어지고 말지만 아직도 과자 한 봉지와 잡지 한 권쯤 눈감고 살 수 있는 慈悲心(?)과 친구들과 같이 자리를 같이 하여 무저개를 쫓는 少年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유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봉급이 떨어지면이나 주책동 文明의 惠澤보다는 쌀값, 연탄값 등으로

짖겨 나가면서도 호호한 분위기를 마련 하여 주는 「스위트·홈」이 있는 限 조 금도 허무하지 않다.

每月 10日, 봉급날은 언제나 小市民的인 歡喜와 경제적인 劣等意識의 矛盾된 感情 속에서 맞이하게 된다. 과자 한 봉지와 연탄값은 봉급날이면 머리 속에 되새겨 놓는 貸借對照表上的 必須項目으로 되어 있지만.....

머리맡에 기댄 때

조위 · 권영대

「Taegu Metro, Dix 43 Over.」 저림 저림 울림과 Loud speaker의 호출에 바짝 긴장이 되면서 「마이크로폰」을 잡는다. 언제나 들어도 다정한 1전비 16대대 H소령님의 목소리이다. 그만큼 우리 ARTOCC 기상과전대의 예보자에게는 귀에 익은 목소리이며 우리 일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우리나라 공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

리로서는 우리를 알아주고 이용해 주고 도와주는 조종사의 목소리는 반가운 손님이 아닐 수 없다.

여기는 조그마한 하나의 기상과전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손으로 운용하고 있는 오직 하나의 PFSV(조종사 대 예보자 통신시설) 장비가 여기 우리 손에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도 무겁다. 우리나라 공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항공기가 기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필요없이 악기상으로 인하여 시간과 노력과 연료를 소비하지 않도록 모든 기상정보를 제공항의 좁은 좁은 귀중한 섹터와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날씨가 나쁘고 번개불이 번쩍 뇌성이 으르렁질 때면 우리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다. 일반 노동자들이 비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라는 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이 그렇다. 밤과 낮이 없으며 근무시간에는 항상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국내 기상은 그때그때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며 극동 지역 일대의 기상도 알아야 한다. 그러

므로 항상 장거리 전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신경은 극도로 긴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근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는 이 어려운 일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하반하는 기분은 우리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던 사람은 느껴보지 못하리라.

피로해진 몸을 쉬면서 Radio에서 흘러오는 감미로운 음악에 긴장된 신경을 푸는 때 미군방송이 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ARTC weather watch. Fair sky becoming cloudy late afternoon. This is AFKN Taegu.....]

내가 하반하기 전에 대구 AFKN에서 전해준 급일 예보이다. 나는 열은 미소를 지으면서 끝나라고 잔다.

대명인 階級章

박 태 호

△상사·712통신대대△
때론은 계급장에는 내 젊음을 바친

인생이 서려 있다. 때론은 계급장과 더불어 내 인생도 14년이 흘렀다. 보초, 불침번, 당번, 연락병 노릇 등 동분서주에 정신이 없었던 그날그날—그중에서도 가장 정상적인 일과(?)는 기합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부에 짜릿한 촉감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초년병의 생활이 한달 쓰디쓴 것만은 아니었다. 행부의 그날그날이기도 했다. 일요일 아침의 늦잠—외출이라는 안도 같은 마냥 기쁘기만 했다.

어느덧 나에게 영내 「장동」사령관이 라는 인명이 붙여졌다. 우쭐해진 나는 내부생활의 일환으로 신상필벌을 주장해 보기도 했다. 군기를 유해시킨 자에게는 따끔한 一화를 가해 보기도 하고 출전수범하는 전우에게는 위로휴가를 상신도 하고, 또한 내부반장의 비행을 묘하게 탐지하여 즉시 정절하기도 했다. 이따금 몇몇 전우들과 벌이는 난로가의 오징어, 막걸리 파티, 텅빈 휴일의 내부반에서 당번적인 초년병 몇 명과 장기판을 앞에 놓고 초년병의 초조함을 풀어주기 위해 「장군아—, 민군아」

하며 일승일패의 전적을 남기기도 했다. 진급 누락의 쓰라린 맛을 잊고 비넨 뒤 中士 진급과 동시에 「장봉」 사령관에서 해임되어 삭월셋방 하나를 구해 출퇴근 시간을 지키기에 분주하였다. 퇴근 뒷시간을 다방, 극장 혹은 대포집으로만 보낼 수가 없어서 찢어진 책장을 다시 바르고 먼지 닦은 책장을 손질해서 다시 한 권의 책을 읽게 된 것은 참으로 나의 10여년 군생활에서의 혁명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떤 친구는 늦어가면서 학교는 무슨 학교냐고 편지를 준다. 나는 「時呼時呼 不在來」라 절을 때修身하는 방향이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배우는 데는 不恥下問을 내세웠다. 이때부터 나에게서 晝耕夜讀이다. 학업을 하고 밤 늦게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쓰러져 코를 골곤 했다. 아침에 공부라시고 하자니 일요일이면 느우트 정리에 모든 약속을 뿌리쳐야 했고 1년에 두 번씩 등록금을 달아 넣자면 호주머니는 먼지가 나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다. 이쯤되고 보면 등록기 전후 석 달은 꿈생인 생활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시간은 흘러 나의 율미 학창시절은 끝났다.

4년간의 느우트 정리, 학기시험 등으로 한번 마음껏 놀아보지 못한 어느 날 친구들과 대포집에 들어가 그간의 회포를 털어 놓으며, 한 잔 두 잔 마신 것이 취기가 오르자 신바람에 느닷없이 맥주홀로 달렸다. 종업원의 등살에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교통도 끊어지고 여관앞마저 없었다. 전기로 결심하고 몸을 가누어 한 발 한 발 댄다. 늦은 때 순경이 나타나 덜컥 한참 시비를 주고 받다 보니 공군 32기라고 한

● 用語 풀이

補足融資

補足融資은 수출이 減少하여 당초計劃했던 合理的인 수출에 상하여 이르지 못할 때 발생하는 外換保有高의 現金을 매워주는 長期融資제도이다. 일반적으로 後進國은 輸出貿易에 있어 競爭力이 弱하기 때문에 與件變動에 따라 輸出이 減少할 우려가 많다. 수출이 減少되면 經常收入이 적어져 外換需給計劃이란가 長期開發計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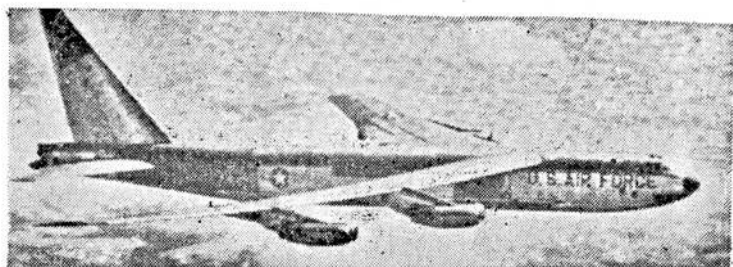
다. 나는 그 순경이 후배라는 생각과 취기의 힘을 얻어 『당신은 나보다 15기 후배』요라고 한 마디 기염을 토했다. 처음의 냉담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나를 여관까지 안내해 주어 그 밤을 무난히 지냈다. 고마운 마음이 이 순간에도 뇌리를 스쳐간다.

요사이 는 살기가 바빠서 그런지 한갓 兎路人生에 가까와지는 것 같다. 출퇴근 길밖에 모르며, 퇴근하면 뒷권의 책과 더불어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 나와 때문에는 제급장을 되씹으며……

위한 外換공급에 차질을 일으키기가 쉽다.

64年 3月 23일부터 約 3個月間에 걸쳐 「저네브」에서 열렸던 UNCTAD(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는 英國 및 「쉬른」의 共同 제안으로 제출된 補足融資措置案을 채택한바 있다.

최근 韓國銀行은 우리나라의 經常收支가 막대한 赤字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UNCTAD를 위한 特別研究委員會의 設置와 補足融資문제에 대한 검토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美軍機의 眞價(上)

朴 鍾 道

< 建國大 講師 >

『越南戰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美軍은 連日 北爆과 南爆에 使用할 새로운 新銳機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戰局은 아직 好轉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美軍機의 實力은 어찌된 것인가? 北爆開始 以來 1年이 지난 오늘날, 겨우 各機種의 戰績이 뚜렷이 나타났으므로 여기에 各機의 戰鬪用法과 戰場에서의 評判을 紹介한다.』

繼續되는 轟炸를 싸움

越南戰은 長期戰이 되고 말았다. 昨年 2月 7日 北爆開始日 부터 美軍은 戰鬪의 正面에 進出했다. 陸上戰鬪를 爲하여 第1 騎兵師團(空中機動)과 第3 海兵師團等 猛虎의 精銳部隊을 中心으로 해서 總 25萬에 達하는 大兵力을 投入하고 있다. 물론 航空兵力도 大規模로 이것을 支援하고 있다. 國會에 提出된 1966年 追加豫算과 1967年의 國防豫算은 越南 戰費 때문에 2次大戰以來 最大規模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美國의 努力에도 불구하고 戰局은 이렇다 할 뚜렷한 進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昨年末 「크리스마스」休戰, 今年初 舊正休戰等 1個月 以上 계속된 北爆中止도 1月 31일부터는 또다시 開始되어 昨年 以上의 規模로 猛打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戰局을 크게 轉換시킬 정도의 效果는 없는 것 같다. 나머지 方策은 「하노이」나 「하

이동」等地를 포함한 이른바 「聖域」地區를集中爆撃하든지 「하이퐁」港을機雷敷設과艦隊兵力으로封鎖하든지하는方法인 것이다. 그러나 이效果에 대해서도

누구나確言을할수없는 것이며, 잘못했다면中共의介入이란重大事態를招來하는결과가되고만다. 그렇기 때문에

越南戰은 끝을豫測할수없이 계속되고만 있는 것이다. 越南軍對베트콩戰은美陸軍과海兵隊그리고韓國軍等の増強에依해서局地戰鬪局面그自體는차츰有利하게되어가고있다. 그러나每日의戰鬪가優勢는하지만그것으로越南政府의勢力範圍가擴大되고있다고는말할수없다. 越盟正規軍의南下 때문에 오히려베트콩支配地域의勢力이強化되고있다고 보는見解도 있는 것이다. 美軍機와越南軍機는每月1萬回出擊以上の兵力으로베트콩의據點을攻撃하고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村落의破壊나國土의荒廢化뿐인 것이다. 그런데다가차츰越南政府를民政으로移讓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므로戰局

이有利하게展開될수는 없을 것이다. 雪上加霜으로또越南은雨期를맞았다. 文字 그대로 「홍탕을 싸움」같은樣相이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大増強의航空兵力

地上軍의増強과並行해서 越南附近에 있는美空軍兵力도飛躍의인増大를 보이고 있다. 1年前의北爆開始頃에는空軍機가3百臺,陸軍機4百臺,海兵隊機는「헬리콥터」가數千臺 정도에 지나지 않았 다. 그러던 것이今年3月末에는空軍의戰術用機가約5百臺,海兵隊機가3百50臺,陸軍機는 무려1千6百臺에 달하여總數2千5百臺로增加되었다. 이것을支援하고 있는輸送機等を 포함하면 그數는 더욱 많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海軍의航母機動部隊의航空兵力이大量投入되고 있다.

越南의航空戰은局地의制限戰爭으로해서는最大의規模라고할수있다. 그數에만 말한다면2次大戰當時에全國을 망라해서投入한兵力에相當하여 그質

을 말한다면最新銳의最高의水準이라고할수있다. 이와 같은 규모는韓國動亂때보다도월등히 많은 것이며國力이大대한美國에 있어서도兵力의維持나後方補給에 있어서苦痛을 느끼고 있다고할수있을 정도인 것이다.

美軍이相對하고 있는 것은空軍으로해서四流國이라고할수있는北베트남(越盟)과단1臺의航空機도 없는베트콩인 것이다. 이 정도의兵力差가 있으면서도戰局은有利하게展開되지 않고 있는理由는 무엇일까?

요즈음航空機의限界와그運用方法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할수있을 것이나, 여기에서 그本質의인問題에對해서戰鬪에參加한航空機를中心으로 어떻게評價되고 있는가 하는點을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各機體의評價도 때로는異論이 나올可能性이多分히 있다. 實際로戰場에서使用한結果이기 때문에 틀림없는評價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例를들면戰略核攻撃을主目的으로하는航空機를普通爆

彈을 使用하는 局地戰에 내세워 그 結果를 云云한다는 것은 좀 어색한 氣分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軍用機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 戰鬪라는 것은 航空機에 有利하도록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不利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軍用機의 評價라는 것은 그 用法과 關聯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于先 各機가 어디에 配置되어서 어떤 用途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前提해서 그 結果에 依한 評判 그리고 次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順序로 이 문제를 解決해 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評判이 그 機體의 全體의 評價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次後 戰局의 進展에 따라서는 意外의 도는 全로 反對의 評價가 나오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海軍機

機動部隊의 勢力

美軍의 越盟爆擊에 더욱 많이 使用되고

있는 것은 空軍機보다도 海軍機이다. 昨年 2月 7日의 北爆開始는 「레이저」, 「항목」, 「코랄시」의 3隻의 航母에 依해 운반된 艦載機를 使用해서 공격을 시작했다. 昨年 1年間 北爆機數는 空軍機가 延 1萬 5百 70臺, 海軍機가 延 1萬 4千 5百 60臺에 달했다. 이 攻擊에서 80臺 以上の 航空機와 60人 以上の 搭乗員을 잃었다.

越南戰을 遂行하고 있는 것은 美第 7艦隊의 TF 77 攻擊機動部隊인데 이 部隊는 越南戰의 擴大에 따라 從來의 攻擊航母(CVA) 3隻의 編成에서 5隻으로 增加되었다. 航空母艦은 3個月에서 半年의 週期로 「로우테이션」하고 있으므로 現 16隻의 美海軍 CVA 中 이미 11隻이 越南戰에 參加하고 있다. 그래서 昨年부터는 最新銳 「키티호크」와 「엔터프라이즈」原千力 航母가 자취를 나타냈다.

5隻의 CVA 中 常時 越南沿岸에 駐在하는 것이 3隻인데 2隻은 17度線上的 「양키·포인트」라고 불리는 定點을 中心으로 巡廻하며 北爆을 담당하고 있고, 1隻은 越南 南쪽의 沿岸 가까운 「텍시·

스테이션」에서 對베트남戰을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2隻은 필리핀의 「스비크·베이」, 日本의 佐世保, 横須賀等地에서 修理와 休養의 날을 보내고 있다. 이밖에 TF 70 支援機動部隊에 2隻의 對潛航母(CVS)가 있으며 隨時 哨戒任務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또 越南作戰에 參加하고 있는 航空兵力은 TF 72 哨戒部隊의 SP-2 「넵튠」, SP-5 「마린」 飛行艇과 水上母艦, TF 76 上陸作戰支援部隊의 「헬리콥터」航母(LPH) 등이 있으나 무어라 해도 그 中心 兵力은 CVA에 搭載된 艦載 攻擊機 航空部隊인 것이다.

1隻의 攻擊航母에는 1個 艦載 航空團(CVW)이 配置되고 있다. 이 戰鬪飛行團의 規模는 航母의 크기에 따라 多少 差異는 있으나 基準이 되고 있는 것은 戰鬪機(VF) 2個 大隊, 攻擊機(VA) 3, 4個 大隊, 偵察·重攻擊機(RVAH) 1個 大隊 哨戒(VAW) 大隊의 分遣隊, 여기에 救助用 「헬리콥터」 輸送機等인 것이다. 使用되고 있는 航空機는 戰鬪機의 主力인 「팩도넬」 F-4인데 「에세스」級 航母

에는 또 LTV F-8機가 남아 있고, 攻擊機는 「다그라스」 A-1機가 各航母에 1個大隊씩인 데 나머지는 「다그라스」 A-4機이다. 또 「인디펜던스」, 「키티호크」, 「엔터프라이즈」에는 別途로 「그라만」 A-1에 依한 攻擊大隊가 搭載되고 있다. 偵察機는 大型航母에 노오트아메리칸 RA-5, 「에세스」級에 LTV, RF-8, 重攻擊機는 A-6外에 「다그라스」 A-3機가 搭載되고 있다. 哨戒機는 「키티호크」에 「그라만」 E-2, 그밖에 「그라만」 E-1機가 主力인데 「레인저」와 「엔터프라이즈」에 少數의 E-2機가 搭載되고 있다.

이러한 航空機를 使用한 北爆은 別々 海軍 自身의 손에 의해서 敢行되었다. 大規模의 攻擊은 20~30機로, A-4 攻擊機 8~10臺, A-6 攻擊機 4臺, F-4 戰鬥機 8~10臺에 의해서 實施되었다. F-4 戰鬥機는 援護機이다. 氣候가 나쁜 때라든가 夜間의 威力偵察같은 것은 항상 2臺 또는 4臺의 少數編隊로 行動한다.

이러한 作戰은 普通 援護機가 없이 A-1, A-4, 페로는 F-4 自身도 이 作戰任務에 臨한다. 偵察은 單機나 또는 2機編隊로 수행되고 있다. 重攻擊機 A-3機는 攻擊보다도 電子偵察이나, 攻擊先導機로서 使用되며 페로는 A-4 攻擊機가 空軍機의 先導機(패스·파인더)로 使用되고 있다.

越南의 對베트남戰鬪는 비교적 少數機로 자주 자주 出擊하고 있다. 特別한 경우를 빼놓고는 越南에서의 行動은 모두 空軍의 統制와 誘導에 依해서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에 空軍機의 行動과 一括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各機의 評價

맥도넬 F-4 팬텀 II

이 新銳戰鬥機에 對한 評價는 매우 좋다. 援護와 空中哨戒라고 하는 面에서는 그 航續時間에 있어서나, 「레이다」의 性

能에 있어서 不滿足한 點은 없었다. 現在 베트남 地域에서 共產側의 遂擊戰鬥機가 자주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하이둥」附近이나 越盟地域의 攻擊時以外에는 「판둥」II機를 援護戰鬥機로 뿐만 아니라 對地攻擊用으로도 많이 使用하고 있다. 이와 같은 目的에 使用해도 이 航空機는 好評을 받고 있는데 火器管制裝置가 全天候對地攻擊에는 不充分해서 目測攻擊에만 使用되고 있다. 特別히 缺陷이라곤 할 수 없지만, 이 航空機를 對地攻擊用に 使用했을 때 爆彈搭載量이 적다는 것이 눈에 띈다. 空對空미사일을 메든가 落下탱크를 裝着하지 말든가 해야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戰鬥機로서의 特性이 없어지므로, 航續性能이 沿岸地帶攻擊에만 限定되고 만다. F-4에는 새로운 規格의 艦載機라고 해서 固定機關砲가 전혀 裝置되어 있지 않으므로, 對地攻擊用으로서는 不充分한 것이다. 30mm 機關砲 裝備의 「퓨우즈」MK, 4 포트를 裝着시키는데 意外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키티호크」와 「엔터프라이즈」에는 母艦用戰術「메이더·시스템」(NTDS)과 連絡하는 「메이더·링」 ASW-21을 裝備한 新型의 F-4G가 1個大隊, 12臺씩 搭載되고 있다. 이 機體의 裝備는 매우 優秀한 것이나 越南戰에는 適合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G型이 大端히 高價의 航空機인 것과 그 電子裝備가 아직 不安全해서 調整하는데 매우 힘들다는 것인데 이 점에 지나친 好評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 G型으로 滿足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此後의 問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TV F-8E 크루세이더

性能은 當然 F-4보다 못하나 越南戰鬪에서 速度는 그렇게 重要な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問題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最大速度는 「크린」(外部에 武裝裝着없이)에서 마하 1.8이 最大이다. 戰鬪中의 旋回半徑이 적고, 運動性이 좋아 上空接護나 對地攻擊에 있어서는 好評을 받고 있다. 20mm 砲의 固定武裝이 있는

點도 使用에는 便利한 것이며 對地攻擊은 主로 機關砲攻擊에 依한다. 全天候邀擊性能을 갖추고 있지만 實際에는 制限을 받는 일이 많아, 晝間戰鬪機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對地攻擊은 完全히 目測射擊뿐이며 「레이다」使用은 되지 않는다. 此後 大型 CVA에는 搭載되지 않으나 이 航空機가 없어서 困難한 것은 없다.

偵察型의 RF-8A도 잘 活躍하고 있다. 寫眞偵察能力은 充分하며 夜間에도 目視狀況에서는 充分히 活躍할 수 있다. 그러나 單機의 偵察에서 이 航空機의 速度가 느리다는 것과 戰鬪能力이 전혀 없다는 데는 問題가 있다. 現在도 「聖域」偵察에는 나가지 않고 主로 周邊地域에서 使用되고 있다. 今後에도 使用되어진다는 데는 異議가 없고, 「에스스」級 航母에는 F-8E와 함께, 「미트웨이」級에는 RF-8A만이 配置를 계속할 豫定인 것이다.

다그라스 A-4C/E

A-4는 艦載攻擊機의 主力이다. 그 輕

量은 小型이며, 構造가 簡單한 特性은 海軍機中에서도 뛰어난 것이다. 攻擊機라고 하지만 戰鬪機와 똑같이 使用할 수 있다. 단지 全天候攻擊이 전혀 不可能하며, 구름이 진 날은 「패스·파인더」機의 指示에 依해서 구름 위에서부터 一齊히 爆彈을 投下할 수 밖에 없다. 北爆當初에 이 航空機는 30% 降下爆撃法을 使用했으나 越盟의 「레이다」照準對空火器가 優秀하여 損害가 續出하게 되자 이 方法은 取消되고 말았다. 對地空 미사일 陣地의 攻擊에도 使用되고 있으나 이 때에는 固定武裝의 機關砲를 射擊하면서 接近하는 方法을 取하고 있다.

ECM(전자조준장치) 能力이 없기 때문에 A-4를 先導機로 使用하고 그 뒤를 A-4가 追從하는 攻擊法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最近 一部의 A-4에 機關砲裝着部分을 改造하여 ECM 裝備를 붙인 것이 配置되고 있다. 그런데 이 機體로서는 左右 機關砲가 使用되지 않으므로 單獨行動이 不可能하다는 缺點이 있다. 어쨌든 使用하기 쉬운 航空機이나 最大

의缺點은爆彈搭載能力이 적은 것이다. 平均 500kg ~ 750kg의 爆彈밖에 積載하지 못한다.

美海軍機는 空軍機와 달라서 225kg와 110kg의 小型爆彈밖에 使用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이 航空機의 積載能力과도 關係가 있다. 大型爆彈이 좋으나, 小型爆彈을 多量 使用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는 攻擊目標에 따라서 다르며, 또 命中率의 면에서도 異論이 있으나, 鐵橋 같은가 重工業施設, 對空 미사일 陣地 등에 對해서는 너무 效果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 航空機에 全天候能力이不足하다는 것은 단지 目標地域의 天氣에 左右되는 것뿐만 아니고, 母艦 附近의 天氣에도 크게 影響받는 것이다. 이것은 A-16機의 레이더 爆擊能力에 缺點이 있어서만이 아니고 구름이 낮게 낀 날이나, 비가 와서 視界가 나쁜 날에는 離着艦이 어렵다는 缺點이 있다. 航法能力의 點에서도 電子器械의 搭載量이 적기 때문에 다른 機種에 比해서 缺陷이 많다는 것이 사실이다.

다그라스 A-1H / J 스카이라ider

機가 제트機보다도 有利하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制限된 範圍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A-4機와는 對照적으로, 天氣가 나쁜 날에도 離着艦할 수 있는 것은 이 航空機의 獨特한 特徵이다. 速度가 느려 旋回半徑도 적으므로 天候의 制限은 A-4機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航母에 A-1機를 搭載하는 最大의 理由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越南戰鬪에서는 攻擊目標가 제1라部隊이거나 또는 防禦能力이 없는 不完全裝備의 施設이므로 低速의 舊型機로도 自由스럽게 爆彈의 命中度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北爆에도 大量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北爆 때에는 地對空 미사일의 射程範圍라든가, 미그戰鬪機가 行動한 것 같은 地域은 피하며, 絕對로 中心地域의 攻擊에는 A-1機를 使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1이 攻擊하고 있는 地域은 敵의 對空 防禦施設이 없는 곳을 選擇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때때로 機關銃射擊에 依해서 擊墜當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局地戰에 있어서 「레시프로」

또 하나 이 A-1機에 人氣가 있는 것은 擊墜되었거나不時着한 航空機의 上空 援護가 이 航空機의 重要な 任務라고 하는 點이다. 低速과 旋回性을 利用해서 그 地點을 維持하고 機關銃射擊으로 敵을 制壓하면서 救援의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A-1機가 있기만 하면 救出에 成功한 例가 많으며, 제트機의 「파일럿」들로부터 感謝의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 航空機는 不遠한 將來에 자취를 감추게 될 運命에 놓여 있어, 이 비행기의 旋回性能이라든가 搜索能力, 惡天候에 動搖하는 母艦 甲板에의 離着艦等, 그 뛰어난 特性을 哀惜해 하는 소리가 높다. 또 하나 記憶해 두어야 할 것은 이 航空機의 通常爆彈積載能力은 A-4보다 매우 크다 고 하는 點이다.

그라만 A-6A 인트루더

이 航空機에 對한 評價는 여러가지이

다. 昨年 여름 航母 「인디펜던스」號에 積載되어 처음으로 北爆에 參加했던 當初 계속해서 4 臺가 墜落되었고, 優秀하다고 하는 APQ-188 目標追跡레이다가 充分히 目標照準의 役割을 못해 급히 「노르턴」의 APQ-112 레이다로 바꾸었고 ASQ 61 「디저털컴퓨터」(電子計算機)가 「레이더」를 틀리게 계산하는 등 여러 가지 不合理을 들어냈다. 越盟軍側에不時着한 비행기를 뺏겨 美軍當局을 놀라게 했으며, 故障이 잦아 整備에 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ECM 裝置를 一切 달지 않고 飛行한 때도 있었다. 이런 점이 이 항공기의 큰 弱點인 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A-6A의 活動狀態는 北爆에 參加했던 全航空機中에서 제일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무어라 해도 航母에 積載機數가 적으므로 그 出擊率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爆擊과 全天候航法에는 大部分이 비행기가 使用되고 있다. 또 夜間爆擊에도 이 항공기가 主體가 되었다. 특히 活躍이 눈에 띌 것은 昨年末부터의 地對空 미사일 基地의 攻擊인데

이때에는 大部分이 비행기가 「패스·파인더」의 任務에 臨하여 그 ECM 能力을 利用하여, 攻擊機인 A-4 機의 損害를 막고 있다. 또 越盟軍側이 北爆機를 피하여 夜間移動을 감히 하게 되자 夜間の 沮止爆擊이 이 비행기의 任務가 되었다. 어떠한 경우든지 爆彈의 積載能力이 좋기 때문에 機數는 적더라도 攻擊成果는 큰 것이었다.

이 비행기의 最大의 缺點은 亦是 複雜한 電子器機의 整備인 것이다. 作戰期間의 全般을 通해서, 全天候機로서의 稼動率(FR)은 50% 以下이다. 그러나 A-4 機와 같은 目測攻擊을 했을 경우에는 約 70%의 稼動率(FR)을 보이고 있으므로 機體라든가 엔진의 缺陷이 아니었다는 것은 確實하다. 그렇기 때문에 餘分の FR 機가 晝間の 目測攻擊에 使用되는 機會가 많았고, 이것이 이 비행기로 하여금 出擊回數를 높게 한 理由가 되었다.

裝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固定武裝이 없기 때문에 對地攻擊 특히 對空

射擊陣地를 制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機關砲 裝備을 못하는 탓이 아니다. 母艦上에서 機關砲 裝着이 危險하기 때문에 새로운 規格의 艦載機는 固定武裝을 하지 않기로 한 方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越南과 같은 局地制限戰이 일어나 또 機關砲 裝備가 重要하게 되고 말았다. 이것은 이 비행기 自體의 罪가 아닌 것이다. 어쨌든 이런 점은 問題인 것이며 이 비행기에도 F-4 機와 같이 「푸우즈」MK, 4 인 포트(20 mm 砲 x 2 門)를 裝着하도록 改造되리라 보고 있다.

如何든 A-6A의 攻擊能力은 역시 優秀하며 航法能力도 뛰어난 것이다. 現地에서는 이 비행기에 固定武裝을 強化하여 全天候裝備을 들어내고, 簡易型的의 強力攻擊機 A-6B를 採用하자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國防省當局은 조금도 이 소리에 움직이지 않았다. 一時的인 생각으로 이 비행기의 本質을 잃게 하는 改造는 아무것도 아닌 結果를 招來할 수가 있다. A-6 機의 特性은 어디까지나 本來의 全天候攻擊能力에 있다. 美海軍은 이方針

을 계속해서 維持할 것 같다.

마린 아메리칸 RA-5C 비지랜더

이것도 「인더펜던스」, 「키티호크」, 「엔터프라이즈」號等に 積載되어 越盟地域의 寫眞偵察에 나서고 있으나, 出擊機數도 적은 것이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普通爆彈의 彈架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攻擊用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라스 A-3B 스카이 워리어

이 飛行機는 攻擊用이긴 하지만 메이다 搜索能力이나 觀測員의 搭乗을 利用해서 A-4 機의 攻擊을 先導하는 「패스·파인더」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 ECM 裝備가 있으므로 地對空미사일 陣地의 攻擊을 支援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空中給油母機로서의 能力도 갖추고 있지만 北爆參加機數가 많아서, 이 비행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非常事態以外에는 그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空軍機에 비해서 海軍機의 爆彈積載量

이 적은 하나의 理由가 되고 있는 것이다. (空軍機는 空中給油를 하고 있다.)

마린 SP-5B 마린

艦載機 以外에 大活躍을 하고 있는 海軍機는 이 「마린」 飛行艇이다. 이것은 前에 日本의 岩國基地에 있었던 VP-40 哨戒大隊가 保有하고 있었는데 現在는 필리핀을 「홀·베이스」로 해서 越南의 「캄란」에 派遣되고 있다. 모두 40臺의 飛行艇이 海軍의 로케트 SP-2H 艇을 哨戒機(基地는 사이공)와 함께 每日 沿岸의 巡視를 실시하고 있으며 海上으로부터의 베트남 補給路를 封鎖하고 있다.

이와 같은 支援을 하기爲해 水上機母艦 1隻이 坎란灣에 派遣되어 修理와 整備, 補給에 臨하고 있다. 以前에는 AV-7 機뿐이었으나 今年에 들어와서는 AV-12 「파인아이얼런드」와 交替시켰다. 이 哨戒部隊는 大端한 存在가 못되지만 그 活動은 높이 評價되어 今後에도 美國海岸에 飛行艇哨戒部隊를 維持한다는 最近에 내리진 決定의 基礎가 되었던 것

이다.

그라판 E-2A 호크아이

더욱 問題視되고 있는 것은 이 空中早期警戒機이다. 「키티호크」와 「엔터프라이즈」 航母에는 海軍이 誇示하는 戰術「네이더·시스템」NTDS가 裝備되어 있는 네이情報는 E-2A 機에 裝置한 레이더와 「컴퓨우터」에서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裝置는 性能이 좋지 않아서 全的인 實用은 되지 못했다. 多幸히도 越南에서는 敵機나 敵潜水艦의 攻擊이 없어서 큰 危險을 招來하지 않았지만 將來의 問題로 봐서는 매우 重要な 일인 것이다. 美海軍에서는 1970 년까지 全航空母艦에 NTDS를 裝備할 계획인데 이것과 協同할 警戒機의 裝備에 對해서는 아직 再檢討를 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어쨌든 複雜한 電子裝置가 E-2A—NTDS—F-4G 라고 하는 새로운 艦隊防空 시스템에 크나큰 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否定 못할 事實인 것 같다.

이것은 또 E-2A—C-2A 라고 하

는 시스템이 E-1B-C-1A라고 하는 시스템으로變更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海兵隊機

極東의 主力 越南으로

1965年初頭에는 越南에 駐屯했던 美海兵隊 航空機는 不過 2個大隊의 UH-34D 헬리콥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데 지금은 極東의 海兵航空隊의 主力이 越南에 集中하고 있다. 昨年 4月 第1海兵航空團(MAWI)司令部가 「다낭」基地로 移動, 다음 달에는 「쥬라이」에 移動式 戰術用 短距離着陸場 施設을 完了하여 A-4 攻擊機部隊을 前進시키고, 9月에는 「마폴·마운틴」基地(다낭의 東쪽)의 完成에 따라 헬리콥터部隊가 展開했다. 第1海兵航空團은 그 一部만 日本 岩國基地에 남기고 그밖에 兵力은 全部 越南에 展開시키고 있는 것이다.

現在の 兵力은 다음과 같다.

● 第11海兵航空團(MAG 11)——「다낭」基地 駐屯 F-4B에 依한 戰鬪大隊(VMAF) 2個大隊 32臺, F-8E의 VMF 1個大隊 18臺, RF-8A와 EF-10B 1個偵察大隊(VMCJ) 12臺

● 第12海兵航空團(MAG 12)——「쥬라이」基地 駐屯 A-4C/E 4個攻擊大隊 60臺

● 第16海兵航空團(MAG 16)——「마폴·마운틴」基地 駐屯 UH-34D 2個輸送大隊, UH-1E 1個觀測大隊, CH-37C 分遣隊 1
● 第36海兵航空團(MAG 36)——「쥬라이」基地 駐屯

UH-34의 3個大隊, UH-1의 1個大隊, KC-130F 1個輸送大隊, 단지 KC-130F만은 冲繩의 普天間基地에 駐屯. MAG 16, MAG 36의 헬리콥터機의 數는 尙상 増減되고 있으나 約 150臺 以上으로 되어 있다.

海兵隊의 航空機中에서도 헬리콥터部

隊는 第3海兵師團의 戰鬪行動을 直接支援만 하기 때문에 별 問題가 없는데, 固定翼의 戰鬪機와 攻擊機는 海兵隊의 作戰支援以外에 對베트콩 作戰에도 充當되고 있다. 이 때에는 海軍機와 같이 海軍의 統制下에 들어가며, 前線統制官(FAC)의 指示에 依해서 對地攻擊을 敢行하고 있다.

海兵師團을 直接支援할 때에는 물론 空軍의 統制와는 關係가 없으나 또 하나의 海兵航空部隊가 獨自로 作戰하는 것은 日氣가 나쁜 때 遂行되는 레이다 爆撃이다. 이것은 海兵隊의 戰術統制組織으로서 設置되어 있는 地上管制 레이다 TPQ-10에 誘導되어 攻擊하기 때문에 前線統制官의 「세스나」機가 드지 않았거나, 구름 때문에 視界가 나쁜 때에도, 完全한 레이다 管制爆撃이 可能한 것이다. 攻擊 방법은 TPQ-10을 使用할 때에는 編隊의 水平爆撃을 行하며 그밖에 攻擊에는 低空 또는 降下爆撃과 機關砲射撃을 行하고 있다.

海兵師團 援護가 主任務

海兵隊機는 그 出擊의 70%까지는 海兵師團의 直接支援이고 나머지 30%를 陸軍이나 越南軍의 作戰支援과 베트남의 據點을 攻擊하는데 充當하고 있다. 一部의 偵察行動을 除外하고는 越盟地域에서의 作戰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航空機의 用法도 海軍에 比하여 相當한 差異가 있다. 예를들면 A-4機 出擊의 3분의 1은 헬리콥터 作戰의 上空 援護에 使用된다. 한편 F-4機도 空中 戰鬪를 벌이는 일이 없으므로 헬리콥터 着陸地 附近의 制壓이라든가 據點攻擊에도 使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攻擊機와 戰鬪機間에는 用法上 本質의 區別은 없어지게 된 셈이다. F-4機가 TPQ-10에 依해 雲上 水平爆擊에 차츰 차츰 使用되고 있다. TPQ-10 爆擊은 A-4機의 경우나 F-4機의 경우에도 高度 3,000m~6,000m의 高空에서 行해지며, 마치 空軍의 B-52 爆擊機가 敢行하는 爆擊法과 같은 것이다.

또 하나의 特色은 海兵隊機가 모두 陸上에 基地를 두고 있기 때문에 美戰術空軍이 行하고 있는 것과 같은, 緊急出擊待機가 있다는 점이다. 海兵師團의 行動主體는 武裝퍼트루올(巡視)이며 그 것도 夜間에 進出 行動이 많다. 이러한 理由 때문에 海兵部隊의 行動에 일일이 直接支援 戰鬪機가 따라 붙는 일은 적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어떤 緊急出動命令에도 應할 수 있도록 15分間 出擊의 警戒待機가 A-4나 F-4에 依해서 行해지고 있다.

實際로 出動命令이 있을 때부터 出擊까지의 時間은 10分~12分이다. 이 直接支援機의 統制와 誘導는, 海兵師團과 同行하고 있는 海兵航空隊의 FAC가 空中에서 支援하고 있는 空軍 FAC에 依해서 行해진다. 空中 FAC는 空軍의 O-1機에 依해서 行해지는 외에도 海兵隊의 UH-1E機가 使用되고 있다.

陸上基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海兵隊의 또 하나의 特色은, 前線支援基地設備인 SATS일 것이다. 簡易型「스칠·메트」滑走路와 移動式 着陸拘束裝置가 設

置되어 離陸에는 JATO를 使用해서 滑走路距離를 짧게 하고 있다. 主로 SATS를 使用하는 것은 A-4機인데 「큐라이」基地는 이 急造飛行場의 典型이다. 「마플·마운틴」과 「다낭」北쪽의 두 헬리콥터基地도 「알루미늄·매트」의 「헬리포트」이다. 戰鬪機나 偵察機가 「다낭」基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F-4機等の 重量이 무거워 SATS 滑走路의 使用에는 適合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기에 있어서도 戰鬪機와 攻擊機의 性格이 逆轉하는 하나의 原因이 되고 있다.

各機의 評價

맥도넬 F4-B 편품

根本적으로 海軍과 다음없는 評價이나 海兵隊에서는 對地攻擊에 主로 使用하므로 레이더 火器管制裝置가 對地攻擊에는 不良하다는 것이 致命的인 문제로 되고 있다. 現在の 使用狀況은 全天候航法과 對空哨戒能力은 있으나, 對地攻擊에 있어서는 完全히 目測攻擊에만 效果를 보고

있다. 또 不充分한 前線基地에서 使用하기 위해서는, 火力制禦裝置의 故障이 많은 非難이 높다. 이 部分의 故障率은 機體故障의 平均 5 倍에 달하며 非稼動機의 大部分은 이것이 原因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이 裝置의 「레이다·백핑」은 優秀하여 直接照準은 할 수 없어도 夜間의 「패스·파인더」로서는 充分히 有用한 것이며 A-4 攻擊機의 誘導機로서도 使用되고 있다.

整備上の 最大難點은 赤外線探知裝置인데 現在까지 「다낭」基地에서는 液體窒素의 補給이 없기 때문에 IR 「디티구터」는 使用不能의 형편이다. 이 窒素補給問題는 美國防省에서도 重要한 課題로 取扱하고 있다. F-4B의 基本裝備로 하고 있는 것은 胴體下部에 「스파로」 AAM (空對空 미사일) 2發, 胴體中央下部에 600갈론 燃料탱크 1個, 主翼下面에 MK 81 型 110磅 爆彈 8個를 달게 되는 것이다. 「스파로」 AAM은 항상 裝備하고 있으나 爆彈 대신 「주니·로케트」 4發 들어가 는 LAU-110 포트, 2·75인치 로케트彈 19發 들어가는 LAU-3 포

트, 20mm 機關砲 2門 들어가는 MK 4 포트 등을 裝備할 때도 많다.

다그라스 A-4C/E 스카이호크

이 機種도 海軍의 경우와 같으며, 輕量이어서 取扱에 容易하다는데 好評받고 있다. 海兵隊에서는 完全히 晝間戰鬪攻擊機로 使用하며 全天候性같은 것은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다. 夜間은 주로 「패스·파인더」를 붙이고 照明彈을 投下하고 나서야 攻擊하는가, 地上으로 부더의 發光信號에 依해서 目標을 確認하고서야 攻擊을 加하고 있다. SATS를 基地로 하는 運用에는 輕量機인 것이 絕對的인 要件이나 現地の 海兵隊部隊中에는 A-6A機로 機種改造를 하자는 데는 全的인 贊意를 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海兵隊航空部隊에 A-7A를 裝備하자는 要求의 가장 큰 根據가 되고 있다. 整備面에 있어서 困難한 點은 20mm 機關砲인데, 비교적 손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러나 地上戰鬪의 直接支援이라 고 하는 면에서는 20mm 砲의 威力은

大端히 큰 것 같다. 機關砲의 能力을 增加시키기 위해서 이 비행기에 「전·포트」를 裝備하는 수가 많다. 때로는 2·75인치의 「로케트·포트」도 裝備하는데 더욱 基本的인 裝備는 固定武裝과 主翼下面에 4~6個의 爆彈을 裝備하는 것이다. 補助燃料탱크는 300갈론들이 1個를 胴體中央下面에 달고 있다.

이 航空機의 稼動率은 海兵隊機中에서 最高이며, 연제나 70~80%를 維持하고 1日 平均 1~2回 出擊, 1個月에 20~30時間에 달하고 있다.

다그라스 EF-10B 스카이나이트

RF-8A機가 偵察을 하는 외에 越盟 偵察에 參加하고 있는 唯一한 航空機이다. 아주 舊式機에서 稼動率도 좋지 않으나 ECM 能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北爆時의 에스코트機로서 重要視되며 空軍機와 同行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現在 越南戰鬪에서 不足되고 있는 것은 ECM機라고 말할 수 있다.

越盟의 레이 다組織은 數次의 攻擊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機能을 잃지 않고 있으며 레이 다 照準의 對空火器의 性能은 매우 優秀하다. 특히 요즈음 半年 사이에 對空미사일 陣地가 急激히 增加했기 때문에 ECM 機로 地上레이 다 陣地를 破壞하지 않는 限 攻擊은 自若危險한 것이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新型機 EA-6B의 裝備要求가 불건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것이 到着할 때까지는 이 EF-10B 機는 老體인대로 活躍할 수밖에 없다.

시콜스키 UH-34D 시호크

越南의 海兵隊機中에서 더욱 문제가 많은 것은 이 헬리콥터이다.

陸海空軍機가 모두 「터어빈·헬리콥터」로 되었는데 海兵隊만이 아직도 「레시프로」 機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整備上의 수고가 많다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理由는 海兵隊의 基地가 海岸의 모래밭 地帶에 있으며, 그것도 不完全한 「랜딩·매트」의 「헬리포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主因이 있는 것 같다. 回轉 「로우터」의

모래알 때문에 磨損이 늘어나 普通 250 時間에서 交換하는 「로우터」가 불과 10 時間에서 交換한 極端的인 例도 있다.

참으로 回轉部分에 모래가 말려 들어가면 「오일」 交換을 자주 하지 않으면 안 되며 備整上의 수고도 倍加된다고 말할 수 있다.

整備上에 있어서 더욱 困難을 가져오는 것은 自動安定裝置인데, 이것만으로도 全機中에서 40%가 稼動되지 않는 狀態에 있다. 母艦이나 完備된 基地를 根據로 하는 ASW 헬리콥터와 前線의 輸送用 헬리콥터의 差異點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는 自動安定裝置가 必要하며, 構造가 簡單한 UH-1 헬리콥터가 人氣를 모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用途가 輸送용이기 때문에 이 航空機(UH-34D)는 武裝이 없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지라도 防彈裝置도 없다는 點에서 現地에서는 困難을 느끼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前線에서 負傷者 收容에 使用한

때 베트콩의 地上砲火에 依한 損害가 크다. 緊急處置로, 現地製作의 防彈鋼鐵板을 과일꽃座席에 둘러 붙여서 防備를 하고 있다. 口徑 30 火器(7, 62 mm)에 對抗하기 위해서 이 簡單한 防彈鋼鐵板을 두르는 데도 약 100kg의 重量이 增加된다. 이와 같은 理由 때문에 現在 UH-34D 機의 搭載力은 海面高度에서도 美軍 8名, 體重이 비교적 가벼운 越南軍人도 12名이 限度로 되어 있다. 이러한 事情 때문에, 現在 海兵隊에서 더욱 서둘러서 機種改造를 바라고 있는 것은 UH-34D와 CH-37 헬리콥터인 것이다.

이것에 對해서 觀測과 武裝援護用의 UH-1E 헬리콥터는 그리 나쁜 評判은 듣지 않고 있다. 이 헬리콥터 機를 美海兵隊 航空部隊에도 裝備시키기로 한 決斷은 참으로 賢명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于先 美海軍機와 海兵隊機各機의 長短點을 主로 越南戰鬪(局)地戰(鬪)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는데 다음 號에서는 美空軍機에 對해서 알아 보기로 한다.

△ 계속 V

北傀의 對南政策과 工作 實態

李 鳳 翼

1. 對南政策

北韓傀儡의 對南政策은 두 말할 것 없이 大韓民國을 共產化하는 데 있다. 卽 그것은 北傀勞動黨規約 序頭에 다음과 같이 明示되어 있다.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全國의 範圍에서 反帝 反封建의 民主革命의 課業을 完遂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全國의 範圍에서 韓國을 共產化하는데 있어 그 手段方法은 共產侵略主義者들의 常套의 戰術 그대로 武力侵略과 間接侵略의 方法을 併用하는 것이다. 其中에도 間接侵略의 方法 가운데는 여러가

지가 있다. 例를 들면, 南韓에 地下黨을 組織하는 한편 對南工作員을 密派해서 各種情報蒐集 및 破壞, 瓦解工作를 強行케 하는 方法과 平和統一이니 南北協商이니 하는 甘言利說과 偽裝宣傳으로써 南韓國民을 自己네 便으로 이끌어 反政府鬭爭에 集結시켜 唯一한 合法政府인 大韓民國 政府를 顛覆하고 共產政權을 이에 代置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의 이와 같은 謀略宣傳과 策動은 예나 지금이나 變함이 없다.

2. 對南戰略戰術의 歷史 的 考察

가, 武力南侵時까지

北傀는 解放後부터 政權成立時까지 自己의 權力基盤을 北韓地域에 確立하는데 精力을 傾注하였으며, 다만 南勞黨을 通하여 共產勢力이 主導한 勞農政權의 樹立을 劃策하였다. 따라서 同期間의 戰略은 所謂 勞動者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에다가 이에 同調할 수 있는 廣範한 社會階層을 糾合하여 美軍政과 그에 協力하는 保守政治勢力 및 資本家, 地主를 孤立「打倒」하는 것이었다. 其後 1948年 9月 北傀政權을 樹立하자 卽刻의인 共產化統一을 서둘렀다. 共產化의 手段은 武力南侵을 擇하였는데 其 背景으로는 大韓民國의 政治的 基盤(國民의 支持度)에 對한 過小評價, 同時에 國際의 으로는 「스탈린」

소련政權은 協商方法에 依한 國際問題의 解決을 事實上 反對하고 弱한 部分에 對한 武力使用으로 共產勢力의 膨脹을 防하던 時期였지만 北傀의 南侵計劃은 소련의 對外膨脹政策과 密着된 것이었으며 또한 1949年 中共政權의 成立으로 韓國 共產化의 早期實現可能性을 過大하게 判斷하였다.

武力的 手段에 依한 即刻的 共產化의 戰略으로는 北傀軍을 攻擊의 主力軍으로 삼고 한편 國際共產軍의 直接 또는 間接의 支援을 얻는 同時에 南韓內 共產遊擊隊와 共產地下勢力 및 親共勢力을 南侵의 呼應勢力으로 糾合하여 國軍과 그의 同盟軍을 主攻對象으로 삼는 것이었다.

따라서 其當時의 戰術은 二重性을 띠었다. 即 南韓에 容共政權의 樹立을 爲한 長期戰略 計劃下에 共產勢力의 核心을 地下에 糾合하여 李承晚政權의 統治機能 弱화 乃至 마비를 對策(地下組織의 擴張, 國會「푸락치」工作 戰術等)하는 同時에 다른 한편으로는 武力的 手段에 依한 早期 共產化의 計劃下에 國軍團結의 瓦解 共產叛軍의 形成을 對策(麗水, 順天 叛亂事

件等으로 알 수 있다)하는 한편 南韓內 遊擊隊의 蠢動에 依한 國軍의 兵力消耗 및 攪亂을 防하였다. 그리고 對內의 으로 北傀軍을 急激히 整備 強化하였다. 勿論 上記 二重戰術은 相互連關性을 갖는 것이었다. 다음에 對外的으로는 武力南侵의 可能的 與件을 造成하기 爲하여 韓美 紐帶의 弱화와 特히 駐韓美軍의 撤收를 試圖하는 運動을 展開하였다.

그리고 6·25 前夜에는 韓國側의 警戒態勢 解弛, 即 國防 및 政治態勢의 虛點을 찌르기 爲한 欺瞞宣傳(1950. 7. 및 6. 16 平和統一 提案等)에 狂奔하였다.

나, 休戰後 4·19 까지

同期間에는 6·25의 敎訓과 對內外情勢의 與件으로 武力南侵에 依한 即刻的 共產化 計劃을 事實上 拋棄하였다. 即 對內外情勢의 與件은

첫째, 6·25 動亂으로 因한 經濟施設 破壞 經濟復舊計劃이 先次的 課業으로 나 서게 되었다는 點

둘째, 6·25 動亂의 쓰라린 經驗으로 韓國國民의 反共精神이 高潮되어 있었다

는 點

세째, 國際적으로는 休戰直後 韓美防衛條約의 成立等 韓美間의 政治軍事의 紐帶가 強化되었고 한편 소련에서 「호루시초프」의 支配體制가 成立되어 平和共存路線의 標榜等으로 對西方 融和路線을 實施하기가 이르렀다는 點

따라서 同期間의 戰略은 所謂「反美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段階라는 規定下에 美國의 對韓政策과 親美 保守의 인 李承晚政權을 打倒하는 한편 親美 保守政權의 社會的 基盤으로 看做한 資本家, 地主를 孤立시키기 爲해서 所謂 勞動階級이 領導하는 勞農同盟을 形成 強化하고 그밖에 反美, 反政府의 傾向을 갖는 勢力 및 北傀가 提案하는 平和統一에 同調하는 社會勢力을 糾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戰略下에서의 戰術을 所謂 革命의 退潮期 戰術으로써 特徵지어 지는바 「長期打算」, 「力量蓄積」, 「精幹隱蔽」 및 「長期埋伏」原則을 適用하였다. 即 南韓에서 親共 或은 容共政權의 實現 乃至 南韓 共產化의 早期實現은 不可能하게 되었으므로 燥急함이 없이 漸次的으로 革命力量을

扶植蓄積하여 나가며 이에 따라 南韓內 共產地下組織 및 그의 核心分子를 오직 「決定的 時期」를 待機케 하기 爲해서 露 出시키지 않고 깊숙히 埋伏 또는 隱蔽시 키 놓는다는 것이다. 以上の 戰術原則에 따라 地下組織의 基幹이 될 對南間諜을 大量으로 浸透시켰으며 한편 오로지 宣傳 的目的을 갖는 平和統一方案의 提案, 反 美感情의 煽動, 經濟難의 誇張宣傳 등으로 反美, 反政府乃至 反保守勢力을 結束하 는所謂「統一戰線 戰術」을 展開하였다. 그리고 對內적으로는 將次 共產化를 爲한 經濟的 基盤의 築成과 함께 北傀 政治體 制의 優越性을 誇示하기 爲하여 北傀住民 의 消費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자 劃策하 였다.

다, 4. 19以後 5. 16까지

同期間の 戰略은 休戰後 4. 19까지의 戰 略과 大體로 同一하였고, 다만 南韓情勢의 變化에 對應하기 爲하여 戰術을 一部 變 更시켰다. 戰術變化의 與件으로서 는 첫째, 民主黨 政權의 統治力 弱화와 이 에 따르는 反共體制의 弱화

둘째, 4. 19 革命의 敎訓으로 南韓政治 情勢에 對한 學生層의 影響力이 強大하다 는 事實의 認識

셋째, 革新勢力의 大舉進出 以上の 與件下에서 北傀戰術의 特徵은 所 謂 合法的 鬭爭의 積極的 利用이었다. 그의 主要內容은

첫째, 平和統一의 早期實現 可能性을 展望하고 地下共產勢力의 燥急한 擴大와 勞動者 農民에 對한 階級意識 鼓吹를 爲 한 工作의 擴大強化

둘째, 統一戰線 戰術의 擴大強化策으로 反保守勢力의 糾合을 劃策하는 한편 革 新勢力을 親共陣營으로 誘引하는 工作의 擴大強化

셋째, 保守 民主陣營團結의 弱화와 또 한 民主黨政權의 統治機能의 加一層 強化 를 爲하여 主로 學生, 革新勢力 및 勞動者 를 對象으로 한 社會混亂 助長과 宣傳煽動 的 強化

넷째, 特別 學生層에 對한 包攝工作의 強化, 以上の 戰術은 所謂「革命上昇期」 的 戰術로 特徵지어진다.

라, 5. 16以後

同期間に 있어서도 戰略의 變化는 없었 고 다만 戰術上에 있어서 「革命의 上昇期」 戰術로부터 「革命의 退潮期」 戰術로 還元 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同 還元은 세로 운 特異한 情勢에 對應하기 爲한 것으로 過去에 比하여 異質의 要素가 많다.

同期間に 있어서 戰術變化의 與件으로 서는 첫째, 軍政府에 依한 反共體制的 整備強化

둘째, 革新政黨의 不法化 및 言論, 集會, 示威의 制限

셋째, 國際적으로는 소聯의 平和共存路 線의 積極推進과 소·中共 對立 가운데 北傀의 親中共 傾向으로 인한 國際共產主義 勢力과 北傀의 紐帶弱화 또한 이로 인한 經濟計劃의 不振

以上과 같은 與件下에서의 戰術은 첫째, 軍政府를 孤立시키기 爲하여 保守政客을 包含하는 廣範한 反軍政運動 的 展開을 爲한 煽動

둘째, 駐韓美軍 撤收를 爲한 反美行動 的 煽動強化

세계, 反共體制的基礎確立을意味하는南韓의經濟發展을沮止하기爲하여韓日會談 反對運動에對한積極的煽動 및 軍事政權의國際的孤立을圖策한對南工作과宣傳工作 強化

네제, 共產勢力이 便乘할 수 있는 새로운「쿠메타」의 惹起를意圖한對國軍宣傳煽動的 強化

다섯째, 軍事政府의 崩壞를意圖한革命主體勢力의 內紛助長을爲한宣傳의 展開

마, 戰略 戰術의 展望

(1) 戰 略

北傀는「韓國革命」의 性格을所謂「反帝・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이라는規定을變化시키지 않고 北傀主導下的 平和統一을爲하여從來와 같이南韓內에서勞動階級領導下的 勞農同盟을形成 強化하기에 힘쓸 것이며, 한편 그의 支援勢力을結束시켜 大資本家地主層을打倒乃至孤立시키려고 企圖한 것이다. 또한 美軍의 韓國駐屯이繼續되는限 北傀의 武力의 手段에依한 韓國의 共產化는不可能하며 또한 北

傀主導下的 平和統一을達成하려는 試圖에 있어서도 韓美關係는 決死的 障礙로되기 때문에 反美戰略은變化가 없을 것이다.

國際情勢가激變하여 武力南侵의 可能

性이 있게 될 때에는 武力의 手段에依한 即刻 共產化를 試圖할 것이며 이때의戰略은 國軍과 이를 支援하는 美軍 및 UN軍을主要攻擊 對象으로 삼고 北傀軍과 그의 同盟軍인 中共軍 및 소聯軍이 南韓赤化를爲하여 積極 支援하게 될 것이다.

北傀는國際共產主義勢力의 一環으로서 韓國共產化를至上目標로 삼고 있으므로 韓國共產化의 可能性이 있을 때는時機를 놓치지 않고 戰略計劃의 變更을斷行할 것이다. 中共은所謂「植民地解放戰爭」을積極的으로 支援한다는路線을標榜하고 있는만큼國際情勢의 好機를捕捉하면 亞細亞의 어떤 局地戰爭에도 介入할 可能性이 있고 이렇게 되면 北傀는그에呼應 및 便乘하여 武力南侵을敢行할 수 있다. 한편 韓國과 北傀間에 武力戰이開始되면 中共 및 소聯은 1961年 7월에各各締結된「友好協調 및 相互援助」條約에

依하여 支援軍을派遣한 것이다. 北傀는平時에 있어서는 國軍將兵에對하여 그의 位置 및 出身成分에 따라 工作을展開하지만 戰時에 있어서는 國軍全般을主對對象으로 삼는다.

(2) 戰 術

北傀主導下的 平和統一을爲한 戰略的要求를充足시키기爲하여

(가) 地下黨 組織을 擴大強化하며 地下黨의 運營에 있어서는 所謂「長期打算」、「力量蓄積」、「精幹隱蔽」라는從來의 戰術原則을持續할 것이다.

1961年 9月 北傀 勞動黨 第4次全黨大會에서는「韓國革命」을爲하여南韓에 地下黨을組織強化하여야 한다고示唆하였으며, 특히 4·19革命의經驗(當時強力한 地下黨이 있었더라면 4·19革命을共產化統一을爲한契機로利用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強力한 地下黨組織의切實性을示唆하였다. 그러므로 北傀는앞으로繼續 地下黨 組織強化에主力한 것이다.

地下黨의 組織強化의 方法으로는 既存

地下黨의 整備強化에 힘쓰는 同時에 그를 補強 乃至 一層 強化하기 爲하여 새로 對南間諜을 大量으로 派遣할 것이고 南韓內에서 包攝된 親共分子 가운데 精粹分子를 골라 地下黨 組織網에 參加시킬 것이다.

다음에 地下黨의 組織形態로는 組織의 對象(國家機關、政黨、社會團體、軍隊、學校、文化機關、工場等)에 따라 各異한 것이지만 上記「精幹隱蔽」의 原則에 따라 組織 및 組織核心의 檢舉를 避하기 爲하여 「파라미드」式 縱의 組織을 原則으로 하며 或은 必要에 따라 橫의 組織을 採用하며 라도 組織實 乃至 組織核心은 極히 制限된 人員과 直接的 關係를 가질 것이다.

以上的 組織原則은 至今까지 採用하여 온 것인데 所謂「決定的 時期」가 遼遠한 때일수록 더욱 徹底化되는 것이다. 以上の 組織形態는 또한 어느 한 組織分組가 檢舉된 境遇에 다른 組織分組에까지 禍가 미치는 可能性이 적다는 利點도 있는 것이다. 地下黨 組織의 運營에 있어서는 그가 露出된 危險이 있는 行動化를 最大限으로 避하며 오직「決死的 時期」를 爲하여 待機케 할 것이다.

(나) 「統一戰線」戰術은 다음과 같이 開始할 것이다.

「統一戰線」의 對象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區分한다.

첫째, 反美 및 反保守勢力

둘째, 保守의 이나 反美的인 勢力

以上 두가지 對象 가운데서 反美 및 反保守勢力을 가장 重要視한다.

北傀가 同勢力 및 그의 政黨 社會團體와 提携할 可能性은

1、兩者(北傀와 同勢力)가 다같이 駐韓美軍의 撤收 및 其他 韓國의 對美依存關係의 廢棄를 願하고 있다는 點

2、兩者가 다같이 保守政權과 그의 政策을 反對한다는 點

3、兩者가 다같이 協商에 依한 平和統一을 願하고 있다는 點等에 있다.

北傀는 特히 南韓에서의 革新勢力이 活動을 再開할 可能性에 비추어 統一戰線戰術에 置重할 것으로 보인다.

(다) 合法的 鬭爭의 可能性을 最大限으로 利用할 것이다.

合法鬭爭이란 韓國의 法體制가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韓·美紐帶의 弱化 特히 駐

韓美軍 撤收를 爲한 運動의 展開、政府政策의 挫折 및 政府行政機能의 癱瘓을 爲한 鬭爭、勞動者를 비롯한 貧民層의 生活不滿의 惹起를 爲한 工作을 實施하는 것을 意味한다. 勿論 合法鬭爭은 共產黨이 非法化된 條件下에서 地下黨의 背後操縱에 依하여 直接 또는 間接의 으로 包攝된 人物을 要所에 浸透시키거나 或은 要所의 人物을 包攝하여 展開한다. 이것을 非法鬭爭과 合法的 鬭爭의 結付라고 부른다. 앞으로 豫想되는 合法鬭爭의 形態를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勞動法의 利用

勞動法을 利用하는 形態로는 罷業、怠業、示威로 나타나게 된다. 示威 및 罷業은 大體로 純粹한 經濟的 性格을 띠게 된 것이다. 可能하면 그것이 政治性(政府施策에 對한 直接的 糾彈、美軍企業體일 때는 反美運動等)을 갖도록 注力할 것이다. 北傀는 示威、罷業、怠業等이 純粹한 經濟的 動機로부터 由來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共產化 戰術의 重要한 側面으로 認定한다.

ㄴ、國會의 利用

北傀는南韓에서共產黨이不法化되고 있어公然히共產黨員을國會에보낼수없는條件下에서國會議員을包攝하기에注力하며或은이에包攝된者를國會議員으로當選시키기에注力한다.

國會를利用하는方法과形態로는政府政策樹立에對한妨害、政爭의煽動、國會預增을通한階級意識의鼓吹및大衆을北傀가主張하는平和統一의길로衝動하는것等を豫想할수있다.

ㄴ、選舉運動의 利用

國會및大統領選舉運動過程에北傀는地下黨員또는그에包攝된人員으로하여금特定黨의選舉運動員으로浸透시켜包攝된共產主義分子또는容共分子의當選을피하는한편政府施策을誹謗하며또한生活苦等을들어有產層에對한無產層의敵對意識을鼓吹시키는것이다.

ㄴ、各種社會團體의 利用

北傀工作員은經濟、文化、言論、婦人團體、親睦會等에浸透하여諸團體의活

動을合法的範圍內에서容共의方向으로誘引하려고努力한것이며(특히平和統一에對한支持)한편該當社會團體成員들에게所謂階級意識을높이려고策動한것이다.

ㄴ、學生運動의 利用

北傀地下黨員은學生들을包攝하여그들로하여금當局의學園管理에對한反對運動、徵集條件의變更(徵集期間短縮)等を要求하는運動을惹起시키기에注力한것이며、나아가서野黨政治勢力에呼應하여政府施策을反對、排擊하는運動或은機會를捕捉하여反美색채가있는社會運動까지도企圖한것이다.

ㄴ、新聞 및 雜誌의 利用

現行法規에抵觸되지않는範圍內에서反政府、反美、宣傳、煽動、平和統一精神의鼓吹、民衆의潛在의不滿을爆發시킨意圖等を 가진內容을合法新聞或은雜誌에投稿할것으로豫想되며、可能하면北傀가背後에서操縱하는合法新聞或은雜誌를發刊하기爲해서도試圖한것이다. 다음武力的手段으로共產化統一의

目的을達成하기爲한戰術로서는

(가) 地下黨組織을通한武裝蜂起의準備과그의惹起

(나) 遊擊隊의結成및그의強化에依한後方攪亂

(다) 武裝및非武裝宣傳煽動班의組織과그의行動化

(라) 특히軍需部門勞動者의罷業을德通

(마) 所定の「슬로진」을記述한壁

報및傳單工作의展開

(바) 要人暗殺工作의展開

3. 對南工作 實態

가、對南工作概況

北傀의對南工作狀況을概況하면舊政權下에서社會秩序의混亂한機會를利用하여間諜의大量南派로써地下黨組織및共產勢力의扶植에注力하여活潑한對南工作을展開하였다. 더욱기 4.19以後에는社會主義革命의昂揚期라는絶好의機會가到來하였다는情勢判斷으로

對南間諜의 大量投入과 朝總聯系列의 動員으로 對南工作에 注力하는 一方 平和統一宣傳 및 南北協商提議로 容共勢力扶植을 爲한 熾烈한 攻勢를 取하여 南韓情勢의 危機造成을 圖策하였다.

5. 16 革命 以後에는 對南工作基盤이 崩壞되었으므로 革命의 性格과 社會情勢의 把握, 對南工作의 새로운 方向을 模索하기 爲한 偵察任務, 革命課業 妨害를 爲한 巨物級 間諜 投入等으로 地下黨組織, 據點確保, 土臺構築을 비롯하여 革命政府의 弱體化와 內部分裂 助長等은 各 方法과 手段을 다하여 反政府 氣運造成에 注力하였으며 所謂 反美救國鬭爭을 積極展開하였다.

또한 1962年度에는 冬水期の 早期浸透를 敢行하여 革命政府의 瓦解, 民政移讓에 對處한 政界基盤의 確保 및 新國會 進出企圖, 革命勢力의 去勢, 地下黨組織, 韓美離間, 民心攪亂等을 工作目標로 하여 短期工作에 重點을 두었다.

1963年度에는 間諜의 大量南派를 止揚하고 在南間諜의 獲得에 注力하는 一方 第3國을 通한 工作等으로 所謂 決定

的 時期에 對備하기 爲한 力量蓄積에 注力하였다. 그리고 1964年末 現在의 工作傾向은 學生煽動에 注力하여 反政府 氣運造成을 圖策하는 一方 韓日會談 反對에 注力하였으며, 日本을 基地로 하는 對南工作을 強化하는 등 韓國政府의 內部로 부터의 顛覆을 目標로 工作을 展開하였다. 1965年度에는 1967年度 選舉에 對備하여 地下黨 組織을 強化하는 一方 軍事情報蒐集과 派越反對 鬭爭展開, 武裝間諜의 大量南派로 殺人 및 拉致行爲를 敢行하였으며 要人暗殺等도 行하였다. 한편 消極工作에서 積極工作으로 轉換하여 對南工作에 總力을 傾注하였다.

(1) 對南工作 戰術 및 能力

(가) 對南工作 機關

北傀의 對南工作 機關은 中央黨連絡局, 民族保衛省 偵察局, 社會安全省, 在日朝鮮人指導部 등이 있는바, 中央黨 連絡局은 北傀 對南工作에 있어서 中樞的 機構로서 그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南韓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의 各分野에 對한 情勢의 研究와 分析으로서 對南工作의 戰術方針을 計劃하고 實踐한다.

2. 南韓에 勞動黨의 地下組織을 構築하여 그들의 力量을 蓄積하는 各種 工作의 指導

3. 南派間諜 要員의 物色 選拔 教育을 實施하여 南韓의 各分野에 浸透시키는 各種 工作 實施

4. 南韓內의 그들 既成組織의 指揮 및 調整監督 各種 秘密通信과 連絡의 維持 口, 對南工作 機關의 調整監督

다음 民族保衛省 偵察局은 前線地域에 對한 軍事偵察, 我軍에 關한 諸般 軍事情報蒐集, 偵察 루우트의 開拓, 한편 落下傘訓練 및 地雷訓練도 實施하고 있다. 社會安全省은 主로 國內查察을 하고 있으나 日本에 在日朝鮮人指導部를 두고 日本을 據點으로 한 迂迴工作을 實施하고 있다.

(2) 對南工作員 物色 및 教育

(가) 選拔過程

各道黨은 中央黨의 指令에 依하여 越北 또는 北送된 者, 拉北者의 日常生活서부

다 思想動向、黨에 對한 忠誠心 測定等에 이르기까지 內探하고 있는바 이것이 곧 北傀가 要求하는 間諜要員 物色을 爲한 過程이 되며 또 한 가지 物色資料로서는 黨員들의 自叙傳을 利用하는 方法도 있다. 그러나 物色 對象者는 반드시 다음 條件이 具備되어야만 對象에 오르게 된다.

ㄱ, 黨性이 强하고 充實한 者

ㄴ, 南韓에 工作基盤이 있고 緣故가 있는 者

ㄷ, 南韓實情에 精通한 者

ㄹ, 容易하게 合法을 取할 수 있는 者
等 條件이 具備된 者를 黨에서 再次審査하여 適合한 人物을 選拔한다.

(나) 教育過程

間諜의 教育은 使命의 要素別로 區分하여 그 使命에 適應한 教育을 시키는 것이 常例이며, 教育期間은 大體로 短期 3個月 16個月, 長期 1年 2年으로 되어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1個月 程度의 短期와 3年 以上の 長期도 있다. 그들의 教育內容을 보면

政治教育(北傀의 優越性)

思想教育(共產主義 理論)

技術教育(通信、無電、暗號、寫眞)

工作方法(間諜으로서의 必須科目)

實習訓練(浸透 및 復歸에 對한 訓練)

(다) 아지트 狀況

間諜의 教育은 密封教育 原則을 適用하는데 平壤을 中心으로 郊外 또는 中心街의 아파트等에 安全家屋을 設置하고 嚴格한 統制下에 教育을 實施한다. 安全家屋에는 責任指導員과 食母兼 監視員으로 中年婦人 一名式 配屬되어 있다.

(3) 對南工作員의 活動樣相

南韓의 情勢變遷과 自體機構의 變動이 있을 때는 對南工作戰術이 變化되며 이에 따라서 間諜에 對한 使命도 時期에 適應하게 變遷되고 있다.

(가) 使命의 種類

ㄱ, 力量蓄積

(ㄱ) 各界各層에 浸透하여 同調者를 獲得하고 地下組織을 한다.

(ㄴ) 大衆 속에 浸透하여 同調者를 包攝하고 地下組織을 한다.

ㄴ, 攪亂工作

(ㄱ) 反政府 宣傳 煽動

(ㄴ) 社會混亂 造成

(ㄷ) 官民離間 策動

(ㄹ) 流言蜚語 流布

ㄷ, 情報蒐集

(ㄱ) 政治、經濟、社會、文化等 分

野의 情報

(ㄱ) 軍事情報

部隊配置現況

移動狀況

戰爭徵候

新武器導入現況

飛行場 現況

Radar Site 現況

美軍의 支援能力

(ㄴ) 情勢判斷에 必要한 各界動向

情報

(ㄷ) 指令에 依한 特殊情報

ㄹ, 支援工作

(ㄱ) 工作員 案內 및 護送

(ㄴ) 우우트 開拓 및 偵察

(ㄷ) 補給支援

(크) 各種證明書 및 工作用金品蒐集
a. Sabotage

(그) 要人暗殺

(나) 軍施設 爆破

(다) 浸透樣相

間諜의 浸透우트는 休戰線을 中心으로 陸上浸透와 東西海岸을 利用한 海上浸透가 있는바 浸透豫想地點은 約 900餘個이며 浸透容疑 島嶼만도 約 2,500餘個이다. 그러나 北僞는 陸上보다 海上을 더 많이 利用하고 있다.

지난번 漢江上流까지 浸透한바 있는 工作船은 金日成號라고 名命한 小型의 潜水艇이다. 北僞間諜의 浸透時期는 陸上은 5~9月 樹木의 茂盛期이고, 海上은 4~5月的 漁撈期부터 結氷期까지이다.

(다) 僞裝方法

潛入한 間諜들이 活動하는데 있어 僞裝技術의 良否가 活動의 成敗를 左右한다. 그러기 때문에 僞裝의 合理化를 爲하여 다음과 같이 身分上 僞裝을 한다. 軍人, 農夫, 漁夫, 以上과 같이 數 많은 僞

裝方法으로 潛入하고 있다.

또한 一線에서는 軍人으로, 農村에서는 農夫로, 漁村에서는 漁夫로, 都市에서는 紳士로 僞裝하며, 秋夕이나 寒食 때에는 省墓客으로 假裝하는 등 그 方法은 高度化되어 가고 있다.

(라) 工作金品

間諜는 長短期를 莫論하고 全部가 工作金 또는 非常金을 持參하고 있다. 工作金은 間諜의 使命과 工作期間에 따라 差異가 있으며 必要에 따라서는 繼續 補充하여 준다. 現在까지 間諜 李晚熙의 美貨 20萬弗이 最高이며 韓貨 5,000원이 最下이다. 北僞는 大量所持에 不便한 韓貨보다도 交換價値가 있는 美貨, 金塊, 麻藥, 人蔘, 高級時計 등을 携帶시킨다.

(마) 連絡 通信

北僞는 工作員間的 連絡關係에 對하여 格別한 操心性을 갖고 各種連絡과 通信手段을 重要視하며 安全의 徹底를 期하는 同時에 그 手段도 高度로 發達하여 奇拔한 着想을 하고 있다. 連絡과 通信手段은

다음과 같은 方法을 使用한다.

1. 各種信號(安着信號, 安全信號, 危險信號, 接線信號, 要求信號, 着手信號, 完了信號, 非常信號) 利用

2. 新聞紙上 利用(紛失, 尋人, 賣買 廣告)

3. 放送利用(AB)

4. 無電通信(暗號)

5. 口, 無人코스트(特定한 地點)

4. 展 望

北僞는 間諜南派에 있어서 質보다 量에 置重하여 次期選舉에 對備한 地下黨組織強化에 注力할 것이며 力量蓄積을 爲한 長期工作에 置重할 것이며, 때에 따라 特殊工作도 併行할 것이다. 北僞는 또한 韓國軍派越에 따르는 派越反對 鬭爭을 展開할 것이며, 軍事情報의 蒐集, 軍人의 誘引, 越北 및 拉北工作을 強行할 것이며, 武裝間諜을 大量南派하여 殺人 및 拉致行爲을 恣行할 것이 豫想된다.

間諜 活動에 對한 實例

間諜 姜信五는 忠南大德郡 出身으로 國

民學校를卒業하고 서울, 春川, 淸津, 滿洲等地에서洋服店裁斷工으로轉轉하다가 1948年7月南勞黨에加入, 1949年8月西大門刑務所에收監되었다

가 6.25動亂으로因하여脫獄, 人民軍將校로入隊後服務하다가 1951年勞動黨에入黨한바 있으며, 1956年7月人民軍大尉로除隊하여 平北定州郡黨組織部長으로活躍하다가 1957年2月中央黨에召還되어 5個月間密封教育을받고江原道에據點을確保하라는指令을받고工作金 10萬圓美貨 1,000弗을持參하고 1957年7月黃海道海州를出發全羅道群山에上陸하여即時上京하였으나活動이如意치 못해下釜하여洋服店裁斷工으로從事하다가 1958年3月結婚하고 1959年5月江陵으로移徙하여羅紗店을經營하면서本格的인活動을開始하였다.

即 59年 10月에는手票紛失廣告로北傀와接線되어指令을받았으며 61年3月에는北傀로부터連絡員이來到하여暗號文과工作金(1,000弗)을받고

繼續活動하였으며 63年 12月에는北傀案內員과接線하여工作金 90萬圓을받고

海外 토끼

郵票工場の 横暴?

67億弗어치나 燒却

수집가들이 탐을내는 쇠가 67억 2천만「달라」어치의 흙집난 우표들이 이곳에서 소각되었다.

英國제시성의 우표인쇄공장서 작은 흙집이 있는 우표가 2백 40장씩 들어 있는 도관 10만장을 아궁이에 집어들어 버린 것인데 이 우표는 어느 것이나 2백 80「달라」는 나가는 것이라고. 【하이·위 캄(英)〓로이타】

女子 머리털 속에 金

男子보다 含有量 많아

영국 원자력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여자의 머리칼에 금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 전국에서 모은 8백여명의

暗躍하다가 그만 4월에檢舉된長期間諜이다.

여자머리칼을 분석한 그들은 여자머리칼의 금함유도가 남자 것보다 높은 것을 알았다는 것. 【엘티매스틴〓로이타】

굴러 떨어져도 安全

새 自動車 만들計劃

뉴욕 주의회의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16만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안전자동차의 제작계획을 의회의 내용아 화제.

이 안전자동차는 80KM 시속으로 달리다가 서로 충돌하더라도 75%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더라도 90%는 안전한 것이라고 주장. 【와싱턴〓UPI】

◇ ◇ ◇

<連 載>

소련의 스파이 (4)

金 淳 汝 譯
△空軍 少領▽

市民證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캄빙의 身元은 소, 獨戰爭中 平列스 近郊에서 砲擊으로 因해 죽은 奴隸勞動者의 屍體로부터 그 身元을 따서 옮긴 것이었다.

1956年 9月 그는 파리로 潛入하여 스파이 組織에 着手했다. 그는 于先 美術家와 寫眞家로 僞裝하려고 環境 좋은 아파트를 빌려 스타디오를 꾸미고 물결制度를 組織하여 室內에는 秘密, 마이크를 裝置해서 錄音器에 連結시켜 놓았다. 그리고 賣春婦들에게 마이크 裝置의 取扱을 가르친 다음 錄音價値는 如何든 錄音한 것에 對하여 相當金額을 支拂하겠다고約束했다. 勿論 賣春婦들에게 이 錄音은 商業上 相對方의 秘密을 알아내어 다른 會社에 팔기爲한 것이라고 說明하는 한편 賣春婦에게 技術者, 產業家, 發明家等을 끌어들이도록 仲介者로 그의 連絡網組織도 編成케 하였던 것이다.

모스크바의 記錄에 依하면 그는 「大端 奇才幹이 非常한」 諜者로서 佛蘭西駐在하는 諜者보다도 重要한 情報을 보내왔다고 하였다.

처음 佛蘭西에 派遣될 때 그는 產業에

6. 賣春婦와 廣告

佛蘭西가 近代兵器研究를 거듭하여 제트機誘導미사일 熱核研究分野에서 重要한 貢獻을 하고 있을 때 모스크바는 佛蘭西에 對한 스파이 活動을 一層 強化하고 있었다.

數名の 소련스파이들은 다른 나라에서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佛蘭西에서도 逮捕되었고, 危險에 直面한 스파이들은 國外로 逃亡했지만 그래도 多數의 소련스파이들은 發覺되지 않고 活動을 繼續하고 있었다.

다. 그 中에도 1956年 파리에 潛入한 「캄빙」은 有名했다.

캄빙은 1923年에 出生한 本名이 우라디밀·이쿠나도비치·본다렌코라는 소련인이었다.

본다렌코는 1946年 라틴 諸國을 爲한 스파이學校 스테루나야에 入校하여 감빙이 되었고 F-46107-028-S로 登錄되었다.

그는 10年間の 教育을 마친 다음 1956年 소련 貨物船便으로 마르세이유에 上陸하여 올스루로 가서 出生證明書와

關한 스파이活動에 專念하라는 命令을 받았지만 佛蘭西軍內의 最高秘密兵器와 其他 考案物의 發明製作에 關係있는 다른 情報提供者를 얻게 되자 그는 그方面에 까지 組織網을 넓히고 있었는데 그가 譯者에게 指令하는 方法은 이러했다.

파리新聞紙上 個人欄에 「젊은 美術家 모넬을 求함」이라 하고 坎빙의 住所가 적혀있는 廣告가 있을 때면 譯報員 X는 「다음 날 노를담 寺院에서 午後 1時에 主導 스파이와 만나는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다. 即 그 말은 「美術家」는 午後 1時를 意味하고 「모넬」은 노를담寺院을 뜻하기 때문이다. 萬一 廣告가 「젊은 寫眞家 모넬을 求함」이라 되어 있으면 노를담寺院에서 午後 3時 15분에 會合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坎빙의 廣告가 紙上 賣買欄에 있었다면 譯報員 Y는 이것은 自己에 關한 것이라 알게 되며 廣告文에 따라서 場所와 時間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活動도 偶然한 機會에 強盜犯을 搜查하는데 兇手들이가 突然을 뒤흔었다. 모스크바는 萬一の 境遇를 念

慮해서 坎빙을 소련으로 불러들여 갔다.

7. 西獨의 秘書局

GACZYNA型 獨逸系 訓練學校인 뿌라고 부가에서 徹底한 訓練을 받고 獨逸人의 身元을 가진 소련 胎生의 스파이들은 西伯林분만이 아니라 西獨의 美、英、佛地區에서도 活動하고 있는데 西獨當局도 이事實을 알고 強力하고도 充分한 訓練을 받은 警察隊에 依해 相當數의 共產스파이들을 檢査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련의 主導 스파이를 찾아내는데 成功한 일은 없다.

西獨에서 暗躍하는 스파이들의 代表的인 實態로서 「마리안네」事件을 例로 들면 이렇다.

1958年 5月 메인州 후랑크홀트에 到着한 마리안네는 1925年 하리코푸 胎生의 나데이트다. 미하이로비나·마가레였다. 그녀는 21歲 때 모스크바大學 經濟學을 工夫하던 中 推薦되어 뿌라고 부가 獨逸區에 入校 登錄番號 G-470923-018-2가 붙었다.

그녀는 10年間の 訓練을 마친 다음 19

58年 4月 以前の 獨逸首都 西쪽으로 潛入했는데 그녀의 身分證明書에는 西獨美國地區로부터 西伯林에 求景은 사람처럼 證明되어 있었다.

西伯林 滯在中 그녀는 都市의 온갖 聯合軍區域을 調査하여 앞날 主導 스파이로서 그녀의 協力者들과 會合할 安全한 場所로 많은 食堂과 娛樂施設들을 物色하였고 그러던 中 또한 많은 男子들이 그녀의 魅力있는 美貌에 對해 注目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重要人物에 接近하는 手段으로 自己의 美貌를 利用하리라는 것도 아울러 마음 定하였다.

그녀는 후랑크홀트에서 近代의 建物로 된 아파트에 住居를 定하고 秘書局을 開業하였다. 이 秘書局은 郵便의 利用도 會合場所로서도 또한 寫眞道具를 取扱하기도 適合한 곳이었다.

그녀는 먼저 모스크바로부터 提供된 適當한 補助員名單中的 獨逸人을 檢討調査한 다음 協力者의 抱攝方法으로 脅迫과 相當額의 報酬金을 使用한 決心을 하고 最初의 情報提供者로서 秘密兵器研究部門의 人物을 點적이고 電話로 불러냈다. 그리고

는 그 研究部門의 모든 秘密文書 靑寫眞 등을 提供해 달라고 했고 그 代價으로 多額의 報酬을 支拂하겠노라 했다. 그가 이 말을 듣고 怒發大發했음은 當然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警察에 告發하겠다고 威脅했으나 그녀는 泰然하게도 그에게 電話를 맡겨주며 警察을 부르라면서 나도 이 男子가 現在 후랑크홀트에 살고 있으나 死亡者의 身元을 利用하고 있는 者로서 本來는 戰犯嫌疑者였다는 것을 警察과 美官憲에 通報하겠고 덧붙였다. 그는 이 말에 필적되면서 事實을 否認하고 名譽毀損으로 告發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그녀도 用意周到했다. 그녀는 이에 對한 詳細한 資料를 提示하면서 文書상의 證據는 한 때 秘密諜報局에서 當身과 같이 일하던 나의 親舊가 證明할 것이라고 逆襲했다. 그는 結局 屈服하고 말았다. 그런 지 二日後는 벌써 誘導미사일에 關한 最高秘密文書의 縮小寫眞을 面刀用 브러시 손잡이에 넣어 迂廻路를 통해 모스크바로 發送할 수가 있었다. 그 후 그 男子는 抱攝된 사람中 가장 價値있고 믿음성 있는 情報提供者가 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후랑크홀트에 到着한지 6個月에 벌써 龐大한 스카이 組織網을 指揮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携帶用 라디오 送受機는 奔走했으며, 그녀의 秘書局은 寫眞攝影 靑寫眞과 文書의 製作 縮小點字文 등으로 분비었다. 이렇듯 그녀의 活動組織은 더욱 擴張했으며, 西獨當局은 勿論 一般會社로부터도 情報을 獲得하도록 努力하는 한편 西部伯林까지도 擴張準備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西部伯林秘書局 開業은 후랑크홀트에서보다 容易하였다. 그것은 每日 東部伯林으로부터 出勤하러 오는 많은 諜報員을 利用할 수 있었으며 緊急할 때는 逃避할 機會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그녀의 成功的인 經歷이 1961年 3月初까지 紹介되었는데 그 후 모스크바 國家警察의 情報報告에는 그녀에 關해 言及된 것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새로운 偽裝 아래 또 다른 任務을 遂行하고 있는 것으로 斟酌이 된다.

8. 오스트리아의 亡命者

에서 語學과 文學을 工夫하고 있었는데 그때 狂信的인 共產黨員과 親交하면서 共產主義를 半道樂삼아 손대기 始作하다가 信念을 갖는 共產主義者가 되고入黨까지 하였다.

바이엘의 黨細胞中 프롤레타리아의 어느 黨員들은 1908年 오스트리아 한 富豪의 아들로 태어난 이 새로운 同志를 不信의 눈으로 보면서 「그는 資本主義當局에서 共產黨에 侵入한 敵」이 아닌가 疑心하였다. 그러나 바이엘은 結局 根據없는 疑心을 一掃하고 黨細胞의 가장 活動的인 黨員으로 認定을 받았다. 黨의 地方書記局은 그에게 特別한 마르크스·레닌主義 訓練을 받도록 選拔했고 그는 「마르크스주의 勞動者 學校」를 거쳐 政治教育者의 資格을 받았으며, 數없이 많은 黨細胞를 爲해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對한 講義를 했다. 얼마안 가서 그는 共產主義者의 저널리스트로서 有名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獨語黨機關紙를 爲해 寄稿해서 그의 論文과 政治的 短篇物의 大部分이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獨逸, 소련에까지 나타났으며, 또한 그는 熱辯家이기

도 했으므로共產黨에서도 그를 集會에 演士로 招聘도 했다.

1929年 共產黨 中央委員會는 그에 一層 高度의 訓練을 하기 爲해 모스크바로 보내어 2年間의 레닌學校課程을 받게 하고 1931년에는 비인에서 活動하도록 派遣했고 1934년에는 다시 모스크바에 召喚하여 코민테른의 教育部에서 任하게 하면서 앞으로 秘密諜報局 勤務에 適合한가 하는 것을 檢討했다.

1935年 1月 國家秘密警察은 바이엘을 充分히 信賴할 수 있다고 認定하는 한편 最高教育者로서 豊富한 經驗이 있다고 認定하는 GACZYNA型的 學校인 푸라고 부가에서 短期訓練을 받게 했다.

1935年 스페인의 內亂이 勃發하자 바이엘은 秘密諜報局員으로서 또한 코민테른의 二重資格으로 活動할 任務을 받고 스페인으로 派遣되었다. 軍事訓練을 받은 經驗이 있던 그는 戰鬪에도 積極參加하여司令部에서 攻防戰의 作戰樹立을 할 뿐 아니라 第一線指揮까지 하였다. 이처럼 그는 軍事指導面에서 成功의 이었으나, 모스크바는 1936年 12月 그를 召喚하고

「生命을 危險케 하는데 反對」하여 嚴重히 譴責하는 한편 「諜報員의 規則을 嚴守하도록」 警告하였다. 그는 또 다시 外國活動 命令을 받고 中央 유럽으로 되돌아 갔다.

1937年 2月初부터 그는 비인에서 스파이 活動을 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그의 活動은 모스크바를 充分히 滿足시켰는데 그는 나치스의 秘密運動과 其他 危險에 關한 情報을 提供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事態가 前보다 激烈해져자 모스크바는 그가 本來 猶太人이었으므로 早晚間 그에게 危險이 있으리라 念慮하여 他國으로 轉任하기로 하고 비인으로 부터 猶太人 生命을 假裝시켜 파레스치나로 보냈다. 여기서 그는 猶太人의 地下組 織軍隊인 하가나에 參加했다. 그는 여러 分野에 有能했기 때문에 階級과 勢力이 急昇하여 高級參謀가 되었다.

그는 軍을 떠난 뒤 軍事科學과 戰史를 耽讀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軍事出版物에 論文을 寄稿하고 있었다. 얼마後 델·아비브綜合大學의 戰史學科 教授가 되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國防省의 重要

人物이 되었고 벤·그리온首相의 個人的인 親舊도 되어 首相의 軍事顧問으로서 軍事計劃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듯 그는 하가나에 參加해서 逮捕되기가 지 이스라엘 全滯在期間을 冷酷한 소련의 主導 스파이로서 活躍하여 이스라엘 最高部로부터 곧바로 致命的인 軍事情報가 모스크바로 提供되었던 것이다.

바이엘의 逮捕消息은 이 나라에 큰 世이선을 일으켰다. 아히만의 裁判까지도 延期할 程度였던 것이다. 이 消息을 들은 그리는 首相은 명한 채 한 마디의 말도 못했으며 더욱 이스라엘 國民을 놀라게 한 것은 바이엘이 소련으로 보낸 情報가 猶太人의 仇敵인 모스크바의 나일大領바로 그 사람에게로 갔다는 事實이었다. 스파이가 一國家의 生命中樞인 中心까지 到達했다는 이 事實은 國際스파이 活動記錄中 첫번째의 實例였던 것이다.

9. 全世界의 스펀스파이網

以上에 記述한 바와 같이 모스크바의 主導 스파이들은 美、英、佛 其他 主要 西方國家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全世界에

派送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소

련의 駐在 스파이들이 數年間 스톡홀름과 고젠부르에서 活動하고 있었다. 事業家로 僞裝하여 外交官, 新聞特派員의 親舊들을 通해 얻은 情報을 모스크바에 보내고 있었다. 오란다에서는 소련스파이가 給使로 僞裝하고 암스테르담에 작은 規模이지만 才幹 많은 스파이團을 指揮하고 있었고 벨기에서는 안도와와 로테르담港의 船積에 關한 情報을 提供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련은 戰略物資를 不法船積하는데 이 港口를 利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情報活動이 아니었다면 緊急한 物資의 소련輸送이 不可能했을 것이었다. 스위스에서는 오스트리아系 스위스人 事業家를 假裝하고 「外交와 政府의 情報」에 專念해서 「제네바로부터 미리 얻은 情報의

德으로 UN에서 소련代表들은 美國의 立場을 困難케 하고」 있었다. 伊太利에서는 伊太利人 經理士로 假裝하고 職業上의 立場에서 産業, 商業의 重要人物들과 會見하면서 必要한 情報을 獲得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中心으로 一黨의 스파이들이 一般情報에 專心

했다.

以上과 같은 소련의 스파이 活動은 全世界 暗躍하는 곳이 없으며, 이에 對備해서 各國의 國際對敵情報活動部의 活躍도 저지 않으나 아직도 逮捕를 避해 가며 一國家의 存立을 위태롭게 하는 소련의 스파이들은 더욱더욱 그 數를 늘여가고만 있는 것이다.

前東京의 소련 大使館員 유리·라스트·보로프는 自由를 찾아 西方으로 亡命하면서 말하기를 「어떠한 소련의 市民도 아직까지 個人資格으로 소련國境을 넘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면서 「소련인이 있는 곳은 大使館이건 領事館이건 一般文化使節이건 또는 運動團體이건 그들은 모두 諜報員들이다」고 한 것을 自由民主國家들은 銘心해야 할 것이다.

第3部 소련스파이의 形態

1、外交官으로 假裝한 스파이

海外 스파이 工作員의 組織網과는 關

係없이 地球上 모든 國家에는 소련과 그 衛星國家의 數 많은 外交團體 即 駐在 陸海空軍武官과 副領事等이 있다.

이와 같은 소련의 外交官들은 그 全員이 適當한 情報提供者를 物色해서 直接接觸하는 積極的인 스파이 活動에 加擔하는 것은 아니지만 外交團體의 全員은 스파이 訓練을 받은 者로서 陸海空軍 基地에 對하여 情報活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即 「外交官의 스파이」들은 獨立된 駐在 工作隊員과는 다른 形態로 暗躍하고 있는 것이다.

外交官들은 對相國當局에 身元이 알려지고 있으므로 僞裝할 必要가 없으며, 外交官이라는 事實을 口實 삼아 사람들에게 感銘을 주어 이것을 미끼로 價値있는 情報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을 求하기 爲해 選定한 被害者에게 公公然히 行動할 수 있는 것이다. 萬一의 境遇 事實이 發覺된다 하더라도 外交官의 免罪特權 때문에 기껏 國外退去令이 科작인 것이다.

그러나 소련 大使級의 人物들은 普通 스파이 活動에 參加한을 禁하고 있다. 그것

은 或書記官이나 配屬武官들이 現行犯으로逮捕되어 新聞에 소련 大使를 非難할 때가 있더라도 大使는 正色하고 辯明한餘地가 있기 때문이다.

記錄上 소련의 外交官들은 어느 나라에 서도 스파이 活動에 加擔하고 있었다는 것이 立證되고 있는데 現在와 같이 平和와 戰爭 사이에 있는 冷戰에 臨한 소련의 外交官들은 可及의 많은 情報의 獲得을 爲해 盡力하고 있는 것이다.

그 例를 들면 와싱턴에 있는 駐美 소련 武官補佐官 레오니드·E·뻬루니에프는 한 美國人爲眞業者에게 航空機를 利用해서 規模와 撮影된 標高를 定하고 뉴우요크 重要 港灣地域、産業施設、軍事施設의 撮影을 代金 700 弗에 依頼했는데 이로 인해 뻬루니에프는 外交官의 特權을 惡用했다는 理由로 退去를 命받았다.

뉴우요르크 駐在 소련 副領事 아나토리·야코부리에프는 東部아메리카 原子力스파이의 主要한 組織者였다. 그는 美國內 다른 소련 外交官 예쇼·세미요노프와 같이 5年間이나 活動하는데 成功했다. 그 期間中 그는 縮小寫眞、縮小點字通信文을

모스크바에 보내고 있었는데 美國은 이 두 스파이 魁首에 對하여 너무나 憤慨했으므로 이 두 스파이들이 이미 美國을 떠나고 없음에도 不拘하고 形成의 이나마 起訴를 하였다.

런던의 체코슬로바키아 陸軍武官 올도리치·뿌리비루大領은 2年間 防衛條約과 關係되는 일을 하는 한 會社에 雇用되어 있는 計器類關係技師 뿌라이안·린네이를 잘 보살폈다. 린네이가 財政上 困難했을 때 50 파운드를 주었다. 그以後부터 린네이는 그의 情報提供者가 되어 誘導 미사일에 關한 最高秘密情報까지를 提供하였다. 소련 外交官인 뿌리비루大領은 外交官의 免責權으로 斷罪를 免한 채 國外退去를 當했지만 린네이는 14年의 禁錮刑을 言渡받았다.

베를린의 소련 大使館上級館員인 두 外交官 보리스·후로로프와 니코라이·모딘은 스파이 活動을 했다는 理由로 체코슬로바키아에 依해 逮捕되었는데 이 두 사람은 스위스 軍事秘密과 西獨의 미사일 發射基地에 關한 情報을 사려고 하다 發覺되었다. 그러나 免責特權의 惠澤으로 罪는 免

했지만 소련 大使 니코라이·I·고류킨까지도 스위스 外務省에 召喚되어 스파이에 關與했다는 理由로 國外追放이 通告되었다.

또한 駐美 소련의 海軍武官補佐官 이완 A·바부치코프는 2次世界大戰中 個人的으로 또는 國家의 인일로 소련人和 交際가 있었던 한 事業家에 接近해서 誘導 미사일、제트 燃料、原子潛水艦에 關한 資料를 얻으려 하다 追放되었으며, 그밖에 와싱턴에 있는 소련 大使館과 UN에 있는 소련 使節團 또한 UN 事務局에 있는 外交官들이 最近 스파이 活動을 하다 追放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이 美英을 爲始한 몇몇 國家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佛、加、濠、西獨은 自由世界 各國에서 追放을 公表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련스파이 活動에 對한 監視도 一層 增加하고 있지만 그래도 完全을 期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2. 라스通信員을 假裝한 스파이

소련 秘密諜報局의 重要한 部門의 또 하나는 타스通信이다. 各國에 派遣되어

있는數 많은特派員들은 타스通信이란保護 아래 스파이活動을 하며, 이들은 또한公認된 外交官의 免責特權을主張해서危急을謀免하는公認된 스파이인 것이다.

그러므로自由民主國家들은 자기 훌륭한通信報道員을 國外로 派遣하고 있는데 反해 타스通信만은 派遣員選定을 소련諜報局이 하고 名義만은 타스通信員으로 하는事實上 通信員이라기보다는 스파이를 派遣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은 派遣에 앞서 마르크스·엔겔스學校와 레닌技術學校 또는 그 이상의 高度 스파이訓練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首肯이 되는 것이다.

記者들은 西方國家에서 通常議會에特別記者席이 있고 身分證을所持하면 一般人이 出入不可한場所도 드나들 수 있으며, 新聞記者會員, 兵站工場, 原子研究所, 軍隊駐屯地에招待되고機關出入等이容易하므로 秘密情報을 얻고 漏說되는機密聽取도比較的容易하다. 더우기「政治記者」라는口實은 記錄에 올릴 수 없는情報나 힛트 그리고 政府의 秘密決定과 行動에關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며 또한報道

員間の論爭을通해 얻는情報의 收獲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타스特派員들이 얻는 새로운知識은 때로 重大한情報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스通信員이 모스크바로發送하는比較的 많은通信文中極히 적은量만이 新聞에印刷되고 있는 것은 그 나머지가用途를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타스特派員 니코라이·씨부니프는 1946年이골·구젠코의暴露로重要 스파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타스通信員 L·K·페사리에프는 스파이라는理由로 1953年 오란다로부터 國外로追放되었고 1954年 오스트리아政府는 3名의代表通信員을調査結果 스파이로立證했다.

特派員으로 가장顯著했던 스파이活動은 빅톨·아니시모프事件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스토크홀름의 타스通信員의責任者였는데裁判所에서 스파이였다는게暴露되었다.

스웨덴의 한海軍士官인 에문스트·안멘손은 스웨덴의 主要海軍基地와 空軍基地에서 소련 秘密諜報局을爲해 스파이活

動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逮捕된 經緯는 이러했다. 그가自轉車로 스토크홀름의 아이스크림·파라에 들어갔다가 그곳을 나와自轉車로南部病院엘 갔을 때 그를追跡하고 있던 스웨덴의 對敵情報活動員은自轉車道具函과自轉車펌프 고무줄 속에서秘密證이를 찾아냈다. 그 중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秘密이 적혀 있었는데化學處理를 한結果 잘스구로나에碇泊中에 있는 스웨덴 戰艦裝備에關한秘密情報가發見되었다. 裁判을通해안멘손은 타스通信特派員의責任者 빅톨·아니시모프와 스토크홀름의 소련大使館二等書記 비누라토프에게 다음情報을 1946년부터 1951年 사이에 提供했다는 것이立證되었다.

- 1, 스웨덴 海軍의 武裝編成과 準備狀態에 關한 秘密文書의 複寫
 - 2, 全海軍基地의 防備力과 東西海岸의 上陸地點과 防禦地點의 詳細
 - 3, 侵略에 對한 스웨덴 防衛線인 보
- 要塞의 詳細

榮光에의脫出

⑤

文

赫抄譯

△레온·유리스 原作 V

1944년 9월 19일

독일군은 국민을 통제치 않고 점령군에 대한 국민의 저항운동에 공공연하게 동정했다고 덴마크의 경찰관 전원을 구속했다. 저항운동체는 파란한 습격을 감행해서 나치의 文書局을 파괴했다.

저항운동체는 消火器를 생산했고 또 자유 덴마크軍에 들어갈 전사들을 비밀리에 스웨덴으로 보냈다.

그들은 HIPO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켜 그 대원 몇몇을 다른 매국노들과 함께 죽여버렸다.

HIPO와 게슈타포는 맹목적인 보복살인을 자행했다.

그러자 독일인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덴마크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덴마크 전국에 물려들어 식량과 거처를 약탈했다. 덴마크인들은 이 피난민들 앞에 친시하고 등을 돌렸다. 1945년 4월에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고 있었다.

1945년 5월 4일

『덴마크! 덴마크!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13

승리자들! 미군과 자유 덴마크군이 덴마크로 들어왔다. 흐뭇한 일주일이었

다. 그러나 메타와 아야게 한센 부처에게는 이 해방의 주장은 슬픔의 순간이었다. 7년 동안 꽃같이 길러온 카렌을 다시 그의 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카렌은 헤어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슬픔을 주는 자신을 미워하며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한센 부부와 카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과거와 종교)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카렌은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참아낼 수 있도록 자기를 단련했다. 전지를 내겠다는 약속과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을 남기고 14살의 카렌 한센 크레멘트는 전쟁의 逆流를 이룬 유랑민의 물결 속에 뛰어들었다.

14

꿈과 현실 사이에는 무자비한 차이가 있었다. 덴마크를 떠난 첫번 한 달은 악몽의 시간이었다.

카렌은 스웨덴의 어느 수용소와 벨기에의 어느 넓은 저택 등을 전전하다가 불란서 마르세이유에서 몇 마일 떨어진 리옹灣의 라시오파에 있는 난민수용소까지와

있었다. 피난민의 수요는 매일같이 폭설로 늘어갔다. 장소는 좁았고 수용된 자들은 너나없이 죽음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카렌은 프란크, 물러, 힘터, 로젠버그, 슈트라이서, 칼렌브룬너 같은 이들을 이곳에서 처음 알았다.

민족의 말살! 6백만을 상대로 한 죽음! 카렌은 제일 으뜸가는 도살자의 이름은 몇 번이고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헤브라이어를 유창하게 지껄이는 독일인이며 유대민족 말살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이었다. 카렌은 유대인이라는 운명의 문을 열어 보던 날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졌다. 문을 여니 그 안에는 죽음이 있었다. 삼촌, 숙모, 사촌들의 죽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확인되어 갔다.

민족 말살 계획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실행된 것이다.

카렌은 병과 흠주림에 쓰러진 수십만의 사람들, 묘비도 없는 움 속에 장작을 안고 회발유를 덮어 쓴 채 산처럼 높게 쌓인 매마른 시체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카렌은 세손으로 관 무덤 옆에 벌거벗고 무릎을

꿇은 수천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거꾸로 달아났을 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내기하기를 좋아한 프랑즈 바르츠크의 이야기를 들었다.

카렌은 수십만의 유대인이 각처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처단된 갖가지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

카렌은 울기도 하고 뉘을 잃기도 하고 귀신이 붙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잘못 이루는 밤들이 잇달았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도 닥쳐오는 공포 속에서 죽음을 당했을까? 그럼 어디에서 죽었을까? 3백만이 죽었다는 아우슈비츠! 페트레스를 만드는데 쓰일 사람의 머리카락이 쌓인 창고가 있는 아우슈비츠!

카렌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인제 더 들을 수도 더 볼 수도 없었다. 지치고 어지러워 전디어 나가겠다는 의지마저도 말라버렸다. 그러자 막힌대로 막힌 사람의 경우에 왕왕 있듯이 그녀의 길도 다시 위로 트이고 새로운 광명이 그녀를 감쌌다.

그것은 그녀가 웃는 얼굴로 어느 고아의 머리를 만져주고 그 아이가 그녀에게서 큰

애정을 느낀대서부터 시작됐다. 카렌은 어린이들이 바라는 애정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그녀에게로 몰려왔다.

그녀는 15번째의 생일을 라시오파 수용소에서 보냈다. 그녀는 두 가지 희망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체코의 테레시엔스타트에 있는 특별 수용소로가 죽음을 면했으리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강제수용소로 들어간 후에도 비밀리에 독일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이런 희망을 비롯듯이 반 이상의 가족들의 죽음이 확실한 사실로서 그녀 앞에 제시됐다. 어느 날 수십명의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 그들이 도착한 후 카렌은 어린이들을 위해 무용을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라시오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존재가 됐다. 그녀의 명성은 심지어 마르세이유에까지 전해져 그녀는 크리스마스날의 「호도까기·인형」의 공연에 출연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

1945년 크리스마스

한센 부부 옆을 떠나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

스머스는 고통스럽도록 외로웠다. 라시오파의 어린이를 반수가 그녀의 특별출연을 보려고 마르세이유까지 나왔다. 카렌은 어느 때보다도 열을 내어 춤을 췄다. 무용이 끝나자 라시오파에서 반장을 하고 있는 가릴이라는 팔레스타인 말마크의 소녀가 카렌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일렀다. 가릴의 땀은 눈물이 마구 흘러내리고 있었다.

『카렌! 너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닷하우에서 회생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어.』

카렌은 전보다도 더 깊은 슬픔에 빠졌다. 支柱가 되어온 굽힐 줄 모르는 정신도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유태인으로 태어난 운명의 저주가 자기에게 덴마아크를 떠나는 따위의 미친 행동을 시킨거라고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가릴과 의논을 했다.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마저 가만히 기다리고 앉았다가 듣게 된 경우가 무서웠던 것이다.

카렌이 마음을 털어보일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의 친구인 이 팔레스타인 소녀가

릴은, 카렌도 다른 유태인들처럼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한다고 느꼈다. 팔레스타인만이 유태인이 고개를 쳐들고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가릴은 말했다. 그러나 믿음이 깨진 카렌은 자기에게 슬픔만을 가져오고 자기를 덴마아크인 카렌 한센으로만 들어 놓은 유태주의를 영영 포기하려고 했다.

날이 갈수록 한센 부부에게 그들 옆으로 영원히 물아가겠다는 편지를 내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그러자 어느 날 아침 카렌의 숙사로 달려들어온 가릴이 그녀를 거의 끌어다시피해서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가, 라시오파에 새로 온 피난민인 브레너박사를 소개했다.

『하나님!』 소식을 듣자 카렌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브레너박사는 확실히 말했다.

『예전에 아버님을 알고 있었지, 나도 베를린에서 교편을 잡았으니깐. 아버님하고는 편지 왕래도 자주 있었고 회의 때는 만나기도 했지. 아버님하고 테레시엔스타트 수용소에 같이 있었어. 마지막 만났게

전쟁이 끝나는 몇 주일 전이었어.』

15

1주일 후 한센 부부에게서 그녀의 주소를 알려 달라는 통지와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소식을 아는가 하는 내용의 문지가 피난민 가구에서 있었다는 편지가 왔다.

요한 크레멘트나 그를 대신한 누군가가 그런 소식을 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래서 카렌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따로따로 갈라져 있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죽은걸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살아계셨다! 스웨덴, 벨기에, 라시오파의 수용소들에서 보낸 몇 달 동안의 끔찍한 시간들보다 이제 보람있는 것이 되었다. 과거를 찾아내겠다는 용기가 되살아났다.

카렌은 왜 미국의 유태인들이 돈을 내어 라시오파를 유지시키고 있는 까닭을 묻자 가릴은 어깨를 으쓱했다. 『시오니즘(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는 유태인의 민족 운동)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

을 받아 그걸 세째 사람에게 주어 네째 사람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라는 거지 뭐야.」
『손잡고 우릴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니 얼마나 좋아?』 카렌이 말했다.

『우리 원수들도 서로 손잡고 있어.』 하고 가릴이 말했다.

어지간히 통할 만큼 헤브라이語를 배웠을 때 그녀는 예배당으로 가서 피이한의 식과 아주 다른 그곳 사람들의 복장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15세의 소녀 에겐 유태교는 너무도 광막한 바다였다. 이 종교는 복잡한 율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카렌은 다시 성경을 찾았다.

『하늘에서,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웃음 저리가 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양(羊)으로 취급되어 백성 앞으로 끌려가도 살되고, 육복고 힐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비나니 우리를 잊지 마소서.』

또 한 번 길은 혼란으로 통하고 있었다. 신은 왜 6백만이나 당신의 민족을 죽게 했을까? 카렌은 삶의 경원을 삶음으로써만 언젠가는 해답을 얻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라시오마에 수용된 사람들은 유령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가고 싶다는 애타는 갈망을 지니고 있었다.

모사드·아리아 베틀의 공작원들은 유

령 전열에 흠뻑 젖어 유대인 생존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모는 수단을 동원해서 우호군의 국경선 너머로 이끌어내고 있었다.

곧 라시오마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떠

때하게 모여 들었다. 모사드에서는 불법 이민으로 해결의 길을 찾았다. 유럽의 모든 항구에 미국의 유태인이 보내준 돈으로 영해군 봉쇄선을 뚫고 팔레스타인으로 갈 배를 구입하고 수선하는 모사드 공작원들이 퍼졌다. 영국은 해군만이 아니라 각국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까지도 모사드에 대한逆스파이 활동은 부로서 동원했다.

절망적인 사람들을 넘치도록 실은 모사드 아리아 베틀의 초라한 낡은 배들은 팔레스타인으로 향해 떠났다 가는 3마일선에 들어가자 곧 영군에 가로되곤 했다.

다. 피난민들은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의 아트리트에 있는 수용소에 수용됐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카렌도 팔레스타인으로 가겠다는 갈망을 지니게 됐다. 아버지도 응당 팔레스타인으로 옮겨라고 생각한 것이다.

15세밖에 안 됐으면서도 그녀는 밤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탄호를 한 동방의 노래를 부르는 팔마크 그루프에 끌려들었다. 그들은 밤중까지 농을 하고, 허풍을 떨고, 그리곤 「춤, 카렌 춤추!」 하고 외쳤다.

그녀는 반장이 되어 백명의 어린이들을 말고, 모사드의 배가 봉쇄선을 뚫고 팔레스타인으로 데려가는 시간에 대비해서 어린이들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맡았다.

영국의 팔레스타인 입국허용자의 수는 한 달에 1천5백명에 지나지 않았고 게다가 그들은 언제나 싸울 힘이 없는 젊은 이와 어린이들만을 입국시켰다. 남자들은 나이를 많게 보이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물들였지만 그런 피는 의례히 탄로되고 말았다.

카렌이 덴마크를 떠난지 아홉 달이 지난 1946년 4월 어느 날 가릴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다.

『머칠 있으면 아리아 베틀의 배가 한 척 들어오는 데 너희 반도 그 배로 가게 됐어.』

카렌은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찼다.

『배 이름이 뭐야?』

『다비드의 별』 하고 가릴은 대답했다.



◆ 短篇

어떤選擇

崔 姬 淑

1

미아(美雅)는 일년 전에 결혼을 했다. 스물여섯살이 되자 그녀는 낭패해졌다.

몹시 초조한 나머지 일생을 올드미스로 하여 죽을 것만 같았다.

생각만 해도 처량스러운 일이었다. 스물여섯살은 확실히 여성에게 최악의 해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것처럼 뻔뻔스러운 오만불손과 언제까지나 의기양양할 거라는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지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물다섯살 때만 해도 이처럼 비극적은 아니었다. 그렇다. 그녀는 스물여섯살이 되자 자신이 늙은 할망부와 같이 늙어보였고, 말라비틀어진 무우꼭처럼 느껴졌고, 피부는 시들어버린 꽃잎처럼 생겼었다.

이리하여 그녀는 서둘러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

실에 사로잡혔다.

거의 병적으로 그녀는 서둘러왔다.

그렇다고 중매가 전연 없는 것도 아니었다. 좋은 혼사도 있었지만 그녀는 부모들에게 죽어도 그런 남자한테는 시집을 안 가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참말 딱한 노릇이었다. 결혼은 서두르지만 집에서 시키는 중매는 마음에 있어도 할 수 없는 쓰라린 입장.

그녀는 스물다섯살 되던 해 그 젊은 청년과 헤어졌다.

그는 하늘의 왕자 파일러트 중위... 민 규식(閔圭植).

그녀는 그를 열렬히 사랑한 끝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불태웠다.

결혼을 앞두고 비틀어진 그녀 자신이었다.

이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를 놓치지 않는 않았을 것을....

그녀는 처녀가 아니라는 죄의식 때문에 부모들이 성화를 하는, 탐나는 중매결혼도 양심상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생각다 못해 그녀는 어느 날 결혼상담소를 찾아가 간단한 이력서를 제출했다.

물론 거기엔 순결을 강조했고 품행이 우수하다는 걸 먼저 암시했다.

웬만한 남자라면 그녀의 숙임수에 넘어갈 것이라고 어찌

면술직히 어느 정도 상대가 그녀에게 빠질 즈음 과거를 고백해도 무방하리라...:

그리하여 그녀는 백보양보를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았다. 하긴 처참했다. 단신 월남하여 이날 이때 고향으로 학교를 마쳤고, 말단 공무원이라도 되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를 어찌 존경하랴! 게다가 그는 술과 담배는 낭

비라는 이유로 일체 거부였고 데이트 자금도 오백원이 넘을세라 발발 떨어졌다. 세상에 짜제한 미덕의 소유자.

키는 작달막하고 얼굴은 그다지 잘 생긴 편도 못되는 위인...:

민 규식... 그는 지금 어느 재벌의 망내딸과 약혼을 했다고 한다.

현출한 키, 술과 담배는 멋으로... 데이트 자금은 아낌없이 뿌리는 그, 사랑과 고뇌와 인생을... 젊음을 아는 그이. 상종과 크라식과 춤을 출 줄 아는 그이. 하늘의 왕자...:

생긋 웃으면 온몸이 그 웃음에 말려들어 갈 듯하고... 그의 서글서글한 눈길을 그녀에게 깊숙히 담으면 온몸이 녹아나는 듯한 느낌.

허지만 그는 다른 여인과 약혼을 했다.

어이없이 규식을 배신한 자신의 죄를 받는 거라고 위로

를 하지만 미아는 그의 집념에 사로잡혀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하지만 그녀는 타인처럼 살더라도 과거들이 해만 해준다면 결혼하리라 그에게 응락했다.

그녀가 과거를 고백하던 날 현재의 남편 그는 의외로 심각했고 사흘의 여유를 그녀에게 달라고 말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나 이외에 사랑했다는 것을 나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나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가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그 일이 자꾸만 생길날테고 그때는 나도 감당 못해 폭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무엇이 옳을까? 파탄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새파랗게 질려 한숨을 쉬었고 하필이면 파일터트를 사랑했었느냐고 말했다.

『어쩐지 다른 평범한 인간이라면 둘째 문제입니다. 파일터트라면 누구에게나 초인간적인 매력을 줍니다. 하필 그 특별한 왕자를 당신이 사랑했다니 쉽게 잊겠습니까. 일생동안 당신의 가슴엔 그 남자의 환영이 살아있을게 아닙니까? 아아 괴롭군요!』

그는 열병환자처럼 질투에 사로잡혀 돌아갔다.

사흘 동안 미아는 의아심과 기다림에 그를 기다렸다.

어쨌든 다시금 결혼을 위한 수속절차를 한다는 게 귀찮았다.

그가 돌아와 주기를 기다렸다.

그는 돌아왔다.

『사흘을 꼬박 생각했습니다. 과거가 무슨 상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한 아내가 되어 정숙한 현모양처만을 되어준다면...』

그는 장황히 말을 늘어놓고 몇 백번 그 남자를 잊었느냐고 물은 뒤 결혼할 것을 승락했다.

치사한 결혼이지만 그런대로 그가 고마운 생각에 그를 위해 주고 싶었다.

이리하여 불행한 결혼은 끝인하게 된 것이다.

2

그녀의 결혼생활은 참혹했다. 남편은 점차 사흘이 멀다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툭하면 과거를 들추어내어 그녀를 괴롭히기가 일쑤였다.

덜덜어진 남편이요, 후회와 불안과 회의가 미아의 가슴 속을 가득 채웠지만 어쨌든 그녀는 참는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될 수 있는 한 호적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서 생각컨대 이제는 남자에 대한 공포증으로 어디를 가나 남자란 똑같은 동물일거라는 신경쇠약증에 걸려 다른 탈출구를 찾기조차 두려워졌다.

싸움이 잦아졌다. 단칸방의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산산조각이 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이웃들은 그들 부부를

싸움패로 손가락질했다.

미아는 웃음을 잃었다. 살찐 몸도 축이 갔고 피부는 꺼칠꺼칠했다.

그녀는 생의 의의를 잃었다.

이렇던 어느 날 밤을 치우다 미아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였다. 민 규식과 연애시절 둘이 그의 비행기 앞에서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 보았다. 그녀의 생애 속에 이런 시절도 있었던 말인가? 도시 믿어지지 않는 추억이었다.

오늘날의 쓰라린 고통의 자신이 점점 확대되었다.

『아아 미칠 것 같애. 아주 미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고는 사진을 가슴에 붙였다.

멍히 그녀는 실신한 여자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갖가지의 추억이 파노라마하듯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M호텔 나이트클럽. 휘황한 샴벨리어는 조울고, 밴드는 달콤한 음악을 연주하던 아름다웠던 밤, 규식과 미아는 알렉산더 콕테일을 마시면서 세계의 밤속에 측측히 젖어가고 있었다.

『미아, 당신없는 세상은 암흑일거야.』

규식은 미아의 귀에 속삭였다.

『호호 어린애같이...』

미아는 마냥 행복한 도가니 속에 흥분되어 깔깔거렸다. 그것은 또 비오는 고궁 뒷길이었다.

규식은 그녀를 꼭 끌어안고 외쳤다.

『결혼해, 미아 어서 당신이 지어준 밥과 반찬을 먹고 싶어. 미아, 우리 일생을 함께 이처럼 시적인 분위기에서 사는 거야!』

미아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3년 동안 그와 연애를 하느 동안 그녀는 그가 싫증이 나서 전될 수가 없었다. 유일한 희망은 그를 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다른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나다 지금 피끓는 연애에 빠지고 싶었다.

규식의 애무는 시금털털했고 키스도 자극적이지 않았고 똑같은 데이트와 똑같은 그 얼굴은 보기 싫을 정도로 혐증이 났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했었다 뽀족한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늘에 생명을 내건 사나이...

다른 친구들처럼 또 일류회사의 전무나 외과관이나의 학박사정도 쫘의 남자와 결혼한 그녀들처럼 그녀도 되고 싶었다. 세 단 자가용이라도 타고 다녀야 할게 아니냐 말이다.

게다가 규식은 그의 비행기에 미쳐 짝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남자 같았다.

매일 그들의 비행기 애기를 빼놓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은근히 화가 치밀었다. 본능적인 여자의 질투의식이 폭풍
처럼 일어났다.

미아는 어느 날 아침 그에게 절교선언의 편지를 띄웠다.
이유를 모르는 규식은 미아를 안 찾아올리 없었다.

그는 미아의 뺨을 치며 사정없이 때렸다.

『어떤놈팡이가 생긴게지! 이 더러운 갈보같은 년.
순진한 나를 망쳐놓고 나를 버려, 퇴더럽다, 더러워.』

『왜 때려. 양누가 안 생긴 줄 알아. 외교관인걸! 갈
보면 어때. 당선하고는 백만금을 준다 해도 전저리가 나
는걸! 아주 싫어졌단 말야.』

그후 민 규식은 다시는 미아에게 열썬거리는 일이라곤
없었다. 역시 그는 사내다운 신사였다.

따라서 미아는 외교관커녕 규식과 같은 남자조차도
만날 수가 없었다.

미아는 다시 그를 찾고 싶었지만 허영적인 조그마한 자
존심 때문에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미아는 진정 울면서 날을 보냈다. 비행기만 떠도 가슴
이 설적했다. 그리움에 가슴이 덩이 들어 갔다. 그태도
끝내 그녀는 고집세게 민 규식을 찾지 않았다.

잘보내이라던 그의 음성이 생생히 살아서 그를 찾고
싶은 온갖 열망을 멎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규식이 그녀

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수치와 모멸을 또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그때 미아가 규식을 찾지만 했던들 그녀의 운명은
또 달라졌으리라.

나이도 스물여섯, 친구들은 저마다 면사포를 썼다. 미
아는 후딱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 것이다.

미아는 사진을 구멍이 나도록 들여다 보고 또 들여다
본다.

옛날처럼 나이트클럽은 못갈 신세라 할지라도, 일주일
에 한번 극장극경도 못가는 팔자라 할지라도 남편의 학대
만 없어도 살 것 같다.

무의미한 연속.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무시하고 행패와
학대만을 일삼는 남편.

미아는 문득 잃었던 보석을 찾는 양 민 규식을 한번 만
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미아의 가슴은 흔들렸다. 그는 받아줄까? 절코 받아주
지 않으리라.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찌 좋을 때만 있을까?
그도 역시 때때로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 내어 괴롭힐
것이다.

미아는 힘없이 사진을 멀어뜨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
로 현 책갈피에 그 사진을 붙였다.

미아는 고층빌딩 밑을 지나고 상점을 지나고 봄비는 바람에게 시달리고..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전차 매표구 앞에 우두커니 섰다.

3시 십분전. 아직 심분은 남았다.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 그녀의 선택에 의하여 그녀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대체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가? 그녀는 그녀가 서 있는 곳이 중간지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3시가 되면 남편은 종로 5가 창(窓)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민 규식이 종로 1가 세느다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밤새도록 천정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녀는 한 시쯤 나와 여적 길을 방황하고 있었다.

현기증이 일어난다. 전차의 시니칸한 음향이 고막을 꿰뚫는다. 그녀는 갑자기 차들이 지나가는 대로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위험을 느꼈다.

한강으로 남편과 함께 해수욕을 간게 잘못이었다. 실상 꿈자리도 사나와 추호도 그를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허나 웬일인지 남편이 화해조인지 오랫동안 흘러가자는 것이니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규식이의 사진을 본 그날 허술하게 사진을 둔 탓으로 그만 남편에게 발각되었다.

남편은 이를 북북 잡며

『더러운 잡년, 그대 아직도 그놈을 잊지 못해 사진을 끼고 있었구나. 더러운 잘보년 같으니라구...』

얼굴에 상처가 나도록 얻어터졌다. 미아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규식어도 남편과 같이 그녀를 더러운 잘보년이라고 했었다. 그 말은 그녀를 망들게 했다. 남편도 또 그런 말을 하다니... 미아는 기가 막혀 말대꾸도 하지 않았다. 몇날 며칠을...

이미 남편은 더욱 그녀에게서 멀리 있었다.

남편은 좀 미안했던지, 아니면 가려운 생각이 들었던지 철혼 후 세상에 없던 제안을 내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찌감치 백사장을 찾았다.

이 무슨 운명의 회통일까? 보드를 타고 한참 남편과의 불화도 있는 양 즐거움에 차 있을 때다. 한 척의 보오트가 그들 보오트를 슬슬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홀깃 그 보오트로서선이 가던 미아는 놀라서 비명이 일어난다. 간신히 억제했다. 가슴이 격렬히 뛰었다. 무엇인가 홀린 것 같았다.

『규식씨...』

미아는 입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을 꿀꺽 넘겼다. 선그라

스를 쓰고 유유히 혼자 노를 젓고 이쪽을 따라오는 그는 바로 그이, 민 규식이구나 아닌가?

남편은 미아에게 말을 걸려고 얼굴을 돌렸다. 기절할 것같은 미아를 보고 또한 놀랐다.

예감은 있는 법이다. 그는 미아가 보는 쪽에 시선을 돌리고 이번엔 미아보다 남편이 더욱 놀랐다.

그렇다. 바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저놈이다. 자세히 보니 언젠가 본 사진의 인물과 흡사했다.

『바로 저놈이지? 네가 못있는 녀석이 응? 오늘 내 눈앞에서 년놈을 모두 죽여버릴 테다.』

남편은 살기가 나서 정신병자처럼 날뛰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남편은 보오트를 저어 규식에게로 접근했다.

『저 좀 봅시다.』

『이 여잘 아십니까?』

두 개의 보오트가 출렁거렸다.

『안니다. 과거의 저의 연인이었죠.』

그는 냉정히 말했다. 어디까지나 신사적인 그의 태도다.

멀리서 민 규식을 부르는 여성의 음성이 들려왔다.

『미아씨, 정말 보고싶었습니다.』

규식은 남편의 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 같았다. 그는

오기를 부리는 것일까?

순간 어떻게 되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보오트가 흔들리고 위태로운 순간 미아는 남편을 잡았다.

『안 돼요. 여긴 위험해요. 강물 위란 말이예요.』

두 사나이는 모래사장에 섰다. 규식의 이름을 부르던

여인은 좀체 나타나지 않았다. 찔질을 하는 걸까? 아니면

가버린 것일까?

피의 격투가 벌어지려 할 때 미아는 중간에서 외쳤다.

『해결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규식씨는 이제 와서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아나 저런 놈에게서 당신을 뺏는 뽀대들 보여줘야겠

어. 야비한 놈에겐 야비하게 대하는 수밖에 없지.』

미아는 시계를 또 바라보았다. 정각 3시.

『남편은 5가, 민 규식씨는 1가, 둘은 자기 내가 그들

에게 돌아올거라고 자신하고 있을 것이다. 남편은 남편대

로 규식씨는 규식이대로.』

그녀는 이제 하루의 여유를 달라고 두 남성에게 말하

고, 오늘 세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뒤 친정으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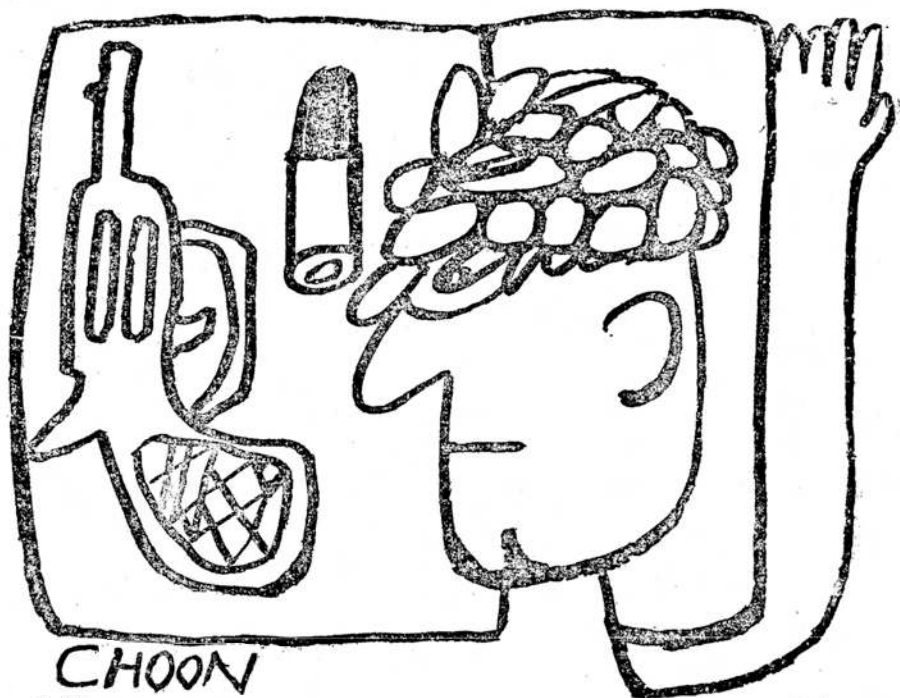
두 남성의 싸움은 이리하여 간신히 모면을 했지만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4시. 그녀는 창다방과 세느다방 앞을 반복한채 어느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두 남자는 결코 그녀의 것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



CHOON

△短篇▽

復讐의 一發

—알렉산드르·세르게예비치·부쉬킨—

曹圭化譯

I

우리는 서로 충을 겨누어 쏘았다.

—바라프킨스끼—

(譯註 ॥ 부쉬킨時代의 詩人의 하나)

나는 결투의 권리에 의해 그를 사살할 것을 서약했다.

(나그 아직 그에게 보복할 일 발을 남겨두고 있었다.)

—露露의 저널—

(譯註 ॥ 作家 베쓰두제프·마를린스끼의 中篇小說)

× × ×

우리는 ○○○촌락에 주둔하고 있었다. 지방사단(地方師團)의 장교생활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아침에는 교련(教練)과 마술(馬術), 주식은 연대장의 숙소나 유채인

의 조그만 음식점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핀치」술에 「카아드」놀이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에는 무도회를 여는 집도 하나 없었고, 나이 찬 처녀도 하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숙소에 모이곤 하였지만, 그곳에서는 우리 자신의 군복을 빼고 나면 볼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군인도 아니면서 우리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약 35세 전후의 남자였는데, 그 때문에 우리는 그를 고참연배(古參年輩)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더 많이 살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느끼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그의 평소의 우울함, 격한 성격, 독설(毒舌)이 젊은 우리들의 마음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무엇인지 모를 인종의 신비(神秘)가 그의 운명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러시아 사람처럼 보였지만, 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연젠가 한때 그는 경기병(輕騎兵)으로 근무했었는데,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근무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가난한 손구석으로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촌에서 그는 궁색하면 서도 돈을 물쓰듯이 하며 살고 있었다. 즉, 일년 내내 다 남아빠진 흑색 「포록코트」를 걸치고, 차도 없이 걸어다니

는 형편에, 우리 연대의 장교들에게는 누구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버릇이 있었다. 실상 식사라고는 하지만, 그의 식사로 말하자면, 비번병(非番兵)이 요리한 두세 접시의 가지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페인」만은 강불처럼 칠칠 넘쳐 흘렀다. 아무도 그의 재산이나 수입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한 아무도 그런 것에 관해 감히 그에게 물어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 대부분이 군대서적(軍隊書籍)이었는데, 그 외에 소설류(小說類)도 몇 권 있었다. 그는 그러한 책들을 즐겨서 남에게 빌려주었지만, 한번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었고, 그 대신 자기가 빌린 책들은 결코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없었다. 그의 주요한 일과(日課)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피스틀」사격 연습이었는데, 그의 방의 벽이라는 벽은 모두가 탄환구멍 천지여서, 마치 벌집 모양으로 온통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 그가 살고 있던 초라한 토담집의 유일한 사치품이라면, 그것은 그가 모아놓은 풍부한 「피스틀」수집이었다. 그의 숨씨는 귀신이 곡할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그 누구의 모자 위에 있는 배(梨)를 쏘아 떨어트리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 연대 내에서는 자기의 머리를 그에게 내어놓기에 주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들 가운데는 자주 결투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갔지만, 「셀리비오」(나는

그를 이렇게 부르겠다)는 한번도 그 대화에 참전하는 일이 없었다. 『결투한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있다』라고 대답하 대답할 뿐, 상세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질문이 그에게는 불유쾌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무서운 솜씨로 인한 어떤 불행한 회생자 때문에,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무엇인가 겁비슷한 것이 있으리라 고는 의심해 본 적도 없었다. 세상에는 단지 그의 외모만 보아도 그러한 의심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우리들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 번은 우리들 상호 열명 정도가 「셀리비오」의 집에서 식사를 한 일이 있었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셨다. 말하자면 굉장히 많이 마셨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주인에게 「카아드」놀이의 물주(物主)가 되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놀음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랫동안 거절하더니, 결국은 「카아드」를 가져오라고 말한 후, 50대 정도의 금화를 테이블 위에 뿌리고는 패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그를 둘러쌌다. 그래서 놀음이 시작되었다. 「셀리비오」는 놀음하는 도중에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는 버릇이 있어서 결코 누구하고 다름하거나 설명을 하는 일

이 없었다. 가끔 같이 놀음하는 도박꾼 중에서 누가 계산을 잘못하여 돈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가 생기면, 그는 즉시 그 모자라는 돈을 지불해 주거나, 혹은 남는 돈을 기록해 놓거나 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바로 열마전에 우리 연대로 전속해 온 장교가 한 사람 있었다. 그도 이 자리에서 같이 놀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좀 잘못해서 필요 없이 「카아드」의 한 귀퉁이를 많이 꺾어 놓았다. (譯註 Ⅱ 카아드 놀음에서 카드의 角을 한번 꺾어) 「셀리비오」는 백묵 놓으면 놀음에 끼는 관혼의 것을 撤減한다.) 「셀리비오」는 백묵을 잡더니 놀 자기가 하는 버릇대로 계산을 맞추어 놓았다. 그 장교는 「셀리비오」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셀리비오」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패를 나누고 있었다. 장교는 참지 못하고 지우개를 잡더니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워버렸다. 「셀리비오」는 백묵을 잡아 다시 써 놓았다. 술과 놀음과 동료들의 웃음소리에 흥분된 장교는, 자기 자신이 극도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난폭하게 책상으로 부터 구리쫂대를 잡자마자 그것을 「셀리비오」에게 집어던졌다. 「셀리비오」는 지우개를 되할 수가 있었다. 우리는 당황했다. 「셀리비오」는 증오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로 벌떡 일어서더니 두 눈을 번뜩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 내가 주기를 바라오. 그리고 이런 일 이내 집에서 일어난 것을 신에게 감사하시오』

우리는 결과는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즉, 이 새로운 친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장교는, 물주 나리님이 원하시는대로 얼마든지 모욕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다고 비꼬는 식으로 한 마디 내뱉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늙음은 몇 분간 더 계속되었지만, 주인이 늙음할 기분이 되어, 잊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차례로 하나씩 늙음을 그만 두고 앞으로 곧 생긴 연대 내의 결원(缺員) (譯註 Ⅱ 「셀리비오」가 決調를 申請해 세 內에 缺員이) (譯註 Ⅲ 「로 온 將校를 射殺하면 연대 생김다는 뜻)에 관해 얘기하면서 제가꿈 자기의 속소로 흠어졌다. 그 다음날 조마장(調馬場)에서 우리는 벌써, 그 가련한 중위(中尉)가 아직도 살아 있는지를 서로 물어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중위 자신이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그는 「셀리비오」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 말에 우리는 놀랐다. 우리는 「셀리비오」의 집에 찾아갔다. 그래서 마당에서 대문에 붙여 놓은 일점(一點)을 향해 한발 한발 탄환을 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어제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며 보통 때처럼 우리를 맞이했다.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중위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 정말 「셀리비오」는 결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하고 우리는 놀라서 서로 물어보았다. 「셀리비오」는 끝내 결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가벼운 설명으로 만족하고는 화해해 버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젊은 청년 장교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떨어질 뻔 하였다.

보통 용기를 인간 최고의 미덕이라고 보며, 그것만 있으면 어떠한 악덕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용기의 결핍을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차차로 잊게 되었고 「셀리비오」도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권위를 되찾게 되었다.

나 혼자만이 아직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날 때부터 르멘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생활이 수수께끼 같아서 그 어떤 신비한 애기의 주인공처럼 생각된 인간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나를 좋아했다. 적어도 나하고 만은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험한 독설을 버리고 허심탄회(虛心坦懷)하고도 보통 때 볼 수 없었던 명량한 기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에 관해서 얘기했다. 그러나 그 불유쾌했던 저녁 이후로는, 그의 명예가 더럽혀졌

으나 그것이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설욕(雪辱)될 수가 없었다는 생각—바로 이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와 옛날처럼 사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기조차 쑥스러웠다. 그렇지만, 「셀리비오」는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 이유를 추측하지 못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현명했으며 세상 경향이 풍부했다.

그에게는 이것이 괴로운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나는 두번 정도 그가 나에게 변명하고 싶어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기회를 피했기 때문에, 「셀리비오」는 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나는 단지 친구들이 다 같이 있을 때만 그와 만났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우리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도 끊기고 말았다.

수도(首都)에서 살고 있는 무관심한 사람들은 시골이나 작은 도회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것처럼 잘 느낄 수 있는 많은 인상(印象)들에 관해서, 즉 예를 들어서, 우편 물이 도착하는 날을 것처럼 조바심하고 손꼽아 기다린다는 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 연대의 사무실이 항상 장교들로서 꽉 들어찼다. 어떤 자는 돈을 기다리고 어떤 자는 편지를 기다리며, 또 어떤 자는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편물이 보통 그곳에서 개봉되었고, 또 뉴욕스가 알려졌기 때문에, 사무실은 가장 활기떠운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셀리비오」는 우리 연대의 주소로 보내진 편지들을 받고 있었으므로, 보통 그곳에 나타나곤 했다. 한번은 그에게 한 통의 봉함편지(封緘便紙)가 왔다. 그런데 그는 그 언제 보나도 아주 성급한 태도로써 그 편지의 봉인(封印)을 뜯었다. 편지를 급히 훑어 내려가면서 그의 두 눈은 번쩍이며 빛을 내고 있었다. 장교들은 제각기 자기의 편지에 바빠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러분』하고 「셀리비오」는 그들을 향해서 말했다. 『나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곧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밤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집에서 식사라도 같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기다리지요』하며 그는 나를 향해서 말을 이었다. 『꼭 기다리겠소』 이런 말과 함께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우리들은 「셀리비오」의 집에서 모이기로 합의를 본 다음, 각자의 방향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내가 지정된 시간에 「셀리비오」의 집에 와 보니 그의 집에는 연대 내의 사람 거의 모두가 와 있었다. 그의 가족(家財)은 벌써 하나도 남김없이 다 꾸러져 있었다. 단지

탄환 때문에 구멍이 뚫린 벽만이 앙상히 남아 있을 뿐이었다. 우리들은 식탁에 앉았다. 주인은 유난히 기분이 좋아 있었으며, 그러한 그의 쾌활한 기분은 곧 좌중(座中) 전부의 기분으로 되었다. 계속해서 병마가 터뜨리는 소리가 연방 평평거렸고, 컵에서는 술 세 없이 거품이 끓어오르며 씩씩 소리를 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길떠나는 사람의 여행에 편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빌었다. 서로 모자를 찾아 집고 있을 때, 「셀리비오」는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나누고 난 후, 나의 손을 잡더니 내가 막 밖으로 나가려는 찰라 나를 붙들어 세웠다. 「당신한테 좀 할 얘기가 있소.」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남았다.

손님들은 모두가 버리고 우리 둘만이 남았다. 그리고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말없이 파이프를 빨기 시작했다. 「셀리비오」는 근심스런 표정에 잠겨 있었다.

이미 경련적(痙攣的)인 그의 명량한 태도같은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둡고 창백한 얼굴과 번쩍번쩍 빛을 내는 두 눈, 그리고 입에서 토해 내는 짙은 연기가 그에게 정말 악마의 형상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몇 분이 흐르고 나서 「셀리비오」는 침묵을 깨뜨렸다. 「아마도 우리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더 만나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소」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작별하기 전에 당신과 애

기를 나누어 해명하고 싶었소.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나는 타인의 의견같은 건 잘 존중하지 않소.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좋기 때문에, 당신의 머리 속에 옮지 못한 인상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이 어쩐지 아주 괴로울 것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는 다 타버린 자기의 파이프에 담배가루를 채워 넣기 시작했다. 나는 두 눈의 시선을 밑으로 떨어뜨린 채, 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내가 그 술취한 밤 미치광이 P○○○에게 결투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이상했을 것이요. 무기를 선택할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의 생명이 나의 수중에 있는 반면, 나의 생명은 저의가 안전하다는 것을 당신도 인정할 거요. 나는 자신의 미온적인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용(寬容)으로 돌릴 수도 있었겠지만, 거짓말 하기는 싫소. 만일 내가 전혀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그 자를 벌(罰)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를 용서하지는 않았을 거요.」

나는 아연(啞然)해서 「셀리비오」를 쳐다보았다. 그의 이러한 고백이 나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셀리비오」는 말을 계속했다.

「바로 그렇소. 나는 내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 빠뜨릴 만

한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소. 6년 전에 나는 따귀를 얻어맞은 적이 있었소. 그렇지만 나의 적(敵)은 아직도 살아 있단 말이오!』

나의 호기심은 몹시 자극을 받았다. 『당신은 그 사나이와 결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본명 무슨 사정』으로 인해 서로들 헤어지신 모양이군요!』

『나는 그 자와 결투를 했소』 하고 『셀리비오』는 대답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결투한 회고담(回顧談)이오!』

『셀리비오』는 별떡 일어서더니 종이상자 속에서 금슬과 전사(絹絲)줄이 달린 모자(불란서 사람들이 Bonnet de police / 경찰모)라고 부르는 모자(모자)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머리 위에 썼다. 그 모자는 이마로부터 한 치쯤 되는 곳에 종알구멍이 뚫려 있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셀리비오』는 말을 이었다.

『나는 ○○○기병연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소. 나의 성격은 당신도 알다시피 무엇이든지 일들을 하는 습성이 있었소. 그렇지만, 이것은 젊었을 때부터의 나의 정열이었던 거죠. 우리 때에는 난폭(亂暴)이 아주 유행이었소. 그리고 나는 부대에서 제일가는 난폭자였소. 우리들은 술 많이 먹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요. 나는 「제니스·다비도프」(譯註 ㉠ 卽 19세기時代의 二流詩人으로 軍隊生活과 노래나 歡樂을謳歌했음(1774~1830))에게 찬

미까지 받았던 호남아(好男兒), 「부르쾅프」를 술로 췌는 일도 있었거든요. 우리 연대에서는 그치지 않고 결투사건이 잇달아 발생했소. 나는 어느 결투에든 입회인(立會人)이나, 결투 당사자로서 참석했소. 친구들은 나를 숭배했지만, 설 새 없이 교체되고 있었던 연대장들은 나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골치덩어리로 보았지요. 내가 안심하고(혹은 내심 불안하게) 나의 명성을 즐기고 있을 그 즈음에, 돈 많고 가문(家門)이 좋은 한 청년이(그의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소)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임해 왔소. 세상에 태어난 이래 그만큼 눈이 부실 정도로 윤이 좋은 행운아는 한 번도 만나 본 일이 없었소! 젊고 재주가 있고 미남이며 더할 수 없이 쾌활한 태도와 물불을 모르는 용기를 지닌 데다가, 명성이 드높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애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그에게서 돈이 떨어져 본 일이 없는 사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리고 그 사나이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끼쳐야만 했던가를 생각해 보시오. 나의 왕좌(王座)는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나의 명성에 마음이 끌린 그는 나에게 친교(親交)를 요청하려고 했소. 그렇지만, 내가 그를 냉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지요. 나는 그 자를 증오하게 되었소. 그 자가 연대 내에서, 그리고 여자들 사이

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사실이 나를 완전히 절망 속에 끌어넣고 말았지요. 그래서 나는 그 자와 다름만한 트집을 찾기 시작했지만, 나의 비꼬아 던지는 말에 대해서 그 자도 비꼬는 투의 말로 응수했지요. 그런데 내게는 그 자의 말들이 항상 나의 말보다는 더 기상천외적(奇想天外的)이고 또 신랄(辛辣)한 것처럼 생각되었고, 또 그 말들은 물론 비꼬도 못한 만큼 쾌활했던 것이지요. 즉, 말하자면 그 쪽에서 농담을 하는데 대해, 내 쪽에서는 화를 냈던 거죠. 드디어 한번은 「폴란드」인 지주(波蘭人地主)의 집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그 자가 모든 귀부인의, 특히 나와 관계가 있었던 그 집 여주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자의 귀에다 대고 보통 있을 수 있는 그런 폭언을 지껄였소. 그랬더니 그 자는 화를 벌컥 내고는 나의 뺨을 후려갈기질 않겠소. 우리는 「사벨」(註譯 騎兵將校가 차고 다니는 기다란 軍刀를 말함.) 쪽으로 달려갔고 귀부인들은 기절 초풍을 했지요. 사람들이 우리 둘을 떼어 놓기는 했지만, 그날 밤 우리 둘은 결투를 하러 갔소.

그것은 새벽이었소. 나는 나의 세 사람의 임회인과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있었소.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초조감 속에서 나는 나의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소. 봄철의 해는 떠올랐고 벌써 열기운이 돌기 시작했소. 나는 멀리서부터 그를 보았소. 군복차림에다가 「사벨」을 찬 그가

한 사람의 임회인을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소. 그는 버찌(譯註 벗나무 열매)를 가득 담은 군모(軍帽)를 손에 든 채, 가까이 오고 있었소. 임회인들이 우리들에게 12보의 거리를 재어 주었소. 내가 먼저 총을 쏘아야만 했소. 그러나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원한으로 격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손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소. 그래서 마음이 냉정해질만한 시간을 갖기 위해 나는 사격의 선수(先手)를 그에게 양보했지만,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소. 거기서 우리 둘은 제비를 뽑기로 결정했소. 선수(先手)는 행운의 영원한 연인(戀人)인 그에게로 돌아갔죠. 그는 내게 총을 겨누었소. 그리고는 나의 군도를 꿰뚫어 버렸소. 내 차폐가 되었소.

드디어 그의 생명이 나의 수중에 들어왔던 거지요. 나는 단지 불안의 그림자같은 것만이라도 그의 얼굴에서 잡아보려고 노력하며 그를 꿰어지라고 노력보았소. 그렇지만, 그는 군도 속에서 익은 버찌들을 골라내서는 입으로 그 씨들을 뱉어 버리며 「피스톨」앞에서 있었는 데, 그 버찌씨가 내가 있는 곳까지 날라 왔지요. 그의 이러한 냉담한 태도는 나를 격분시키고 말았소. 그 자가 전혀 자기의 목숨을 아까와하지 않을 때, 그것을 빼앗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나는 생각해 보았소. 악의에 찬 생각이 나의 머리 속을 번쩍스치고 지나갔소. 나는 「피스

틀」을 내리고 말았소. 『자네는 지금 죽을같은 것에는 전혀 염두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군.』 하고 나는 그자에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아침밥을 들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자네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네.』 『아니, 조금도 방해될 것은 없네.』 하고 그는 말을 되받았소. 『어서 쏘기나 하게, 그것도 자네 마음내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자네에게는 아직도 쓸 수 있는 한 밤이 남아 있으니. 나는 언제고 자네의 용무에 응해줄 용의가 있네.』 그래서 나는 오늘은 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는 곧 입회인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았소. 이것으로써 결투는 끝난 것이요.

나는 퇴역을 하고 이 촌구석으로 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하루도 복수를 생각지 않고 보낸 날이 없었소. 그런데 이제야 그때가 찾아온 것이요.....

『셀리비오』는 아침에 받은 편지를 포키트에서 꺼내서는 나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다. 모인물(某人物)이 머지않아 곧 젊고 아름다운 처녀와 정식 결혼을 하게 되어 있다고 어떤 사람(아마 그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사람 같았다)이 『모스크바』로부터 그에게 써 보내온 것이었다.

『당신에게는 이 모인물이 누구라는 것이 짐작이 갈까요.』 하고 『셀리비오』는 말했다. 『나는 「모스크바」로 갑니다. 그 자가 언젠가 옛날에 버찌를 먹으며 죽음을 기다렸

던 것처럼, 결혼식을 앞에 두고서도 마찬가지로 냉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말을 하고 나자, 『셀리비오』는 벌써 일어서더니 마루 바닥에 다 자기의 군도를 집어 던졌다. 그리고는 마치 호랑이가 우리 속을 뱅돌 듯이 자기의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상하고도 모순된 감정이 나를 흥분시켰다.

하인이 들어와서 말들이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셀리비오』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키스를 나누었다. 『셀리비오』는 두 개의 트렁크가 실린 마차를 올라탔다. 그것들은, 하나는 「피스틀」들이, 또 하나는 그의 가재도구(家財道具)들이 들어 있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말들은 내달기 시작했다.

II

몇년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가정사정 때문에, H○○○(군(郡))의 가난한 농촌으로 이주해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농사에 종사하면서도 지난 날의 떠돌이하고도 근심없었던 자신의 생활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리워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일 괴로웠던 것은, 전혀

고루 속에서 봄철과 가을철의 저녁을 보내는 데에 익숙해지는 일이었다. 점심 때까지는 시골 노인장들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혹은 일거리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새로운 시설을 보러 다니다는가 해서, 그래도 이력저력 어떻게 시간을 메꿀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남편 저물기 시작하면 나는 전혀 어디에나 몸을 두어야 할지를 몰랐다. 책상이나 광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몇 권 안 되는 책들은 하도 읽어서 이제는 모두들 희히 읽기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집의 우두머리 하녀, 「끼릴로브나」가 머리 속에나 기억할 수 있었던 고작 몇 가지 안 되는 얘기를 모두는 하도 여러번 들어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시골 아낙네들의 노래소리는 나에게 우수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단맛이 없는 과실주에 손을 대볼까도 했지만, 그것을 먹으면 머리가 아팠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의 피로움을 못이겨 술을 퍼먹는 화물이 술꾼, 즉 고주방백술꾼이 될까 보아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그러한 예를 허다하게 우리 군(郡)에서 보았던 것이다. 내 근처에는 가까운 사람이라곤 고작 두 세명의 술꾼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 자들이 하는 말은 그 대부분이 시종 말 꼭질과 한숨으로 끝날 뿐이었다. 그 보다는 오히려 고독한 쪽이 더 참을 수가 있었다.

내가 있는 데에서 4 베르스트(譯註 里數, 露里, 1露里 3, 5

00) 되는 곳에 E○○○백작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유한 영지(領地)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단지 관리인만이 살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나는 결혼하던 첫째에 백작부인이 꼭 한번 자기의 영지를 들린 일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한달도 채 그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다. 그전 그렇고, 여하튼 내가 은퇴생활을 하면서부터 2년째 되던 봄에, 백작부인이 남편과 함께 한 여름을 보내려고 자기의 영지인 그 촌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과연 그들 부처는 6월 초에 그곳에 도착했다.

부유한 이웃사람의 도착은, 시골에 사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지주들이나 그들의 하인들은 두 달이나 전부터, 또 3년 뒤에까지 그것에 관해 얘기를 했던 것이다. 나로 말하더라도,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젊고 아름다운 이웃에 사는 여인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에 마음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보고 싶은 조바심에 마음을 태웠다. 그래서 그녀가 도착하고서 첫번째 일요일이 되던 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또한 가장 겸손한 충복으로서 백작부처에게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끝내고는 ○○○마을로 떠났다.

하인은 나를 백작의 서재로 안내한 다음, 자기는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려 가버렸다. 드넓은 서재는 온갖 사치(奢侈)로써 꾸며져 있었다. 사방벽 둘레에는 책들로 가득 찬 책장들이 놓여 있었고, 그 책장들 위에 마다 동(銅)으로 만든 흉상(胸像)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대리석 벽난로 위에는 폭이 넓은 거울이 걸려 있었으며, 마루바닥은 초록색 나사(羅紗)가 깔려 있는 위에 융단으로 싸 덮여 있었다.

나의 가난한 집구석에서 사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벌써 오랫동안 타인의 부(富)를 보지 못했던 나는, 기가 질러 가지고는 마치, 시골에서 온 청원인(請願人)이 장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종의 가슴의 동요를 느끼며 백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면서, 나이가 설흔들 뜰된 미모의 남자가 한 사람 들어왔다. 백작은 탁터 놓은 친절한 얼굴을 한 채,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용기를 내려고 애를 쓰며 자기 소개를 하려고 했지만, 그가 먼저 자기를 소개해 버렸다. 우리들은 자리에 앉았다. 그의 자연스럽고도 상냥한 말투는 금방, 남의 앞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나의 수줍음을 없애주었다.

그런데, 이제 는 내가 이미 여느때의 태도로 돌아가지 시작했을 때, 갑자기 백작부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전보다도 더 당황하게 되었다. 사실 그녀는 미인이었다. 백작은 나를 소개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자연스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한수룩, 오히려 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더 거북하게 느꼈다. 두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새로 사귀게 된 지인(知人)에 친숙해 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나를 아주 절친한 이웃사람처럼 별로에의 격식을 차리지 않고 대화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책들과 그림들을 훑어보며 망가운대를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 같은 것에 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한 장의 그림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 그림은 「스위스」의 어떤 풍경을 묘사하여 놓은 데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을 놀라게 한 것은 그림 그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한 발을 쓰고 다시 한 발을 쓰든 두 발의 탄환으로 인해, 두 개의 총알무덤이 거의 겹치다시피 해서 뿔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였다. 『이전 정말 훌륭한 사격술이군요.』 하고 나는 백작 쪽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덧붙여 물었다. 『아주 놀랄만한 사격술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총을 잘 쓰십니까?』 『상당히 합니다.』 하고 나는 대화가 드디어 나한테 가까워진 곳에 이르러진 것을 기뻐하며 대답했다. 30보 떨어진 곳에서 카아드를 쏘는 데에 실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손에 잘 익은 피스톨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야요?」백작부인은 아주 조심성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은 30 보나 떨어진 곳에서 카아드를 명중시킨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한번」 하고 백작은 대답했다. 우리 시험해 봅시다. 그래도 한창 때는 그리 못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피스톨을 손에 안 잡은 지가 벌써 4 년이나 되었으니」 「아아」 하며 나는 말을 가로챘다.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도 좋겠읍니다만, 자하께서는 20 보 떨어진 곳에서 카아드를 맞히시지 못할 겁니다. 피스톨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우리 연대 내에서 그대도 저는 총을 아주 잘 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손꼽혔지요. 언젠가 한번 저는 꼭 한 달 동안 피스톨을 손에 안 잡았던 적이 있었읍니다. 제 피스톨이 수선 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로 가져왔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자하? 그 이후 처음으로 사격을 해보았을 때, 저는 25 보 떨어진 곳에서 수를 병을 맞았는데 연거푸 네 번이나 실수를 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던 곳에서는 일이 거칠고 익살을 잘 떠는 기병 대위(騎兵大尉)가 하나 있었읍니다. 그 친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읍니까. 『아무래도 자네의 손은 병을 맞힐 생각이 없는 모

양이지』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하,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 연습이라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손이 서리게 되거든요. 제가 만나서 알게 된 사람 가운데 아주 총을 잘 쏘는 명사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매일같이, 적어도 식사 전에 세 번은 사격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한 잔의 위카(譯註 二 호밀이나 옥수수로 만든 러시아의 독한 술) 모양 습관이 되었던 것이지요.』 백작과 백작부인은 내가 흥이 나서 애기에 물두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나 사격을 합니까?』 하고 백작이 나에게 물었다. 『네, 이렇습시다 자하. 그는 파리가 벽에 앉는 것을 본다면 말입니다, 웃고 계시군요, 백작부인? 그렇지만 이전 절대로 정말입니다. 파리를 보면 이렇게 소리쳤읍니다. 『꾸지까, 피스톨!』. 그러면 꾸지까가 탄환을 장전한 피스톨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 땡! 하고 한 발을 쏘아 그는 그 파리를 벽 속에 콕 박아버렸읍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하고 백작은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름이 무엇이었소?』 『셀리비오』라는 사람이었니다. 자하! 『셀리비오!』 백작은 자기의 자리에서 소스라쳐 일어서며 소리질렀다.

『그러면 당신은 「셀리비오」를 알고 있던 말이오?』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님니다 자하. 저는 그 사람하곤 친구

있었으니까요. 그는 우리 연대 내에서 제 친구나 다름없는 내절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소식을 전혀 못들은 지가 벌써 5년이 나 됩니다. 그런데 각하께서

도 역시 그 사람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애기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 그런 일은 없을거요. 한때, 그 사람이 당신한테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사건에 관해 애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무도회에서

어느 난폭자한테 얻어 맞았다는 따귀애기는 아닌지요, 각하? 『그러면 그가 그 난폭자의 이름을 당신한테 애기했소?』 아닙니다, 각하. 애기하지 않았읍니다…… 아! 각하』 하고 나는 사건의 내막을 짐작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잘 몰랐읍니다만 혹시 당신이 아니신지요?……』 『바로 나입니다.』 백작은 아주 안색을 흐리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이 총알 구멍이 난 그림은 우리들이 최후로 만났을 때의 기념입니다……』 『아아, 여보』 하고 백작부인은 말했다. 『제발 그 애긴 하지 마세요. 그 애긴 들으면 저는 무서워져요.』 『안돼』 하고 백작이 반박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애기해야겠소. 이 사람은 내가 자기의 친구를 모욕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니 『셀리비오』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복수했는가를 이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백작은 안락의자를 나에게 권했

다. 그래서 나는 열렬한 호기심에 차 가지고 다음과 같은 애기를 들었다.

『5년 전에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최초의 한달, 나는 이 시골에서 보냈읍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말하면, 이 집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맛보았고, 또 가장 괴로운 회상을 한 가지 갖게 되었던 그런 적이지요.』

어느날 저녁, 우리는 둘이서 같이 말을 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이 무언가 고집을 부리며 애를 먹이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아내는 놀래서 고삐를 내게 넘겨주고 걸어서 집으로 왔읍니다. 나는 앞서서 말을 타고 집으로 향했읍니다. 바깥 뜰에 도착해 보니, 여행용 마차가 한 대 눈에 띄었읍니다. 하인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내 서재에 한 사나이가 앉아 있는데, 그 사나이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려고도 하지 않으며 단지 나에게 용건이 있다고만 말하더라는 것이었읍니다. 나는 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먼지를 뿌옇게 뒤집어 쓰고 턱수염이 자랄대로 자라 턱서부리가 된 사나이를 하나 보았읍니다. 그는 여기 이 벽난로 옆에 서 있었읍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생가해 내려고 애를 쓰며 그 사나이를 바라다 갔읍니다. 『자네 날 물라보겠나, 백작?』 하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읍니다. 『셀리비오!』 나는 외마

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며 갑자기 주눅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맞았네』하며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총을 쏠 차례네. 나는 내 피스톨에 딱 쏘여 있는 탄알을 좀 빨아내려 온거지. 자, 자네 준비는 돼 있겠지?』 그의 피스톨은 옆구리에 붙은 포키프로부터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12보를 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어서 빨리 쏘라고 그에게 부탁하며 저쪽 구석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불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촛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는 다시 한번 그에게 총을 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피스톨을 꺼내어 겨누었습니다. 나는 일초 일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공포의 일분간이 흘렀습니다! 『셀리비오』는 손을 내렸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 말, 이 피스톨에 장전되어 있는 것은 버찌씨가 아니네. 탄환이란 놈은 부겨우니까.』

내게는 언제나 우리가 결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하고 있는 것같은 기분이 들거든. 나는 무기를 찾지 않은 자에게 총을 겨누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네. 우리 새로 시

작함세, 누가 먼저 총을 쏠 것인지 제비를 뽑아보세.』 나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나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 우리들은 또 한 자루의 피스톨에 탄환을 장전했고, 두 개의 종이쪽지를 접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언젠가 내가 총을 쏘아 뿜어 놓은 그 모자 속에다 담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선수(先手)를 뽑았습니다. 『어이, 백작, 자네는 지독하게 운이 좋은 친구군 그래』하고 그는 냉소를 띠우면서 한마디 했지만, 나는 결코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가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나는 총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을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하며 백작은 총알구멍이 난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얼굴은 마치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백작부인은 자기의 손수건보다도 더 창백한 얼굴이 되었다. 나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싶어짐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총을 쏘았습니다.』 하고 백작은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것은 빗맞았던 것이지요. 그때 『셀리비오』는. (그 순간 그는 정말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셀리비오』는 나에게 총을 겨누기 시작했읍니

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마샤」가 뛰어들어 비명을 올리며 나의 목에 매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왔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기운을 되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보」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난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모르는 모양이군? 당신 굉장히 놀랐군 그래! 가서 물이나 한 컵 마시고 이리 오구려, 내 당신한테 옛날 동료였던 친구를 한 사람 소개하지.」 「마샤」는 그래도 아직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정말을 얘기하시는 건지」 하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셀리비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두분들께서 장난하고 계신다는게 정말이야요?』 「이 친구는 언제나 장난을 합니다. 백작부인」 하고 「셀리비오」는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는 장난으로 내 뺨을 쳤고, 장난으로 여기 이 내 도자를 종알로 꿰뚫었으며, 이제 방금도 장난으로 나한테 충을 쏘았지만, 그게 빗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좀 장난이 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나에게 충을 겨누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마샤」는 그의 두 발 밑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일어나, 「마샤」, 창피한 줄도 모르나!』 나는 격분해

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노형, 당신 이제 가련한 아내를 그만 우롱하시는 거겠조? 당신은 쓸 것입니까, 안 쓸 것입니까?』 「그만 두겠네」 하고 「셀리비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만족했네. 나는 아내가 당황해서 갈광질광하는 것을, 그리고 아내가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것을 보았네. 나는 아내가 억지로 나를 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네. 내게는 그걸로 만족이야. 아내는 나라는 사람을 잊을 수는 없을거네. 나는 아내를 아내의 양심에 맡기겠네.」 이렇게 말을 한 그는 밖으로 나가려다 그만 두고 문턱에 멈춰서더니, 내가 쏘아 관동시킨 그림을 힐끗 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겨냥도 하지 않고 한 발을 그 그림에다 광 쏘고는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실신을 한 채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인들 중 누구도 잡히 그들 붙잡아 세우지 못하는가 하면, 모두들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그를 쳐다 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승강기로 나가 마부에게 가져가고 고향을 치고는, 미쳐 내가 제 정신도 들기 전에 떠나버렸습니다.」

백작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언젠가 그 발단(發端)이 것처럼 나를 놀라게 했던 애기의 절말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애기의 주인공과 나는 이상 서로 만나보지를 못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셀리비오」는 「알렉산드르·입셀란제」의 폭동시에 반란군을 지휘했으며, 「스콜랴니」 부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完譯—

△作家紹介△

「알렉산드르·세르게예비치·부쉬킨」(1799~1837)은 러시아가 낳은 최초의 국민詩人이며, 러시아 국민文學의 創始者다. 모스크바 貴族의 家門에서 誕生, 12歲 때 벌써 물리에르를 모방한 프랑스語 脚本을 썼다. 리제이(帝政時代의 特權階級을 爲한 教育機關) 時節, 弱冠 16歲로 詩 「차르스코예·셀로의 追憶」을發表하여, 一世를 轟기하던 詩人 제르자빈을 驚愕케 하여 詩人으로서의 才能을 認定받았다. 20歲 때 長篇叙事詩 「루슬란과 류드밀라」를發表. 이 작품을契機로 로맨티즘이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되었다.

일찍부터 지니고 있던 自由主義思想 때문에 官廳의 迫害를 받아왔다. 이것이 詩人의 一生을 通해 繼續된 悲劇의 端緒였고, 그의 自由로운 成長을 妨害한 原因이었다. 半野蠻의인 社會와의 衝突없는 戰爭 속에서, 그는 韻文小說 「예브게니·오네진」을

비롯하여 「大尉의 딸」, 「차르카스의 捕虜」, 「집씨」, 「벨진의 이야기」等 珠玉같은 無數한 作品들과 抒情詩들을 남겨놓았다. 이 天才도 38歲에 決闘로 죽어 갔다.

부쉬킨은 最初에는 詩人으로서 出發했지만, 그의 圓熟한 리듬은 必然的으로 散文形式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그것은 時代의 要求이기도 했다. 이 「復讐의 一發」은 短篇集 「벨진의 이야기」속의 한 篇이다. 이 短篇集은 故이반·페드로비치·벨진이라는 架空의 人物을 匿名으로 하여 1831년에發表되었다. 作者 부쉬킨의 이름을 밝힌 것은 그로부터 3年後인 1834年の 일이었다. 「復讐의 一發」外에도 「벨진의 이야기」속에는 「驛站저기」, 「葬儀社」, 「눈보라」, 「동굴 아가씨」等 4篇의 短篇이 있다. 그중이 「復讐의 一發」은 아주 재미있는 素材로써 구미전 作品으로, 부쉬킨의 作品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作品中的 하나이다. 그것은 한 侮辱받은 사나이의 괴박한 性格과 작정한 心理를 纖細하게 그려가며, 끝내 멋지게 復讐하는 場面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紙의 말

기쁨의 환호 속에서 너 웃고 나
올년 감격의 그 날! 8월 15일.

그 날부터 21년이 지난 오늘.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들
의 붉게 타 오르는 정열은 내일을
向한 승리의 영광 앞에 용솟음친다.

△김 희 준 記▽

●編輯後記

◇...지루한 장마였다.

軍作戰、建設事業、農作物 갖 가지에
被害가 많았다.

一滴甘雨가 아니라 一滴害雨다.

다 같이 손모아 水害 復舊事業에 힘
을 기울여야겠다. 夏節衛生에 특히
留意하면서....

◇...8月은 空軍 新舊參謀總長 離就任과
參謀次長 就任式이 있던 時期. 新任

張志良參謀總長과 吳占石次長은 創軍

以來 空軍의 發展育成을爲해 獻身하였
고、戰亂期에는 戰鬪飛行團을 指揮하여
敵을 猛打、韓國空軍의 偉力を 萬邦에
誇示한 航空指揮官.

바야흐로 空軍의 보다 더한 飛躍만이
約束되는 此際에 「空軍」誌 또한 面貌
를 가다듬어 劃期的인 刷新에 全力을
傾注하려 한다.

◇...激戰! 3個星期을 끌어온 韓國戰

爭이 砲聲을 넘춘지도 어언 13年....

이제 10代와 20代에게는 이것도 한날

口傳을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을 할뿐、

아득한 얘기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

나 韓國戰爭은 神話도 아니고 남의 애

기도 아니다. 生生한 敎訓이었다. 韓

國戰爭을 6月에 特輯으로 計劃했던 것
이、이제야 活字化되었다. 장병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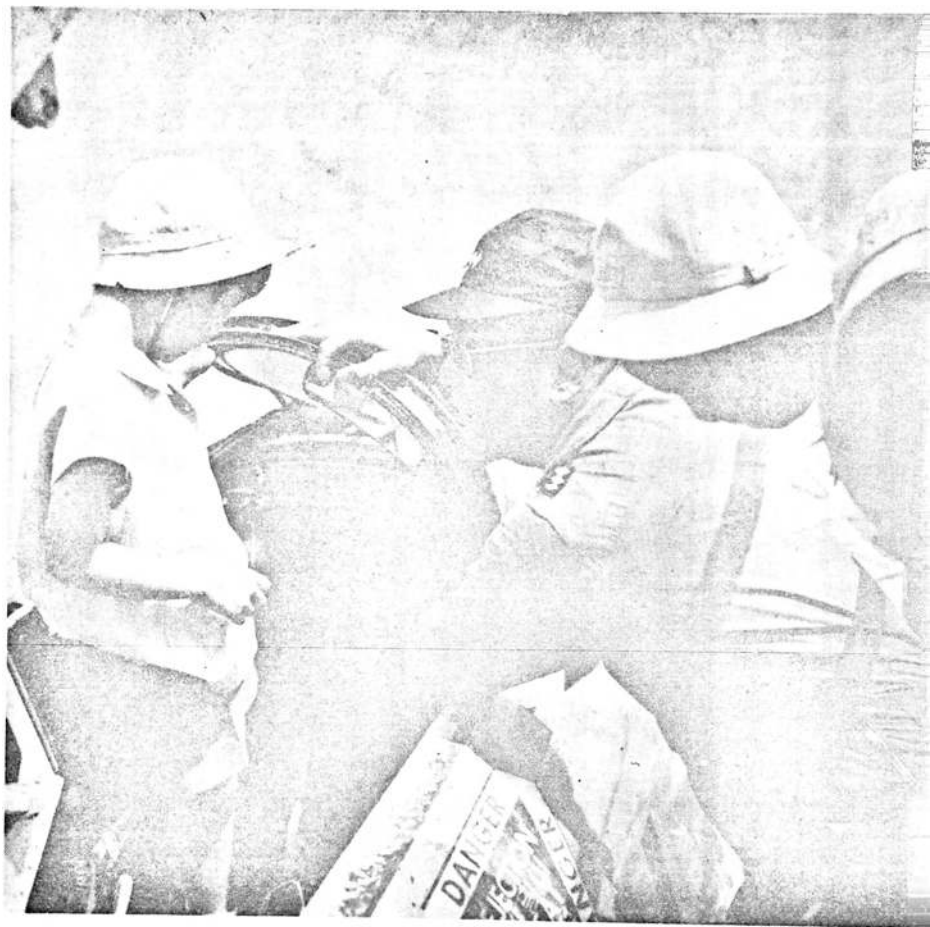
의 一讀을 勸해 본다.

◇...個人이나 國家가 서로 社會生活을 해
나자에 있어 그 利害를 조정하고 그 社
會의 秩序를 維持하기爲하여 定한 規
律이 卽 「法」이라면 「우리 社會에서의
法概念」、「우리 憲法이 질어온 길」 등을
더욱 總得해들도 有益한 것으로 믿어
다루어 보았다.

◇...지난번 空本에서 姜元龍博士、高範瑞
教授와 李連洙將軍 세 분이 자리를 같이
하고 本部 參謀님들이 傍聽하는 가운데
對談을 가진바 있었다.

對談 內容을 紙面의 계약으로 全載
하지 못하고 骨子만을 간추려 아쉬움
이 있지만 多少나 讀者 여러분들의 마
음의 糧食이 되어 준다면 幸이겠다.

△편 집 실▽



◇ 「꼬마」와 「空軍아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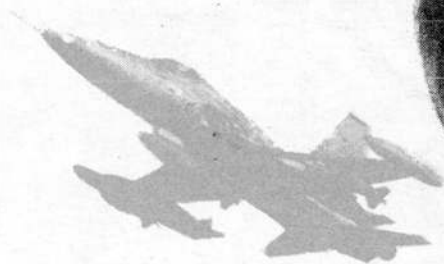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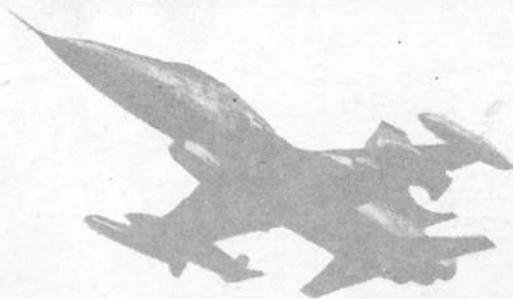
「꼬마」어린이들이 基地見學을 온 날.

제트機 좌석에 올라앉은 꼬마의 童心은 마냥 기쁘기만 하다.

「공군아저씨」들은 고사리 손에 조종간을 쥐어 주며, 복잡한 계기판을 설명해 주고 있다. 꼬마들, 이 다음에 「공군조종사」가 되겠냐고 재깁, 재깁.

우리는 不死鳥 공군

푸른 창공 저 너머 아침 해 뜨면
오늘도 솟구치는 우리 보라매
조국의 부름속에 맹렬히
아름답다 그 이름 대한의 공군
하늘의 우리 영원 전방의 방패



공군